

2020년 제17회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

언어 및 방언 접촉

[일시]

2020년 7월 7일(화)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운영
2020년 7월 8일(수) ~ 7월 9일(목) 온라인 운영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오프라인)
한국방언학회 누리집(온라인)

[주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및 국어문화원
한국방언학회

한국방언학회 2020 전국학술대회

“언어 및 방언 접촉”

주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및 국어문화원, 한국방언학회

- 일 시: 2020년 7월 7일(화)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운영)
7월 8(수)~9일(목) (온라인으로 운영)
- 장 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오프라인) / 한국방언학회 누리집(온라인)

7월 7일(화), 13:00~18:00

시간	발표 및 내용
12:20~12:40	등록
협약 체결식	[사회] 문숙영(서울대)
12:40~13:00	한국방언학회와 제주학연구센터 학술교류 협약 체결 정승철(한국언학회장),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개회	[사회] 문숙영(서울대)
13:00~13:10	개회사 정승철(한국방언학회장)
제1부 기획발표	: 언어 및 방언 접촉 [사회] 김봉국(부산교대)
13:10~13:50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 발표: 이상신(아주대) ◦ 토론: 정인호(대구대)
13:50~14:30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대하여 - 중간 방언과 방언 균일화를 중심으로 - ◦ 발표: 김수영(서울대) ◦ 토론: 김세환(영남대)
14:30~15:10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 발표: 김보향(제주대) ◦ 토론: 문숙영(서울대)
15:10~15:50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에서의 표준어와 방언사용에 대한 연구 (녹화발표) ◦ 발표: 홍미주(경북대) ◦ 토론: 김현(서울대)
15:50~16:10	휴식
제2부 연구발표	[사회]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16:10~16:40	육지 해녀의 언어 속에 잔존하는 제주어 연구 ◦ 발표: 김지숙(경성대)
16:40~17:10	격식적 발화에서 전라남도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방언 변이 양상 ◦ 발표: 김영규(서울대)
17:10~17:20	휴식
시상	[사회] 문숙영(서울대)
17:20~17:30	방언학 학술장려상 시상식
총회	[사회] 문숙영(서울대)
17:30~17:40	총회 및 감사 보고
17:40~17:50	윤리 교육
폐회	[사회] 문숙영(서울대)
17:50~18:00	폐회식

온라인 발표

발표 및 내용
제3부 연구발표
『제주방언성경』의 대역 양상과 특성 -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 ◦ 발표: 신우봉(제주대), 하영우(전주대)
대화 환경에서의 일시적 언어 접촉에 따른 말 조정 양상에 대한 연구 - 경상방언 화자의 서울방언 접촉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 발화를 중심으로 - ◦ 발표: 이철희(경북대), 이재섭(경북대)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 조사 시론: 20대와 50대 한국인 화자 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 최준호(서울대)
제주 방언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 발표: 배영환(제주대), 권미소(제주대)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 발표: 최명옥(서울대)

차 례

【 제1부 기획주제 발표: 언어 및 방언 접촉 】

발표_1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발표: 이상신(아주대)	1
토론: 정인호(대구대)	19

발표_2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대하여

- 중간 방언과 방언 균일화를 중심으로 -

발표: 김수영(서울대)	23
토론: 김세환(영남대)	41

발표_3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발표: 김보향(제주대)	45
토론: 문숙영(서울대)	61

발표_4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에서의 표준어와 방언사용에 대한 연구

발표: 홍미주(경북대)	65
토론: 김현(서울대)	91

【 제2부 개인 연구 발표 】

발표_5

육지 해녀의 언어 속에 잔존하는 제주어 연구

발표: 김지숙(경성대)	97
--------------------	----

발표_6

격식적 발화에서 전라남도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방언 변이 양상:

방송 토론 상황을 사례로

발표: 김영규(서울대)	111
--------------------	-----

【 온라인 발표 】

발표_7

『제주방언 성경』의 대역 양상과 특성

-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

발표: 신우봉(제주대)·하영우(전주대) 129

발표_8

대화 환경에서의 일시적 언어 접촉에 따른 말 조정 양상에 대한 연구

- 경상방언 화자의 서울방언 접촉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 발화를 중심으로 -

발표: 이철희(경북대)·이재섭(경북대) 145

발표_9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 조사 시론:

20대와 50대 한국인 화자 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 최준호(서울대) 163

발표_10

제주 방언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발표: 배영환(제주대)·권미소(제주대) 183

발표_11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발표: 최명옥(서울대) 195

부록

연구윤리 211

【 기획주제 발표: 언어 및 방언 접촉 】

발표_1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발표: 이상신(아주대)

토론: 정인호(대구대)

발표_2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대하여

- 중간 방언과 방언 균일화를 중심으로 -

발표: 김수영(서울대)

토론: 김세환(영남대)

발표_3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발표: 김보향(제주대)

토론: 문숙영(서울대)

발표_4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에서의 표준어와 방언사용에 대한 연구

발표: 홍미주(경북대)

토론: 김현(서울대)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이상신(아주대)

1. 서론

염상섭의 소설 「삼대」의 다음 한 부분으로 1930년대 서울의 언어상을 들여다보자.

(1) “…… 「다다 이마(지금웁니다)」 ……”(『三代』, 『朝鮮日報』 1931.1.4. 6면, 원문 그대로 인용함(이하 같음).), “…… 「나두 이만한술은 먹어요」 경애는 언제들으나 도리어 얄미울만치 허긋이도는일본말로 이런소리를하고 ……”(1931.1.6. 4면)

(1)의 “다다 이마”와 “나두 이만한술은 먹어요” 부분은 카페를 운영하는 “수원녀자”(1931.1.4. 6면) 흥경애의 말이다. 문학 작품은 표준어로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염상섭이니만큼(정승철 2018:111-112), “허긋이도는일본말”로 구사하는 문장과 이 장면의 등장 인물 흥경애, 조덕기, 김병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는 일본어가 공용어나 다름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위 장면의 등장인물 셋, 즉 흥경애, 조덕기, 김병화는 이중언어 사용자였던 것이다.

광복 후 우리의 언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음은 염상섭의 「언어교육론」(『개벽』 1948년 5월호, 개벽사, 김윤진(2016:418-419)에서 재인용)에 기록되어 있는 1948년의 우리말의 한 편린이다.¹⁾

(2)

말한마디 서로 주고바들때보면 朝鮮말, 日本말, 英語가 한데섞겨 뒤범벅이되여 나온다. 그 甚한例를 몇가지參考로 引用한다.

1, “애, 정숙인 이번 니찌요비 갯곤 한다는데 아주 스바라시이 현웃감이만트라”

2, “정숙이가 아바다(곰보)인데도 신랑이 오-케 했다지?”

3, “신랑이 호레루 한게 아니라 정숙이가 호레루 했대”

4, “나루호도 새로운 뉴-스데”

이것은 筆者가 最近에 어떤 女子生들이 假頭에서서 주고받든會話에 一節을 寫生한것이다 또 一例를 引用한다.

“어이 기미기미 가께우동 한턱 내라”

“이자식아 해부노다”

“나두, 썩기네-트다”

“애, 너 곤사이스 에이와지덴 후루혼야애가 파러서 쟈사이 사먹자!”

이것은 十七, 八歲의中學生들이 下宿房에서 하는 對話의 一節을 따온것이다.

* 선행 연구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여 언급하지 못한 주제들이 적지 않다. 후에 보완하겠다.

1) 70년 전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말임에도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지난 5월에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되었던 내용이다. 이를테면, 다음 사이트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2020년 6월 22일 최종 확인).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data&no=1864689&page=1>. 인용문에 나오는 ‘假頭’는 ‘街頭’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위 (2)는 “언어교육을 통한 표준어 확립의 필요성”(김윤진 2016:417)을 부각하기 위해 쓰인 글의 일부이지만, 오늘의 우리로서는 광복 후의 우리말, 특히 어휘 사용의 혼란상을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다. 영어와 러시아어, 특히 일본어에 침식된 지난 세기 우리말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레올은 물론이고 피진도 되지 않았지만 조사와 어미를 빼고는 우리말의 고유한 요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다른 민족이나 나라와 교류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집단도 없다. 이런 교류는 전쟁과 그에 이은 지배와 복속의 불행 속에서도 일어나고 넓은 의미의 상행위 중에서도 일어난다. 우리 겨레는 유사 이래 중국과의 교류가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몽골이나 일본과의 불행한 교류도 있었다. 위의 (2)와 같은 생생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남아 있는 몽골어 차용어로서도 우리말에 끼쳐진 몽골어의 막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일본어로부터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²⁾ 언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본고는 국어에 있었던 언어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를 개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에서의 접촉은 언어 간의 접촉, 방언 간의 접촉, 방언에 대한 우세어의 간섭으로 나눌 수 있다. 접촉에 의한 언어변화를 ‘차용(borrowing)’이라 한 Bloomfield(1933:444-495)는 이것을 문화적 차용(cultural borrowing), 방언차용(dialect borrowing), 밀접차용(intimate borrowing)이라 명명하였는데,³⁾ 본고에서는 접촉을 국어와⁴⁾ 다른 언어의 접촉(2장), 방언 간 접촉(3장), 표준어와 방언의 접촉(4장)으로 나누되, 2장은 접촉의 양상과 이에 따른 변화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 3장은 방언 접촉의 분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4장은 방언에 대한 표준어의 공격과 이에 대한 방언의 반격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⁵⁾

2. 국어와 다른 언어 간의 접촉

한국어가 겪은 주요 언어 간 접촉으로는 중국어와의 접촉, 몽골어와의 접촉, 일본어와의 접촉, 서구 언어와의 접촉을 들 수 있다. 이들 접촉을 통해,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국어 고유의 요소가 적어지고 외래적 요소가 많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우위에 있는 언어들의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국어의 표현력이 풍부해진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타 언어를 쓰는 외부인과 교류를 하던 중에 어떤 종류의 언어적 접촉이 있었는지(2.1.),⁶⁾ 또 그 접촉으로 우리말에 어떤 변화가 야기되

2) 현대 과학수사의 개척자로 불리는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Edmond Locard)는 1920년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Every contact leaves a trace).’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는데, 이는 흔히 로카르의 교환원칙(“Whenever two objects come into contact there is always a transfer of material.”)으로 알려져 있다.

3) ‘문화적 차용, 방언차용, 밀접차용’이라는 번역은 이정민·배영남(1987:139)에 의한 것이다.

4) 크든 작든 국가와 공용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국어’라는 용어가 본고에 꼭 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말”이라는 의미로 ‘국어’와 ‘우리말’을 상황에 따라 혼용하기로 한다.

5) 접촉의 양상과 이에 따른 변화의 구분이 늘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는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화만이 접촉의 실재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방언을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눌 수 있듯이 언어에서의 접촉도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언어나 방언 간의 접촉과 한 지역 내의 사회적 소속이 다른 언어나 방언 간의 접촉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 텐데, 전자에 문화적 차용과 방언차용이 있고 후자에 밀접차용이 있는 것으로 다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접촉의 분류는 접촉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차적이겠으나 이런 분류 및 정리는 이미 이루어져

었는지(2.2.)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접촉의 양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어가 겪은 언어 간 접촉의 대상으로는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서구 언어 정도를 들 수 있고 서구 언어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언어와 국어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그 접촉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를 중심으로 한 타 언어와의 접촉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국어와 타 언어 사이의 접촉의 양상

ㄱ. 국어 전반 / 일부 방언

ㄴ. 일방향 / 양방향

ㄷ. 상층(上層, superstratum) / 저층(底層, substratum)

국어와 타 언어 사이의 접촉은 접촉의 정도나 범위 그리고 방향 등에 따라 위 (3)과 같이 셋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언어 간 접촉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ㄱ)과 같이 우리말 전반에 걸친 접촉과 부분적, 즉 일부 방언과의 접촉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우리말과의 전면적인 접촉은 상상하기 어려우나 우세방언, 즉 중앙어에의 영향을 우리말 전체에의 영향으로 간주하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영어와의 접촉이 여기에 속할 것이나 이 언어들과의 접촉은 우리에게 익숙하므로 여기에서는 타 언어가 우리말의 일부 방언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를 보기로 한다.

(4) 일부 방언에만 영향을 미친 외국어

ㄱ. 여진어: 함경방언 ‘豆滿’ (“萬”), ‘伊板’ (“牛”), ‘羅端’ (“七”), ‘雙介’ (“穴”), ‘童巾’ (“鍾”), ‘幹舍’ (“石”), ‘家舍’·‘愁州’ (“村·鄉”), ‘德’ (“高阜”)⁷)

ㄴ. 러시아어: 함경방언, 구소련의 우리말 방언

ㄷ. 일본어: 제주방언

일부 방언에만 영향을 미친 외국어는, 어휘적 차원이라면, 여러 방언에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나, 위 (4)는 특정 방언에만 영향을 미친 세 경우이다. (4ㄱ)은 중세국어 시기의 함경방언 자료에서 보이는 여진어의 흔적이다. (4ㄴ)의 실례는 함경도와 구소련의 우리말 방언에 보이는 러시아어 차용어를 제시한 King(1996)과 육진방언의 러시아어 차용어를 제시한 곽충구(1998:664-665)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 (4ㄷ)의 예는 무수히 많은데 이른 시기의 조사와 정리로 金完鎭(1957)을 들 수 있다. 金完鎭(1957:112)의 “濟州島는 一種의 Bilinguisme이 猖獗하고 있는 地帶다.”라는 표현을 통해⁹) 제주방언에 미친 일본어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접촉의 양상과 이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펴기로 한다. 차용어 중심의 논의이지만, 국어와 타 언어 간 접촉에 따른 변화 전반에 대한 개관은 沈在箕(1982:35-63), 南豐鉉(1985), 민현식(1997:921-924)을 참고할 수 있다.

7) 출전 등은 하술될 ‘저층’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德’ (“高阜”)이 여진어라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논의도 있다(郭忠求 2001:174).

8) 곽충구(1998:663-665)에는 육진방언에서 쓰이는 중국어 차용어, 여진어와 만주어 차용어도 제시되어 있다.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추정할 수 있다.¹⁰⁾ 위 (4)와 같은 방언권 전반에 걸친 경우가 아니라 어휘에 따라 개별적인 외국어의 영향으로, ‘유채(油菜)’의 일본어 차용어로 ‘하루나’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데 반해 ‘시나나빠’(경주), ‘시나남빠’(삼천포)가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경우와¹¹⁾ 1950년대 후반까지 삼천포에서 “아주, 많이” 정도의 의미로 ‘닥상’이 쓰인 경우를 들 수 있다.¹²⁾ 일본어가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침범하였지만 이들 외국어 단어는 개별적으로 일부 지역의 방언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3ㄴ)의 경우, 우리의 선조들은 타 언어를 쓰는 무리들과의 교류를 통해 언어 접촉이 일어났을 텐데, 중국어와 몽골어 그리고 일본어의 압도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일방적인 수용의 역사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말이 영향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몇 예만 들어 둔다.

(5) 우리말이 차용의 공급원이 된 타 언어¹³⁾

ㄱ. 일본어: tsasi(← 신라어 ‘城叱’, “城”), ki(← 백제어 ‘己·只’, “城”), köföri(← 신라어 ‘ᄃᆫᆫ’), kimi(← 신라어 ‘錦, 今’, “族長, 王”), kisi(← 백제어 ‘吉支’, “君, 王”), mutsu(むつ, “陸奥”)(← 근대국어 ‘물’)

ㄴ. 중국어(毛施), 만주어(mušuri, 高麗夏布), 일본어(musi): ← ‘모시’(“苧”)¹⁴⁾

ㄷ. 중세몽골어(kib): ← ‘깁’(“繪”)

ㄹ. 만주어(homin): ← ‘호믹’(“鉏”)

ㅁ. 만주어(hasaha), 여진어(xažixa, xaža), 골디어·오르코어·올차어·우데헤어·오르촌어(xaž a): ← ‘꺾애(<*꺾개)’(“剪”)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후발에 속했던 우리 선조의 말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위 (5)를 통해 우리말이 차용의 공급원이 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kimchi’(김치), ‘tae kwon do’(태권도), ‘ondol’(온돌) 등의 단어가 실려 있는 것도 넓게 보면 우리말이 끼친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ㄷ)의 언어 간 접촉의 한 양상과 관련된 경우로 상층(上層, superstratum)과 저층(底層, substratum)을 들 수 있다.¹⁵⁾ 상층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백제어를 떠올려 보면,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백제어의 한 편린을 중국의 7세기 자료인 『周書』 『異域傳 百濟

9) 제주말에 있는 일본어 차용어가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리에서 제주말 셋 중 하나는 일본어 차용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서 과장이 좀 있겠거니 했지만, 金完鎭(1957:112)에서 ‘창궐(猖獗)’이라는 표현을 대하고 나니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10) 제주어의 일본어 차용 과정에 대한 한 사례 연구로 金恩希(2004)를 들 수 있다.

11) ‘시나나빠’는 이상신(2018:571-574)을 참고할 수 있다. ‘시나남빠’와 ‘닥상’은 최명옥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자료이다. ‘유채(油菜)’의 차용어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하루나(←はるな(春菜))’가 ‘유채’의 보편적 차용어라 할 수 있다.

12) 이는 일본어 ‘たくさん(沢山)’에서 기원한 것이 확실하다.

13) (5ㄱ)의 ‘tsasi, ki, köföri’는 李基文(1972:37-38,62)에 의한 것이고 ‘kimi, kisi’는 李基文(1982=1991:343-344)에 의한 것이고 ‘mutsu’는 李鍾徹(1996)에 의한 것이다. (ㄴ)은 李基文(2013:66-67)에서, (ㄷ)은 李基文(2012:31-32)에서, (ㄹ)은 李基文(2014:121)에서, (ㅁ)은 李基文(2014:31)에서 가져온 것이다.

14) ‘모시’를 중국어 ‘木絲’로부터의 차용으로 보는 견해(南豐鉉 1985:20)도 있다.

15) ‘상층(上層, superstratum)’은 문화적·군사적으로 우월한 민족의 언어(대개는 정복족의 언어)가 토착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저층(底層, substratum)’은 어떤 언어(가령 정복족의 언어)에 의해서 언어의 치환이 일어났을 경우 그 소멸한 언어를 말한다(李基文 1972:245,248).

條」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여기에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靺吉支 夏言竝王也”라 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언어가 달랐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¹⁶⁾ 지배층은 “夫餘氏”라는 직접적 표현과 백제 건국신화를 통해 부여계 언어를 썼음을 가정할 수 있고 피지배층은 지역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한계 언어를 썼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일본이 백제의 무령왕을 ‘semakisi(嶋王)’라 했다는 『日本書紀』 자료나 ‘王 긔자 왕’이라는 16세기 『千字文(광주판)』 자료를 통해 “於羅瑕”의 소멸과 “靺吉支”의 존속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지배층의 언어, 즉 한계 언어가 지배층의 언어, 즉 부여계 언어로 치환되는 일은 없었고(李基文 1967:74) 따라서 부여계 언어가 끼친 상층(superstratum)으로서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¹⁷⁾

저층의 경우로, 함경도에서 보이는 여진어의 흔적을 들 수 있다(이하 내용은 李基文 1958=1991:189-191, 197-199)에 의지하였음). 윤관(尹瓘)의 여진 정벌과 동북 9성의 개척이 있기 전, 즉 12세기 이전 선주인(先主人)의 언어였던 여진어의 흔적으로, 고유명사(지명)에 『龍飛御天歌』의 ‘豆滿’([투먼], “萬”), 『世宗實錄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의 ‘伊板’ (“牛”), ‘羅端’ (“七”), ‘雙介’ (“穴”), ‘童巾’ (“鍾”), ‘幹舍’ ([위허], “石”)가 남아 있고, 일반명사에 “村·鄉”을 뜻하는 ‘家舍’와 ‘愁州’, “高阜”를 뜻하는 ‘德’이 남아 있을 뿐, 여진어는 함경도에서 그 흔적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소멸하였다.

2.2. 접촉에 따른 변화

언어 간 접촉은 우선 접촉에 따른 변화의 정도에 따라 이중언어 사용, 피진 형성, 크레올 형성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중세국어 이전을 빼고 나면, 우리말은 앞 1장의 「삼대」에서 보았던 일제 치하 정도에서만¹⁸⁾ 이중언어 사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이에 본 절에서는 언어 간 접촉에 따른 변화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의미론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각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몇 가지씩만 들어 보기로 한다. 우선 음운론적 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타 언어와의 접촉에 따른 국어의 음운론적 변화²⁰⁾

ㄱ. 한자음의 변화: ‘必’, ‘赤’, ‘刺’

16) 이를 통해 고대의 부여계 언어와 한계 언어가 달랐음도 추정할 수 있다(李基文 1967:74). 한편, 부여계나 한계나 하면 국어의 형성과 범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나 이는 본고의 범위 밖의 문제이니 여기에서는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17) 다만 『三國史記』(地理志)의 “赤鳥縣本百濟所比浦縣”에서 ‘*supi’(赤(鳥))의 재구가 가능하다면 이는 부여계 언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李基文 1972:38).

18) 본고 (4ㄷ)의 논의에서 언급되었듯이, 제주도가 이중언어 지대라 표현된 바는 있다(金完鎭 1957:112).

19) 우리나라에 ‘Bamboo English’라는 피진이 있었다는 언급(“An English-based pidgin used in Korea,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almost extinct.”)을 Crystal(1987:339)에서 볼 수 있으나, 이 ‘Bamboo English’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형성되었으나 안정적인 피진이라기보다는 피진 전 상태에 있었고 6·25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일부 우리말 단어를 취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와 일본어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한다(Wikipedia의 ‘Bamboo English’ 항목. 2020년 6월 15일 최종 확인. https://en.wikipedia.org/wiki/Bamboo_English). 한편, 주격조사 ‘가’가 일본어 ‘가’에서 차용되었다는 논의를 편 황선엽(2016)에 따르면 피로인(被擄人)이나 왜군 부역자를 중심으로 피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지영(2002:523-524)에서 재인용).

20) 고대국어에 중모음이 적은 상황에서, 고대국어 후기에 유입된 많은 한자 중 介音과 元音으로 구성된 중모음이 우리말에 편입됨으로써 우리말의 중모음이 형성되었다면(郭忠求 1997:396), 또 ‘라디오, 램프, 로봇’ 등과 같은 단어를 받아들여 우리말의 두음법칙이 다소라도 흔들렸다면(南豐鉉 1985:8), 이 역시 언어 간 접촉에 따른 우리말의 음운론적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ㄴ. 한자음의 방언적 차이: ‘食, 息, 飾, 蝕, 色, 墓, 蟄, 恥, 魚’, ‘生, 琬, 瓶, 屏’

ㄷ. ‘f’의 사용

(6ㄱ)은 몽골어 차용과 관련되어 있다. 14세기 이래 몽골어로부터의 차용어가 국어에서 대량으로 쓰이게 됨으로써, 몽골어 표기에 쓰이게 된 위의 한자가 기존의 한자음과는 다른 한자음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 ‘必’, ‘赤’, ‘刺’이 전통적 한자음 ‘필’, ‘적’, ‘랄’에다 ‘비’, ‘치’, ‘라’의 한자음을 새로이 얻게 된 것이다(李基文 1978:23-26).²¹⁾

(ㄴ)은 방언에 따라 한자음이 다른 한자 중 차용 시기에 한자음의 방언적 차이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다. ‘食’과 ‘生’을 예로 들면, 전승한자음이 ‘식’인 ‘食’은 ‘석, 적’의 한자음을 가진 방언이 있고 전승한자음이 ‘생’인 ‘生’은 ‘상, 성, 승’의 한자음을 가진 방언이 있는데, 전자의 방언음은 전승한자음보다 차용의 시기가 이른 데에, 후자의 방언음은 전승한자음보다 차용의 시기가 늦은 데에 기인한다(곽충구 2018:16-22).

언어 간 접촉을 통한 음운론적 변화는 쉬 일어나지 않는다. 접촉에서 생긴 영향이 결국에는 각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에 동화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동화는 언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언어 사용자의 경우에 심하며 이중언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덜한데(李基文 1978:30), 위 (ㄷ)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f’ 발음을 쓰지 않는데, 음소 발견 절차에 의해서는 음소라 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fund’나 ‘financing’ 등에서 [f] 발음을 고수하는 경향을²²⁾ 발견할 수 있다.²³⁾ ‘f’가 음운으로서의 안정된 지위를 차지할 미래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으로서는 이른바 Marginal Phoneme이라 할 수 있다.²⁴⁾

다음으로, 언어 간 접촉으로 인해 국어 형태론의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들기로 한다. 형태론적 변화는 들려고 하면 예를 무수히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조상들이 중국어와 한문 속에 들어 있는 다음절어 단어를 접하면서 이 단어들의 분석과 형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한자어 조어를 생산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²⁵⁾ 일반적인 한자어 조어법을 제외하고 우리말에 형태론적 변화를 야기한 사례 몇을 들기로 한다.

(7) 타 언어와의 접촉에 따른 국어의 형태론적 변화²⁶⁾

ㄱ. 고유명사의 한문식(중국어식) 조어

ㄴ. ‘-的’의 사용

ㄷ. 영어 부사의 사용

21) 1966년판 『漢韓大字典』(民衆書館)에 ‘必’과 ‘赤’의 음으로 ‘비’와 ‘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刺’의 음으로 ‘라’(167면, 수라라)는 제시되어 있다(한자음 ‘라’는 ‘刺’이 아니라 ‘刺’ 항목에 있는데 이 잘못은 池錫永의 『字典釋要』(1909)로부터 시작된 것임(李基文 1978:26)).

22) 우리말 문장 안에 있는 ‘펀드’의 어두를 [f]로 발음한다면, 이는 어느 한 언어를 주축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의 요소를 사이사이에 삽입해 쓰는 현상인 ‘코드 뒤섞기(code mixing)’의 예가 된다(이익섭 1994:304).

23) 외국어 발음이 교양의 척도가 되는 환경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그 발음을 유지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음(Weinreich 1953:26-27, 李基文(1978:30)에서 재인용)을 떠올릴 수 있다.

24) ‘Marginal Phoneme’은 빈도수가 극도로 낮거나 출현 분포가 매우 제한된 음운, 차용어에서만 나타나는 음운 등을 말한다(이진호 2020:3).

25) 한자어 형태론 전반에 대해서는 宋基中(1992:29-84)를 참고할 수 있다.

26) 주격조사 ‘가’가 일본어 ‘が’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황선엽(2016), 이지영(2002:523-524)에서 재인용), 이도 차용에 의한 국어의 형태론적 변화, 특히 차용에 의한 문법 형식 생성의 희귀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ㄱ)은 한자어 조어법의 일환이라 하겠는데, 인명의 경우, 한자와 한문 도입의 후진인 신라의 왕명을 예로 들면, 불교식이기도 한 ‘법흥왕’(法興王, 제23대, 514-540)부터는 중국어식 조어에 의한 것이고,²⁷⁾ 지명의 경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덕왕 757년의 중국식 개명에 의해 중국어식 고유명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ㄴ)의 접사 ‘-적’은 영어의 ‘-tic’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어에서 쓰이던 ‘-的’을 일본 유학 세대들이 쓰던 것에 영향을 받아 개화기 우리 한자어에서 ‘社會的, 國家的’처럼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민현식 1997:922). 단어 차원의 차용을 넘어 접사의 차용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²⁸⁾ (ㄷ)의 경우는 아직은 일부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거부감도 심하여 우리말 형태론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영어권 유학 경험자에게서 ‘totally’와 ‘globally’와 같은 영어 부사를 우리말 문장에 그대로 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영어의 형용사를 어근으로 수용한 뒤 우리말 조어 규칙에 따라 부사어를 만드는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언어 간 접촉으로 인해 국어 통사론의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들기로 한다. 통사론적 변화는 변화 전의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워 확실한 예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어로부터의 영향은 현대일본어의 사전적 기술을 참고로 한 현대국어에 대한 직관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²⁹⁾

(8) 타 언어와의 접촉에 따른 국어의 통사론적 변화

ㄱ. 중국어의 영향: ‘만약(萬若)’, ‘만일(萬一)’의 사용

ㄴ. 일본어의 영향: ‘…에 다름 아니다’, ‘…로 인해’

(8ㄱ)은 중국어가 우리말 통사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말 가정(假定) 표현의 변화가 그것이다. 원래 가정구의 끝에 ‘…으면(…거든)’의 어미를 사용하여 표현하던 우리말 가정 표현이 문두에 ‘若(萬若, 萬一)’을 써서 가정을 표현하는 중국어(漢語)의 영향을 받아 ‘萬若(萬一) …… …으면(…거든)’으로 바뀌게 된 것(南豐鉉 1985:8)을 말한다. 통사론적 변화의 예는 일본어와 관련된 경우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ㄴ)에서는 두 예만 제시하였다.³⁰⁾ 일본어 번역의 영향으로 우리말 문장에 쓰고 있는 두 경우인데,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 ‘…に他(ほか)ならない’에서 온 것으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는 ‘…와 다르지 않다’ 정도로 표현될 것이다. ‘…로 인해’는 전통적인 ‘…를 인해’(“닐굽 고줄 因하야”, 『月印釋譜』 1:4)가 일본어식으로 변한 것이다.³¹⁾

27) ‘왕’이라는 칭호는 ‘지증왕’(智證王, 제22대, 500-514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지증왕은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이란 칭호도 썼다(장세경 2007:304). 한편, ‘지증왕(智證王)’의 ‘지증(智證)’은 한문식 조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智訂麻立干’도 보이고, 지증왕의 휘(諱)로 ‘智大路, 智度路, 智哲老’가 있었고(장세경 2007:304), ‘智’가 불교 관계 명칭에 빈번히 사용된 글자이어서 한자어 표기자인 경우가 많지만 ‘知’와 함께 음독자의 예도 꽤 있기(宋基中 2004:162-163) 때문이다.

28) ‘적(的)’만큼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이 들어갈 자리에 ‘-틱(-tic)’을 쓰는 것(“유아틱, 소녀틱” 등)을 볼 수 있다. 이미 한물간 한때의 유행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영어의 형태론에 익숙해지면서 생긴 한 풍경이라 할 만하다. 외래어 접사, 특히 접두사 목록은 박형익(2000)을 참고할 수 있다.

29) 영어 및 일본어와 관련된 예는 민현식(1999:353-355)를 참고할 수 있다.

30) 모든 문헌자료들을 다 검토하지 않는 한 국어의 내적, 자생적 변화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언어 접촉에 따른 통사론적 변화의 판단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은 아니다.

31) 일본어 ‘-による’에 해당하는데, ‘に’의 대응어로 ‘에’ 대신 ‘으로’가 선택된 것은, 확실히 말할 형편

마지막으로, 언어 간 접촉으로 인해 국어 어휘·의미론의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들기로 한다.

(9) 타 언어와의 접촉에 따른 국어의 어휘·의미론적 변화

ㄱ. 차용어 사용: ‘점심(點心)’

ㄴ. 다중 어휘체계의 사용: 수사의 ‘고유어-한자어’ 이원 체계, 일부 단어의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삼원 체계

ㄷ. 일본어식 관용구의 사용(宋敏 2003:27-28): ‘손이밋지못하다(手が及バヌカラ)’, ‘머리를 숙이다(頭ヲ下ゲル)’ 등

언어 간 접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아마도 어휘의 차용, 즉 차용어 부분일 것이다. 위 (9)는 모두 차용어와 직접·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로서, (ㄱ)과 (ㄴ)은 차용어가 우리 어휘 체계에 변화를 야기한 사례라 할 만하다. (ㄱ)의 ‘점심’은 중국어 기원의 불교 용어가 일상어화한 예 중 하나로(蔡琬 1996:766), 이 ‘점심’의 차용과 일상어화로 우리말의 삼시(三時)는 ‘아침-점심-저녁’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³²⁾ (ㄱ)에서처럼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선원에서, 배고플 때에 조금 먹는 음식을 이르는 말. 마음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나타내기 위해 단어를 차용하기도 하지만, (ㄴ)과 같이 내포만 생각하면 이미 단어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차용하여, 원래의 단어와 차용어가 동의어(유의어)가 되기도 한다. 이로써 어휘의 다원 체계가 야기되고 이에 이어 고유어의 경우에는 기능의 축소, 즉 의미 영역의 축소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변화로도 이어진다.³³⁾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출현 환경이 다르다든지(고영근·구본관 2008:79-81), 고유어보다 한자어에 경어적 뉘앙스가 더 있다든지(‘이:치아’, ‘나이:연세’ 등), 외래어를 고유어보다 무게 있고 우아하며 신선하다고 생각한다든지(임지룡 1992:138-139) 하는 것이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ㄱ)과 (ㄴ)을 통해 차용어가 결과적으로 기존 어휘 체계에 변화를 야기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ㄷ)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猫(ねこ)の手(て)も借(か)りたい)’는 표현을 드라마의 대사나 소설 속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연수의 『밤은 노래한다』(2008, 문학과지성사)에 “고양이 손마저 빌려야 할 만큼 바쁜 농사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날.”(125면). 일본 대중 문화에 얹혀 일본어식 관용구가 우리말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⁴⁾

은 되지 않지만, ‘に’의 우리말로 ‘에’와 ‘으로’가 가능하고 우리말 ‘으로’에 해당하는 일본어로 ‘で’와 ‘に’ 그리고 ‘から’가 가능한 것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32) 고유어일 가능성이 큰 ‘아침’ 및 ‘저녁’과 차용어 ‘점심’은 그 운명이 극적으로 다른데, 하루 중 어느 한때를 가리키던 ‘아침’과 ‘저녁’은 개화기국어에서부터 식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반대로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을 뜻하던 ‘점심’은 현대국어에 이르러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이나 때”도 의미하게 되었으므로(정동경 2013:106-107), 엄밀하게는 개화기 이후 삼시(三時)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점심’이 차용되기 전에는 “中食”에 해당하는 말도, 그리고 그 식사도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방언형 ‘낮밥’(전남)과 19세기의 ‘낮것’(“낮걸 잡수오시고 안녕이 디내오시옵나니잇가”, 『명운공주간찰』)이 “中食”의 고유어 후보로 떠오르나 후자는 “새참”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33) 반대로 차용어가 기존의 동음어에 의해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몽골어 차용어 ‘가탈’의 원래 의미 ‘速步’가 기존의 우리말 단어 ‘가탈’의 의미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조건’에 의해 “불편한 걸음걸이”로 변하게 되었음(李基文 1978:29)을 예로 들 수 있다.

34) 단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교보문고 집계 판매량 상위 30위 전체 소설 도서 중 일본 소설이 9권(30%), 국외 소설 도서 중 14권(47%)을 차지하는 점에서 일본 대중 문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3. 방언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본 장에서는 방언 사이에 일어나는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언 접촉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새로운 방언 형성에 어떤 과정이 개입되어 있는지, 방언 접촉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할 점에 무엇이 있는지 등을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알아보 고자 한다.³⁵⁾

방언 접촉의 유형을 Trudgill(1986)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³⁶⁾

(10) 방언 접촉의 유형(Trudgill 1986)

- ㄱ. 병존(mixing): 접촉하는 방언 특징들이 양립하는 것
- ㄴ. 평준화(levelling): 접촉하는 방언 특징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
- ㄷ. 단순화(simplification): 규칙성을 제고하는 혹은 잉여성을 제거하는 것
- ㄹ. 중간방언 형성(interdialect formation): 접촉하는 방언 특징들의 중간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³⁷⁾
- ㅁ. 재분배(reallocation): 접촉하는 방언 특징들이 사회적 혹은 언어적 기능을 달리하며 양립하는 것

인구어를 대상으로 한 Trudgill(1986)과는 달리 우리말 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한, 방언 간 접촉의 분류는 정승철(2010)에서 충분히 깊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2010)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1) 방언 접촉의 분류(정승철 2010)

- ㄱ. 병존: 접촉 지역에서 인근의 핵방언들이 가진 언어 특징이 수의적으로 함께 출현하는 것
- ㄴ. 편입: 해당 지역에서 신형의 자극을 전격적으로 수용, 자신의 언어 특징을 버리고 다른 핵방언의 언어 특징을 도입하는 유형
- ㄷ. 융합: 접촉 지역에서 인근의 핵방언들이 가진 언어 특징이 섞이거나 바뀌어 새로운 언어 특징을 보이는 유형

(1) 형태의 변경: 기존의 단어가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

- ① 병렬: 공존하는 방언형을 거의 그대로 접촉하여 새로운 어형을 만드는 것
- ② 절단: 공존하는 방언형의 공통적인 부분을 잘라내어 새로운 어형을 만드는 것
- ③ 대체: 공존하는 방언형을 대신하여 전혀 다른 어형을 새로 만들거나 도입하는 것
- ④ 혼효: 공존하는 방언형을 일부 형태를 잘라 접촉하여 새로운 어형을 만드는 것
- ⑤ 변형: 공존하는 방언형 중의 하나의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어형을 만드는 것

35) 본고는 방언 접촉과 그에 따른 변화를 개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방언론과는 거리가 있다. ‘접촉방언론’이란 “접촉하는 A, B 두 방언의 언어현상을 각각 고찰하고 그 두 방언의 접촉으로 형성된 C방언(접촉방언)의 언어현상을 고찰하여 C방언의 언어현상에 나타나는 A, B 두 방언의 간섭(干涉) 내용과 그러한 간섭이 가능했던 언어외적인 요인을 밝히는 방언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최명옥 2015:211-212).

36) 김영규(2019:2-3)에서 재인용하였다. 방언 접촉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도 김영규(2019:1-6)를 참고할 수 있는데, 김영규(2019)는 패러다임과 어휘장의 관점에서 방언 접촉을 재조명하되 인구 유입과 같은 언어외적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37) 중간방언을 “두 방언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 도출된 실현형이 두 방언 어디에서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형태로 나타나는 것”(김유겸 2012:19)으로 보면 ‘중간방언 형성’의 성격이 좀 더 명료해진다.

(2) 의미의 변경: 기존의 단어가 의미 영역을 달리하는 경우, 즉 양쪽 언어 특징의 충돌을 의미 영역의 조정으로 해소하는 것

Trudgill(1986)과 정승철(2010)을 비교하기 위해 두 논의의 용어를 대응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12)	정승철(2010)			Trudgill(1986)
	병존			병존(mixing)
	편입			평준화(levelling)
	융합	형태의 변경	병렬	중간방언 형성 (interdialect formation)
			절단	
			대체	
			혼효	
변형				
의미의 변경			재분배(real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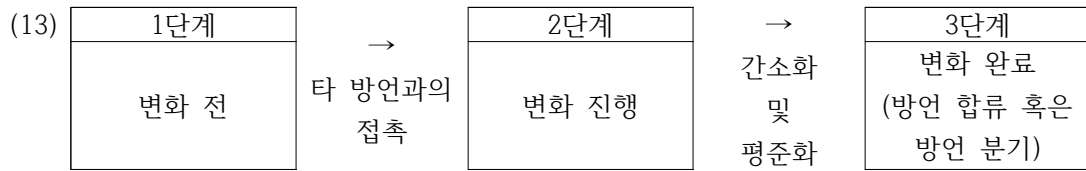
위 (12)의 대응표를 통해, 정승철(2010)에는 Trudgill(1986)의 ‘단순화’에 해당하는 자리가 명확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규칙성을 제고하는 혹은 잉여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정승철(2010)의 ‘절단’이나 ‘대체’와 통하는 면이 있으나 이들이 ‘중간방언 형성’에 속한다는 점 역시 명확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승철(2010)이 단어 중심의 논의인 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승철(2010)은 예를 단어로 들었을 뿐 단어를 전제로 한 분류는 아니다. 혹시 Trudgill(1986)의 ‘단순화’가 “음소 목록이 줄어든다거나, 변칙적 굴절이 소실되는 등의 변화”(김영규 2019:2)를 가리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방언 접촉과 관련한 앞으로의 국어 방언학의 과제 중 하나는 정승철(2010)의 분류를 단어 외의 음운이나 형태·통사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³⁹⁾

위 (10)과 (11)은 방언 접촉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 분류였다. 접촉 이후 새로운 방언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또 다른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일지 모르지만, 정승철(2010:385)은 접촉과 관련한 새로운 방언의 형성을 “‘병존’ → [‘편입’ 혹은 ‘융합’]”으로 정리하였다.⁴⁰⁾ 새로운 방언의 형성을 접촉했던 인근 방언들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도 있다(김유겸 2012:18-21).

38) 방언의 음운론적 접촉을 논의한 김유겸(2012)는 어휘의 접촉에 비해 음운 현상의 접촉은 그 유형이 다양하지 않아서 방언 접촉을 ‘보존(“보수형을 유지”), 병존(“보수형과 개신형의 공존”), 편입(“개신형에 의한 보수형의 제거”), 융합(“보수형과 개신형이 만나 제3의 형태를 생산”)(23면)의 넷으로 나눈 바 있다.

39) 이기갑(2003)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융합형들의 검토를 통해 방언 접촉에서 일어나는 문법 형태들의 변화를 관찰한다든가 金英培(1976), 李秉根·鄭承喆(1989), 김유겸(2012), 김영규(2019) 등과 같이 음운론적, 어휘론적 차원의 방언 접촉 현상에 대해 검토한다든가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물론 이는 李秉根(1969)와 같은, 접촉 방언의 음성과 음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곽충구(2011)와 같은, 방언 접촉과 관련한 음운 현상의 치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0) “방언 접촉은 언어 개신의 전파에서 말미암은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화해 가는 과정이다. 새로 전달된 개신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무질서 속에서 어떤 언어 특징이 자신의 언어 체계에 더 적절한지를 시험한다(병존).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해당 언어 특징의 어느 한 쪽을 채택하거나 [편입] 양쪽을 혼합하여[융합] 자신의 언어 체계를 재정립한다.”(정승철 2010:385).



1단계와 2단계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고, 접촉했던 인근 방언들과의 관계는 3단계의 방언 합류나 방언 분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둘에 대해서만 김유겸(2012:20)의 정의를 제시하면, ‘방언 합류’는 “접촉이 일어난 방언들의 유사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방언 구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방언 분기’는 “접촉이 일어난 방언들의 유사성이 감소되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이전보다 방언 구획이 확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방언 합류’는, 정승철(2010)의 용어 편입과 융합 중 ‘편입’이겠고, ‘방언 분기’는 ‘융합’에 가까울 것이다.⁴¹⁾

방언 간 접촉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할 사항 두어 가지를 제시해 두기로 한다. 첫째, ‘코이네(koine)’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새롭게 형성된 거주 지역)의 해당 집단에서 특정한 여러 개의 방언들이 접촉하면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공통 방언형”(김덕호 2018:192)을 뜻하는 코이네를 중앙아시아 고려말에서 볼 수 있는데, “고려말은 본디 19세기 후기의 함북 육진방언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함경도의 여러 지역어들이 영향을 주고 또 러시아어가 일정한 영향을 끼쳐 형성된 일종의 移住 koine(immigrant koine)의 성격을 지닌 한국어의 한 변종”(곽충구 2009:59-60)이기 때문이다. 위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기는 신도시의 언어 변화상, 특히 방언 형성상을 관찰하는 것도 우리 방언학의 새로운 주제가 될 것이며, 전국의 방언이 방송을 타고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 방언이 점점 섞이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김덕호(2018)에 따르면 ‘코이네’는 ‘신방언(新方言)’ 및 ‘네오방언(neo-dialect)’과 함께 유럽과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방언형(New-dialect) 중 하나로, ‘신방언’이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앞선 세대에서 사용하는 말과 다르고, 현재 언어 사회의 공통어형(표준어형)이라고 하는 형태와도 다르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새롭게 형성된 방언형”(187면)을 말하고, ‘네오방언’이란 “공통어 개신파가 지방으로 이동하여 지역 방언과 접촉하게 되고, 지역 방언의 특성은 다소 유지한 채로 새롭게 형성된 융합 방언형(fudged lect)”(190면)을 말한다.⁴²⁾ 이렇게 보면 ‘코이네’뿐 아니라 ‘신방언’과 ‘네오방언’도 전통 방언학의 쇠퇴 흐름 하에서의 방언학의 새로운 연구 영역 확장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둘째, 훈민정음 창제 초기 문헌에서의 방언 접촉에 대해서 주목하여야 한다. 15세기 훈민정음 문헌의 언어가 함경방언을 쓰는 왕실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최명옥 2019:19-20), 15세기의 문헌어에서는 방언 간 접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함경도에 세거하고 있던 세력이 대거 한양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접촉 방언이 당시의 문헌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최명옥(2019:28-35)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세의 문헌어는 세종의 말인 동북방언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동남방언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언으로 구성된 ‘표준어’였다. 방언 접촉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방언 접촉이라면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

41) 접촉이 일어나면 원래 접촉 당사자 간에 있던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를 상상하기 쉽겠으나, 방언 접촉의 ‘융합’의 경우에는 차이의 증감에 대한 판단이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방언 화자에 따라 다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2) 신방언 연구로 오새내(2007)과 배혜진(2016)이 있고 이철희(2017:22-27)이 네오방언에 대한 연구라 할 여지가 있다(김덕호 2018:189-192).

지만 사회 방언 사이에서도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느껴진다.

4. 표준어와 방언의 접촉

본 장에서는 먼저 표준어가 방언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 뒤, 표준어에 대한 방언의 저항, 나아가 표준어에 미치는 방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⁴³⁾ 쉬 예측할 수 있는 전자는 짧게, 이에 반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항인 후자는 덜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⁴⁴⁾

4.1. 표준어의 방언 장악

표준어는 방언에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화의 힘을 과시한다. 그 힘은 교육과 대중매체라는 양 날개에서 나오는데,⁴⁵⁾ 제주방언은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의해 다른 지역방언과의 접촉이 표준어와의 접촉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여(강정희 1999:91) 방언에 대한 표준어의 영향력을 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주방언의 변화를 다룬 강정희(2002)에서 방언에 대한 교육의 힘을 들여다보기로 한다.⁴⁶⁾

오사카 거주 재일동포 1세 화자들의 ‘ㆍ’ 보존 정도를 조사한 강정희(2002)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층 집단에서는 ‘ㆍ’가 70% 이상 보존되었으나 60대 이하에서는 ‘ㆍ’가 ‘ㅏ, ㅑ, ㅓ, ㅕ’로 변한 경우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1950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하였음에 반해 60대 이하 중년층은 1960년대에 이주하였는데, 이 1950년부터 1960년대초까지 “외부인들과의 접촉 및 학교 교육의 확대, 육지와와의 활발한 교류 등의 사회적인 변화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짐에 따라”(강정희 2002:169) ‘ㆍ’의 급격한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 방언과의 접촉이 매우 미미하였다는 언급(강정희 1999:91)을 상기하면 무엇보다 학교 교육, 즉 표준어의 영향이 제주방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⁴⁷⁾

4.2. 표준어에 대한 방언의 반격

위 4.1. 제주방언의 경우에서처럼, 방언에 대한 표준어의 일방적 영향을 가정하기 쉽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접촉과 변화 및 대응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경우가 떠오른

43) 크게 보면 본고의 3장 끝에서 본 ‘네오방언’도 표준어(중국어)와 방언의 접촉 결과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44) 얼핏 보기에는 표준어와 방언이 공존하는 이중방언 사용(bidialectism)이라는 평화로운 제삼 지대가 가능할 것 같지만, 이도 방언에 대한 표준어의 공격의 한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중방언 사용에는 적절한 코드 바꾸기(code switching)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코드 바꾸기의 조건 자체가 이미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위계를 드러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강윤희(1994)에서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이중방언 사용 양상과 코드 바꾸기의 조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

45)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소멸 과정에서 교육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곽충구 2009:60-61). 우리말로 서의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는 아니지만,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교육의 언어인 러시아어가 표준어나 다름없거나 적어도 우세어(dominant language)일 것이므로 크게 보면 고려말의 소멸에서도 방언 및 언어 소멸에 작용하는 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46) 방송 매체의 방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정리한 오새내(2015:64-71)에서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다. 방언을 “순화”하고자 했던 지난 세기 언론의 모습은 정승철(2018:154-15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7) 학교 교육의 이와 같은 힘은, 최근 방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긍정적인 동력원으로 바뀌어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첫째, 방언을 자기 정체성의 한 근거로 삼아 방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크레올의 경우 크레올 언어권을 둘러싸고 있는 좀 더 넓은 영역의 표준 언어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신들의 크레올이 민족적 정체성의 인식에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크레올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hypercreolization’)가 나타나기도 한다(Crystal 1987:336). 방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쇼비니즘으로 흐르지 않는 선에서 방언에 대한 의미 부여가 적절히 조절되면 방언의 보존과 유지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들은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인데 이러한 태도가 이들이 우리말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박경래 2002:82)가 참고가 된다.⁴⁸⁾

둘째, 표준어가 방언으로부터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표준어의 방언 차용 정도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준어 규정’ 제1부 제23항(“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제24항(“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말 어휘의 표현력이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민현식(1999:309)가 제안한 표준어 선정을 위한 여덟 가지 기준 중 하나인 “방언형을 표준어로 승격하는 데 인색하지 말라.”라는 기준 등이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어라는 용어가 없던 근대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방언 화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표준어:방언’의 양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⁴⁹⁾ 다음의 두 예도 표준어 공약에 성공한 방언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⁰⁾ 첫째, ‘△:△’의 대응과 관련된 예를 들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새삼’과 ‘새삼’, ‘너삼’과 ‘너삼’, ‘두서’와 ‘두서’, ‘한삼’과 ‘한삼’ 중 각각의 전자는 중앙방언형이고 후자는 남부방언형이었는데, 이 남부방언형이 중앙방언에 침투하여 병존하다, ‘두서’를 제외하고는 ‘새삼’과 ‘너삼’ 그리고 ‘한삼’ 즉 남부방언형이 중앙방언에서 살아남게 된다(李基文 1977:34).⁵¹⁾ 이 ‘새삼’ 등이야말로 표준어에 대한 방언의 승리의 한 예로 들기에 모자람이 없다. 둘째, ‘이숫’의 ‘비숫’으로의 교체를 들 수 있다. “山象 이숫 깃어신 눈섭에”(『處容歌』)나 “山楸동새 난 이숫호요이다”(『鄭瓜亭』)나 “依然은 이섯다 호듯한 마리라”(『月印釋譜』序:15)의 ‘이숫’과 ‘이섯’은 ‘비숫’으로 대체되면서 없어졌다. 이 ‘비숫’도 남부방언일 가능성이 크다고⁵²⁾ 보면(李基文 1968:130) ‘이숫’의 ‘비숫’으로의 교체도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의 표준어 혹은 중앙어에 방언이 거둔 작은 승리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8) 오래전 조사·정리 자료이지만, 우리말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는 조준학·박남식·장석진·이정민(1981:188-195)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9) 『訓民正音解例』의 “、一起 | 聲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긔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이나 신경준(申景濬)의 『訓民正音韻解』의 “我東字音 以 · 作中聲者頗多 而 · 則全無 惟方言爲八曰 〇 漏此一節而已”나 유희(柳僖)의 『諺文志』의 “今唯關西之人 呼天不與千同 呼地不與至同”에서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다.

50) 방언 간 접촉의 성격이 클 것이나 표준어(중앙어)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로 제시하였다.

51) 중앙방언에서 ‘두서’형과 ‘두서’형 중 어떤 것이 살아남는지 하는 문제는 어휘에 따라 다른데, 이 생존의 경향성은 사용 빈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성규 2006).

52) 고대국어의 ‘별’과 ‘一利’의 비교(『星山郡本一利郡』, 『三國史記』 권34), 중세국어의 ‘어히-’와 ‘버히-’의 비교, 중세국어의 ‘왜틀-’과 후대의 ‘비틀-’의 비교가 성립하면(박창원 1991:80) 어두 ‘ㅂ:Ø’ 대응의 예 셋을 추가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국어와 타 언어 사이의 접촉(2장), 방언 사이의 접촉(3장),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접촉(4장)으로 나누어 국어에서의 접촉을 훑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와 타 언어 간의 접촉을 살펴본 2장에서는, 첫째, 국어와 타 언어 사이의 접촉의 양상을 접촉의 정도에 따라 국어 전반과 일부 방언으로, 영향의 방향에 따라 일방향과 양방향으로, 우세언어와 토착언어 간의 영향 관계에 따라 상층과 저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둘째, 타 언어와의 접촉에 따른 국어의 변화를 음운론적 변화(한자음의 변화, 한자음의 방언적 차이, ‘f’의 사용), 형태론적 변화(고유명사의 한문식(중국어식) 조어, ‘-的’의 사용, 외국어의 부사로의 사용), 통사론적 변화(중국어의 영향, 일본어의 영향), 어휘·의미론적 변화(차용어 사용, 다중 어휘체계의 사용, 일본어식 관용구의 사용)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방언 사이의 접촉을 살펴본 3장에서는, Trudgill(1986)과 정승철(2010)의 방언 접촉 분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선행 연구에 의지하여 새로운 방언 형성 과정 등을 언급하였다. 표준어와 방언의 접촉을 살펴본 4장에서는, 제주방언 소멸에 교육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간단히 본 뒤, 표준어에 미치는 방언의 반작용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진한 점이 많지만, 연구사에 가깝게 되어 버린 점이 특히 아쉽다. 그것도 필자에게 인상적이었던 선행 연구의 나열이었을 뿐, 외국의 연구 동향에는 눈을 돌릴 충분한 여유가 없었고 특히 3장의 경우 국어의 방언 접촉과 관련된 우리의 주요 선행 연구 업적들을 제시조차 하지 못해 더욱 그렇다. 3장에서 방언 접촉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4장에서 방언의 약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 3장과 4장의 보완이 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강윤희(1994),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濟州島研究』 11, 濟州學會, 83-146.
- 강정희(1999), 「제주 방언 혼성형의 사적 고찰」, 『國語學』 34, 國語學會, 87-108.
- 강정희(2002),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회의 방언 보존에 대한 조사-」, 『國語學』 40, 國語學會, 139-170.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郭忠求(1997), 「音節의 變化」, 『國語史研究』, 太學社, 387-421.
- 곽충구(1998), 「육진방언의 어휘」,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 617-669.
- 郭忠求(2001), 「조선 후기 문헌의 함북방언 어휘」,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163-196.
- 곽충구(2009), 「중앙아시아 고려말 소멸 과정의 한 양상 -50대 고려말 화자의 경우」, 『방언학』 10, 한국방언학회, 57-92.
- 곽충구(2011), 「구개음화 규칙의 전파와 어휘 확산 - 조선족 육진방언의 경우」, 『國語學』 61, 國語學會, 3-40.
- 곽충구(2018), 「漢字語(方言) 속의 特異 漢字音 - 동북방언을 중심으로 -」, 『國語學』 88, 國語學會, 3-32.
- 김덕호(2018),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 『방언학』 27, 한국방언학회, 181-209.
- 김성규(2006), 「‘ㄷ’의 변화의 예외에 대한 해석」, 『우리말 음운 연구의 실제』, 경진문화사, 185-201.
- 김영규(2019),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英培(1976), 「方言 接觸의 한 考察」, 『國語學』 4, 國語學會, 83-91.
- 金完鎭(1957), 「濟州島方言의 日本語語詞 借用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18, 국어국문학회, 112-131.
- 김유겸(2012), 「인제 지역어의 음운론 - 방언 접촉 현상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진(2016), 「해방기 엄흥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405-444.
- 南豐鉉(1985), 「國語 속의 借用語-古代國語에서 近代國語까지-」, 『국어생활』 2, 국어연구소, 6-22.
- 민현식(1997), 「외래어의 차용과 변용」, 『國語史研究』, 太學社, 921-951.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박경래(2002),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59-85.
- 박창원(1991), 「국어 자음군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익(2000), 「국어 사전에서의 외래어 접두사」,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月印, 723-819.
- 배혜진(2016), 「대구 지역의 ‘신방언’ 실현 양상 연구 -‘오→우’ 고모음화를 중심으로-」, 『방언학』 24, 한국방언학회, 129-152.
- 宋基中(1992), 「現代國語 漢字語의 構造」,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5.
- 宋基中(2004), 『古代國語 語彙 表記 漢字의 字別 用例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宋敏(2003), 「開化期の 新生漢字語 研究(3)」, 『語文學論叢』 22, 國民大學校 語文學研究所, 1-34.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오새내(2007), 「20세기 수도권 지역어 연구에서 신방언 개념 도입의 필요성 -방언 평준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165-193.
- 오새내(2015), 「방송 매체와 방언 -한국 방송 매체의 방언 사용에 대한 언어 태도를 중심으로-」,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61-82.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李基文(1958=1991), 「女眞語 地名攷」,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88-200.
- 李基文(1967), 「韓國語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史(上))』,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112.
- 李基文(1968),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4, 白山學會, 101-142.
- 李基文(1972), 『改訂版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李基文(1977),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 李基文(1978), 「語彙 借用에 대한 一考察」, 『언어』 3-1, 한국언어학회, 19-31.
- 李基文(1982=1991), 「百濟語 研究와 관련된 몇 問題」,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334-351.
- 李基文(2012), 「語源 研究의 뒤안길」, 『韓國語研究』 9, 韓國語研究會, 25-111.
- 李基文(2013), 「語源 研究의 뒤안길(2)」, 『韓國語研究』 10, 韓國語研究會, 29-123.
- 李基文(2014), 「語源 研究의 뒤안길(3)」, 『韓國語研究』 11, 韓國語研究會, 21-125.
- 李秉根(1969), 「黃澗地域語의 音韻」,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27-54.
- 李秉根·鄭承喆(1989), 「京畿·忠清 地域의 方言分化」,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45-77.
- 이상신(2018), 「경주 지역어의 일본어 차용어 채소명」, 『宋喆儀先生退任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559-578.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정민·배영남(1987), 『改訂增補版 언어학사전』, 博英社.
- 李鍾徹(1996), 「日本地名에 反映된 韓系語源 [mutsu]에 대하여」,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 論叢』, 신구문화사, 622-643.
- 이지영(2020), 「국어학회 60년과 한국어 문법사」, 『國語學』 93, 國語學會, 509-556.
- 이진호(2020), 「韓國語 破裂音 體系의 言語 類型論的 考察」(ms.), 1-16.
- 이철희(2017), 「대구 지역어의 모음 음운 변화에 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장세경(2007), 『한국 고대 인명사전』, 역락.
- 정동경(2013),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2010), 「방언 접촉과 언어 변화」, 『崔明玉 先生 停年 退任 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369-387.
-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
- 조준학·박남식·장석진·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언어접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연

- 구], 『語學研究』 17-2,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167-197.
- 蔡琬(1996), 「佛教 用語의 日常語化에 대한 考察」,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754-773.
- 최명옥(2015), 「현대국어 3 : 방언학」,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4, 대한민국학술원, 199-227.
- 최명옥(2019), 「중세 이전의 한국어는 성조언어였는가?」, 『國語學』 90, 國語學會, 3-42.
- 황선엽(2016), 「주격조사 ‘가’의 기원에 대하여」, 『제8회 국제역학서학회 학술회의豫稿集』, 국제역학서학회, 283-291.
- 金恩希(2004), 「言語の接触と借用のプロセス - 濟州島での日本語の借用を中心に -」, 『日本語學研究』 10, 韓國日本語學會, 5-19.
- Bloomfield, L.(1933), *Language*, Holt, Rinehart & Winston.
- Crystal, D.(198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ng, R.(1996), 「Russian Loanwords in Hamkyeng and Soviet Korean Dialects」,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939-966.
- Trudgill, P.(1986), *Dialect in Contact*, Basil Blackwell.
-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Mouton Publishers.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토론문

정인호(대구대)

이 발표문은 언어와 방언의 접촉과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잘 정리하고 나아가 발표자의 견해를 적절히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의 말대로 약간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때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제3장에서 Trudgill(1986)과 정승철(2010)의 방언접촉 유형을 대응시켜서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 관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1) Trudgill(1986)에서는 ‘병존’의 개념이 그리 명확하지 않은 듯하며 토론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것도 중간방언(interdialect)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접촉방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것은 언뜻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 즉 A방언과 B방언이 접촉하여 중간방언이 만들어졌을 때 이 중간방언을 A방언이면서 B방언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A방언도 B방언도 아닌 제3의 ‘신방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혹시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Trudgill(1986)과 정승철(2010)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듯하다. 아울러 발표에서는 ‘융합’을 ‘방언 분기’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발표자는 중간방언을 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3) 방언접촉의 유형은 주로 타 방언에 대한 ‘수용(accomodation)’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언급되어 온 느낌이 있다. 그런데 김유겸(2012)에서도 잠깐 비쳤듯이(깊은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타 방언에 대한 ‘거부’(자기 방언의 ‘보존’)와 관련된 양상도 검토가 필요할 듯한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2. 발표문에서는 ‘언어’와 ‘방언’으로 나누어 접촉 양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언어 접촉’과 ‘방언 접촉’의 양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들이 보이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발표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발표문에서 ‘Maginal Phoneme’이 언급되어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한다. ‘f’가 일반적인 음소와 다르기는 하지만 발표자가 어쨌든 이를 음소로 파악한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듯한데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면 고맙겠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한짐[Xa::njim]’의 ‘X’도 ‘Maginal Phoneme’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대하여

- 중간 방언(interdialect)과 방언 균일화(dialect leveling)를 중심으로 -

김수영(서울대)

목차

1. 서론
2. 중간 방언
 - 2.1 ‘뽕-’과 ‘긋-’의 형성
 - 2.2 체언 ‘ㅌ’ 말음 어간의 변화
 - 2.3 ‘낱(面)’의 형성
3. 방언 균일화
 - 3.1 음소 ‘/ㅅ/’, ‘/ㅆ/’의 변별
 - 3.2 용언 어간말 유음 탈락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한국어의 방언접촉 양상에 대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중간 방언(interdialect)’과 ‘방언 균일화(dialect leveling)’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의 방언접촉이란 두 방언이 지리적으로 연속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접하여 접촉하는 현상(방언학 사전 2001: 133, 사회언어학 사전 2012: 78)을 말한다.

중간 방언이란 P.Trudgill(198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방언접촉의 결과 기존의 방언들에 존재하지 않았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서로 다른 방언의 형태들이 공존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접촉하는 방언들의 특질을 섞은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어학 논의에서 방언접촉의 결과로 주로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중간방언의 양상이다. 예를 들어 정승철(2013: 218-224)에서는 두 방언의 형태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병존, 새로운 형태가 생기는 것을 융합이라 하고 이들이 지리적인 접촉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대표적으로는 ‘인두’형을 쓰는 지역과 ‘윤디’형을 쓰는 지역 사이에서 ‘윤두’라는 새로운 방언형이 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중간 방언이라 할 형태를 찾기 위하여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용언의 곡용 및 활용 양상의 방언분포를 살피고, 그로부터 지리적인 접촉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체언 또는 용언 어간을 추려내고자 한다.¹⁾ 그 결과 방언접촉으로 인해 새로운 어간이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고 본 발표문에서는 그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1) 자음 말음 어간을 대상으로 한 까닭은 어간말 자음이 곡용과 활용에서 실현되는 양상이 방언별로 다양하고, 방언접촉 및 방언분화 과정을 살필 때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방언 균일화는 유표적인 소수의 방언형이 사라지고 특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Trudgill 1986: 98). 즉 지리적으로 한정적인, 또는 유표적인 변형들의 감소를 의미한다(Torgersen and Kerswill 2004: 24).²⁾ 국어학 논의에서는 오새내(2006, 2007), 배혜진(2016, 2017) 등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서로 다른 형태들이 경쟁하다가 형태의 수가 감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방언 균일화는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가 사라지는 양상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왜냐하면 방언 균일화는 서로 다른 두 방언의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한 방언이 다른 방언보다 위세 방언일 때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언 균일화는 강한 지역적 색채를 갖거나 틀렸다고 생각되는 언어 형식을 피하고 반대로 세련되거나 교양 있는 언어 형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Watt 200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다룰 수 있는 방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 균일화 양상을 살피는 것은 쉽지 않다.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들이 위세 방언의 영향을 받아 사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랫동안 살아남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언어적 경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언 균일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에 작용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구체적으로는 정체성 및 언어 태도)을 보다 정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으므로, 현 시점에서 《韓國方言資料集》과 《지역어 조사 보고서》의 비교를 통해 ‘방언 균일화’ 양상으로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을 간단히 제시하는 데 그치고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방언 자료는 《韓國方言資料集》(1987-1995, 이하 《자료집》)이지만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3) 및 《지역어 보완조사》(2017-2019)의 자료를(이하 《지역어》) 적극 활용한다. 북한 방언에 대해서는 《咸北方言辭典》(1986), 김영배(1997), 황대화(2006), 최명옥 외(2002), 한성우(2006), 이금화(2007), 오선화(2015) 외 여러 논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중간 방언 양상을, 3장에서는 방언 균일화 양상을 다룬다. 4장은 결론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2. 중간 방언

이 장에서는 ‘중간 방언’이라 볼 수 있는 예들을 다루고자 한다.

2.1 ‘뽕-’ 과 ‘긔-’ 의 형성

방언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살폈을 때 방언접촉의 결과로 ‘ㅎ’ 말음 어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뽕-’(粉), ‘긔-’(劃)이 그 예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어간의 형성 과정에 방언 간 접

2) ‘dialect leveling’의 번역어로 ‘방언 평준화’와 ‘방언 균일화’가 모두 쓰이는데, 이 글에서는 기존의 언어변화 논의에서의 평준화(leveling)와 구분하기 위하여 ‘방언 균일화’라는 번역어를 선택했다. 기존의 ‘평준화(leveling)’란 곧 기저형 또는 형태의 감소를 의미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패러다임 내의 다양한 형태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방언 균일화’에도 이러한 평준화 즉 기저형 또는 형태의 감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평준화로 인해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만이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평준화는 다른 방언과의 접촉이 없이도 언어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방언 균일화는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가 방언 접촉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준화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촉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뺑-’과 ‘긱-’은 중세국어 시기에 ‘븃ㅅ-~븃ㅇ-’(粉)와 ‘그스- ~ 굿ㅇ-’(劃, 牽)으로 특수 어간 교체를 하였다. 이후 ‘븃ㅅ-~븃ㅇ-’는 중부방언을 기준으로 ‘뺑-’과 ‘부수-’라는 두 어형으로 분화하였고 ‘그스-~굿ㅇ-’는 ‘긱-’과 ‘끌-’이라는 두 어형으로 분화하였다.

먼저 ‘뺑-’의 문헌에서의 예를 (1)에, 방언형 및 분포를 (2)와 <지도 1>에 각각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할 ‘뺑-’의 방언분포와 방언분화 과정은 곽충구(1995/1998)를 따랐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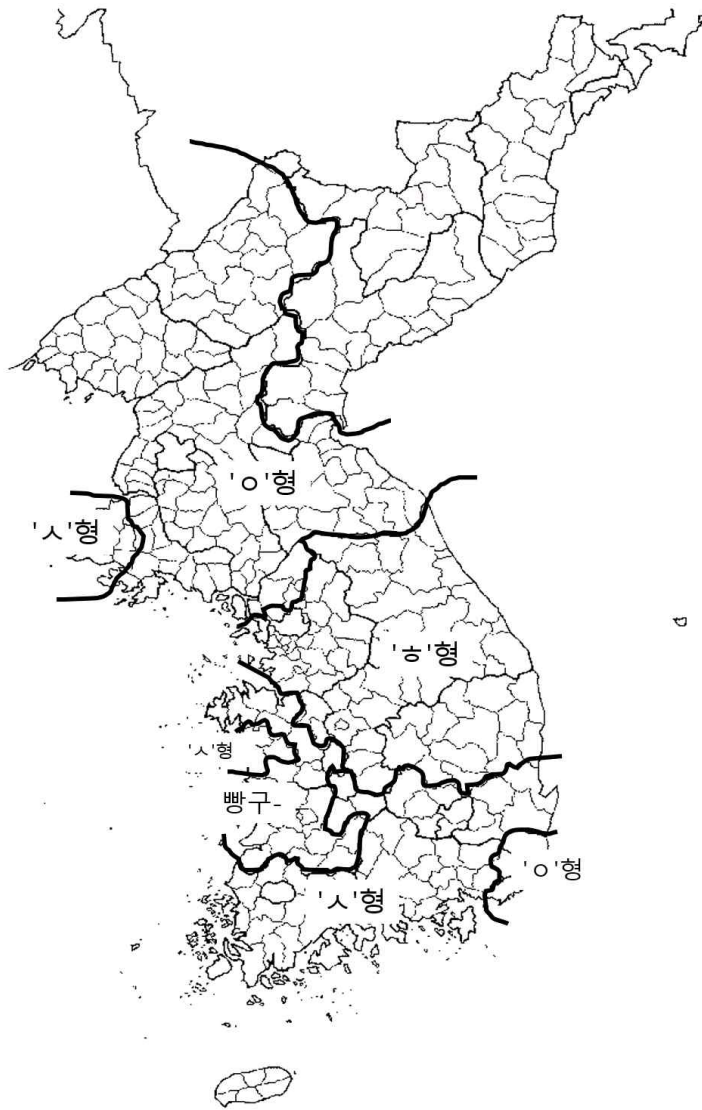
(1)

- ㄱ. 뺑을 븃ㅅ며 모뺑 븃아도 <南明 下:64b>, 삼천을 븃ㅅ니 <金剛 5:16a>
- ㄴ. 디새 븃아디뺑게 뺑호뺑 恨 햃ㅅ니 <南明 下: 32b>, 大黃 햃 分을 사햃라 븃아 <救急 下:19a>

(2)

- ㄱ. 뺑ㅅ-, 뺑ㅅ-, 뺑ㅅ-, 뺑ㅅ-, 뺑ㅅ-: 뺑ㅅ는다, 뺑ㅅ아서 (전남 곡성·구례·화순·승주·광양·강진·장흥·보성·고흥·여천, 경남 거창·산청·의령·하동·진양·사천·남해)
- ㄴ. 뺑수-, 뺑수-, 뺑시-: 뺑순다, 뺑사라 (황해 서부, 전남 영광·장성·담양·함평·광산·신안·무안·나주·영암·완도, 경남 합천·창녕·밀양·함양·함안·의창·김해·통영·거제, 충남 홍성·보령·청양, 경북 영일·고령·청도, 전북 진안·무주, 충북 옥천·영동)
- ㄷ. 뺑-, 햃-, 햃-: 뺑넌다, 뺑사아 (경북 금릉·성주·칠곡·영천·달성·경산, 전남 진도·해남, 제주)
- ㄹ. 바:-, 뺑:- : 뺑:다, 뺑:서 (경기 연천·파주·강화·김포·양주)
- ㅁ. 보:-, 뺑:-, 햃:- : 본:다, 보:구, 햃:서(평안)
- ㅂ. 뺑우-, 뺑우-: 뺑운다, 뺑와서(경남 울주·양산·고성)
- ㅅ. 햃:-: 햃코, 햃:서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천원·연기,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안동·영양·상주·의성·청송·영덕·선산·군위·월성)
- ㅇ. 햃구:-: 햃군다, 햃귀(전북 옥구·익산·완주·김제·부안·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 충남 서산·당진·아산·예산·공주·부여·논산·대덕·서천)

3) 2.1에서 ‘뺑-’과 관련된 부분은 곽충구(1995/1998)에 의존하고 있지만 필자가 이해한 대로 보완하고 수정하였으므로 이 글에서의 잘못된 것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지도 1> ‘ㅁ’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빵-’의 방언분포

위의 (1)에서 확인되듯이 ‘ㅁㅅ-’는 중세국어 시기 자음어미 또는 ‘으/으’ 게 어미 앞에서는 ‘ㅁㅅ-’로, ‘-아/어’ 게 어미 앞에서는 ‘ㅁㅅ-’로 교체된다. 한편 그 의미상 (1ㄱ)은 현대국어의 ‘빵-’에, (1ㄴ)은 ‘부수-’에 가깝다.

곽충구(1995/1998)에서는 ‘빵-’의 이전 시기 어형을 ‘*pʌzʌγ’로 재구하였다. 따라서 이 어간의 방언형은 ‘ㅁ’의 변화, ‘ㅅ’의 변화, ‘γ’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ㅁ’의 변화를 중심으로 방언분포를 살필 것이다.⁴⁾ 이를 기준으로 하여 (2) 및 <지도 1>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⁵⁾

4) ‘ㅁ’의 변화에 따른 방언분포에 대해서는 유창돈(1961), 김형규(1985), 최명옥(1978), 최학근(1988), 백두현(199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함경도에는 ‘빵-’의 방언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경도 방언 화자들은 ‘빵-’ 대신에 ‘갈그 내다’ 또는 ‘땡-(짙-)’을 쓴다(곽충구 1995/1998: 43).

먼저 (2ㄱ)은 두 번째 음절의 말음인 ‘·>ㅁ’, ‘*ㅍ>ㄱ’의 변화를 겪고, ‘△>ㅅ’을 겪은 예이다. ‘뽕송-, 뽕송-’ 또한 ‘*ㅍ’로부터 변화한 예이다. 다음으로 이를 둘러싼 지역에 분포하는 (2ㄴ)은 ‘*ㅍ’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2ㄷ)은 ‘△>ㅅ’을 겪었고, 모음 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어간이 단일화한 것이다. 여기까지의 (2ㄱ)~(2ㄷ)을 ‘△>ㅅ’의 변화를 겪은 예로 보고 <지도 1>에서 ‘ㅅ’형이라 하였다.

이어서 (2ㄹ)은 후두 유성 마찰음의 형성(*ㅍ>ㅂ) 및 ‘△’의 소실로 형성된 어간으로 ‘ㅂ아, ㅂ으디, ㅂ으고’에서 ‘바아, 바으디, 바으고’로, 이어 ‘바:, 바:디, 바:고’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문헌어의 변화이다. (2ㅁ)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었지만 첫 번째 음절의 ‘·’가 모음 ‘ㅁ’로 변했다는 점이 다르다. (2ㄴ)은 인접한 지역에서 ‘△>ㅅ’의 변화를 겪은 것과 달리 ‘△’의 탈락을 겪은 예이다. (2ㄹ)~(2ㅁ)은 ‘△’가 소실되었으므로 ‘ㅇ’형이라 하였다.

(2ㅂ)은 (2ㄹ)에 ‘ㅎ’가 첨가된 형태이다. 광충구(1995/1998: 53)에서는 이때의 ‘ㅎ’가 재구형 ‘*pʌzʌʎ’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전 시기에는 아마도 (2ㄹ)의 분포 지역이 지금보다 더 넓었는데 이후 ‘ㅎ’가 삽입된 ‘뽕-’이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ㅂ)은 ‘ㅎ’형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2ㅇ)은 전북과 충남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기갑(1986: 36-37)에서는 이 예를 ‘ㄱ’ 앞에 ‘ㅇ’이 첨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즉 그 분포상 본래 ‘ㅅ’형이던 지역에서 ‘뽕구-’라는 새로운 어형이 나타나 그 분포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지도 1>을 보면 남부에는 ‘ㅅ’형, 중부에는 ‘ㅎ’형이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 ‘ㅎ’형은 어떤 이유에선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ㅎ’형의 분포 지역 중 가장 남쪽은 경북 상주·선산·군위·청송·영덕, 충남 천안·연기 등인데, ‘ㅎ’형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여 점차 북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중부방언의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여 남하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ㅇ)의 ‘뽕구-’가 분포하는 양상을 보면 전자가 타당한 듯하다. 즉 ‘뽕구-’가 새롭게 생겨나서, 충남 보령·청양·서천과 전남의 ‘ㅅ’형이 이별 분포(정승철 2013: 211)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ㅎ’형도 ‘ㅇ’형과 ‘ㅅ’형의 경계에서 그러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즉 ‘ㅇ’형과 ‘ㅅ’형의 접촉 지역에서 새롭게 ‘ㅎ’형과 ‘뽕구-’가 형성되었다고 하겠으며 이것은 정승철(2013)의 분류에 따르면 ‘대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사한 구조의 ‘그스~궂ㅇ-’의 반사형들을 관찰함으로써 근거를 얻는다. 다음 (3)에 문헌에서의 예를, (4)에 그 방언형들을 제시하였다.⁶⁾

(3)

- ㄱ. 궂·어<杜詩初 22:33>, 궂 궂·어<法華2:200>
- ㄴ. 궂고<永嘉上:59a>, 그·서<永嘉下77a>
- ㄷ. 畫 궂 획<新類上:1b>, 그을 劃ㅎ야<女四4:8b>
- ㄹ. 술위 그스:습고<月釋2:35>, 옷기슬글 그스고<杜詩重 2:41>
- ㅁ. 쓰으고<朴通上:36b>, 시신을 그어<東國熱 4:39b>
- ㅂ. 쓰을 줄<朴通中:11b>

(4)

- ㄱ. 궂꼬/그꼬, 그스니, 그서: 충남 서천, 전북 서부, 전남 곡성·남원, 제주, 함경
- ㄴ. 그시구, 그싱개, 그셔라: 충남 논산·금산, 전북 옥구·익산·전주·진안·장수·임실, 전남

6) ‘궂-’의 방언분포와 관련된 기술은 김수영(2019)에 제시된 바 있다.

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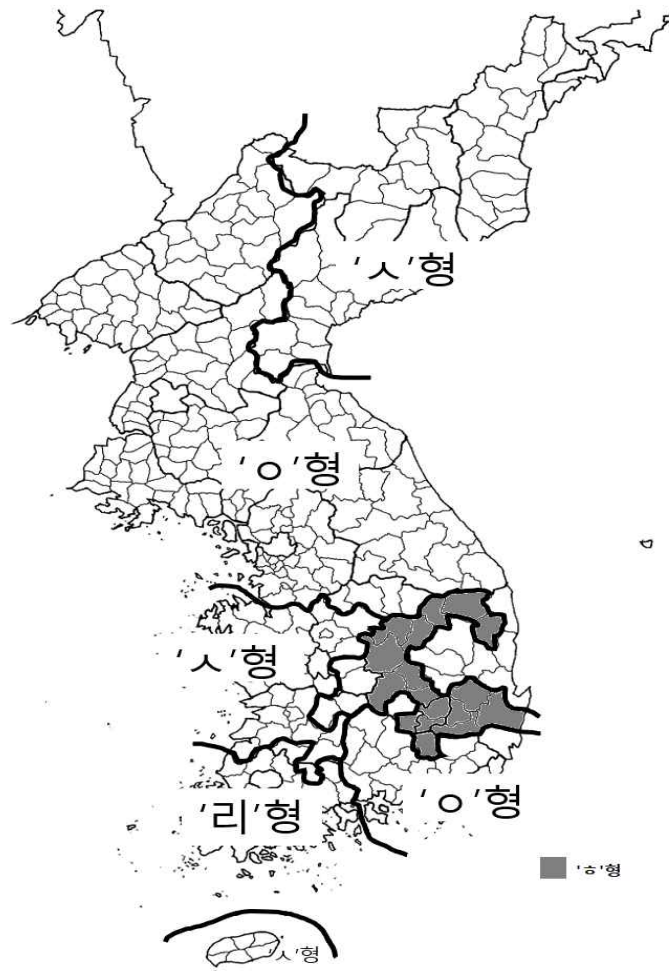
ㄷ. 글꼬/그꼬, 그으니, 그어: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울진·영덕·청송·의성·군위·성주, 평안, 황해

ㄹ. 그:고, 그:니까, 그:서: 경기 포천

ㄹ. 거:꾸, 거:니까, 거:서: 경기 강화

ㅂ. 끄꼬, 끄어: 경북 영풍·봉화·문경·예천·상주·영양·금릉·선산·영천·경산·달성·청도·월성

ㅅ. 기리고, 기링게, 기래서: 전남



<지도 2> '꺄-'의 방언분포

중세국어 시기에 '꺄-'은 '劃'과 '牽'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으며 모음 어미 앞에서는 '꺄ㅇ-', 자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꺄스-'로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예였다(3ㄱ, 3ㄴ, 3ㄷ 참조).⁷⁾ 그러던 것이 16세기 이후 'ㅅ' 탈락을 겪은 뒤에는 '꺄으고/꺄으고, 꺄으니/꺄으니, 꺄어/꺄어'로 활용하였는데(3ㄷ, 3ㄹ), 이때에는 어간의 기저형을 '꺄으-/꺄으-'로 생

7) 다만 '劃'의 의미를 가진 경우에 문헌에서 '꺄스-', 꺄ㅇ-'의 교체를 뚜렷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 의미일 경우에는 오히려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꺄고'와 같은 예가 더 자주 보인다(3ㄴ).

각할 수 있다.⁸⁾ 또 ‘牽’은 ‘쓰을-’로 재구조화되는데(3ㄴ), 이는 관형형 어미 ‘-ㄹ’가 결합한 형태가 어간으로 인식되어 단일 어간으로 재분석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문헌 자료를 보면 ‘긋-’이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방언형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먼저 ‘ㅅ’ 규칙 활용을 하는 (4ㄱ)이 있다. 다른 어간들에 비하여 분포 범위가 좁은 편인데, 주로 서북방언 및 충남의 해안 지역과 전북의 서남부에 분포한다. 또한 ‘긋-’에 매개모음어미 ‘-으-’가 결합한 활용형인 ‘그스-’와 여기에서 전설모음화를 겪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시-’도 ‘ㅅ’가 ‘ㅅ’로 바뀐 예들이라 보인다(4ㄴ).⁹⁾

(4ㄴ)에서 확인되는 불규칙 활용형들은 서북방언, 중부방언, 동남방언 등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 또한 (4ㄴ)의 ‘그:고, 그:니까, 그:서’는 16세기 이후의 중부 방언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헌에서 ‘그으고, 그으니, 그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뺑-’의 방언형들 중 (2ㄴ)의 ‘바:-, 뺑:-’와 일치한다. (4ㄴ)의 불규칙 활용형들은 (4ㄴ)과 같이 활용하다가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에 합류된 것으로 여겨진다.

(4ㄴ)의 ‘거:꾸, 거:니까, 거:서’는 모음 ‘으’가 ‘어’로 교체된 예이다. 모음 ‘어’가 ‘으’가 되는 고모음화는 이 지역에 활발한데(김아름 2008:14), 여기에서는 반대로 ‘으’가 ‘어’로 교체되는 예가 있어 특이하다.¹⁰⁾

(4ㄴ)에는 어간말음에 ‘ㅎ’를 가진 ‘ㅎ’형이 보이는데 그 분포 지역은 경북에만 한정된다. ‘뺑-’의 방언형들 중 역시 ‘ㅎ’ 말음을 가진 (4ㄴ)과 기원적인 구조 및 현대국어 방언형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어간의 ‘ㅎ’ 말음이 경북에서 형성되어 ‘뺑-’이 경기와 강원, 충북에 까지 확장되었지만 ‘글-’은 확장되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4ㄴ)은 전남의 전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기타 방언형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그리다(畵)’에서 유추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뺑-’과 ‘글-’은 모두 ‘ㅅ’형과 ‘ㅇ’형의 접촉 지역에서 형성되었는데, ‘뺑-’의 경우 그 세력을 중부까지 확장했지만 ‘글-’의 경우는 이미 중부방언에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 세력을 넓히지 못한 듯하다. 그러면 그 접촉 지역에서 어떤 과정으로 ‘뺑-’과 ‘글-’ 같은 ‘ㅎ’ 말음 어간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자.

(5) ‘뺑-’의 방언분포 형성 과정

	ㄱ	ㄴ	ㄷ
‘ㅇ’형 분포 지역 (중부)	/뺑-/ 뺑고, 뺑아		/뺑-/ 뺑코, 뺑아
접촉 지역	활용형의 혼효(뺑고, 뺑아, 뺑꼬, 뺑사)	- 뺑꼬 → 뺑코 - ‘뺑코, 뺑아’가 ‘뺑-’으로 재분석	/뺑-/ 뺑코, 뺑아
‘ㅅ’형 분포 지역 (남부)	/뺑-/ 뺑꼬(뺑:꼬), 뺑사		

8) 정경재(2015:302)에서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그스다’가 ‘그으다/쓰으다’로 발달하고, 이후 ‘쓰을다 > 쓸:다’와 ‘쫓다’로 분화된다고 하였다.

9)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으-’가 첨가되어 재구조화하는 예는 방언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경음, 격음,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 ‘-으-’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10) ‘긋-(畵)’은 한성우(2011:233)에서도 ‘건:는다, 근:다’ 등으로 활용한다.

(6) ‘긔-’의 방언분포 형성 과정

	ㄱ	ㄴ	ㄷ
‘ㅇ’형 분포 지역 (중부)	/그-/ 그고, 그어		그꼬, 그어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에 합류)
접촉 지역	활용형의 혼효 (그고, 그어, 그꼬, 그서)	- 그꼬 → 그코 - ‘그코, 그어’가 ‘글-’으로 재분석	/글-/ 그코, 그어
‘ㅅ’형 분포 지역 (남부)	근꼬(그꼬), 그서		

위의 (5)와 (6)은 각각 ‘뽕-’과 ‘긔-’의 방언분포 형성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것이다.¹¹⁾ 먼저 (5ㄱ)과 (6ㄱ)은 중부에 ‘/빠-/’와 ‘/그-/’가 분포하고 남부에 /뽕-/과 /긔-/이 분포하는 시기다.¹²⁾ 그 접촉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진 어간의 활용형들이 공존하는 활용형의 혼효(정승철 2013: 232-233)가 나타났을 것이다. (5ㄴ)과 (6ㄴ)은 이와 같은 접촉 지역에서 ‘빠꼬’, ‘그꼬’와 같은 자음 어미 결합형이, ‘그코’ 등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 가정한 것이다.¹³⁾ 이와 같은 비어두 위치에서의 경음과 격음의 교체는 지역 방언이나 발생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보인다(김현 2006: 136 각주 90, 최전승 2011, 김소영 2014: 195).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새로 형성된 ‘빠코, 그코’와 같은 활용형이 ‘빠아, 그어’와 함께 새로운 ‘뽕-’, ‘글-’이라는 어간으로 재분석될 가능성이 있다.¹⁴⁾ 이후 접촉 지역에는 (5ㄷ), (6ㄷ)처럼 ‘ㅎ’ 말음 어간이 남아 있고 ‘뽕-’의 경우 중부 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뽕-’과 ‘글-’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접촉 지역에서 새로운 어간이 재분석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2.2 체언 ‘ㅌ’ 말음 어간의 변화¹⁵⁾

체언 가운데 어간말에 ‘ㅌ’를 가진 단어들의 방언분포를 통해서도 방언접촉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어간말에 ‘ㅌ’를 가진 단어들 가운데서 방언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에는 ‘팔, 밭, 밭, 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팔’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어 즉 ‘밭, 밭, 솥’의 방언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⁶⁾

11) 기술의 편의상 음장 표시는 하지 않았다.

12) 현재 방언분포상 경북 남부와 경남에는 ‘그꼬, 그어’와 같은 패러다임이 분포한다. 그런데 다른 ‘ㅅ’ 불규칙 활용 어간은 대체로 경북 남부와 경남에서 ‘ㅅ’ 규칙 활용을 보여준다는 점에 근거하면 이 어간이 ‘△>ㅅ’가 활발하던 시기에 그 변화를 겪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 탈락한 형태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백두현 1992: 331, 김수영 2019: 58).

13) 이때의 ‘빠꼬’, ‘그꼬’는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대표하는 형태로 썼다.

14) 재분석은 김현(2006: 152)에 언급된 정의를 따른다. 즉 재분석은 곧 기저형(형태소)의 변화이며, 이전 세대와 동일한 공시 문법 속에서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음에도 그와는 달리 분석하는 경우, 이전 세대와 동일한 문법이기에도 새로운 분석을 해야만 할 필연성이 없는 경우의 변화에 한정한다.

15) 2.3에서 다룰 ‘ㅌ’ 말음 체언의 방언분포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김수영(2014)에서 기술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먼저 다음 (7)에 문헌에서의 예와, (8) 및 <지도 3>에 방언형과 그 분포를 제시하였다.

(7) 바티니 <釋詳 6:19a>, 받히 <捷蒙 1:12b>, 밧흘 <伍倫 5:11a>

(8)

- ㄱ. 밧: 바치, 바틀, 바테 (강원 동부, 경상, 함경, 평안)
- ㄴ. 밧/밭: 바시, 바슬, 바테 (경기 서부, 충북 서남부, 충남·전라)
- ㄷ. 밧/밭: 바치, 바츨, 바테 (경기 동부, 강원 홍천·횡성, 충북 충주·제천·단양, 경북 문경·상주·의성·금릉, 전남 여수)
- ㄹ. 밧: 바시, 바슬, 바세 (경기 파주·강화, 충북 보은·옥천·영동, 전남 담양, 제주)
- ㅁ. 밧: 바치, 바츨, 바체 (경기 용진, 경북 의성)



<지도 3> ‘ㅌ’ 발음 어간의 방언분포

(7)은 ‘밭’의 이전 시기 예인데 문헌에서 어간말음으로 ‘ㅌ’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밧’, ‘솔’도 이와 유사하게 이전 시기부터 ‘ㅌ’를 유지하고 있다.

(8)은 이들 단어의 실현 양상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대표 어간으로 ‘밭’을 삼아 제시하였지만 ‘밧’과 ‘솔’도 유사한 방언분포를 보인다. (8ㄱ)은 어간말음에 ‘ㅌ’를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 강원도와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남한의 동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북한방언에도 ‘ㅌ’ 발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 (8ㄴ)은 ‘ㅌ’로 교체된 예인데, ‘-에’와의 결합형에서는 ‘ㅌ’ 발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서부방언에 주로 분포한다. (8ㄷ)은 ‘ㅌ’로의 교체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에’와의 결합형에서는 ‘ㅌ’ 발음을 유지한다. 그 분포 지역은 (8ㄱ)과 (8ㄴ)의 중간 지역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서부, 충북 동북부와 경북 서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잇는 지역이다. (8ㄴ)과 (8ㄷ)이 ‘-에’와의 결합형에서는 ‘ㅌ’ 발음을 유지하는, 재구조화가 완료되지 않은 예라면 (8ㄹ)과 (8ㅁ)은 재구조화가 완료된 예이다. (8ㄹ)은 ‘ㅌ’로, (8ㅁ)

16) 이때 ‘밭’을 제외하는 이유는 ‘밭’이 중세국어 시기 ‘ㅌ’이었으므로 다른 ‘ㅌ’ 발음 어간과 다른 변화를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 ‘ㅅ’로 각각 어간말음이 재구조화되었다.

이와 같은 어간말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의 논의들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변화는 크게 ‘ㅌ>ㅅ’와 ‘ㅌ>ㅅ’인데, 먼저 ‘ㅌ>ㅅ’는 위의 (8ㄴ)에서 보듯이 주로 서부 방언에서 확인되며, ‘ㄷ>ㅅ’와 관련이 있다. ‘ㄷ>ㅅ’ 변화는 체언 어간말의 ‘ㄷ’이 ‘ㅅ’로 재구조화된 변화인데, 17세기부터 교체를 보이며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완료되었다. ‘ㄷ’를 가진 모든 체언이 이 변화를 입은 것은 아니며, 일부는 19세기 이후에야 변화를 겪었다.¹⁷⁾ ‘ㅌ>ㅅ’ 또한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표면형이 ‘ㄷ’이기 때문에 ‘ㄷ>ㅅ’에 이끌려 유사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¹⁸⁾ 이와 관련하여 김경아(1995: 307)에서는 ‘ㅌ’가 음절말 위치에서 ‘ㄷ’로 실현되지만 이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인식이 ‘ㅅ’이었기 때문에 ‘ㅌ>ㅅ’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진호(2004: 308)에서는 ‘ㅌ’ 말음 어간들이 단독형으로의 변화(‘ㄷ’ 말음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다가, ‘ㄷ>ㅅ’에 영향을 입어 ‘ㅅ’ 말음 어간으로 정착된 것으로 본 바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ㄷ>ㅅ’에 이끌린 ‘ㅌ>ㅅ’ 변화가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본다.

다음으로 ‘ㅌ>ㅅ’는 조사 ‘이’ 앞에서 구개음화를 겪어 ‘ㅅ’로 교체되고 그 어간말음이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에까지 확대된 변화이다. 즉 ‘ㅌ’ 말음 어간이던 것을 ‘ㅅ’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하고 곧이어 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평준화가 일어난 것이다.¹⁹⁾

구개음화는 16세기 중기부터 남부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나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중부방언에서도 그 변화가 완료된 매우 생산적인 변화였다.²⁰⁾ 그렇다면 현재의 방언분포를 보았을 때, (8ㄷ)과 같이 ‘ㅅ’ 말음을 보이는 지역이 경기 동부, 강원 홍천·횡성, 충북 충주·제천·단양, 경북 문경·상주·의성·금릉, 전남 여수에 한정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기저형이 2개 이상 존재할 때에 그 부담을 줄이고자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구개음화가 중부방언보다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경상방언에서부터 그 평준화 현상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언 자료가 보여주는 양상은 그렇지 않다. ‘ㅅ’ 말음은 ‘ㅌ’를 말음으로 가진 지역과 ‘ㅌ’를 말음으로 가진 지역 사이, 즉 ‘ㅌ’ 말음과 ‘ㅌ’ 말음의 접촉 지역에 분포한다. 접촉 지역은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진 어간의 공용형들이 병존하는 지역이므로 새로 나타난 표면형을 기저형으로 받아들이는 어간의 재분석이 더 잘 일어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8)의 방언분포의 근거가 된 《자료집》과, 그로부터 1세대 정도 후에 조사된 《지역어》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자. 이를 통해 접촉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9)는 ‘ㅌ’ 말음 어간의 어간말음 실현 양상을 비교한 결과 2개 이상의

17) ‘ㄷ>ㅅ’ 변화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설명을 한 최태영(1977), 광충구(1984) 및 비음운론적인 설명을 한 고광모(1989), 김경아(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8) ‘ㄷ>ㅅ’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현재 새로이 ‘ㄷ’ 말음을 가진 체언이 형성될 일은 없을 것이라 보이지만, ‘ㄷ’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있을 때 그 공용형에서 ‘ㅅ’ 말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구개음화와 비교해 보아도, ‘ㄷ>ㅅ’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로 인한 패러다임의 단일화는 주격형에서 시작되어 다른 공용형에 확산되는 변화인데 반해, ‘ㄷ>ㅅ’는 후행하는 조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기만 하다면 이루어지는 교체이기 때문이다.

19) 이 글에서 평준화는 유추의 일종이며, 곧 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정의한다(김현 2006: 105).

20) 김주필(2015: 60-78)에서는 전라방언, 경상방언, 중부방언을 반영한 문헌들에서 구개음화가 확인된 시기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라방언을 반영한 문헌에서는 16세기 중기부터, 경상방언을 반영한 문헌에서는 16세기 후기에서 17세기 초기부터, 중부방언을 반영한 문헌에서는 17세기 중·후기에 이르러서 구개음화의 예가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ㄷ’ 구개음화는 대체로 비어두 음절 → 형태소 경계 → 어두 음절의 환경으로 확산된다고 하였다.

어간에서 변화가 일어난 지역을 제시한 것이다.

(9)

ㄱ. 밭>밭: 강원 양양

ㄴ. 밭>밭: 충북 제천, 경기 용인·연천, 경북 상주, 강원 춘천

ㄷ. 밭>밭: 경기 포천, 강원 철원·양구

위의 (9)에서 확인되듯이 《자료집》에서 ‘/밭/’을 보이던 곳은 ‘/밭/’이나 ‘/밭/’을 보이던 지역보다 변화를 더 많이 겪었다. 이는 체언 ‘ㅌ’ 발음 어간의 실현 양상에 있어서 이 접촉 지역에 언어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9ㄴ)에서 보이듯이 주로 ‘ㅌ’ 발음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어에 대해 ‘ㅌ’ 발음으로의 변화가 세력을 더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밭(面)’의 형성

이제 방언접촉의 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과도교정에 대하여 선행 연구 및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과도교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음운사에서 구개음화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된 편이다.²¹⁾ 그러나 이를 방언접촉과 연관시킨 시도는 드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과도교정을 방언접촉의 결과로 본 선행연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방언에서의 ‘젖’(乳), ‘밭’(面), ‘꽃’(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Trudgill(1986: 66)에서는 과도교정에 대해, 위세 방언을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 받아들이며, 그 위세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이 역시 위세 방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어디에도 없었던 방언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방언의 예로 보았다.

한국어 음운사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언급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김주필(2015: 86)에서는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구개음화를 보이는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즉 과도교정이 일어나려면 자기 방언과 타 방언의 차이에 대한 인식 및 위세 방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잘 알려진 것처럼 본래 ‘젖치’를 사용했던 방언(중부방언)에서, ‘ㄱ’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김치’가 형성되고(남부방언에 대한 인식) 이것이 ‘젖치’를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방언형이 되므로 방언접촉의 결과인 것이다.²²⁾

또한 소신애(2007)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 나타나는 과도교정의 예를 제시하였다. ‘ㅈ>ㄷ’의 결과로 곡용형에서 나타나는 ‘꼬디(花, 꽃-이), 목더디(목덜-이), 쇠더디(쇠덜-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ㄷ’ 구개음화의 비개신형이 개신정보다 더 권위 있는 어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는데, ‘ㄷ’ 구개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함북 육진 지역어가 가장 권위를 지닌 변종으로 여겨진 데 기인한다고 보았다(소신애 2007: 190). 따라서 이는 ‘ㄷ’ 구개

21) 과도교정과 관련된 논의의 쟁점은 표기상의 오류인가, 음성형의 반영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음성형을 반영하였다고 본 논의는 김주필(2015), 표기상의 오류일 뿐 직접적인 음성형의 반영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은 백두현(1992)이 대표적인데 이 글에서는 김주필(2015)를 따라 과도교정형이 음성형의 반영이라고 본다.

22) 덩치>젖치>김치, 질삼>길삼, 질들이다>길들이다, 점삼>점삼, 지새>기와, 혁>석 등이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대표적인 예이다(김주필 2015: 83-84).

음화의 비개신형과 개신형의 접촉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구개음화의 비개신형이 더 위세 방언이라는 점이 해당 방언형을 선택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체언 어간 말이 이전 시기에 ‘ㅈ’ 또는 ‘ㅉ’이었지만, 현대 방언자료에서 ‘ㄷ’ 또는 ‘ㅌ’로 나타나는 방언형들이 일부 있는데 이 또한 과도교정으로 인한 중간방언의 일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10)에 그 예를 제시한다.

(10)

- ㄱ. 전(乳), 저지(전-이), 저덜(전-을), 저데(전-에): 경북 울진·월성, 경남 합천·울주·의령·함안·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²³⁾
- ㄴ. 이운, 이우데(이운-에): 경기 가평, 경북 울진 경남 거제·양산·남해, 충남 서산·당진·아산
- ㄷ. 낱(面), 나치(낱-이), 나틀(낱-을), 나테(낱-에): 강원, 경북 동부, 경남
- ㄹ. 꽃(花), 꼬치(꽃-이), 꼬틀(꽃-을), 꼬테(꽃-에): 강원, 경북 동부, 경남

(10ㄱ)의 ‘전’과 (10ㄴ)의 ‘이운’은 중세국어 시기 ‘ㅈ’ 말음이었으며(젓: 쇠저즈로 <釋詳 3:40a>, 이웃: 이우지 <楞嚴 3:37a>), 현대국어에서는 방언에 따라 ‘ㅈ’ 말음이나 또는 ‘ㅉ’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10ㄱ)과 (10ㄴ)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남방언을 중심으로 조사 ‘-이’와의 결합형에서는 ‘ㅈ’로, 그 외 조사와의 결합형에서는 ‘ㄷ’ 말음으로 실현되고 있다.²⁴⁾ 이는 (10ㄷ)과 (10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0ㄷ)의 ‘낱’은 중세국어 시기 ‘ㅈ’ 말음이었으며(ㄴ치오 <月釋 25:84a>), ‘꽃’은 중세국어 시기 ‘ㅈ’ 말음이었다가 17세기 이후 ‘ㅉ’ 말음으로 바뀐 예이다(고지 <釋詳 6:31a>, 꽃출 <朴諺 上 5a>). 그럼에도 불구하고 (10ㄷ)과 (10ㄹ)에서 보듯이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ㅌ’ 말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문헌에서의 ‘젓’과 ‘이웃’, ‘낱’과 ‘꽃’이 이전 시기에 이 방언에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곡용형들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ㄷ’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조사 ‘-이’ 앞에 놓인 원래의 ‘ㅈ’나 ‘ㅉ’를 구개음화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다시 ‘ㄷ’ 또는 ‘ㅌ’ 말음으로 과도교정한 곡용형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백두현(1992: 363-364)에서도 언급된바 동남방언의 문헌어에서 본래 ‘ㅈ’ 말음이던 ‘꽃’이 조사 ‘-이’ 앞에 놓인 원래의 ‘ㅈ’을 구개음화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도교정한 곡용형들이 나타난다고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

구개음화가 활발했던 동남방언에서의 과도교정에 대하여, 백두현(1992: 337)에서는 중앙어를 의식했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김주필(2015: 88)에서도 남부 방언 화자들의 과도교정은 자신들의 변화된 어형들을 중앙어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관점을 따른다면 이 지역에서 ‘/낱/ > /낫/’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하겠다.

23) 《경남방언사전》(2017)에서도 ‘젓이, 전을, 전에’와 같은 곡용형이 제시되어 있다(경남 거제·고성·마산·사천·산청·양산·울산·의령·진주·진해·창녕·창원·통영·함안·합천).

24) 《자료집》에서 확인되는 ‘ㅈ’ 말음 어간에는 ‘낫’, ‘젓’이 있고, 중세국어 시기의 어간말음까지를 고려한다면 ‘이웃(>이웃)’도 포함된다.

시기	기저형	곡용형	변화 동기
①	/낫/	[나치], [나츄], [나체]	
②	/낫/	[나티], [나틀], [나테]	‘ㄷ’ 구개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③	/낫/	[나치], [나틀], [나테]	조사 ‘-이’ 앞에서 ‘ㄷ’ 구개음화 규칙 적용

<표 1> ‘/낫/’의 형성 (1)

즉 위의 <표 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본래 ‘ㅈ’ 발음 어간이었던 ‘/낫/’이 ‘ㄷ’ 구개음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그 어간발음이 ‘ㅌ’로 재구조화되어 ②와 같은 패러다임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었던 구개음화 규칙이 조사 ‘-이’ 앞에서 다시 적용되어야 현재의 ③과 같은 패러다임이 가능하다. ②와 같은 예는 백두현(1992: 363)에서 ‘꽃’, ‘빛’, ‘낫’을 대상으로 문증된 바 있으므로 위의 표와 같은 변화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낫/ > /낫/’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시기	기저형	곡용형	변화 동기
①	/낫/	[나치], [나츄], [나체]	
②	/낫/	[나치], [나틀], [나테]	곡용형 ‘[나치]’를 듣고 이를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된 예로 판단하여 ‘ㅌ’ 발음으로 과도교정

<표 2> /낫/의 형성 (2)

위의 <표 2>와 같은 과정을 따랐다면 여기에는 구개음화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에서 비롯한 구개음화의 과도적용(hyperadaption)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Trudgill(1986: 75-77)에서는 영국 방언에서 ‘r-음화’가 활발한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의 접촉 지역에서, 원래 ‘r-음화’를 겪지 않는 어형에까지 ‘r-음화’를 겪은 음성형들이 확인되는 점에 대하여 ‘r-음화’가 지역 방언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²⁵⁾ 이러한 관점을 동남방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위의 <표 2>와 같은 설명도 가능해 보인다. 즉 쟁점은 그 당시에 동남방언에서 구개음화된 형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는지 긍정적인 인식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측만 할 뿐이지만 (10ㄷ), (10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원도에까지 이러한 곡용 패러다임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까지 방언접촉으로서의 과도교정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시각을 넓힌다면 구개음화뿐 아니라 다른 언어변화에 있어서도 과도교정의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이를 통해 방언접촉에서 방언 간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5) Trudgill(1986: 75-77)에서 예로 든 단어는 ‘last[laɪ:st]’, ‘arm[ɑr:m]’ 이다.

3. 방언 균일화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방언 균일화’에 대한 방언에서의 예를 확인하고자 한다.

3.1 동남방언 음소 ‘/ㅅ/’, ‘/ㅆ/’의 변별

(11) 음소 ‘ㅅ’, ‘ㅆ’ 비변별 지역

- ㄱ. 《자료집》 경북 울진·청송·영덕·군위·영일·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밀양·양산
- ㄴ. 《지역어》 경북 영덕·영천·청도·경주, 경남 울주

위의 (11)에서 보듯이 동남방언 ‘ㅅ’와 ‘ㅆ’ 변별에 있어서 《자료집》의 방언 자료와 《지역어》의 방언 자료는 차이를 보인다. 즉 ‘ㅅ’와 ‘ㅆ’를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이제 동해안과 경북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남방언에서 ‘ㅅ’와 ‘ㅆ’를 변별하게 된 것이다. 《자료집》과 《지역어》의 자료가 모두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제보자였음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ㅅ’와 ‘ㅆ’를 변별하는 화자들이 더 늘어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ㅅ’와 ‘ㅆ’를 변별하지 못한다는 방언 특질은 동남방언에만 한정된 것으로, 현대 한국어 전 방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표적인 특질이다.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지리적으로도 좁은 지역에만 한정되는 특질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²⁶⁾

3.2 용언 어간말 유음 탈락

용언의 유음 탈락 현상 또한 현대국어에서는 방언 균일화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용언 어간의 말음 ‘ㄹ’이 현대 중부방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ㄴ’과 ‘ㅅ’과 같은 [+설정성] 자음 계열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진호 2014: 199). 먼저 《자료집》을 기준으로 방언형과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12)와 같다.²⁷⁾

(12)

- ㄱ. 길:다, 길:고, 길:지, 긴:, 기:러야: 평안,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ㄴ. (ㄷ, ㅈ 앞에서 탈락) 기:다, 길:고, 기:지, 기:러야: 함경, 강원 인제·삼척, 경북, 경남 창녕·밀양·울주·함양·산청·의령·진양·의창·김해·양산·사천·남해, 전남 영광²⁸⁾
- ㄷ. (ㄱ, ㄷ, ㅈ 앞에서 탈락) 기:다, 기:고, 기:지, 기:러야: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 선산·군위·영일·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

26) 이에는 표준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나 ‘ㅅ’와 ‘ㅆ’를 변별하는 인접 방언의 영향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대상이 된 ‘ㄹ’ 말음 용언 어간은 ‘길:-, 깔-, 돌-, 드물-, 들-, 만들-, 말-, 매달-, 물-, 빨-, 살-, 알-, 열-, 열-, 울-, 일-, 틀-, 팔-’이며 이 중 ‘길:-’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방언형을 보였다.

28) 용언 어간 ‘알-’의 경우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활용형이 ‘아:지’로 나타나는 지역은 전남 장성·해남, 전북 임실·장수, 충북 영동이며 용언 어간 ‘질-’의 경우 ‘ㄷ’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지:다’로 나타나는 지역은 전남 광산·고흥이다.

용언 어간말의 ‘ㄹ’은 중부방언, 서북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을 기준으로 하면 ‘ㄴ’, ‘ㅅ’ 등과 같은 [+설정성] 계열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고 그 외 자음 앞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12ㄱ). 그런데 동북방언, 동남방언 및 동남방언의 인접 지역에서는 사정이 다른데, ‘ㄷ’와 ‘ㅈ’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ㄹ’이 탈락하고(12ㄴ), 경북에서는 ‘ㄱ’, ‘ㄴ’ 앞에서도 ‘ㄹ’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12ㄷ).²⁹⁾ 즉 동남방언, 동북방언에서는 대체로 중세국어와 같이 ‘ㄷ, ㅈ, ㅅ,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그 외 방언에서는 ‘ㄴ, ㅅ’ 앞에서만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역어》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ㄹ’이 탈락하는 환경이 매우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 (13)과 같다. (13)은 《지역어》에서 ‘ㄹ’이 ‘ㄱ, ㄷ, ㅈ’ 앞에서도 탈락하는 지역과 그 예를 보인 것이다.

(13)

- ㄱ. 경북 경주: 쥐:고(질:-), 드무고(드물-)
- ㄴ. 경북 의성: 지:고~질:고(질:-)
- ㄷ. 강원 삼척: 지다, 지다가, 질고(질-) ; 까부지, 까불고 ~ 까부고(까불-) ; 드무다, 드무고(드물-) ; 주운다, 주우다라(줄-)
- ㄹ. 경남 울산: 지지(질:-), 주지(줄-)

위의 (13)처럼 ‘ㄱ, ㄷ, ㅈ’ 앞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동남방언의 일부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한 세대가량 차이가 나는 조사에서 ‘ㄹ’ 탈락이 나타나는 예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이제 전국적으로 용언 어간말의 유음 탈락이 중부방언의 것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은 노년층 이하의 세대에서는 더 특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동남방언의 ‘ㄱ, ㄷ, ㅈ, ㄴ’ 앞에서의 유음 탈락에 대하여 이병근(1981: 237)에서는 형태론적 규칙이라 하였고, 이진호(2009: 141)에서는 최현배(1929: 107)에서 ‘비면(빌+면), 가면(갈+면)’ 등을 제시한 것을 들어 이 현상이 현대국어 시기 또는 그에 가까운 시기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형태론적 규칙’이라는 것은 곧 ‘ㄱ’이나 ‘ㄴ’ 앞에까지 유음 탈락이 확장된 데에 어떤 음운론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까지 유추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르면 적어도 동남방언에서의 유음 탈락은 20세기 전기에 이와 같은 유추를 겪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점차 이와 같은 활용 패러다임이 축소되는 데에는 해당 현상이 유표적인 소수의 현상이라는 점에도 이유가 있으리라 추측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방언 균일화의 두 가지 예에 대해서는, 해당 현상에 대한 언어 태도 및 정체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즉 음소 ‘/ㅅ/’와 ‘/ㅆ/’를 변별하지 못하는 것 혹은 ‘아지(알-지), 우지(울-지)’와 같은 ‘ㄹ’이 탈락된 활용형들이 사회적으로 낙인된 형태로 인식되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단지 예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9) 이와 같은 모습은 동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백두현(1992: 365-366)에서는 영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문헌들에서 두자음이 ‘ㄷ, ㅈ’인 어미 앞에서 용언 어간말의 ‘ㄹ’이 탈락되는 현상은 16세기 초 이래 20세기까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ㄷ,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지 않는 현상이 시작된 시기는 20세기 전기라고 하였다. 최명옥(1980: 153)과 최명옥(1982: 157)에서는 각각 경북 영덕과 월성의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방언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어미 앞에서 어간말의 ‘ㄹ’을 탈락시킨다고 하였다. 임석규(2007: 160-162)에서도 경북 북부인 울진과 영주에서 모든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언급하였고, 김동은(2015: 74)에서도 경북 경주에서는 ‘ㄹ’ 탈락 현상이 활발하지만 경남 하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4. 결론

이제까지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대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중간 방언’과 ‘방언 균일화’의 두 가지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간 방언이란 방언접촉의 결과 기존의 방언들에 존재하지 않았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서로 다른 방언의 형태들이 공존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접촉하는 방언들의 특질을 섞은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가 될 만한 것으로 ‘뽕-’과 ‘글-’의 형성, ‘ㅛ’ 말음 체언 어간의 변화, ‘ㄷ’ 또는 ‘ㅌ’ 말음 체언 어간의 형성 과정을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방언접촉의 결과 재분석을 통한 새로운 어간의 형성이 일어난다는 점을 알았으며, 방언 간 접촉 지역에는 활발한 언어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도교정형 역시 중간방언의 예가 될 수 있음을 보였고, 여기에 방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방언 균일화란 유표적인 소수의 방언형이 사라지고 특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유표적인 형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언형의 소멸과 관련하여서는 정체성이나 언어 태도와 같은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방언 균일화의 예가 될 만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동남방언의 ‘/ㅅ/’, ‘/ㅆ/’ 변별, 용언 어간말 유음 탈락 현상 등이 방언 균일화의 예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방언접촉의 예가 될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필자의 부족으로 충분히 살피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사례들을 찾아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방언접촉 양상을 유형화하는 작업 및 정체성과 언어태도 조사에 기반한 방언 균일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경남방언연구보존회 편(2017), 《경남방언사전》, 경상남도.
- 고광모(1989), 〈체언 끝의 변화 ㄷ→ㅅ 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언어학》 11, 한국언어학회, 3-22.
- 곽충구(1984), 〈體言語幹末 舌端子音의 摩擦音化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22.
- 곽충구(1995), 〈語義分化에 따른 單語의 形態分化和 音韻變化: ‘뺑-’와 ‘부수-’의 경우〉,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이병근.곽충구 편(1998)에 재수록]
- 국립국어원 편(2005-2013),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편(2015), 《전국 방언 지도 제작》,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편(2017-2019), 《지역어 보완조사》, 국립국어원.
- 김 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김경아(1995),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 《冠嶽語文研究》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93-311.
- 김경아(2008),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에 대한 통시론〉, 《東洋學》 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71-95.
- 김동은(2015),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김소영(2014), 〈‘긋-’>‘>’>‘긋-’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70, 국어학회, 185-205.
- 김수영(2014), 〈체언 어간말 자음의 변화: 격음 말음 어간을 중심으로〉, 《방언학》 19, 한국방언학회, 93-119.
- 김수영(2019), 〈‘ㅅ’ 불규칙 활용의 변화〉, 《방언학》 29, 한국방언학회, 39-68.
- 김아름(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아주대).
- 김영배(1997), 《平安方言研究》, 태학사.
- 김주필(2015),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 태학사.
- 김형규(1985), 《國語史概要》, 일문각.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혜진(2016), 〈대구 지역의 신방언 실현 양상 연구〉, 《방언학》 24, 한국방언학회, pp.
- 배혜진(2017), 〈대구 지역어의 ‘ㄹ’ 첨가 현상과 신방언으로서의 가능성〉, 《어문논총》 74, 한국국문학회언어학회.
- 백두현(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탑출판사.
- 소신애(2007), 〈언어 변화 기제로서의 과도 교정〉, 《어문연구》 3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오새내(2006), 〈현대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 오새내(2007), 〈20세기 수도권 지역어 연구에서 신방언 개념 도입의 필요성〉,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 오선화(2015), 《연변 방언 연구》, 박문사.
- 유창돈(1961), 《國語變遷史》, 통문관.
- 이금화(2007), 《평양지역어의 음운론》, 역락.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한글학회, 223-246.

- 이병근·곽충구 편(1998), 《方言(國語學講座 6)》, 太學社.
- 이진호(2004), 〈‘ㅅ’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국어학》 43, 국어학회, 299-327.
- 이진호(2009), 〈현대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국어사연구》, 국어사학회, 123-150.
- 이진호(2014), 《개정판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임석규(2007), 〈경북 북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박사학위논문(고려대).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인호(2017), 〈‘ㄷ’ 불규칙 용언의 방언학적 고찰〉, 《방언학》 26, 한국방언학회, 135-155.
- 최명옥(1978), 〈ㄹ, ㅅ와 東南方言〉, 《語學研究》 14-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 185-194.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 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함북 북부 지역어 연구》, 태학사.
- 최전승(2011), 〈불규칙 활용의 규칙화와 ㅎ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음운현상의 본질〉, 2011년 제주학회 제35차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7-28.
- 최태영(1977), 〈國語 摩擦音化考〉, 《國語國文學論文集》(李崇寧先生古稀記念), 답출판사.
- 최학근(1988), 《改訂 韓國方言學 下》, 保景文化社.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언어학회 편(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0), 《韓國方言調査質問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韓國方言資料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성우(2006), 《평안북도 의주 방언의 음운론》, 월인.
- 한성우(2011),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 한성우(2017), 《인천말 연구》, 소명출판.
- 황대화(2006), 《황해도 방언 연구》, 한국문화사.
- Torgersen and Kerswill(2004),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in phonetic change: Dialect levelling outcomes for an English vowel shift, *Journal of Sociolinguistics* 8-1, 23-53.
- Trudgill, Peter(1986), *Dialects in Contact*, Basil Blackwell.
- Watt, Dominic(2000), Phonetic parallels between the close-mid vowel of Tyneside English,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2, 69-100.

<한국어 방언접촉 양상에 대하여 - 중간 방언(interdialect)과 방언 균일화(dialect leveling)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세환(영남대)

이 논문은 방언의 접촉 양상을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논의하고자 하는 데에 우선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자료도 제한적으로나마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 전체를 포괄하여 방언접촉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논의를 참고하면, 중간 방언은 접촉방언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며, 방언 균일화는 소수 방언형의 소멸로 이해됩니다. 방언의 소멸과 변화를 이 두 관점으로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구체적인 어간의 변화와 분포를 지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중간 방언적인 양상과 방언 균일화의 양상을 좀더 세밀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과 같은 관점에서 방언을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아래에 간략히 적어 보고자 합니다.

1. 23쪽에 “중간 방언이라 할 형태를 찾기 위하여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용언”을 살핀다고 하였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27쪽에서 어간말 ‘ㅎ’과 관련하여, 둘째줄 ‘뽕-, 뽕-’ 또한 ‘*ㅍ’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보는 서술이 있고, 27쪽 세번째 문단에 (2ㄷ) ‘뽕-’은 (2ㄹ) ‘바:-, 빠:-’에 ‘ㅎ’가 첨가된 형태라는 서술이 보입니다. 이어서 이 ‘뽕-’의 ‘ㅎ’는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았는데, 각각의 ‘ㅎ’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전자는 기원적인 변화이고, 후자는 후대의 삽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자의 ‘ㅎ’이 8쪽에서 언급하는 활용형의 재분석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뽕수->뽕-’, ‘빠:->뽕-’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지도1>에서 방언형을 ‘ㅅ, ㅇ, ㅎ’ 형 등으로 나타내었는데, ‘ㅅ’ 형과 ‘ㅇ’ 형은 ‘ㄷ’의 음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ㅎ’ 형은 ‘ㄷ’의 변화와 관련이 어떤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7쪽의 ‘빠:->뽕-’의 변화를 보면, ‘ㅎ’ 형은 ‘ㅇ’ 형의 이후에 나타나는 변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ㅎ’ 형이 ‘ㄷ’의 음변화가 아닌 상황에서 지도에서 ‘ㅎ’ 형이라는 표현은 ‘ㄷ>...>ㅎ’으로 느껴 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4. ‘방언 균일화’와 관련하여, ‘ㅅ, ㅆ’의 변별 지역의 확대, ‘유음 탈락’ 환경의 축소 등이 대표적인 예로 다루어졌습니다. 서론에서 이 ‘방언 균일화’는 위세적인 방언으로, 교양 있는 언어 형식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반대의 예도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혹시, 어두 경음화의 양상, 자음군단순화의 양상 등도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대의 길을 걸을지 궁금합니다.

5. 29쪽~30쪽에 걸쳐 표의 (ㄴ)은 재분석의 순간을 나타낸 것인데, 자음어미 활용형은 ‘ㅅ’ 형

지역과 관련된 ‘빠꼬’에서 ‘경음~격음’ 교체에 의해 변화한 ‘빠코’가 되고 이 ‘빠코’와, ‘ㅇ’ 형 지역과 관련된 ‘빠아’가 선택되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활용 패러다임을 형성한 것입니다. 인접 지역의 활용형이 하나씩 선택되면서 새로운 활용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그것이 새로운 기저형으로 재분석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김보향(제주대)

1. 머리말

이 글은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일본어와의 접촉으로 이들이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민 사회의 소수집단의 언어가 이민국 언어와의 접촉에서 이민국의 언어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예가 될 것이다. 오사카 지역의 제주방언 화자는 언어 습득기를 제주에서 보내고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출신 재일한국인¹⁾이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의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향에서 언어를 습득하여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 1세들은 이중언어 화자다. 그들은 이국땅에서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며 모어인 제주방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민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²⁾ 언어 화자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두 언어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두 언어가 접촉하여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인 현상들은 언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민 사회에서 소수 이민 집단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접촉(language contact)과 언어유지(language maintenance), 언어전환(language shift)의 문제와 관련된다.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발행한 ‘제주어 구술 총서’ 중에서,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한 구술 자료집 두 편이다.³⁾ 이들 자료집은 1950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를 구술 조사하고 이를 전사하여 내용별로 엮고 표준어로 대역한 것이다. 내용은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와 배경, 일본에서의 정착 과정, 자녀들의 출생과 성장,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 예를 가져와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 언어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제주 출신 재일한국인을 ‘재일제주인’이라 부른다.

2) 재일제주인 1세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이중언어 화자로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 두 언어를 교체(code switching)하여 사용한다. 제주방언(한국어)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일본어로, 제주방언 화자와는 제주방언으로 소통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제주방언을 기반으로 한 발화를 살펴보았다.

3) 두 편의 자료집은 ‘제주어 구술 총서 8,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구 김순기 할머니 생애 구술 『때어정 살든 정이 엮는 거라라』’(2015)와 ‘제주어 구술 총서 10,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구 고희순 할머니 생애 구술 『이제난 이녀 살아난 디도 강 봐지고』’(2017)이다. 자료집의 제보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명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	학력	이주 시기
김순기	여	1928	하귀	국졸	1939
고희순	여	1934	대흘	무학	1948

2. 제주 사람들의 이주와 언어 접촉

해외 이민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방언이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⁴⁾ 일본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区) 지역은 제주 사람들이 이주 초기부터 집단을 이루어 생활해 온 곳이다. 이 지역의 코리아타운에서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제주방언을 접할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이 일본 이주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은 경제적 호황기를 맞으며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다. 일본의 공장들은 직공을 모집하기 위해 제주를 찾기도 했는데⁵⁾, 거의 이 시기부터 제주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로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오사카와 규슈(九州)의 여러 공장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제주 사람들의 일본 이주 과정에는 행정당국의 적극적 개입도 있었다. 1927년 5월 제주 공제회(濟州共濟會)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는데(제주도청, 1937:44), 이 단체는 제주읍에 본부를, 오사카에 지부를 두어 제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고 일본 취업 관련 상담 등을 하였다.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직공 모집과 제주 행정 당국의 독려로 일본으로 향하는 제주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 1923년부터 오사카와 제주 사이에 정기항로가 신설되면서 제주 사람들의 도일⁶⁾ 큰 영향을 주었다. 한때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본에 진출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내의 조선인 노동자 증가가 문제 되기도 했다. 이후 조선인의 도일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제주 사람들의 도일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192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일본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⁷⁾에 작은 제주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杉原達, 1998:98).

1934년 당시 제주도 인구가 약 18.8만 명이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5만 명이었다고 한다. 전체 제주도 인구의 21%가 일본에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이중 약 3.8만 명이 오사카에 거주하였는데(杉原達, 1998), 이는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6%에 이르는 수치로, 오사카 지역에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많은 제주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⁸⁾ 그러나 해방이 곧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해방 후 일본과의 왕래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밀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 정식 입국이 가능했지만 까다로운 수속 절차 때문에 1980년대까지 밀항은 끊이지 않았다. 1975년도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료를 보면, 1970년에서 1974년 사이에 붙잡힌 한국인 불법 입국자 수가 740명인데, 그중 약 82%가 제주 출신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⁹⁾.

4) 조선족 언어 중에 길림성, 흑룡강성의 일부 지역에 지역 방언이 유지되고 있는 예가 있다. 박경래(2005)에 의하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에 위치한 정암촌(亭岩村)에 충청북도 출신 이주민들 사이에 충청도 방언이 남아 있다.

5) 1911년 셋쓰(摂津) 방적 기즈가와(木津川) 공장, 1914년 도요(東洋) 방적 산켄카(三軒家) 공장에서 직공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제주를 방문했다(杉原達, 1998:80).

6) 이 시기에 제주 사람들의 이동은 일자리를 찾아 왕래했던 것으로 이민자로서의 이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7) 이카이노(猪飼野)는 오사카시 이쿠노구 이카이노쵸(猪飼野町)의 옛 지명이다. 고대 아스카(飛鳥) 시대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지명인데 1973년 행정구획 변경으로 쓰루하시(鶴橋)·모모다니(桃谷)·나카가와(中川)·다시마(田島)로 분할되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국제고려학회, 2012:304).

8)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귀환 인구에 대해 『東亞日報』 1946년 12월 21일자에는 ‘5만~6만 명’, 『濟州新報』 1947년 2월 10일자에는 ‘8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밀항자에 대한 단속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제주 사람들이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이주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주 사람들이 혈연과 지연에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 사람들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던 이쿠노구 지역이 불법 체류자가 모여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싸움이나 분쟁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사를 나오는 일이 흔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생활이 자유로울 리 없었기에 그들의 생활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 단속의 눈을 피해 혈연이나 지연에 의지하여 지낼 수 있는 오사카 이쿠노구 지역으로 제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오사카의 제주 사람들은 다시 증가하였다. 1974년 오사카의 제주 출신자는 63,972명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전체 재일한국인 수(178,720명)의 35.8%를 차지할 정도였다.¹⁰⁾ 이 시기의 일본 이주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사카 지역의 제주 사람은 통계 자료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출신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지낸다는 것은 자문화 유지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오사카 이쿠노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 안에 독특한 ‘언어의 섬’인 제주방언권이 형성되었다. 일본 정부의 단속, 일본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자들의 차별은 제주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형성하여 생활하게 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정식적인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소통이 가능한

9) 1970~1974년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붙잡힌 한국인 불법 입국자를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속에 걸린 불법 입국자의 수를 보더라도 밀항하는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1970	1971	1972	1973	1974	합계	비율
제주도	93	60	154	189	112	608	82.2%
경상남도		10	18	16	5	49	6.6%
경상북도	3				3	6	0.8%
전라남도	12		2	4	4	22	3.0%
전라북도		1		6		7	0.9%
충청남도		4				4	0.5%
경기도			9		3	12	1.6%
기타	8	2	1	17	4	32	4.3%
합계	116	77	184	232	131	740	

(法務省入国管理局(1975), 『出入国管理-その現況と課題-』, 후지나가다케시(2010), 「재일 제주인과 ‘밀항’: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4.3과 역사』 10, 163쪽 재인용.)

10) 현재 오사카의 재일한국인 수는 99,730명(2019. 6. 기준, 일본 전체 재일한국인 수 451,543명)으로 그중 재일제주인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 법무성은 매년 각 지역의 외국인 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재일한국인의 수를 각 지역 출신지별로 밝혀 전체 재일한국인 중 제주 출신자 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는 전체 재일한국인 수만 밝히고 있다. 출신지별 인구를 알 수 있는 마지막 자료를 2011년도 법무성 통계 자료다(일본 법무성 누리집, <http://www.moj.go.jp/>). 오사카 지역의 재일제주인 수와 재일한국인을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일한국인 수	재일제주인 수
일본 전체	541,401명	86,231명
오사카 지역	124,167명	48,023명

전체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124,167명	48,023명	26,051명	18,006명	10,290명	6,751명

제주방언으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주방언 화자의 유입은 제주방언권이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모여 살고 있더라도 항상 이민국의 언어에 노출되어 있다. 제주방언을 모어로 습득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일본어 생활권에서 일본어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언어는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접촉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언어의 유지와 변화

3.1. 제주방언의 유지

- (1) ㄱ. 호쑤 비 와 가믄 도체비 나을 거 닻앙 모스왕 해난 거 닻아.(조금 비 와 가면 도깨비 나을 거 같아서 무서워서 했던 거 같아.)
 ㄴ. ㄴ는대구덕 쑤이 낱 구덕 흥글어나고.(‘ㄴ는대구덕’ 옆에 와서 바구니 흔들었었고.)
 ㄷ. 경허믄 그이 질레 털어지믄 그추룩 해지주만은 이디 집이 털어지믄 곶냥 낱 이걸 마딱 므, 므 거세기 허주게.(그럼 그 길에 떨어지면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여기 집에 떨어지면 구멍 나서 이걸 모두 모두, 모두 거시기 하지.)
- (2) ㄱ. 족은아덜이 므 그 어른네광 ㄴ치 므 파서 싸 가지고.(작은아들이 모두 그 어른들과 같이 모두 파서 싸 가지고.)
 ㄴ. 말소리덜 클광 싸움덜 헐광 윈 이디 사는 사름덜보다 더 목청이 커, 윈.(말소리들 큰 거며 싸움들 하는 거며 윈 여기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목청이 커, 윈.)
- (3) ㄱ. 시따바리(したばり) 행근에 허여사 나가 기까이(きかい) 앗아듬서 그걸 부치주게.(‘시따바리’ 해서 해야 내가 기계 앉아 있으면서 그걸 붙이지.)
 ㄴ. 잠잘 시간이 엇영 네무따꾸떼(眠たくて) 사듬서도 잠자고.(잠잘 시간이 없어서 졸려서 서서도 잠자고.)

(1)은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징이 오사카 지역 방언 화자 사이에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1ㄱ)은 어두뿐만 아니라 비어두 위치에서도 ‘·’음이, (1ㄴ)은 ‘...’음이 남아 있는 것을 보여 준다. (1ㄷ)은 구개음화와 어두자음군이 거센소리로 되는 제주방언의 특징이 오사카 제주방언 화자에게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의 밑줄 친 ‘광’은 중앙어의 ‘와/과’에 대응하는 조사다. ‘-와/과’가 선행 명사 말음의 음운적 자질에 따라 달리 선택되는 것과 달리 제주방언의 ‘광’은 음운론적 환경과 관계없이 실현된다. ‘광’은 현재 70대 이하 방언 화자 사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김보향, 2017:21~22). 제주에서도 고령의 방언 화자에게만 남아 있는데, (2)는 오사카 지역의 방언 화자 사이에도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ㄴ)은 용언 뒤에 명사형 어미 ‘-ㄱ’ 뒤에 ‘광’이 반복적으로 결합하며 대등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3)의 ‘-아/어듬서’는 ‘-아두다’에 ‘-암시-’가 결합한 형태의 어미다. 문순덕(2000)은 이를 보조동사로 설명하고 있고, 현평효·강영봉(2011)에서는 어미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동사 뒤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여 ‘-아/어 있으면서’의 의미로 쓰인다. (2), (3)은 제주에서도 고령의 화자 사이에서만 확인되는 표현이다.

(4) ㄱ. 그디서 도깨비가 나온덴 그런 말 들어났어.(거기서 도깨비가 나온다고 그런 말 들었어.)

ㄴ. 경헌 사름 공장이 있어난 모양이라 나(나). (그런 사람 공장이 있었던 모양이야.)

ㄷ. 일본에서 온 집이 창무뚝에 겹테기 막 데껴불어나른 그거 봉가당은에 보게또(ボケト) 낱 텡기멍이 하나씩, 하나씩 먹어난 그것도 기억 싯고. (일본에서 온 집의 창문 앞에 겹테기 마구 던져버리고 나면 그거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먹었던 그것도 기억이 있고.)

(4)는 제주방언 보조용언의 특징을 보여 주는 예다. ‘나다’는 중앙어에서라면 ‘-고 나다’로 일부 동사와만 결합하여 ‘-고 나서’, ‘-고 나니’ 등 연결형으로 주로 실현된다. 반면 제주방언에서는 ‘-어나다’의 형태로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선행어로 취하며 연결어미, 종결어미,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 ‘과거 상태’, ‘순차’ 과정의 의미 기능을 하며 폭넓게 쓰이는 보조용언이다.

(5) ㄱ. 경해도이 서꺼졌저. 므물ㄴ룰에 무신 ㄴ룰에 서꺼서. (그래도 섞였어. 메밀가루에 무슨 가루에 섞어서.)

ㄴ. 그것도 보든 막 이젠 벨거 다 멘드는 공장 서라. 그거 폴아점신가이? (그것도 보면 마구 이젠 벨거 다 만드는 공장 있더라. 그거 팔리는가?)

(6) ㄱ. 게도 반찬은 콩지름이여 매일 젓갈이여 그것만 먹으렌 허든 야, 먹어지느냐? (그래도 반찬은 콩나물이며 매일 젓갈이며 그것만 먹으라고 하면 야, 먹을 수 있니?)

ㄴ. 보젠 허든 얼마든지 봐지지 안허냐?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니?)

ㄷ. 그 삼촌 보난 막 설러왕 막 올어지는 거야. (그 삼촌 보니까 아주 서러워서 (저절로) 울게 되는 거야.)

ㄹ. 아이고, 배 안에서 수질 허는디 죽게 수질 헤저라. (아이고, 배 안에서 수질 하는데 죽게 수질 하더라.)

(5)의 밑줄 친 부분의 ‘서꺼지다, 폴아지다’는 중앙어에서라면 ‘섞이다, 팔리다’의 피동 접미사의 결합하여 실현되는 예다. 제주방언 피동문의 특징은, 피동 접미사보다는 ‘-어지다’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방언의 ‘-어지다’는 ‘피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능’이나 ‘상태 변화’, ‘완료’, ‘무의지’ 등의 의미 기능을 한다(김보향, 2019:17~25). (5)에서 ‘-어지다’는 ‘피동’의 의미 기능을 하지만 (6)에서는 ‘가능’, ‘무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오사카의 제주방언 화자의 발화에서도 제주방언의 특징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제주방언의 음운적, 문법적 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7) ㄱ. 우리 아이덜토 이름 다 놓고. (우리 아이들도 이름 다 놓고.)

ㄴ. 경 싸지덜토 안허고 집안에서만 놀안이. (그렇게 싸우지들도 않고 집안에서만 놀았어.)

(8) ㄱ. 한복칩덜도 조선 이찌바(いちば) 가든 잇엇신디 이젠 엇어졌지. (한복칩도 조선시장 가면 있었는데 이젠 없어졌지.)

ㄴ. 새벽이 일어났 벤또(べんとう)집이 강 일하고 헛주기게.(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집에 가서 일하고 했지.)

ㄷ. 코히(コーヒ-)집이도 잘 가지 안하여.(커피숍에도 잘 가지 않아.)

제주방언에서는 ‘식게칩(식게+ 집)’, ‘멜컷(멜+ 젓)’, ‘지들커(진을+ 거)’와 같이 복합어를 이룰 때 후행어에 ‘ㅎ’음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 ‘ㄹ’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도 ‘ㅎ’음이 더해지기도 한다. (7)은 접미사 ‘-덜’ 뒤에 오는 조사 ‘도’가 ‘토’로, (8)은 합성명사를 이루면서 뒤에 오는 명사 ‘집’이 ‘칩’으로 발화되는 예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 현상은 (8ㄴ), (8ㄷ)에서와 같이 ‘べんとう(도시락)’, ‘コーヒ- (커피)’라는 일본어와 결합하면서도 ‘벤또칩’, ‘고히칩’으로 실현되고 있다.¹¹⁾

(9) ㄱ. 밤이 뉘든 후똥(ふとん) 마딱 베갯더레 나오든 오시레(おいしい) 빌 거 아니?(밤이 되면 이불 모두 밖으로 나오면 벽장이 빌 거 아니?)

ㄴ. 어머니 질레 걸을 때랑 알러레 영 숙영 걷지 말앙 우터레 영 얼굴을 내세왕 걸음서.(어머니 길 걸을 때는 아래로 이렇게 숙여서 걷지 말고 위로 이렇게 얼굴을 내세워서 걸으세요.)

ㄷ. 그 제주도 섬 안에서만 안 해연에 저 육지레 나가난.(그 제주도 섬 안에서만 안 하고 저 육지로 나가니까.)

(10) ㄱ. 겐 글로 에끼(えき)데 와 가든 큰 지부라고 해서 저디거치 막 크게 싣고.(그래서 거기에서 역으로 와 가면 큰 지부라고 해서 저기같이 아주 크게 있고.)

ㄴ. 옷 입어난 거 가전 온 거 그냥 오시레(おいしい)데 내불엇어.(옷 입었던 거 가지고 온 거 그냥 벽장에 내버렸어.)

방향을 나타내는 제주방언의 조사에 ‘더레, 레’가 있다. ‘더레’는 선행명사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결합하고, ‘레’는 모음 뒤에 결합한다. ‘ㄹ’로 끝나거나 일부 모음 뒤에서는 ‘러레’가 결합하고, ‘ㅎ’말음을 가졌던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터레’가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정승철, 1995:179~180). 즉 ‘더레’는 (9)에서와 같이 선행 명사 말음의 음운적 자질에 따라 이형태가 선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 조사 선택의 제약은 (10)에서와 같이 일본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지켜지고 있다. (10)의 ‘えき[eki]’, ‘おいしい[osi(i)re]’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로 뒤에 ‘레’가 오고 있다. (9),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명사의 말음에 따라 조사가 선택되는 특징이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에게서도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 명사가 일본어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조사와 동사의 선택적 제약이 지켜지기도 한다.

11) 이는 앞에 오는 ‘벤또(べんとう)’나 ‘고히(コーヒ-)’를 다른 언어로 인지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민 1세가 사용하는 일본어에는 음성, 문법, 어휘 등 넓은 범위에 걸쳐서 모어의 간섭을 받은 흔적을 볼 수 있다. 일본어는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끝난다. 일본어의 특수 음소인 ‘발음/N/’, ‘축음/Q/’, ‘장음/R/’은 음절의 구실을 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음절과 동등한 박(拍, mora)을 가지고 있다. 음절 구조적인 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는 음성적 음절의 하위 단위로 길이의 단위인 박이 존재하나 한국어의 음절에는 박이라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8)의 일본어 ‘べんとう’와 ‘コーヒ-’는 2음절(4박)을 갖는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2음절로 축약되고 있다.

- (11) ㄱ. 한번은 우이 사름ㄴ라 골앗주게.(한번은 위 사람에게 말했지.)
 ㄴ. 조추상(じょちゅうさん)ㄴ라 무신거옴 곤느니?('조추상'보고 뭐라고 말하니?)
 ㄷ. 나 아으덜ㄴ라 言うの.(나 아이들에게 말해.)(김보향, 2015:57)

제주방언의 ‘ㄴ라’는 ‘신디, 안티’와 함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결합하는 조사로 중앙어의 ‘에게, 한테, 보고’에 대응한다. ‘ㄴ라’는 동사 ‘곤다’에서 문법화한 조사로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같이 쓰이는 특징을 갖는다(강정희, 1988:83). 즉 ‘~ㄴ라 곤다’, ‘~ㄴ라 (말)허다’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러한 ‘ㄴ라’의 문법적 호응 제약은 (11ㄷ)에서와 같이 동사가 일본어로 대치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ㄴ라’가 일본어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도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 ‘言う’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렇듯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는 일본어 생활권에 놓여 있지만 모국어인 제주방언을 유지하고 있다. 음운에서는 제주 지역 고령층 방언 화자들에게만 남아 있는 ‘·’모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개음화 등의 음운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 문법 형태 부분에서도 보조용언이나 피동문 등에서 보이는 제주방언의 특징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방언 화자들의 언어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일부 어휘가 일본어로 대치되어 실현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제주방언의 특징적인 음운 규칙이나 문법적 제약까지도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일본어의 대치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변화는 제주방언 자체의 음운이나 형태적인 변화보다는 해당 어휘가 일본어가 대치되어 실현된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일본어와의 접촉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어휘나 구, 절 단위로 일본어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 (12) ㄱ. 아이도 어리고 미세(みせ) 볼 사름 엇고 허니까 갓닥 말앗다.(아이도 어리고 가게 볼 사람 엇고 하니까 갓다가 말앗다가.)
 ㄴ. 어머이나 다노모시(たのもし) 들영 느 보낸 것에 보텐에 집을 사ㄴ라 험게.(어머니가 계에 들어서 네가 보낸 것에 보태서 집을 샀다고 했어.)
 ㄷ. ㄱ. 결혼헌 후에 마도메(まどめ) 허고 나가 첨 야다이(やたい) 장사할 적에 왔어.(결혼한 후에 ‘마도메’ 하고 내가 참 포장마차 장사할 적에 왔어.)
 (13) ㄱ. 소우소(そうそう), 난 먹을 충 몰란.(그래, 난 먹을 줄 몰랐어.)
 ㄴ. 경해서 근때 가가지고 찬또(ちゃんど) 다 헤가지고 산을 밧 하나에 몬 메왔어.(그래서 그때 가서 잘 다 해서 산을 밧 하나에 모두 메왔어.)

(12)와 (13)은 문장 안에서 일부 명사나 감탄사, 부사가 일본어로 대치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다. (12)는 ‘가게’, ‘계’ ‘수선, 정리’의 표현이 대응하는 일본어 ‘미세(みせ)’, ‘다노모시(たのもし)’, ‘마도메(まどめ)’로 대치되고 있다. (13)은 감탄사 ‘그래’에 대응하는 일본어 ‘소우소(そうそう)’, 부사 ‘잘, 제대로’가 대응하는 일본어 ‘찬또(ちゃんど)’가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어휘 대치는 이중언어 화자의 언어 교체(code switching)는 성격이 다르다. 언어 교체가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른 코드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라면 여기에서 ‘대치’는 어휘의 차용에 가까운 것으로, 이주 초기부터 일어나는 언어 변화다. 이주 초기의 제주 사람들은 제주방언 단일어 화자로 먼저 습득하게 되는 어휘들을 차용하는 단계에서 두 언어를 혼용한

다. 제주방언의 문법적 틀 안에 먼저 습득하는 일본어 어휘들을 대치시켜 넣어 구사하면서 점차 문장 전체로 확대해 간다. 일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14) ㄱ. 풀고치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 집에 혼 하코(はこ)썩 보내와.(풋고추 많이 심어서 우리 집에 한 상자씩 보내와.)

ㄴ. 이 층광 삼 층에는 오래오래 텅기는 사름라(ら)가 빠리빠리야.(이 층과 삼 층에는 오래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빠릿빠릿해.)

(15) ㄱ. 한국 사람 몇 있어도 일본 사름가(가) 오오이/(おおい). (한국 사람 몇 있어도 일본 사람이 많아.)

ㄴ. 똥해 혼 삼 년구라이(ぐらい) 똥실 거라.(이듬해 한 삼 년정도 똥을 거야.)

(14)는 일본어 명사 뒤에 제주방언 접미사, 제주방언 명사 뒤에 일본어 접미사가 결합하고 있다. (14ㄱ)의 ‘하코썩’은 ‘상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하코’ 뒤에 접미사 ‘-썩’이 결합했다. (14ㄴ)의 ‘사름라’는 ‘사름(사람)’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일본어 접미사 ‘ら’가 결합한 형태로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명사와 접미사의 결합에서 어느 한쪽이 일본어로 대치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다.

(15)는 제주방언 명사 ‘사름, 년’에 일본어 조사 ‘가, ぐらい’가 결합하고 있다. 제주방언을 기반으로 문장에서 일부 조사만 일본어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문장의 구조가 유사한 두 언어는 문장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어휘가 대치되는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

(16) ㄱ. 보게떼(ぼけて) 가니까 아무것도 몰랑 몰라 허는데, 아방 가난.(흐려져 가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몰라 하는데, 아버지 가니까.)

(17) ㄱ. 겐 아무것도 엇인디 어떻 멘도(めんどう)를 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돌봐.)

ㄴ. 육촌 오라방은 친구신디 여저 둘 이시난 하나 누게 말허믄 지가 세와(せわ) 허 켜 현 거 아니?(육촌 오라버니는 친구에게 여자 둘 있으니까 하나 누구 말하면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한 거 아니?)

(16)의 ‘보けて 가니까’는 일본어 ‘ぼける((정신이) 흐려지다)’의 활용형에 ‘가다’가 결합한 것으로 ‘본동사+보조동사’의 구성이다. 일본어에서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결합은 우리말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우리말에서 ‘본동사+ -아/어+ 보조동사’의 구조로 결합하는 것처럼, 일본어에서는 ‘본동사+ -て+ 보조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16)의 ‘보けて 가니까’는 일본어 동사 ‘ぼける’에, 우리말에서라면 ‘-아/어’형에 해당하는 일본어 활용 어미가 결합하고 ‘가다’가 결합하고 있다.

(17)의 밑줄 친 ‘멘도(めんどう)를 봐’, ‘세와(せわ) 허 켜’는 일본어 관용어 ‘面倒を見る(돌보다, 보살피다)’, ‘世話をする(소개하다)’에서 가져온 말로, 일본어 동사 ‘みる’ 대신에 그에 대응하는 ‘보다’가, 일본어 동사 ‘する’ 대신에 ‘하다’가 대치되어 일본어와 한국어가 결합한 형태의 관용 표현이 쓰이고 있다.

한편, 제주방언의 문장 체계 안에 일본어를 대치하여 혼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일본어+허다’, ‘한국어+する’가 있다. 재일한국인 1세의 언어에 ‘일본어+하다’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김미선(1998, 2001), 김정자(2002)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이다.¹²⁾ 이러

한 특징은 재일제주인의 발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18) ㄱ. 전이 사름덜은 집을 짓지 못헿, 그냥 간판 모라이(もらい) 헤도 집을 짓지 못했어.(전의 사람들은 집을 짓지 못해서, 그냥 간판 받았는데도 집을 짓지 못했어.)
 ㄴ. 유치원 엇이니까 유치원 가와리니(かわりに) 학교 디물라 불었어. 도시(とし) 교마까시(細かし) 헨 그냥 디물라 불었어.(유치원 없으니까 유치원 대신에 학교 들이밀어 버렸어. 나이 속여서 그냥 들이밀어 버렸어.)
- (19) ㄱ. 그때 학생덜토 오랑 도마루(とまる) 허꾸.(그때 학생들도 와서 묵고.)
 ㄴ. 이제 잠을 잘 못자고 그냥 일만 허다 보니까 오우단(おうだん)이라고, 기이로이(きいろい) 헨 거.(이제 잠을 잘 못자고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황달이라고, 노란 거.)

‘허다’는 보통 명사 또는 동사의 명사형, 부사 뒤에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18)은 동사나 형용사의 명사형에 ‘허다’가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발화에는 (19)와 같이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에 바로 ‘허다’를 결합하여 구사하는 예가 많다.

‘일본어+ 허다(하다)’의 표현이 일본의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김완진(1957)이 제주방언의 일본어 어사를 조사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1957년 제주를 현지 조사하여 제주의 방언 화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본어 어휘 240여 개를 조사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때 조사된 항목 중에는 ‘다마네기(tamanegi)’나 ‘덴뿌라(tempura)’ 등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어휘뿐만 아니라 다음의 항목들이 있다.

- (20) ㄱ. adaru-honda 아달르헿다
 ㄴ. tomaru hōten 止る헿텐
 ㄷ. arappoi-hōda あらっぽい헿다
 ㄹ. pariparihōda パリパリ헿다
 ㄴ. ahōrasi-hōda アホらし헿다
 ㄷ. odonat'age(<odonasihage) 大人し헿게
 ㄸ. tomehōnda 止め헿다
 ㄹ. kawari hebonan 替り헿부난
 ㄷ. jasime hōnda 休め헿다

위의 예들을 보면, 일본어에 제주방언 ‘헿다/허다’가 결합하는 형태는 제주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을 오고 갔던 방언 화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 왕래했던 사람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언어를 고향에 와서도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해방 후 일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1957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이들 일본어 혼용 어휘들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12) 김미선(1998, 2001)과 김정자(2002)는 모두 이쿠노구 지역의 재일한국인을 제보자로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 제주 출신의 비율이 높다. 때문에 그 언어적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어에 제주방언 ‘하다/허다’가 결합된 형태의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김보향, 2015:97).

(21) ㄱ. 발 아파도 빨리 걸어스루(する).(발 아파도 빨리 걸어.)

ㄴ. 그땐 집이선 못 허주만은 곱할 디가 하스루네(するね).(그땐 집에서는 못 하지만 곱할 데가 많지.)

ㄷ. 그거 삼백 원 저금허민 그거 나오라. 경혜영 그거 메와시뻬(して).(그거 삼백 원 저금하면 그거 나와. 그래서 그거 모아서.)

ㄹ. 사업은 크게 헤신디 동생덜광 지쳐시파야로우(したやろう).(사업은 크게 했는데 동생들과 지쳤던 것이겠지.)

(21)은 우리말 용언의 ‘어간+아/어’에 ‘する’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다. 이때 제주방언 뒤에 결합하는 ‘する’는 동사 자체의 의미 기능은 하지 않고 앞에 오는 용언에 시제나 양태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1ㄹ)에서 ‘사업은 크게 했는데 동생들과 지치다’는 문장의 명제적 사실이다. 여기에 결합하는 ‘したやろう’는, ‘した(했다)’로 과거의 일임을, ‘やろう(-이겠지)’로 화자의 추측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사카 지역의 제주방언 화자는 이중언어 화자이지만 제한적 이중언어 화자다. 제주방언이 모어지만, 동사의 활용이나 선어말어미, 보조용언 등을 결합하여 시제나 양태를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명제적 사실은 제주방언으로 나타내고 시제나 상, 양태 등은 일본어 기본 동사인 ‘する’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일본어 동사의 활용도 쉬운 것은 아니나 ‘する’는 가장 쉽게 접하면서 자주 사용하여 익숙해져 있다. 동사마다 각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する’의 활용형을 통해 문장의 시제나 양태 표현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다.

(22) ㄱ. 이 다노모신(たのもし)나 매해, 매달, 매달 흐끔씩 내놓민 뵈 거난.(이 계는 매해, 매달, 매달 조금씩 내놓으면 뵈 거니까.)

ㄴ. 지가 테즈다이(てつだい) 허쿠다 허 뵈 테즈다인(てつだい) 뵈라.(자기가 돕겠다고 해 두고 돕기는 뵈야.)

(22)에서 일본어 명사 ‘たのもし(계)’, ‘てつだい(도움)’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고 있다. 구어에서 선행하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들 조사는 축약된 형태인 ‘ㄴ’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축약 현상이 (22)에서와 같이 일본어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たのもしㄴ(tanomosin)’, ‘てつだいㄴ(decheudain)’는 ‘たのもし+는’, ‘てつだい+는’의 구성이다. 일본어 체언 뒤에 제주방언 조사 ‘은/는’이 결합하는 것으로,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결합하면서 음운이 축약하는 것을 보여 준다.

제주방언과 일본어가 결합하면서 음운 축약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23) ㄱ. 나 안앗따리(안아ったり) 가이 안앗따리(안아ったり) 경허멍.(내가 안았다가 개가 안았다가 그러면서.)

ㄴ. 계난 이제 동서네 집이 강 부름씨헤 봏따리(보아ったり) 시누이네 집이 강 부름

씨혜 봇따리(보아ったり). (그러니까 이제 동서네 집에 가서 심부름해 보다가 시누이네 집에 가서 심부름해 보다가.)

(23)의 ‘안앗따리’, ‘봇따리’는 ‘안다+ -아/어+ ったり’, ‘보다+ -아/어+ ったり’의 구성으로¹³⁾ 동사 ‘안다’, ‘보다’ 뒤에 일본어의 조동사 ‘たり’¹⁴⁾가 결합한 형태다. 이는 (12)~(17) 등에서 살펴본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에서 실질형태소와 의존형태소의 경계가 분명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언어 혼용에 언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두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음운의 축약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합되는 형태소 간의 긴밀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로 유사한 두 언어가 결합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라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3.3.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합 언어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에는 상당 부분 일본어가 섞여 있다.

Winford(2003)는 두 개의 다른 언어가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언어의 유지(language maintenance)’, ‘언어 전환(language shift)’, ‘접촉언어의 형성(language creation)’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언어의 유지’는 원래 사용했던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의 언어를 유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와 원래의 언어를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원래의 언어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새로운 언어에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휘 차원에서의 차용과 구조적인 유사성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언어 전환’은 원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변화로, 변화의 과정에서 이중언어를 병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언어 유지’ 단계에서 이중언어를 병용하는 경우와 달리, ‘언어 전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접촉언어의 형성’은 두 언어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두 언어와는 다른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김보향, 2020:24~25).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혼용 언어는 두 언어의 접촉에서 형성된 ‘접촉언어’이다. 그 예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나: 그 츠루하시양 가난양, あのパス通りあるやろう, 글로 저쪽더레 駅레 가가난 중간에 김치屋ができてるわ.

가: 아, 그 パス 우엿질로 できてる.

나: 예, 예.

가: できてる.

나: 그 まんじゅう덜 푸는, 焼いて 푸는 隣. 막 데며십디다.

가: 아이고, 김치덜 잘도 먹어이 이디도 宅急便 보낸 것들이, 이디도 밋밋 김치집덜 그냥.

나: 경해도 味があるところあるし、ないところあるわ.

다: 츠루하신 김치가 밋나덴.

13) ‘안다+ 앓+ たり’의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14) 일본어 문법에서는 품사를 ‘명사, 동사, イ형용사, ナ형용사, 부사, 조사, 조동사, 연체사, 감탄사, 접속사’로 나누고 있다. ‘たり’는 보통 ‘~たり~たり’의 형태로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의 의미다.

가: 짐치고 뭐고 なんでも高い.

나: 겨고 焼き肉 허는 디덜은 담지 안허영덜 みんなおんなじ味で 문딱 주문덜 햄수 게.

가: みんな 주문してるね. 옛날은 다 거기서 다 만들어.

나: 우리 いとも 저 焼き肉 허는디 味が変わったらあかんから. 그자 おんなじ 집에서 문딱 부탁해연.

다: だけど 오늘 조선いちばん, 漬けもん屋暇やで. 막 ならび 허는디 少ないわ.

가: 그건 저, 小売리로 그냥 사 먹는 사름 ならび햄주만양.

다: 게메 그것도 少ない헨.

(김보향, 2015:144)

(24)는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 간의 대화에서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연구자가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 간의 대화에 참여하여 조사한 자료로, 참여자들은 모두 제주방언과 일본어를 섞어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¹⁵⁾ 실제 대화를 들었을 때, 두 언어 사이에 머뭇거림 등은 전혀 없었다. 이는 대화 상대에 따라 언어를 선택하여 언어 교체(code switching)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두 언어를 섞어서 구사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두 언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제주방언이나 일본어의 언어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문법 체계가 크게 간략화되었다¹⁶⁾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두 언어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혼동

15) 대화 지문은 녹음한 자료(약 50분 분량)를 전사한 것으로, 조사는 2014년 4월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야타운의 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연구자 외에 다음의 4명이다.

구분	이름	출생년도	출신지	세대 (도일 시기)
가	김○연	1931년	도두	1세 (1940년)
나	김○자	1942년	대정	2세
다	김○생	1921년	함덕	1세 (1935년)
라	○○○	1940년	성산	1세 (1942년)

16) 이는 피진(pidgin)의 특징이다. 피진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피진은 대개 식민지 지역 또는 무역이나 노동이 관련된 상황에서 외부인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231).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언어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건을 팔고 사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 만큼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일한국인의 혼용 언어를 피진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는 있었다. 구마타니아키야스(1988:224)는 제일한국인 1세들이 한국어 동사·형용사 어간에 일본어 ‘する’를 결합하는 언어 현상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결합형을 문법적 형태로 묶어서 일본어 속에 전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의 피진(pidgin)의 특징적인 간략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김정자(2002:20~21)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혼용을 피진으로 정의하는 데에 논란이 있을지라도, 피진 형성의 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제일한국인 1세들의 혼용 양상은 이중언어 화자가 상황에 따라 의식적으로 코드를 전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정하게 단순화되고 혼합된 양상을 보이며, 조어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피진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두 언어의 혼용 사용이 제일한국인 1세대 간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상호 통용되는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진은 교류를 목적으로 갑작스런 접촉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피진은 음운·문법·어휘의 모든 면에서 구조가 단순하고 문법 구조의 틀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하다. 이때 언어 접촉은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는 그룹 간의 접촉으로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의사소통을 위해 생겨난 언어이다. 그래서 제일한국인 간에 통용되는 언어를 피진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일제주인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24)의 대화는 일본어 화자와 제주방언 화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일제주인 간의 대화이다. 즉 피진이 이언어(異言語)를 사용하는 두 그룹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생겨난 언어인 반면, (24)와 같은 제일제주인의 언어는 이중언어 사회에서 생겨난 것으로 같은 집단 내부에서의 교류에 쓰이기에 피진이라 할 수 없다(김보향, 201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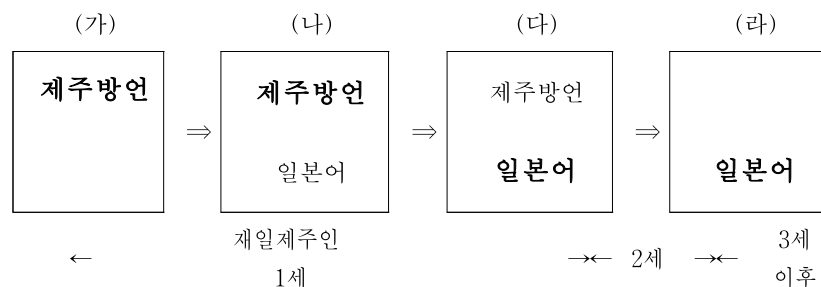
하는 것으로, 두 언어 간의 코드 혼용(code mixing)으로 불완전한 언어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 간의 대화는 다른 지역 출신의 재일한국인이나 일본어 모어 화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제3의 언어’이다.

혈연이나 지연에 의지에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사람들은 정식으로 일본어를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 범위는 제약적이었고 일본인과 접촉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이들의 언어 모델은 자신보다 먼저 일본에 정착한 같은 지역 출신자였다. 많은 1세대들은 일본어는 물론 모국어도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국어나 일본어의 읽기 쓰기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먼저 정착한 사람들의 언어를 청각에 의지하여 습득하면서 불완전한 형태의 언어가 생성되었고 그 언어는 걸러지지 못하고 다시 전달되면 언어 공동체 내에서 굳어졌다. 이러한 언어가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접촉에서 생겨난 혼합 언어다.

3.4. 일본어로의 전환

이중언어 사회에서 소수 이민자 집단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언어 선택이 달라진다. 자기 집단의 언어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언어를 계속 유지하고 사용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강력한 지배 언어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는 언어 집단의 내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언어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는 언어 사용자인 화자가 그 언어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언어의 많은 현상은 사람들의 언어 태도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언어가 존속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쇠퇴하고 멸망하느냐 하는 것도 언어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이익섭, 1994: 276~277). 모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언어가 유지(language maintenance) 될 수 있지만 모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른 언어로의 언어 전환(language shift)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후세들에게 “제주방언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세대를 불문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절대적이었고 ‘그렇다’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김보향, 2014:127~130). 부정적인 언어 태도는 언어 사용 영역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다음 세대로의 전승도 어렵다. 제주방언 화자에게조차 제주방언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의 유지가 어렵다는 보여 준다.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전환은 일반 이민 사회의 언어 전환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보향(2015:115~116)은 재일제주인 사회의 언어 전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재일제주인의 언어 전환 과정

이민 초기 제주 사람들은 (가)의 제주방언만을 구사하는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습득한 일본어 어휘를 일부 섞어 가면서 제주방언을 구사한다. 차츰 일본어를 습득하여 (나)와 같이 제주방언과 일본어의 이중언어 화자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제주방언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식적인 체류 자격을 얻고 사회 활동이 범위가 넓어진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제주방언보다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¹⁷⁾ 그러면서 (다)와 같이 일본어 사용이 우세한 이중언어 화자가 된다. 2세는 고향에서의 체제 경험이나 가정 내의 언어 환경 등에 따라 언어 능력이 다르지만 일본어가 우세하다. 3세 이후는 (라)의 단계로 완전히 이민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전환된다. 재일제주인 사회의 언어가 제주방언에서 일본어로 ‘언어 전환(language shift)’ 되는 것이다.

이민 사회의 소수집단은 대개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이민국에 부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민국의 언어 습득은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모국어는 점차 사용할 기회를 잃고 모국어를 잊게 된다. 자연히 모국어에서 이민국의 언어로 언어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익섭, 1994:331). 오사카 지역의 제주방언 화자는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상위언어인 일본어를 배우고 또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연히 모국어인 제주방언은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반면 일본어 구사 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발전해 간다. 그러면서 여러 수준의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생기게 된다. 모국어 이외에 일본어를 제2 언어로서 쓰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일본어 구사능력이 제주방언 구사 능력보다 더 좋아질수록, 그리고 제주방언 구사 능력은 떨어지면서 없어지고 일본어만이 유일한 의사소통의 방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4. 마무리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변화의 원인은 구조화에 의한 내부적 요인일 수도 있고 다른 언어와의 접촉에 의하기도 한다. 모어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권에 들어가면 언어는 접촉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주류 언어를 습득하면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오사카 지역의 제주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사카 지역의 제주 사람들은 이주 초기부터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해 왔다. 특정 지역에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면서 일본 안에 작은 제주가 만들어졌고, 제주방언 언어권이 형성되었다. 두 나라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방언 화자가 유입되며 제주방언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일본어 생활권 안에서 제주 사람들은, 일본어와의 접촉으로 두 언어가 섞인, 제주방언 화자만의 독특한 혼합 언어로 소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방언은 이민 후세들에게 언어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대가 교체하면서 오사카 지역 제주 사람들의 언어는 일본어로 전환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민 사회의 언어 변화의 과정을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은 다음 세대로의 전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제주방언이 후세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없더라도, 역사의 흔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언어를 기록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17)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장의 가정에서의 언어생활을 보면, 배우자와 대화할 때는 57% 정도가 제주방언을 사용하지만 자녀에게는 8%에 그치고 있다(김보향, 2014:125~126). 이를 보더라도 이민 다음 세대에게 제주방언의 전승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석우 · 김미정 · 이길용 역(2008), 《사회언어학의 전망》, 제이앤씨, 真田信治 編(2006), 《社会言語学の展望》, くろしお出版.
- 강정희(199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강정희(2002), <언어접촉과 언어변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회의 방언 보존에 대한 조사>, 《국어학》 40, 국어학회, 139~170.
-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곽은심(2013), <韓日バイリンガルのコード・スイッチングに関する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곽충구(2000), <재외동포의 언어 연구>, 《언어학》 제69집, 한국어문학회, 1~41.
- 구마타니아키야스(1988), <한국어 속의 일본어계 차용어 연구에 관한 고찰>, 《이중언어 학회지》 4, 203~234.
- 김보향(2014), <재일한국인 언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일한국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323~353.
- 김보향(2014),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과 일본어 혼용 양상 고찰>, 《언어학 연구》 19-2, 한국언어연구학회, 1~19.
- 김보향(2014),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 재일제주인의 제주방언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영주어문》 28, 영주어문학회, 111~136.
- 김보향(2015),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보향(2020), <오사카 지역 제주어 화자의 언어 혼용에 관한 연구: 제주어 기반 발화의 일본어 ‘な’ 혼용을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25-1, pp. 23~38.
- 김정자(2002), 《재일한국인1세의 한국어 · 일본어 혼용 실태에 대한 연구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태학사.
- 김완진(1957), <제주도방언의 일본어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통권 18호, 112~131.
- 문순덕(2000),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 연구>, 《탐라문화》 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1~207.
- 박경래(2002), <중국 연변 조선족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59~86.
- 박경래(2005), <충북출신 중국 연변 조선족 언어집단의 경어법 혼합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사회언어학》 13-1, 한국사회언어학회, 53~81.
- 박경래 외(2012),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박순함(1998), <언어접촉: 그 승과 패의 양면성>, 《언어와 언어학》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21.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임영철 외(201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제주도청(1937), 《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 ·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정승철(2010), <방언접촉과 언어변화>, 《국어학논총》, 태학사, 369~387.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 후지나가다케시(2010), <재일 제주인과 ‘밀항’: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4.3과 역사》 10, 153~176.
-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金美善(1998), <在日コリアン一世の日本語: 大阪市生野区に居住する一世の事例>, 《日本学報》 17, 大阪大学文学部日本語学研究室, 71~83.
- 金美善(2001), <在日コリアン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 大板市生野区周辺における言語接触の観点から>, 《青丘学術論集》 第19集, 財団法人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273~299.
- 杉原達(1998), 《越境する民》, 新幹社.
- 神鳥武彦 訳(1976), 《言語間の接触》, 岩波書店,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The Hague: Mouton.
- Winford Donald(2003), An Introduction to Contact Linguistics. Oxford:Blackwell Publishing.
- 일본 법무성 누리집 <http://www.moj.go.jp/>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에 대한 토론문

문숙영(서울대)

제주도와 오사카 사이의 오랜 인연은 익히 들어왔지만 실상을 살필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김보향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이주의 배경과 언어 현실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명합니다. 1950년대 이전에 이주한 1세는 제주방언이 모어인 화자들이나, 이주 초기 일부 표현을 일본어로 대체하는 불완전한 혼용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두 언어가 고루 공존하는 상태를 거쳐, 2세 이후부터는 일본어로의 언어전환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에 이견이 있기는 어려울 듯하고, 재일제주인의 언어 현실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과 생각을 청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주민 1세의 언어 사용 양상을, 모어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언어 변화의 단초가 아니라, 제2언어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순 ‘언어-혼용(code-mixing)’으로 보고 계시는 듯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세 이후 제주방언 화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 외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어접촉의 주요 상황에는

- ①서로 관련 없는 언어들이 같은 생태권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예, 아마존강 유역)
- ②어족 간 경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접경지역(예, 인도의 인도유럽어와 드라비다어 간의 접경지역)
- ③식민지 팽창의 결과, 식민지 언어의 변이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예, 크레올),
- ④주변의 국어(공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독립지역(예, 프랑스의 바스크어)
- ⑤이주의 결과. 특히 식민지 이후 제3세계 사회로부터 산업화된 세계로의 인구 유입 등이 있습니다.

오사카 제주인은 ‘이주’에 의해 언어접촉 상황이지만, 선생님의 지적대로 ‘피진’이나 ‘언어교체(code-switching)’는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비월어민 사이에서 혹은 비월어민을 향해 이루어진 언어 사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시된 예와 선생님의 기술을 보면, 주로 일본어가 쓰이거나 주로 제주방언이 쓰이는 특별한 환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용 발화만의 특별한 제약도 없어 보여, 정황상 새로운 구조나 표현의 출현과 같은 언어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자료에서도 일본어가 제주방언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볼 만한 예들이 전혀 없었는지, 특히 이주민 2세, 3세의 제주방언 사용 양상에서 (일본어 사용의 증가 외에) 다른 점이 발견된 바 있는지 등을 포함해 재일제주인의 언어-혼용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제주방언에 일본어를 섞어 쓰기 시작한 동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관찰된 바가 있거나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어-혼용의 이유가 언어변화나 언어전환의 전개 방향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 ①제주방언으로는 특정 주제나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 ②해당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제주방언을 모를 수도 있으며(일본 이주 이후에 습득한 단어 등)
- ③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알고는 있지만 당시에 떠오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 ④두 개의 언어가 비슷해서 무엇을 써도 크게 상관없어서일 수도 있으며
- ⑤혼합된 정체성의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할 듯합니다.

만약 일본어로 처음 접한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대당 제주방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면, 일본어로의 언어전환이 더욱 빠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듯합니다. 실제로 혼합 언어의 예로 제시한 (24)는 약 10살, 15살에 도달한 이주 1세 두 명 외에, 이주 2세의 대화 지문인데, 이들은 상당히 어려 제주방언을 폭넓게 경험할 정도는 아님을 짐작할 수 있으며, 특히 이주 2세인 ‘나’는 제주방언의 기본문법은 습득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표현을 일본어에 기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사례마다 혼용의 이유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혹시 동일한 화자에게서 비교적 고정적으로 발견되는 특정 언어 선호 현상이나 특정 표현이 발견되는지, 혹은 어떤 표현이 여러 화자에게서 고루 발견되는 일이 있는지 등, 혼용의 동기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3. 선생님께서는 오사카 지역에서의 제주어 보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는 화자 수의 감소 외에도 제주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 태도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 1세 전체 33명 중에 64%가 일상생활에서 일본어가 더 편하다고 답한 설문 결과는(강정희 2005) 상당히 의외입니다. 언어 습득기 이후에는 제2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더 편히 여기고 이의 사용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본어를 더 편히 여긴다거나 제주방언을 회피하는 데는, 주류 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이유 외에, 당시의 혹은 부모세대의 제주도나 제주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디어에 묘사되는 제주사회는 가난하고 거친 이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일제주인들의 제주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는 아주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아시는 바를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시, Wales 지방에서의 언어 태도 질문]

-다음 척도에 따라 웨일즈어를 평가해 보시오(예, ‘아름다움/거침, 현재적/구식, 논리적/비논리적’)

-다음 척도에 따라 영어를 평가해 보시오 (동일 척도)

-Howard는 Cardiff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그곳에서 웨일즈어를 배웠다. 지금 그는 웨일즈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맨체스터에 살고 있다. Howard가 웨일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에서의 표준어와 방언 사용에 대한 연구

홍미주(경북대)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 대화에서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방언이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방언형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방언형이 담화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타나는 경상방언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언형이 대화에서 담화 기능을 수행함을 논하고자 한다.

전통방언학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수집된 방언형을 통해 해당 지역 방언의 체계를 정치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화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화자들의 언어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서 NORMs(Non-mobile Old Rural Males)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한두 명의 제보자로부터 수집된 방언형이 해당 지역 화자들의 언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방언학이 쌓아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방언이 아닌, 현재 지역에서 생활어로 사용되는 방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¹⁾ 지역 화자들의 실제 언어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모바일 메신저 앱의 대화도 실제 사용되는 구어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 지역 화자들의 언어생활을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앱의 대화가 각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어로서의 방언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언을 일상생활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의 실제 언어를 파악하고, 화자들의 언어 운용 양상과 기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표준어와 방언 접촉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체로 표준어와의 접촉에 따른 표준어화와 그에 따른 방언의 소멸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역 방언 화자가 표준어 지역으로 이동하여 표준어와의 접촉의 결과로서의 표준어화를 다룬 연구(백경원 1997, 강희숙 2015, 김경아 외 2016 등)와 직접적인 이동이 아닌 교육 및 통신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표준어와의 접촉의 결과로서의 표준어화를 다룬 연구(강윤희 1993, 류성기(2013, 2014), 강희숙(2015),

1) 조남호(2013:83)도 지금까지 방언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과거로부터 쓰여왔지만 이제는 사라져가는 방언을 수집하는 데 관심을 두어 왔지만, 이제는 실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언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보향(2017), 이철희(2017), 배혜진(2019 등)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류성기(2013, 2014)는 산청과 함양 지역의 60대 화자와 10대 화자를 대상으로 방언 문법 형태의 사용양상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문법 현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표준어의 간섭으로 방언 문법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짙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희숙(2015)과 배혜진(2019)은 각각 전남방언과 부산방언의 어휘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방언 어휘의 인지도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젊은 세대에서의 방언 어휘의 인지도와 사용률이 낮게 나와 방언 어휘의 표준어화가 상당히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김보향(2017)은 표준어와 형태를 달리 하는 제주방언의 조사를 대상으로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 정도를 세대별로 살핀 결과, 청년층으로 갈수록 방언형이 단순화되고 있으며 일부 방언형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철희(2017)는 대구 지역의 화자를 대상으로 고빈도 어휘의 고모음화,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실현 정도를 살핀 결과, 50대 이상에서 방언형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20대와 30~40대에서는 표준어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 문법, 어휘, 음운 부문에서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 양상과 정도를 살펴보고 있어, 문법, 어휘, 음운에서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어떠한 부문에서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의 우세한지도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방언형의 사용과 관련된 기제, 즉 지역 화자들이 사회적 위세를 가진 표준어와의 부단한 접촉에도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방언형 사용의 기제가 무엇인지, 방언형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법, 어휘, 음운 측면에서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어떤 부문에서의 방언형 사용 정도가 높은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세형인 표준어와의 접촉에도 지역 화자들이 방언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방언형이 수행하는 담화상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논하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으로서의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

각 지역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구어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실제 화자들이 발화하는 구어가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개입된 조사 환경에서 화자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어를 구사하는 데 제약이 있고,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실현되는 언어형을 파악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화자들이 현재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상 구어를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대화 상황에 따른 화자들의 언어 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앱의 하나인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환경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과 인터넷 환경에서 의사소통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특히 국민의 95% 이상이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전화해’ 대신 ‘카톡해’가 인사가 된 현재,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의 의사소통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²⁾ 카카오톡 대화는 입말과 글말의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구어의 양상을 잘 반

2) 카카오톡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2019년 4분기 기준 월간 순이용자 수(MAU)는 4485만 명, 해외까지 더 하면 5149만 명이다. 하루 평균 송수신 메시지는 110억 건에 달한다. 카카오톡은 한국 모바일 메신

영하고 있다.

그동안 언어학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글말과 실제 화자의 입에서 발화되는 입말이었다. 통신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글말, 입말 자료가 언중이 생산하는 의사소통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던 글말과 입말의 비중이 줄어들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행위가 일반 언중의 의사소통 행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이전에 연구 대상으로 한 입말과 글말 외에 카카오톡 대화에서 쓰이는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앱의 대화를 대상으로 언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과 기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카카오톡 대화의 언어형들이 언중의 글말과 입말과 동일하게 실현되지는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과 다르게 표기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하는 대화의 특성상 표기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통신언어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지만 화자가 사용하는 일상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화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관찰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의 언어는 각 지역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어로서의 방언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는 현실언어의 즉각적 반영이 가능하므로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방언 화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역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는 연구자의 개입 없이 지역 화자들의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관찰하는 데 용이하고,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 및 배경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대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대화 상황에 따른 방언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는 데이터화하기 용이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에도 이점이 있다.

3.2 연구 내용

카카오톡 대화에서 방언 사용의 양상과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음운, 어휘, 문법 부문에서 어떤 방언형이 사용되고 있는가?
- 음운, 어휘, 문법 측면에서 방언 사용에 차이를 보이는가?
- 각 부문에서 관찰되는 방언형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의 빈도로 실현되는가?
-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사용정도는 어떠한가?
- 표준어형에 대해 어떤 방언형이 강제이고 열세인가?
- 사회적 위세를 가진 표준어가 있음에도 방언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방언형이 수행하는 담화적 기능은 무엇인가?

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로 자리매김했다(한경비즈니스 제1270호, 2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164>).

3.3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3.3.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 11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화방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40대 여성들로 이루어진 대화방으로, 친목도모 및 일상정보 공유가 주목적이다.

이 대화방의 참여자들은 모두 경상도 출신으로, 대부분 경북 대구 출신이고, 3인은 경남 부산 출신이나 대구에 거주한 횡수가 10년-20년 이상이다. 모두 대졸(초대졸 포함)이고, 직업은 자영업 2인, 교직 4인, 주부 4인, 회사원 1인이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7년 정도 대화방을 유지하고 매일 일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사이이다. 모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3.2 조사 방법

1) 방언형 실현 양상 조사

최근 2년(2018년-현재)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출현한 경상방언형을 수집하였다.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각 부문의 방언형이 실현된 문장 및 대화를 제시한다.³⁾

2) 방언형 실현 빈도 조사

이상의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중 2019년 6월 1일-30일 한 달 동안의 대화를 대상으로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실현정도를 살펴보았다. 최근 2년 동안의 전체 대화를 대상으로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실현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살펴봐야 할 대화의 양이 방대하여 우선은 한 달 간(2019년 6월 1일- 30일) 대화를 대상으로 표준어형과 방언형 사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2019년 6월 1일-30일 한 달 동안의 대화는 5829lines(사진, 이모티콘 포함)이다. 엑셀 파일에 5829lines를 입력 후 음운, 문법, 어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방언형을 표시하고 빈도를 계산하였다.

4. 표준어와 경상방언의 사용 양상

4.1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에서 실현되는 경상 방언

2019년 6월 한 달 동안 대화에서 관찰되는 전체 방언형 중 음운, 문법, 어휘 측면에서 실현되는 방언형의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문장 및 대화는 띄어쓰기 교정, 맞춤법 수정 등 없이 실제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제시한다.

층위	출현 횟수	백분율
음운	54	7.0%
문법	687	88.6%
어휘	34	4.4%
합	775	100

표 1> 방언형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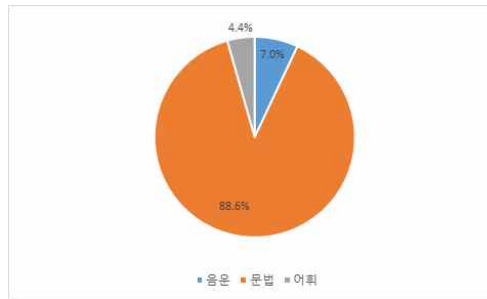


그림 1> 방언형 사용 정도

위의 표와 도표를 통해, 실현되는 방언형의 대부분이 문법 형태이고, 방언형 어휘의 출현 정도가 제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음운, 문법으로 나누어 실현되는 방언형과 빈도를 제시하기로 한다.

4.1.1 어휘

1) 동사

- ㄱ. 마스크안하고댕깁사람많다든데(다니다)
- ㄴ. 방학때 베이킹 할 일이 종종 있을것같은데 그때 좀 맹글어주께~~(만들다)
- ㄷ. 아름다운치과는 원장님이 한번씩 애들 못참으면 살짝 머라카신데이(꾸짖다)
- ㄹ. 사진찍지 말라고 난리지기는데(부리다)
- ㅁ. 나도 버거모임 끼기고 싶은데(끼다)
- ㅂ. 차라리 지랄맞은동서 명절에 오지말았음 하더라 일하는도 걸거친다고(거치적거리다)

동사로써는 ‘댕기다, 맹글다, 머라카다, 지기다, 끼기다, 걸거치다’ 등의 방언형이 관찰된다.

2) 형용사

- ㄱ. 못먹어서 우짜노, 저돈다 우째내고사노(어쩌다)
- ㄴ. 다들보고잡다, 동태당한그릇하고잡다(싫다)

형용사는 방언형이 거의 출현하지 않는데, ‘우짜다’와 ‘잡다’가 관찰된다.

3) 부사

- ㄱ. 레시피도역수로쉽고(아주, 매우)
- ㄴ. 설거지 항그, 오늘도 파항그따듬어드리고왔는데(많이)
- ㄷ. 치워도 머 짜다리 안깨끗하네(그다지)
- ㄹ. 받는거 똑띠받도록(똑똑히)

4) 명사

- ㄱ. 김치 나도 아레 샀네(그저께)
- ㄴ. 나 정구지찌짐이랑 막걸리먹으러간다(부추)

- ㄷ. 저기있는접시 시댁이랑친정에 천지빠까리ㅋㅋ('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단어)
- ㄹ. 궁디에 살이 좀 붙었더라~(궁둥이)
- ㅁ. 국시맛있겠다(국수)
- ㅂ. OO 소개 넘 좋아해서 내 모가지 줄어듬(모가지)
- ㅅ. 내가한 동태탕 동가리낸거 사서 해서 별로였구나(동강)
- ㅇ. 포항에서 할머니,할부지 조인해서 같이논다~~(할아버지)
- ㅈ. 할배할매들은 이제좀조심한다(할아버지, 할머니)
- ㅊ. 아지매들말이 맛이 여기가나타는데(아주머니)
- ㅋ. 아지야들 좀상냥하면 손님들많이올꺼라고(아재)
- ㅌ. OO 가시나 대박~~ 엄마 피 못속이나봐~~(계집아이)
- ㅍ. 머스마 뼈대 무시못함(사내아이)
- ㅎ. 큰일날뻔했네. OO이 똥띠라서 다행이다(똥똥이)

다음은 호격조사가 결합한 형태인 '언니야, 오빠야. 형아, 이모야, 아지야(아재+야)'가 명사로 사용되는 예이다. 경상방언에서는 이처럼 인륜 어휘가 호격조사와 결합한 형태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언니, 오빠, 형, 이모, 아재'보다 호격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더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대화상의 기능을 방언형이 수행하므로 이러한 방언형들은 지속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ㄱ. 으이구~~~ 언니야들 생각은 안하고..
- ㄴ. 형아는 왜 일주일에 두번씩 가냐고...ㅎ
- ㄷ. 아직은 오빠야가 크다~~
- ㄹ. 39살 이모야도 못먹는데
- ㅁ. 그 아지야들 상냥할수없겠더라 너무 바빠더라

5) 대명사

내(나)

- ㄱ. 언니랑 내랑 다른거가?.
- ㄴ. 울동서 내한테 저번에 고맙다 카더라
- ㄷ. 내랑 똑같지 않나?

니(너+가)

- ㄱ. 니가 우리 데리고가야지~~
- ㄴ. 니도 잘모르는데 설득이안되지

지(자기)

- ㄱ. 옆에친구 우니까 지도 울더라
- ㄴ. OO이 방학인데 지만 아무대도 못간다고ㅠ

너거(너희)

- ㄱ. 그럼 너거신랑이달라질꺼다

ㄴ. 2개는 너거집가져가고

‘내, 니, 너거, 지’ 등의 인칭대명사가 방언형태로 자주 사용된다. 특히 3인칭 대명사 ‘자기’의 경우에 카카오톡 대화에서 대체로 방언형 ‘지’로 실현된다.

6) 감탄사

오야(오냐)

A: 그림나줘 나중에

B: 오야

‘오냐’는 표준어 ‘오냐/응’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냐’보다 ‘오야’가 더 정겹고 부담 없이 느껴진다.

7) 어휘체계 측면

ㄱ. 뜨신물마이마시면 좋단다

ㄴ. 밥에찬물말아먹음

ㄷ. 뜨신미역국맛나겠다

이상규(2001: 97)에 따르면, 온도를 나타내는 어휘가 중부방언과 동남방언에서 차이가 있는데, 표준어와 중부 방언에서는 ‘더운밥, 더운물, 더운방’인데 비해 동남방언에서는 ‘뜨신밥, 뜨신물, 뜨신방’으로 쓴다. 이를 통해 동남방언에서는 ‘찬밥’과 ‘뜨신밥’의 체계적 대응을 이룸을 알 수 있다.

2019년 6월 한 달 동안의 대화에서 관찰되는 방언 어휘를 품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현 횟수	백분율
대명사	11	32%
형용사	7	21%
부사	6	18%
명사	5	15%
동사	4	12%
감탄사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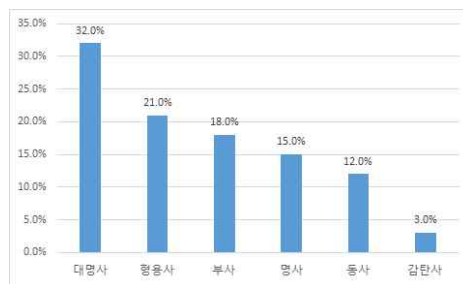


표 2> 방언 어휘의 사용 정도

그림 2> 방언 어휘의 사용 정도

대명사에서의 방언형 사용 정도가 제일 높는데, 이는 인칭 대명사에서 방언형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사보다 명사가 표준어화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이기갑 2017), 위의 조사 결과로는 명사와 동사의 방언형 사용율에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품사에 따른 방언 어휘 사용 정도는 대화 주제나 대화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4.1.2 음운

1) 모음축약 여>에, 고모음화 예>이

예>이는 전국적으로 두루 실현되지만 경상 지역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경북방언에서 예>이 경향이 매우 강하고, 경남방언에서는 강하지 않다(최명옥 1998: 433). ‘여’가 모음축약된 ‘에’와 음라우트에 의한 ‘에’도 ‘이’로 변화하는 현상이 실현된다.

- ㄱ. 부산여행. 지대로하네~~
- ㄴ. 근데 김이~~잘~~안~~불~~노
다 띠진다
- ㄷ. 동태 껌질까지~~씩~~비껴가주셨다
- ㄹ. 열공한다멘
- ㄹ. 이번주부터간다미ㄱ
- ㅂ. 오미가미 초록이들 많이 봤다
- ㅅ. 저는 찾아오고 그런 빌란엄마아닌데
- ㅇ. 오늘은 수리기사 오싹네
- ㅈ. 금발룻고잉ㄱ
- ㅊ. 우리집에 공기청정기생겼다

ㄱ, ㄴ은 예>이를, ㄷ은 벗기다>벗기다>빚기다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음라우트에 의한 ‘에’가 ‘이’로 고모음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ㄹ-ㄹ은 어미 ‘-며’의 ‘-며>매>미’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ㅅ은 어휘 내부에서 여>예>이, ㅇ-ㅈ은 비어두 환경에서 모음축약 ㅈ>ㅈ과 고모음화 ㅈ>ㅈ이 함께 적용.실현되었다.

2) 음라우트

- ㄱ. 따라갈려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ㄱ
- ㄴ. 맴이 좀 글트라
- ㄷ. 분위기진짜 직인다
- ㄹ. 동태 껌질까지~~씩~~비껴가주셨다

ㄱ은 어휘 내부에서, ㄴ은 곡용 환경에서, ㄷ, ㄹ은 음라우트를 적용받은 후 w 탈락, 고모음화가 실현된 형태이다.

3) 어두경음화

- ㄱ. 저크림떡볶이 완전땡기네
- ㄴ. 모두들 싸랑해
- ㄷ. 파향그따똥어드리고왔는데 물쫓는바람에
- ㄹ. 요샌 술 먹어도 체력이 딸리는지 집에도 빨리오고ㄱㄱㄱ
- ㄹ. 내가 바닥쫄랐다ㄱㄱ
- ㅂ. 휴지로 걸만딱았다

ㅅ. 계란한개꿍어라

ㅇ. 찢한커피 못먹는 나도

ㅈ. 어른들꺼 간을 썩게잡아야맛난다

ㅊ. 맛난거 먹고 수다나 쫓 떨어자~

ㄱ-ㅅ은 동사에서, ㅇ-ㅈ은 형용사에서, ㅊ은 부사에서 어두경음화가 실현된 예이다. 어두경음화는 용언에서 자주 실현되는데, 경음이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어두경음화 현상은 남부 지역의 방언적 특징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의 젊은 세대에서도 이러한 어두경음화가 빈번히 실현되고 있다.

4) ㅃ>ㅍ

과거의 ㅃ이 이 방언에서는 ㅍ으로 실현된다. 다음 예들은 표준어와 달리 경상방언에서는 규칙활용을 하는 것들이다.

ㄱ. 날씨 더버서 바이러스 다 죽으면 좋겠다

ㄴ. 녀 초버가 상추씻다가 손 얼뻔

ㄷ. 그동안 월정액 돈낸거 아까버라

ㄹ. 이제 사춘기 시작인가싶다ㅋ 어렵다 어려버 비워맞추기 ㅋ

ㅁ. 고기사왔다 같이고기꾸버먹고

ㅂ. 울산랑문서버서 경직됐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표준어형과 방언형 둘 다 실현되나, ㅃ이 ㅍ로 실현되는 표준어형이 우세하다. 2019년 6월 한 달간 대화에서 ‘어렵다, 춥다, 덥다, 굶다, 아깝다’의 활용형 총 15개 중 ㅃ형 3회, ㅍ형 12회 출현하여 표준어형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출현 횟수	백분율
ㅃ	3	20%
ㅍ	12	80%

표 3> ㅃ불규칙 용언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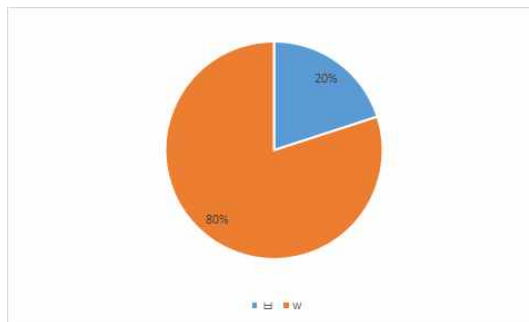


그림 3> ㅃ불규칙 용언의 활용

5) ㄴ탈락

ㄱ. 진짜 마이컸다

ㄴ. 너무 바가지썩우는거아이가

ㄷ. 절대음감 아이다~

ㄹ. 시원하이 잘 잘랐네

경상방언에서는 유성음 환경에서 ㅇ이나 ㄴ이 그 앞의 모음을 비음화시킨 후 탈락하는 현상

이 있다(이상규 2001: 90). 카톡 대화에서 관찰되는 ㄴ 탈락은 ‘많이’와 ‘아니다’에 집중되어 있다.

경상방언 ‘아이가’는 중앙어 형용사 ‘아니다’에 의문형 어미 ‘-ㄴ가’가 결합된 ‘아닌가’의 형태가 그 기저형이다. 이 ‘아닌가’가 경상방언에서 ‘아이가’로 실현되는 음운적 현상은 우선, ‘아닌가’에서 ‘-닌-’의 끝소리 ‘ㄴ’이 탈락되고 다음 ‘-니’의 ‘-ㄴ-’이 탈락되는 현상을 거쳐서 실현된 것이다(임규홍 2009: 144-145).

ㄹ의 ‘시원하이’는 ‘시원하게’의 의미로, 표준어의 ‘깨끗하게 해라’와 같이 ‘하-’가 결합한 형용사 활용형은 이 방언에서 ‘깨끗하이 해라’와 같이 ‘하니’의 ‘니’가 비모음화한 발음이 쓰인다. 형용사 활용형에 붙은 ‘하이’는 경상방언권 전역에서 관찰되는 발음형이다(백두현 2020:161).

6) ㄴ첨가

ㄱ. 난도 당분간 월요일만시간된다

ㄴ. 난중에 알아서

ㄱ의 ‘난도’는 ‘나+-도’와 같은 곡용환경에서, ㄴ은 어휘 내부 ㅈ, ㅊ 앞에서 ㄴ이 첨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ㄴ 첨가형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실현정도가 낮다.

7) 조음위치동화

ㄱ. 밥해서궁간

ㄴ. 칭군다

지역을 막론하고 일상구어에서 조음위치동화는 활발히 실현되는데, 경상 방언에서 이런 조음 위치동화가 더 활발하게 실현된다. 표준어에서는 조음 위치동화가 수의적으로 발생하지만 경남 방언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한다(이상규 2001: 65).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조음위치동화형은 아주 소수로 관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모음축약 여>에, 고모음화 예>이, 움라우트, 어두경음화, ㅂ불규칙용언의 ㅂ 실현, ㄴ탈락, ㄴ첨가, 조음위치동화 등이 관찰된다. 모두 경상방언의 음운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경상방언의 특징적인 음운현상인 구개음화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ㄱ, ㅎ 구개음화형은 일상 구어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구개음화형이 이 방언에서 낙인형(stigmatized form)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6월 한 달 동안의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 방언형의 출현 정도를 음운현상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현 횟수	백분율
어두경음화	21	38.9%
ㄴ 탈락	20	37.0%
음라우트	7	13.0%
ㅂ 실현	3	5.6%
에>이	2	3.7%
여>에	1	1.9%

표 4> 2019년 6월 한 달 동안의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 방언형의 출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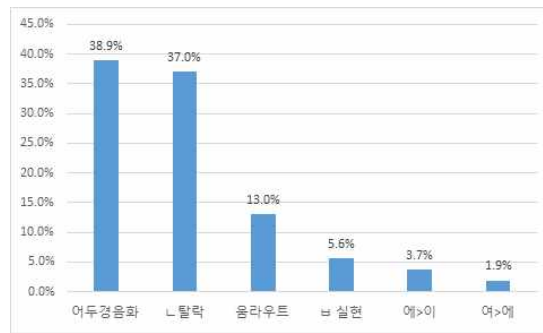


그림 4> 2019년 6월 한 달 동안의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 방언형의 출현 정도

경상방언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 어두경음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상대화에서 고빈도 어휘라고 할 수 있는 ‘많이’와 ‘아니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ㄴ 탈락이 비슷한 정도로 출현한다.⁴⁾

4.1.3 문법

1) 조사

-보고: 여격 조사

- ㄱ. 내보고 학교드가도되냐고 원래안돼는데 오늘은 다들드간다ㅋㅋ카고
- ㄴ. 신랑보고 차점검 부탁했더니 뒷쇼바나갔다고

-캉: 공동격 조사

- ㄱ. OO랑내캉 증상이똑같아서 마스크끼고있네

-빠이: 밖에

- ㄱ. 나중에 나이들면 남편빠이없다 시집장가다가고~~~~
- ㄴ. 지금 우리반에재등록하는사람4명인가5명빠이없고

-이

- ㄱ. 밥 해 주신대이
- ㄴ. 잘자래이
- ㄷ. 점심 같이 먹재이

권재일(1982)은 ‘-이’를 문말에 실현되는 문종결 특수조사라고 하였다. 위 예문의 ‘대이, 재이, 래이’는 ‘-다/자/라+-이’ 구성에서 음라우트를 적용받은 것이다(천시권 1973, 권재일

4) 이러한 사용정도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대화의 주제, 대화 기간에 따라 사용정도는 상이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떤 방언변이형들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1982).⁵⁾ ‘-이’의 문법적 의미는 화자에게 확인되어진 것(혹은 완료된 상황인 것을 인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강조다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권재일 1982: 15).

‘-이’의 화용적 기능을 주로 강조나 친밀감 전달로 논의되어 왔는데, 신우경(2008)은 문말특수조사 ‘-이’의 화용적 기능으로, 강조, 확인, 감탄, 화제제시, 허가요청, 경고(또는 충고), 당부, 질책, 애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이’의 화용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대화1]

A: 니 이제 OO있을때 OO이한테 애정표현하지말도록~~!!!!

B: ㅋㅋㅋ

A: 애 큰거 같아도 이제 겨우 4학년이다~~

딩치크니 애 안같아서 그러지~~

B: ㅋㅋㅋ

B: 맞다

B: 6학년같다

A: 니 OO이한테 하트뽕뽕 다 티난대이

난 OO 하트뽕뽕임ㅋ

B: 맞다.ㅋㅋ너무 아직 귀엽다.

둘째 아이를 예뻐해서 첫째 아이가 서운해 하니 둘째 아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이때 A는 ‘티난다’, ‘티나’라는 표준어형 대신 ‘티난대이’와 같은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다. ‘티 난다, 티 나’라고 하면 너무 단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상대방을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방언형을 사용하면서 이런 단정적인 느낌을 줄이고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당부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대화2]

A: D언니..혹시~~~

B: 반죽며칠전에 해두고 아침에 잘라서 굽기만했다~~~

A: 갱년기?

A: ㅋ

C: ㅋㅋㅋ

A: 웃자고 하는소리데이~~

D: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

상대방이 조금 무례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이’를 사용하여 농담조로 말한 것임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표준어형으로 ‘웃자고 하는 소리다’ 또는 ‘소리야’라고 하면 단정적인 느낌을 주어서 연하자가 연상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방언형은 표준어형으로는 거둘 수 없는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언형들은 표준어화의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꾸준히 사용될 가능

5) 천시권(1973)에서 ‘잘 가재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잘 가자’의 ‘자’가 이모음역행동화하여 ‘재’가 되어 ‘재이’가 되었다고 하였다(권재일 1982: 7에서 재인용).

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선어말어미

-았/었는

- ㄱ. 어제 먹었는 거
- ㄴ. 대학교때 가봤는기억이있다

표준어에서는 과거시제 전성어미 ‘-(으)ㄴ+ 체언’의 구성이지만, 경상방언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는+체언’의 구성으로 실현된다. 방언형인 ‘-았/었+는+체언’의 구성의 실현은 높은 편은 아니며, 주로 표준어의 ‘-(으)ㄴ + 체언’ 형태로 실현된다.

경상방언의 ‘-었는’은 관형형어미 앞에서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를 일관성 있게 쓴 것이다. 이는 시제 표시법의 명료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시제 표현법이 더 발전된 단계라 볼 수 있다 (백두현 2020: 163).

-것-: -겠-

- ㄱ. 그냥해주신다캐도 못하것다
- ㄴ. 언제가것노
- ㄷ. 우리맘에들것나ㅋㅋ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이 ‘-것-’으로 실현된다. 추량의 선어말어미는 경북방언의 남동 내륙 지역에서는 주로 ‘-을-’이, 서북 지역에서는 ‘-겻’이, 남부동남 방언에서는 ‘-것’이 실현된다 (이상규 2001: 93).

3) 연결어미

-구로 : -게, -도록

- ㄱ. 방학하자마자 성경학교가~ 좋구로
- ㄴ. 쌤 문자 바로 보내주시더라ㅎ
고맙구로~
- ㄷ. 내가 갈아주거나 만든것만 선호하고
귀찮구로
- ㄹ. 언니 이사올래? 내 의지 되구로~~^^

-올라: -으려

- ㄱ. 사진찍을라고 식탁을 옮겨버렸다
- ㄴ. 야채는 내가 텃밭에 재배할라는데 성공할지 모르겠다~~
- ㄷ. 천천히 할라고..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실현정도는 아래와 같이, 방언형 ‘-올라(고)’의 사용 정도가 표준어형보다 높다.

	출현 횟수	백분율
-을라(고) (경상방언형)	30	63.8%
-으려(고) (표준어형)	17	36.2%

표 5> 의도의 연결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실현정도



그림 5> 의도의 연결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실현정도

-믄: -면

- ㄱ. 도착하믄 먼저 주문해~~
- ㄴ. 배송비없앨라믄 10개사야된다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이 ‘-(으)믄’으로 실현된다. 이 조건의 연결어미는 경상도의 남부방언에서는 ‘-(으)모/몬’, 동북부방언에서는 ‘-(으)머/먼’, 중서북부방언에서는 ‘-(으)마/만’으로 실현된다(최명옥1998: 456).

4) 보조용언

-지 싶다

- ㄱ. 다하면 6억안팎이지 싶어요
- ㄴ. 강남콩같은게 잘크지싶은데
- ㄷ. 구독은했지만 불일은없지싫다ㅋㅋ

경상방언권에서 추정 표현의 특이한 보조용언으로 ‘-지 싶다’ 구성이 쓰인다. 최근에 들어 추정법의 이 구성은 방송 드라마에 사용되면서 타방언권 화자들에게 확산되었다. 추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구성으로 ‘-ㄴ 갑다’, ‘거 겹다’도 있다(백두현 2020: 165).

-은/는 갑다

- ㄱ. 그때우리 원자재비올라서 비싼갑다카고갯는데
- ㄴ. 커피볶는집옆에 롯데리아생기는갑다
- ㄷ. 니 요새 힘들었는갑다.
- ㄹ. 그니깐 별말 없는갑지
- ㅁ. 라이브톡은 영상인갑네

추정 표현의 경상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정도를 살펴보자.

	출현 횟수	백분율
-는 갑다(경상방언형)	10	52.6%
-는 보다(표준어형)	9	47.4%

표 6> 추정표현의 경상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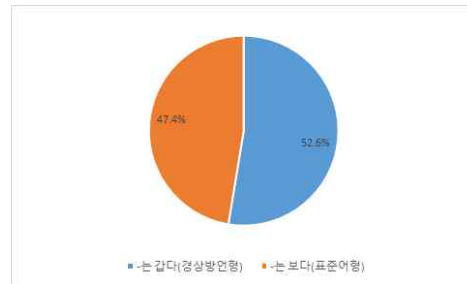


그림 6> 추정표현의 경상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1

	출 현 횟수	백분율
-지 싶다(경상방언형)	35	66.0%
-는 것 같다(표준어형)	18	34.0%

표 7> 추정표현의 경상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2



그림 7> 추정표현의 경상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2

방언형 ‘-지 싶다’가 표준어형에 비해 더 많이 실현되며, 다른 추정표현인 ‘-는 갑다’는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사용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 뿌다/빠다

- ㄱ. 계좌 좀 톡 다시 올려주라 ㅎㅎ 위에 지워뺏네
- ㄴ. 예약하고 온 사람은 발치도 바로 해준대서 해뺏다
- ㄷ. 7가지인데3가지벌써다해뺏네ㄷ

표준어의 보조용언 ‘버리다’는 경상 방언에서 ‘뿌리다’ 혹은 ‘뿌다’로 쓰인다.⁶⁾ 서부 경남방언권에서는 이것이 ‘빠라’ 혹은 ‘뺏다’ 등의 형태로 쓰여서 경북방언권과 차이가 있다(백두현 2020: 164).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버리다’, ‘뿌다’, ‘빠다’가 다 출현하는데, ‘뿌다’, ‘빠다’ 중 ‘뿌다’가 더 자주 실현된다.

6) 공영구(1986: 10)는 보조용언 ‘뿌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본의미	화용론적 의미
버리다 - 종결	1. 종결. 동작의 완료 2. 기대 어긋
보다 - 시도	1. 시도 2. 간접의문 3. 부탁 요청 4. 청자의 의사타진 5. 청자의 행동 대비

카다

- ㄱ. 확실히캐라
- ㄴ. 죄송하다캐도
- ㄷ. 환기좀시키라캐서
- ㄹ. 우리아들은 물으면 안사도된다칸다
- ㅁ. 자꾸안들어갈라카고
- ㅂ. 알바생 자기먹을라카나?

ㄱ은 ‘하다/말하다’의 의미로, ㄴ-ㄹ은 인용조사 ‘-고’와 ‘하다’가 결합한 구성, ㅁ, ㅂ은 ‘-을라(고) 하-’의 의향을 나타내는 구성에서 ‘카다’로 쓰인 예이다.

김영태(1989)는 ‘카다’는 타지방 사람들이 들어도 경북 출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일 정도로 ‘카다’는 경북의 전 지역과 경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널리 쓰이는 방언형이다. 경북방언의 ‘카다’는 홀로 자립용언으로 쓰이기도 하고, 본용언에 의존하여 의존용언이 되어 동사구를 이뤄 문장에서 서술어 구실을 한다.⁷⁾ ‘카다’는 의미 및 기능면에서 ‘하다’에 포함되며 ‘카다’가 가장 생산적으로 공기되는 의존형태로는 본동사에 의도형 어미 ‘-러/-려/-려고’ 뒤에 오는 경우이다(김영태 1989: 14-15).⁸⁾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카톡 대화에서 인용문에서의 사용에만 한정해 ‘카다’와 ‘-고 하-’의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표준어형인 ‘-고 하-’의 사용 정도가 높다.

	출현 횟수	백분율
카다(경상방언형)	42	31.1%
-고 하다(표준어형)	93	68.9%



표 9> 인용 표현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그림 9> 인용 표현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7) 정철(1980)은 ‘카다’가 다음과 같이 음운론적으로 축약된 것으로 보았다.

머리 칸다: 무어+라+고+하+ㄴ+다(무어라고 한다)

그카만: 그리+하+게+하+만(그렇게 말한다면)

8) 김영태(1989)는 표준어 ‘하다’와 방언형 ‘카다’의 의존적 구성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의존용언 형태	하 다	카 다
의존		
지향(외도) ~러(고)~	○	○
당위(강제) ~다(만)~	○	×
인용 ~다고~	○	○
동사		
사용 ~도록/게(말)~	○	○
용인(최종) ~기도~	○	×
추측 ~거니~	○	○
의존		
지향(외도) ~러(고)~	○	○
사용 ~도록/게(말)~	○	×
용인(최종) ~기도~	○	×
추측 ~거니~	○	○

‘-아/어 가(아)/갔고

이유와 계기(繼起)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서’와 동일한 의미로, ‘-아/어 가지고/가이고/갔고/가아’ 등이 경상방언에서 실현된다. 분석 대상의 대화에서는 ‘-아/어 가(아)/가꼬’가 출현하였다.

- ㄱ. 유원지 넓어가 클날뻘했네
- ㄴ. 근데 허리아파가 세시간 못누워있네
- ㄷ. 각 팀당 강사 4명씩 투입돼가 애들 씻기고 옷갈아입으라카고
- ㄹ. 설지나고 버스대절해가 평창가는 엄마들 있더라
- ㅁ. 나는자야겠다 요새체력달려가꼬
- ㅂ. 시어른들 도련님여친만나서 이거받아가꼬 오심

ㄱ, ㄴ은 이유를, ㄷ, ㄹ은 계기(繼起)를 의미하는 문장에서 쓰인 예이다. ㅁ, ㅂ에서 보듯이 ‘-아/어 가(아)’ 외에 ‘-아/어 가꼬’ 형태로도 실현된다. 이상규(2001: 94)에 따르면, 경북 남동 내륙지역에서는 ‘-아갔고’, 동북 지역과 남동 해안 지역에서는 ‘-아가주고’, 서북 지역에서는 ‘-아가이고’가 실현된다.

2019년 6월 한 달 동안의 카톡 대화를 분석한 결과, 이유와 계기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표준어형인 연결어미 ‘-아서’의 사용이 압도적이었다.

	출현 횟수	백분율
-아가(경상방언형)	13	4.8%
-아서(표준어형)	257	95.2%

표 10> 이유 및 계기 표현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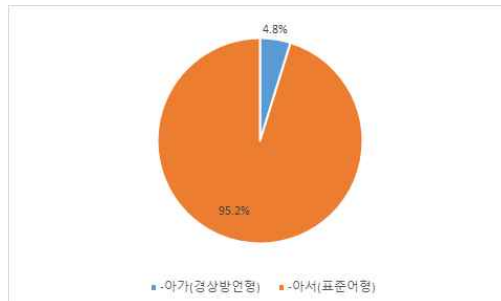


그림 10> 이유 및 계기 표현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5) 종결어미

(1) 의문형 어미

-나/노/가/고 : 해라체 의문형 어미

- ㄱ. 개당 50원인가?
- ㄴ. 뭐고 저새 ㅋ
- ㄷ. 누가 받는거고
- ㄹ. 어데 파노
- ㅁ. 어디로 가든 되노

ㅂ. 근데 붓 세트로 사라고 하시더나?

‘-가/고’는 체언 서술어와 결합하고 ‘-나/노’는 용언 서술어와 결합한다. 그리고 ‘-가’와 ‘-나’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에, ‘-고’와 ‘-노’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에 쓰인다.

다음 예문과 같이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 ‘-노’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발화되는 것이다.

- ㄱ. 흥익 먹고싶노
- ㄴ. 아 진짜 고생많노~
- ㄷ. 같이노니집에들어올생각없노
- ㄹ. 멀리간다니 아쉽노~~

위의 문장들은 감탄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지만 ‘-노’가 쓰였다. 다음 문장과 같이 의문사가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 둘 다 출현하지만, 의문사 없이 감탄을 표현하는 문장이 더 빈번히 사용된다.

- ㄱ. 언니 웰케웃기노
- ㄴ. 내가 찍은 거 머 이렇노
- ㄷ. 멀이래잘하노

이상의 예들은 ‘먹고 싶네, 고생이 많네, 생각없네, 아쉽네’로 교체될 수 있는데, 감탄형 어미 ‘-네’로 교체되지 않고, ‘-노’가 쓰이는 것은 ‘-노’가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노’는 화자의 의사도 표현하면서 상대방도 자신의 의사에 동조해 주길 바람을 표현한다. 카 카오텍 대화방의 몇 명은 ‘-노’가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 ‘-네’ 대신 ‘-노’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래 대화에서도 B는 체험비가 비싸다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동조를 구하고 있다.

[대화3]

A: 체험비 있다

ㅋㅋ

3디프린터랑 로봇조정합해서 17000 원

근데 대구없는 체험이라 괜찮다

B: 있더나? ㅋㅋ블로그에 웬만한건 없다가던데

체험비 비싸노~~~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출현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현 횟수	백분율
-나/노/고/가(경상방언형)	434	94.1%
-아/어/(이)야(표준어형)	27	5.9%

표 11>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출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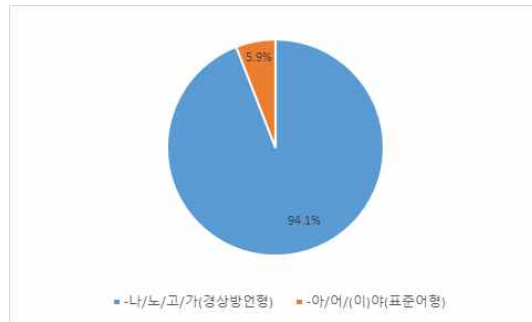


그림 11>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출현 정도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경우 방언형의 출현비율이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문문에서 경상방언형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가/는고, 는강/는공. 은가/은고, 은강/은공 : 하계체 의문형 어미

- ㄱ. 무슨 꽃인공
- ㄴ. 사람많은강?
- ㄷ. 아저씨 많이 아프신가?
- ㄹ. 부츠도 혹시 빌려줄 수 있는가?
- ㅁ. 얼마짜리 하셨는공

‘-강’과 ‘-공’의 ‘ㅇ’은 ‘-가’와 ‘-고’에 첨가된 것으로, ‘-가’ 또는 ‘-강’은 의문사 없는 의문문에, ‘-고’ 또는 ‘-공’은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 실현된다.

-을라: -을까

- ㄱ. 지금가면있을라?
- ㄴ. 언니요즘 불면증이라 깨있었을라
- ㄷ. 1인분 먹고 배불를라??ㅋㅋ

-제: -지

- ㄱ. 부산 좋제?
- ㄴ. 후기없었제
- ㄷ. 한두가지씩 더 하고와서 애먹제?

화자가 그러리라고 믿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의문형 해라체 어미는 다음 표와 도표에서 보듯이 표준어형의 사용정도가 더 높았다.

	출현 횟수	백분율
-제(경상방언형)	11	22.0%
-지(표준어형)	39	78.0%

표 12> 확인의 의문형 해라체 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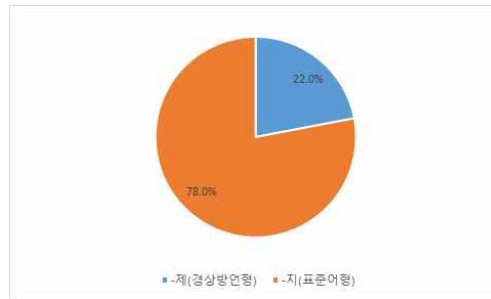


그림 12> 확인의 의문형 해라체 어미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더제/더지

- ㄱ. 그때먹을거주더제?
- ㄴ. 이거 언니발에맞더제?
- ㄷ. 이쁘더지 언나~
- ㄹ. 수미네반찬 간 정확하게 만나오더지?

‘-더지/더제’는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더-’와 확인의문문에 사용되는 어말어미 ‘-지’, ‘-지’의 경상방언형인 ‘-제’가 결합한 형태이다. 김중수(2013)는 ‘-하더제/-했더제’와 같은 형태가 경상도 지역의 3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실’이나 ‘진리’를 나누는 부담감을 덜고 ‘인식’이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친밀감, 안도감을 얻으려는 심리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즉 화자의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의문문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지 않고, 화자의 생각에 대한 동조를 청자에게 부드럽게 구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문법형태가 사용된다는 것이다.⁹⁾

- ㄱ. 그때 먹을 거 줬지?
- ㄴ. 그때 먹을 거 주더지?

위의 두 문장 중 표준어형인 ‘줬지’를 사용한 문장 ㄱ보다 ‘주더지’를 사용한 문장 ㄴ이 화자는 먹을 것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청자의 생각도 화자의 생각과 같음을 부드럽게 확인하는 느낌을 준다. 본 연구 대상인 카카오톡 대화방의 화자 몇 명도 ‘-더지/더제’를 평소에 사용하며, 이 형태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더지/더제’가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지 않으려는 대화상의 전략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더지/더제’를 표준어로 대체했을 때 담화상 기능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화의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담화상 기능을 수행하는

9) 김중수(2013:142)는 ‘[사태+더제]’에 담긴 태도 또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화자’는 [사태]를 참이라고 가정함을 알림.
나. ‘화자’는 ‘청자’도 [사태]가 참임을 ‘발화 이전의 특정시점에 알아차렸다’고 가정함을 알림.
다. ‘화자’는 ‘청자’가 알아차린 [사태]를, ‘알아차린 시점을 기준으로’ 전달해 주리라 가정함을 알림.
라. ‘화자’는 ‘청자’가 위의 가, 나, 다에 대해 참이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함을 알림.
마. ‘화자’는 ‘청자’가 화자와 동급이거나 낮은 처지라고 생각함.

방언형들은 표준어로 대체되지 않고 계속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명령형 어미

온나: 오너라

ㄱ. 들고 온나 복사해줄게

ㄴ. 프로그램 좋은거 누리러온나~~

온나'는 '오+ㄴ나'의 구성으로, '-ㄴ나'는 동사 '오다'의 어간에 결합하는 해라체 명령형 어미이다.

도 : '주다'의 해라체 명령형

ㄱ. 강의해도

ㄴ. 알리도고

'주다'의 해라체 명령형은 경상방언형과 표준어형이 동일하게 실현되었다.

	출현 횟수	백분율
도(고)(경상방언형)	7	50.0%
줘(표준어형)	7	50.0%

표 13> '주다'의 해라체 명령형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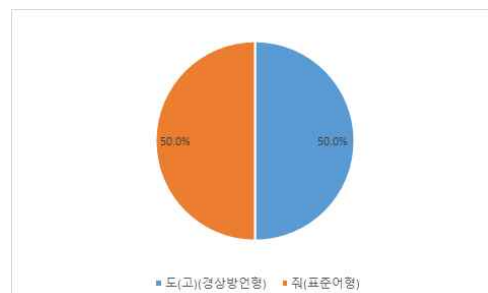


그림 13> '주다'의 해라체 명령형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

-잉

ㄱ. 좋다말았다잉ㅋ

ㄴ. OO이 하드한개 사줘라잉~~~

ㄷ. 주는대로 먹도록 토달지마라잉

ㄹ. 장난이아니다잉 허리휩단소리나온다

'잉'은 지역적 분포가 상당히 넓어서 서남방언에서는 물론 동남방언, 중부방언(충청도 방언), 제주도 방언 등 대부분의 국어 방언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형태이다(강희숙 2011:56-57). '잉'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내거나, 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권유와 다짐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법에 따른 '잉'의 담화적 기능을 강희숙(2011: 59)은 설명법과 의문법, 청유법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화자와 화제의 결속' 범주에서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고, 명령법에서는 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친밀감의 표현 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카카오톡의 대화에서도 이런 담화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3]

A: 글썽~~최상급이라는데 사진보고 지인이작은거아니냐캐서ㅋㅋ 급소심해질뻔
ㅋㅋ

B: 아니다

사이즈랑 상태 좋은거야

A: 주는대로 먹도록 토달지마라잉ㅋㅋ

A가 소개한 가게의 과일이 최상급이니 과일에 대해 어떻게 토 달지 말고 배달해 주는 것을 믿고 먹으라는 메시지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잉’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토달지마라잉’ 대신 ‘토달지마라’라고 했다면 친밀감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6) 부정법

ㄱ. 이색 더안이뿌나?

ㄴ. 안불편하고 좋다

ㄷ. 소는 우리도쌈안싸ㅋ

ㄹ. 채소 안먹어도 살 안찐다

ㅁ. 키도 안크고 ㅍㅍ

표준어의 ‘-지 않다’는 동사와 형용사에 다 결합할 수 있다. 경상 방언에서는 ‘형용사+ -지 않다’가 쓰이지 않고 부정사 ‘안’을 형용사 앞에 배치한 ‘안 형용사’ 구성으로 나타난다(백두현 2020: 165). 경상방언에서는 형용사, 동사 모두 안+용언 구성의 짧은 부정문의 사용 빈도가 높다.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카카오톡 대화에서 형용사의 안 부정법, 동사와 형용사의 안 부정법의 실현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출현 횟수	백분율
짧은 부정 (경상방언형)	20	69.0%
긴 부정 (표준어형)	9	31.0%

표 14> 형용사의 안 부정법



그림 14> 형용사의 안 부정법

형용사의 안 부정문의 경우, 짧은 부정문이 긴 부정문보다 2배 이상 실현된다.

	출현 횟수	백분율
짧은 부정	148	91.4%
긴 부정	14	8.6%

표 15> 동사와 형용사의 안 부정법



그림 15> 동사와 형용사의 안 부정법

동사와 형용사 전체 안 부정문의 경우, 짧은 부정문이 압도적으로 높게 실현된다.

7) 활용

- ㄱ. 양파튀김도 해묵고~~
- ㄴ. 비주얼보니 묵고싶어지드라
- ㄷ. 써무야겠다ㅋㅋ
- ㄹ. 지난주에 밥무려나가길잘했네
- ㅁ. 양파마이무라~~♡

경상방언에서 ‘먹다’는 ‘묵다’로 실현되는데, ㄱ 불규칙용언 ‘묵-’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경우 ㄱ이 탈락되어 불규칙 활용을 한다(이상규 2001: 65).

이상 문법 부문에서의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준어형에 대한 방언형 실현 정도를 살펴, 문법 형태에서 어떤 형태가 방언형이 우세한지, 또는 표준어에 대해 열세인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 방언형	표준어형에 대한 방언형 실현율
-나/노/고/가	94.1%
짧은 부정(형용사)	69.0%
-지 싶다	66.0%
-올라(고)	63.8%
-는 갑다	52.6%
도(고)	50.0%
카다	31.1%
-제	22.0%
-아가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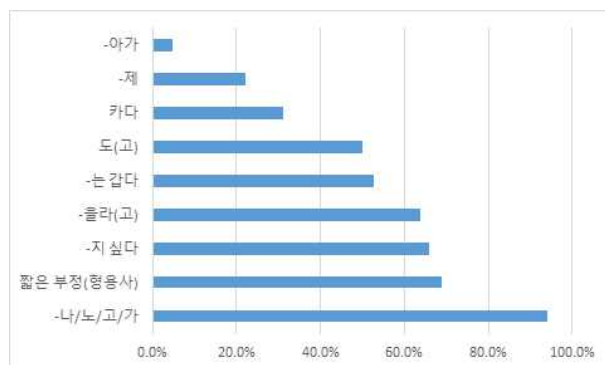


표 16> 문법 층위에서 표준어형에 대한 방언형 실현 정도

그림 16> 문법 층위에서 표준어형에 대한 방언형 실현 정도

어휘, 음운, 문법 중 문법 부문에서 다양한 방언 형태가 실현되고 방언형 실현정도도 높지만, 어떤 방언 문법 형태는 표준어에 대해 열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유와 계기를 나타내는 ‘-아

가’는 방언형이 초약세로, 이 경우 대체로 표준어형인 ‘-아서’가 실현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방언형 ‘-나/노/가/고’는 방언형이 초강세로, 거의 대부분의 의문문에서 실현되어 표준어로 대체되지 않았다. 방언 문법 형태 중 해라체 의문형 어미 ‘-나/노/가/고’, 추정 표현 ‘-지 싶다’ 구성, 의도의 연결어미 ‘-을라(고)’, 추정 표현 ‘-는 갑다’ 구성은 방언형이 표준어형에 비해 더 자주 실현되고 있어, 이러한 문법 형태소들은 표준어로 대체되지 않고 계속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말하다/하다’의 대용어 및 인용 표현 ‘카다’와 확인 의문형 어미 ‘-제’, 이유와 계기를 나타내는 ‘-아가’는 표준어형의 실현율이 높아, 추후에 그 쓰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여성 화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에서 관찰되는 방언형과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사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방언 사용에 성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성 화자들의 대화만 살펴보았는데,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대화방,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의 방언 사용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세대에 따른 방언형의 차이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정복(2007: 81)에 따르면, 방언형 가운데서도 어떤 언어 요소를 주로 사용하는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들은 음운, 문법, 어휘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방언형식을 두루 함께 쓰는 편이지만 여성들은 주로 음운 변이형이나 어휘사용에 집중된다. 방언 문법 형태소를 사용하더라도 여성들은 전형적이고 잘 알려진 특정 형식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쓰는 방언 요소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희숙(2015L)에서는 조사 대상 어휘의 인지도와 사용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인지도나 사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 언어 변이에 대한 계량적 연구 결과 모든 계층과 연령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강력한 명제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표준어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카카오톡 대화방의 여성들은 다양한 문법 형태소들을 사용하였다. 음운, 문법, 어휘 측면의 방언형 중 문법의 사용 비율이 88.6%에 달해 다양한 방언 문법 형태소를 빈번히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정복(2007)의 논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화를 하는 공간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성이 포함된 대화방과 여성들끼리 즉 동성들끼리의 대화방에서의 방언 사용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방언형 사용의 차이와 함께 대화방의 성격이나 대화 참여자의 세대에 따른 방언형 사용의 차이 또한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윤희(1993),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 현상, 석사 학위 논문(서울대).
- 강희숙(2011), 전남방언 담화 표지 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43-67.
- 강희숙(2015ㄱ),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의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dialect shift), 《방언학》 21, 한국방언학회, 93-115.
- 강희숙(2015ㄴ), 한국어 방언 접촉의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 전남방언 어휘의 표준어화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64, 한국문학언어학회, 9-36
- 강희숙(2016), 한국어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새국어생활 26-1, 국립국어원.
- 공영구(1986), 경북 방언의 보조동사 '뿌다' 연구, 우리말글(대구어문논총) 통권 4호, 우리말글학회, 1 - 14.
- 권재일(1982), 경북방언의 문장종결조사 {이} 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1,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9 - 235.
- 김경아·김신각·이창봉·진혜경(2016), 서울 거주 방언 화자의 코드 선택 양상- 20~30대 경상도 출신 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9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63-194.
- 김보향, 「제주방언 문법 형태의 세대별 변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10, 한국언어문학회, 2017, 7-35쪽
- 김영태(1989). 경북 방언 '카다'용언에 대하여. 우리말글, 1-16
- 김중수(2013), '-하더제/-했더제'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제22호, 121-150, 국어교과교육학회.
- 배혜진(2019),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어휘 표준어화와 언어 태도, 어문학 144, 한국언어학회.
- 백경원(1997), 언어접촉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서울에 거주하는 대구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석사 학위 논문(서울대).
- 백두현(2020), 현장 방언과 문헌 방언 연구, 역락.
- 류성기, 「표준어와 방언의 간접 현상으로 인한 산청 방언 문법 현상 변화 연구」, 『방언학』 18, 한국방언학회, 2013, 289-324쪽.
- 류성기, 「표준어 간접 및 방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한 경남 함양 방언 문법 형태의 변화 연구」,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55-92쪽.
- 이기갑(2017), 표준어와 방언의 오늘과 내일, 새국어생활 27-1, 국립국어원.
- 이상규(2001), 동남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 이상규(2001), 남부동남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 이상규(2001), 북부동남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 이정복 (2007).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보이는 방언 사용의 성별 차이. 어문학, 97, 63-96
- 이철희, 「대구 지역어의 모습 음운 변화에 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 임규홍 (2009). 경상방언 담화표지 아이가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4, 141-177
- 최명옥(1998), 한국어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에서의 표준어와 방언사용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현(서울대)

1. 범주의 문제

(1) “어떤”의 의미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연구 질문은 “어떤 방언형이... 어떠한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어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낱말의 어형을 보여 주는 서술과 그 어형들이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고 그 속성이 “어떠하다”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밝히는 서술은 차원이 다른 접근인 듯합니다. 경북 방언에 어떤 어형들이 쓰인다는 서술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본 발표는 카톡방의 구어적 문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특성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낱말의 어형의 사용 여부 이상의 것을 기대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다소 사소한 문제

다음의 것들은 논문을 완성하시면서 한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표준어형과 방언형: ‘-보고(보고. “문법”)’와 ‘-아갓고’는 표준어형입니다. 후자의 경우 ‘-아가’만이 방언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② “음운, 어휘, 문법 부문”의 분류

- “음운” 또는 “어휘”: ‘우짜다(어쩌다)’, ‘궁디(궁둥이)’, ‘국시(국수)’, ‘모가지(모가지)’, ‘할부지(할아버지)’, ‘오야(오냐)’(이상 “어휘”), ㅂ 불규칙 용언(“음운”)
- “문법” 또는 “음운”: ‘-것-(겟. “문법”’, ‘-믄(면. “문법”), ‘도(다오. “문법(명령형 어미)”)’
- ‘묵-(먹-. “문법”)’의 활용은 “음운, 어휘, 문법”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③ 기타

- ‘멤이(마음이. “음운”)’의 경우, 단독형이나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이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멤도, 멤을’과 같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음운”과 “어휘”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할까요?
- “어두경음화”에 예로 들어진 ‘쫘(쫘)’은 ‘쫘’과 의미 혹은 담화적 기능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 ‘따뜸어(다듬어)’, ‘딱았다(답았다)’의 ‘뜸’과 ‘딱’의 받침은 오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형들이 “어두경음화”의 예들이라고 하심은 이미 알고 계신 방언 지식에 기반한 것이겠지요?

2. 비교 대상의 문제

본 발표는 일반적인 방언 연구와는 달리 언어 사용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가 논지 전개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 정도가 어떠한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표3>의 ㅂ 규칙과 불규칙, <표5>의 ‘-올라(고)’와 ‘-으려(고)’ 등 <표6~15>의 비교와 “문법” 부분을 정리하신 <표16>은 도움이 됩니다.

반면 몇몇 비교와 통계는 연구 대상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표1>에는 “방언형 사용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추출된 방언형들 중에서 “음운, 문법, 어휘” 세 부문에 속하는 것들의 비율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은 각각의 부문에서 표준어형이 얼마나 사용되고 방언형이 얼마나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표2>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형들 중에 대명사가 32%를 차지함을 보이시고, 인칭 대명사에서 방언형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칭 대명사 중 표준어형이 얼마나 되고 방언형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발화이든 감탄사(3%)보다 대명사(32%)가 더 많이 쓰일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표4>의 음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3. 대응의 문제

이는 앞선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사용 빈도를 알기 위해서는 두 어형을 대응시켜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① ‘항그’는 대응되는 표준형이 ‘많이’라고 하셨는데, ‘가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 ‘항그’의 의미가 ‘많이’나 ‘가득’과는 다르다고 하면, 대응 자체가 가능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② ‘-지 싶다’는 ‘-는 것 같다’와 대응시키셨는데, ‘-지 않을까 싶다’ 등과도 대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③ ‘-아가’는 ‘-아서’와 대응시키셨는데, ‘-아 가지고/갖고’가 더 직접적인 대응짝이 아닐까 싶습니다. ④ 해라체의 ‘-나/노/고/가’는 ‘-아’와 대응시키셨는데 이는 해라체가 아닙니다. ⑤ ‘-더지’는 ‘-었지’와 대응시키셨는데, 의미상 ‘-디’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4. “담화적 기능”의 문제

발표에서 “담화적 기능”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대이/래이/재이’의 “강조나 친밀감 전달”, “당부의 의미”와 ‘-잉’의 “친밀함의 표현”이 전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담화적 기능”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지닌 본래의 의미 혹은 기능이 있는데,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그것과는 다른 특정한 역할을 할 때 그것을 “담화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추’와 ‘정구지’의 의미가 같다고 할 때, 맥락에 따라 그 둘을 구분해서 쓴다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담화적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2부 개인 연구 발표 】

발표_5

육지 해녀의 언어 속에 잔존하는 제주어 연구

발표: 김지숙(경성대)

발표_6

격식적 발화에서 전라남도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방언 변이 양상:

방송 토론 상황을 사례로

발표: 김영규(서울대)

육지 해녀의 언어 속에 잔존하는 제주어 연구

김지숙(경성대)

< 차례 >

- | | |
|---------------------|------------------------|
| 1. 머리말 | 4. 언어 접촉의 원인과 언어 유형 |
| 2. 연구 방법 및 조사 지역 개관 | 4.1. 언어 접촉의 원인 |
| 3. 선행 연구 검토 | 4.2. 언어 접촉으로 나타난 언어 유형 |
| | 5. 맺음말 |

1. 머리말

그동안 어부 중심의 어촌 생활어 연구로 인해 육지 해녀는 그 명칭마저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¹⁾ 이로 인해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녀의 삶과 언어가 조명되거나 수산업 측면으로 조사 또는 연구되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강릉, 부산, 울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일대에도 적지 않은 수의 해녀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육지 해녀’의 경우도 몇몇 연구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특정 지역에 대한 구술과 어휘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지숙(2007, 2008)] 그로 인해 육지 해녀를 언어학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고, 이로 인해 육지 해녀라는 명칭 역시 명확히 명명되지 않은 상황이다.²⁾ 이 연구의 대상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며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출신의 해녀이다. 육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육지 해녀의 언어에서 제주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제주어가 왜 나타났는지, 또 동해안 지역의 해녀들이 사용하는 제주어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의 언어 속에 제주어가 나타난 언어 접촉의 원인과 육지 해녀들이 사용하는 언어 유형, 더 나아가 의미 변화를 통해 제주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육지 해녀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육지 해녀는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육지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말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울릉도와 같이

1) 해녀는 잠수를 해서 물질을 하는 여인을 말하며, 잠녀(潛女)라는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녀라고 개칭되었다. 이러한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해녀는 한반도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도 에 몰려 있다. 즉 대부분의 해녀는 제주도 해녀들이다.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로 보이며, 그 기원은 자연발생적인 생업 수단의 하나로 비롯되었으리라 추측된다.

2) 이 지역에서 해녀는 출신 지역에 따라 ‘지방 해녀, 육지 해녀, 제주(도) 해녀, 출가 해녀’로 나타났다. 즉 육지에서 태어나서 해녀를 하는 경우는 ‘지방 해녀, 육지 해녀’로, 제주(도)에서 출생한 사람은 그 지역을 출가했다는 의미에서 ‘출가 해녀’, 또 제주도 출신이라는 의미에서 ‘제주 해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녀들은 자신을 지칭할 때에도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제주 해녀, 지방 해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은 동해안 지역 해녀 생계의 배경을 짐작하게 해준다. 제보자들이 해녀를 가리키는 말에 ‘육지 해녀, 지방 해녀, 출가 해녀, 출항 해녀’의 명칭이 있었지만 섬과 육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주도 역시도 하나의 지방이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제주 해녀’와 ‘육지 해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명칭은 김지숙(2009)에서도 밝힌 바 있다.

예) {제주 해녀} 없어. {지방 해녀뻘에}. 딱 지방에서 해먹으니 {지방 해녀라} 그러지.(강릉)

나머지 제주도 해녀가 세 명인가 있고 {육지 해녀는} 두 명 죽아뿌고 구룡포 해녀가 와가 한다니까.(영덕)

지방 해녀하고 출가 해녀. {출가 해녀는}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물질을 배워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경주)

3) 해녀가 직업이라는 점에서 태어난 지역과 활동 지역 중 어느 것을 고려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방언 조사에서 말하는 제보자 기준과도 다르다는 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육지 해녀는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

정책적인 이주 정책으로 울릉도에 이주한 사람을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육지에서 해녀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조사 지역 개관

조사 방법은 어휘의 다양한 모습을 규명하기 위해 참여 관찰, 심층 면접 등과 같은 민속지학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⁴⁾ 민속지학적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격식 질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현장 상황에 맞추어 참여 관찰, 대화, 심층 면접, 생애 구술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심층 밀착 조사의 일환으로 제보자와 자연스러운 유대감 형성에 토대가 될 수 있었고, 그 질문에 따른 하위 항목도 조사할 수 있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지점과 제보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 지점은 대형 어업 중심인 도시형 어촌보다는 사골형 어촌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울진(후포, 죽변), 영덕(축산, 강구, 병곡), 포항(구룡포, 청하), 경주(감포), 울산(주전, 재전, 정자), 부산(기장, 영도, 가덕도), 울릉도(도동, 저동)로 하였다. 또 강릉 지역의 조사는 과거에 연구자가 조사한 2011년 민족생활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⁵⁾ 어촌의 특성과 해당 직업군을 더 잘 알기 위해 사람, 도구, 어패류, 해조류, 기타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⁶⁾ 조사 질문지에 의하여 조사된 어휘 항목들을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3년 동안 조사한 7개 지역의 결과는 조사 질문지의 번호에 맞춰서 엑셀 자료로 재구성하였고, 음성 자료는 전사 프로그램인 Transcriber 1.4.2를 사용하여 텍스트 문서로 가공하였다.

<표 1> 울릉도 동해안 지역 해녀 제보자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김00	여	67	울진군 평해읍	해녀(울진 기성면 → 울진 평해읍)
손00	여	70	울진군 평해읍	해녀(제주 출생 → 부산 기장 → 울진 평해읍)
천00	여	66	울진군 평해읍	해녀(영덕 축산면 → 울진 평해읍)
정00	여	64	울진군 평해읍	해녀(울진 평해읍 본동맥)
이00	여	72	울진군 기성면	해녀(울진 기성면 본동맥)
김00	여	69	영덕군 축산면	해녀(강원 주문진(10살까지) → 영덕 축산)
김00	여	74	영덕군 강구면	해녀 55년 경력(본동맥)
임00	여	74	포항 청하면	해녀 50년 경력(본동맥)
최00	여	77	포항 구룡포읍	해녀 60년 경력(본동맥)
김00	여	76	울산시 북구	해녀(울산 미포 → 주전)
김00	여	80	울산시 북구	해녀(울산 주전 본동맥)
이00	여	75	울산시 북구	해녀(울산 주전 본동맥)
손00	여	76	울산시 북구	해녀(울산 북구 당사동 → 주전)
김00	여	62	울산시 북구	해녀(경기도 고양시 → 울산 주전)
김00	여	78	울산시 북구	해녀(울산 주전 본동맥)
박00	여	71	울산시 북구	해녀(울산 주전 본동맥)
박00	여	77	울산시 북구	해녀(울산 주전 본동맥)
박00	여	58	경주시 감포읍	해녀 35년 경력(본동맥), 2대째 해녀
박00	여	64	경주시 감포읍	해녀 30년(제주 출생 → 감포)
김00	여	72	부산시 기장군	해녀 20년 경력

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다.

- 4) 하임즈(Hymes)에 의해 시작된 언어인류학에서 의사소통의 민속지학은 사회 생활에서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말하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이는 언어와 사회 구조, 언어 행위와 사회 행위 간의 상호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연구의 방법론적 도구로는 민속지학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의사소통의 민속지학은 언어의 존재 양태가 말하기에 기반하는데, 이를 통해 언어 · 문화 ·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 5) 참고로 사용하여 <표 1>의 제보자 정보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6) 이 연구에서 다룬 어휘물에 관한 수는 물고기류 125종, 계류 29종, 조개류 35종, 해조류 18종, 기타류 32종으로 총 239개이다. 그러나 해녀들이 어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대부분 조사는 계류, 조개류, 해조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00	여	70	부산시 송도	해녀 46년 경력(하동 → 부산)
윤00	여	66	울릉군	해녀 45 경력(제주 → 울릉도(40년))
김00	여	66	울릉군	해녀 40년 경력(제주 → 울릉도(40년))

3. 선행 연구 검토

해녀와 관련된 어휘 연구는 김영돈(1999, 1990), 김순이(1990), 김순자(2009), 문순덕(2012), 양희주(2015), 신우봉(2017) 등이 있다. 김영돈(299)에서는 해녀 어장, 해녀 작업, 해녀 도구, 해산물, 해녀 노래를, 김순자(2009)에서는 해녀의 명칭, 물질 공간과 방법, 조류, 복장, 도구, 음식, 민속 등을, 문순덕(2012)에서는 해녀의 직업어, 도구어, 해산물, 꿈, 금기어, 언어 등을 각각의 어휘와 의미로 분석하였다. 또 양희주(2015)에서는 해녀 명칭, 바다류, 작업류, 해녀복, 작업 도구류, 채취물류로 어휘 분류하였고, 신우봉(2017)에서는 해녀 도구를 중심으로 작업, 보관 등의 의미 자질로 낱말받을 제시하였다. 신우봉(2017) 등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명칭을 분류하여 나타내는 분류법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김순자(2009) 등은 해당 어휘와 의미 제시에 비중을 두어 각각의 어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들 논의는 제주도 지역의 해녀를 대상으로 하여 이 글에서 다루는 육지 해녀에 대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육지 해녀의 말 속에 나타난 제주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언어 접촉의 원인과 언어 유형

방언은 표준어의 간섭에 의해서 지역 방언의 보수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언어 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라고 한다.⁷⁾ 이러한 언어 접촉은 대부분 동일 언어권 안에서 방언 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그동안 언어 변화 연구는 언어 내적 요인을 밝히는 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방언 간에 접촉 외에도 이주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육지 해녀의 언어에 제주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언어 내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요인을 통한 언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언어 외부 요인이 언어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변화를 언어 외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한편 대부분 언어 접촉은 두 방언의 요소가 병존하는 병존 방언, 두 요소가 융합해 제3의 요소로 나타나는 융합 방언, 이 두 요소가 함께 발생하는 혼합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어는 제주어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4.1. 언어 접촉의 원인

<매일신보>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은 1880~1890년이며, 초기에는 경상남도 울산, 부산 기장의 두 해안에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경상남도 거제도, 부산(기장), 울산,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의 모든 섬, 함경남도, 황해도 연해까지 진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916년 7월 28일자 기사] 즉 제주 해녀들의 출가는 부산 지역이 시작이었으나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이는 1962년부터 1973년까지의 출가 실태를

7) 언어 접촉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둘 이상의 언어 집단이 지리적, 사회적 이유로 상호 간에 사회적 접촉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8) 갑오경장(1894년)을 전후하여 해조류의 효용도가 높아지면서 부산 일대에 해조상이 많이 생겼고, 해조상들이 직접 제주로 와서 해녀들을 모집해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1937년에 펴낸 『제주도세요람(濟州道勢要覽)』을 보면 그 해 3월 말 현재 한국 각 연안에는 2801명이 출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1,650명, 경상북도 473명, 전라남도 408명, 충청남도 110명, 강원도 54명, 황해도 50명, 함경남도 32명, 전라북도 19명, 함경북도 5명으로, 경상남도 일대로 출가한 해녀수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에(2001:21)을 통해 재구성한 ‘지역별 현지 지방 출신 해녀와 제주 출신 해녀의 분포(1993년)’의 내용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강원도의 현지 출신은 351(56.6%), 제주 출신은 269(43.4%), 경북의 현지 출신은 224(80.9%), 제주 출신은 53(19.1%), 경남의 현지 출신은 545(50.2%), 제주 출신은 540(49.8%), 부산은 현지, 제주 구분 없이 429명의 해녀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보여주는 <표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제주 해녀의 한반도 출가 실태[제주도『한국의 해녀』(1999)에서 재인용]

연도별	계(단위: 명)	경남	경북	전남	강원	기타
1962	4,090	1,356	1,584	232	787	131
1963	2,215	696	1,320	71	71	3
1964	2,071	378	1,354	108	108	66
1965	1,538	258	1,049	56	56	62
1966	1,903	338	1,103	143	143	131
1967	1,909	788	635	248	248	109
1968	1,093	159	654	84	84	115
1969	1,167	457	216	282	282	67
1970	1,023	239	85	188	188	511
1971	1,230	302	126	284	284	352
1972	917	264	249	158	158	142
1973	867	254	199	238	238	112

우리는 <표 2>를 통해 제주 해녀가 경상도 지역으로 가장 많이 출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 해녀의 지속적인 외부 진출은 새로운 언어를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연구자가 조사한 동해안 지역에서도 제주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좀더 자세한 이주 배경을 해녀들의 구술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 이주와 결혼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표 2>에서 언급한 제주 해녀들의 이주이다. 과거 육지에 해녀가 없었을 때 육지 내에 작업을 할 수 있는 해녀를 중개 상인인 객주, 어촌 주민이 모집하였고, 이때 제주도에서 여러 명의 해녀들이 육지에 와서 몇 주, 더 길게는 몇 달을 거주하기도 하였다고 한다.⁹⁾ 이렇게 거주하는 가운데 새롭게 육지에서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즉 육지라는 공간이 주는 해녀의 희소성으로 한 번 온 해녀들은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오게 되었고 이는 해녀들의 이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제주 해녀들의 이주는 울릉도에 시행한 이주 정책과는 다르게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제주 해녀가 제주도 밖으로 나가 물질하는 것을 ‘출가 물질, 배꼐 물질(바깥 물질)’이라고도 하며, 한반도로 출가 물질 나가는 것을 따로 ‘육지 물질’이라고도 했다. 아래의 (1)은 이러한 제주 해녀의 이주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 (1) 가. 예, 우리도 많아요. 여기. 제주사람하고 같이 와갖고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신랑 각시. 여 와갖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포항)
 나. 옛날에도 해녀라 했지. 제주 아줌마들 보고 해녀라 했지. 여근 아예 없었어. 와가주고 미역 채취할 때 필요하면 쓰고 또 가고.(울진)
 다. 나머지 제주도 해녀가 세 명인가 있고 육지해녀는 두 명 죽아뿌고 이제는 구룡포 해녀가 와가 한다니까.(영덕)
 라. 백프로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가 인자 해녀도 오십살 전에 해녀가 없습시다 제주도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울릉)

제주 해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마도, 동경, 고지 등지와 중국의 청파오(靑島)나 파리엔(大連),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했다.

- 9) 19세기 후반부터 간헐적으로 바깥 물질이 이뤄졌으나,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전 1890년대부터 일본의 잠수기 어선 수백 척이 제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 채취할 해산물도 부족해지자 해녀들은 육지로 눈을 돌렸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해산물은 전복, 해삼 등이 아닌 우뚝가사리였다. 1916년 미역 가격의 66배, 1930년대에는 무려 1000배에 이르렀다. 우뚝가사리는 가공식품 재료와 공업용 원료로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제주해녀들은 경상,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물질을 했으나 일부는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해안까지 올라갔다. 제주해녀의 육지 해안 정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해산물은 미역이다. 1960, 70년대 중반까지 돌미역 채취를 위해 필요한 해녀를 어촌 주민들이 제주에 가서 데려왔다. 이들을 해녀사공이라 했다. 육지로 나온 출항 해녀는 2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 물질을 하고 제주로 돌아갔다. 조용하던 어촌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해녀가 몰려들었다. 물질을 하면서 육지 총각과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많았고, 육지 해안에 정착하는 해녀가 늘었다.(부산 바다의 제주 할머니 해녀들[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34> www.donga.com 2019-10-11)

다음으로는, (1가)와 같이 이주한 해녀들의 결혼을 들 수 있다. 즉 육지에 거주하면서 지역민과의 접촉으로 발생한 결혼이다. 10~20대의 미혼인 해녀들은 대부분 육지의 친척 집에 거주했는데 이때 만난 마을 청년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육지가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새롭게 꾸린 제주 해녀들은 그 지역의 해녀들과 작업하거나 또는 자식을 낳아 자식에게 해녀 직업을 전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즉 이주, 결혼 등이 동해안 지역에서 제주어가 나타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출가 물질, 육지 물질의 배경에는 제주도의 궁핍한 생활과 육지에서의 높은 수익이 바탕이 되었다. 이는 당시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 해녀들은 힘든 출가 물질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고생은 있더라도 답답한 섬 생활을 벗어나 활기있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해녀들도 있었다.

<표 2>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주 숫자가 강원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동해안 지역이 제주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해녀들이 육지로의 이주한 시기가 40~50년이 되었음에도 이 지역에서 제주어를 찾아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처럼 이주 시기가 오래되었음에도 제주어가 나타나는 것은 제주어가 이들 직업에서 특수화된 언어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특정 지역의 언어라기보다는 특수 직업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지 해녀들은 해당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면서도 이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 즉 해녀 집단에서는 제주 방언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육지 해녀의 언어에서 제주어가 나타난 것은 중복되는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해녀 공동체의 사회 규칙과 더불어 의사소통 규칙을 습득해야 하는 필요와 요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2. 언어 접촉으로 나타난 언어 유형

육지 해녀 언어에 나타난 제주어를 먼저 유형을 나눈 후, 제주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형태와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어와 관련된 어휘를 사람, 도구, 채취물로 구분해서 제시하면 다음의 (2)와 같다.¹⁰⁾

(2) 사람: 보지기, 아주방, 상군, 중군, 하군, 돌팔이

도구: 태박/태확, 망사리/망시리, 조락, 구덕, 봉당, 호맹이/전갱이

채취물: 거드락지, 구살, 구쟁기, 배차기, 군벚, 헛물, 넙치, 복쟁이, 부리/부시리, 생선, 오분자기, 깍주루, 만백이

이 중 채취물은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3) 가. 어류: 복쟁이, 부리/부시리, 생선, 깍주루

나. 패류: 거드락지, 구살, 구쟁기, 배차기, 군벚, 헛물, 오분자기, 만백이

(2)와 (3)의 각각의 유형을 사람, 도구, 채취물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4.2.1. 사람 명칭

동해안에서 해녀는 제주 해녀와 육지 해녀를 아우르는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해녀는 제주 해녀, 육지 해녀와 같은 지역에 따른 명칭과 함께 능력에 따라 사람을 가리키는 상군, 중군, 하군의 명칭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10) (2)에서 일부 정리되지 않은 것과 이들 유형 외에 나타난 어휘(예: 해조류)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나타난 해녀 명칭은 다음의 (4)와 같다.

(4) 가. 보지기는 제주도 말이고, {보지기는} **제주도 사람 (말해)**.(영덕)

옛날엔 지금은 해녀라 그러는데 옛날엔 보지기. 보지기. 옛날엔 그랬잖어요. 보지기. 보지기. 그 몰래 그래. 해녀 우리 어릴 때 {보지기}. 요새 나와 해녀라 그러는데 우리 옛날 보지기.(울릉도)

나. 그냥 지방해녀, 지방해녀. **제주도해녀**. 지방해녀라 하대. 육지해녀. {아주방} 이래 쓰고 우리 지방해녀라고.(영덕)

다. 해녀들 우리 여기 나잡 어업 필적을 가진 사람들이 열여섯 사람이 있어요. **제주 사람이 일부고 우리** {육당 사람들} 일부고.(부산)

라. 응 여기도 상군 {중군} 안 하드나. 상군 하군 안 하드나 내가. 그라제. 여도 인제 제주 사람들이 와가 잠무질 하니 까네 나는 만날이라나 내가 상군 따라가네나. 상군 따라가네나. 인제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 인제 물건 잘 하고 깊은 데 잘 드가는 사람**을 {상군이라} 하고 **저 못 드가는 사람**을 {하군} 하고 인자 그래. {꼬찌바리는} 별로 말 안 하는데 제주도 상군이다 육지에서도 상군 상군.(영덕)

마. 하군. {돌팔이}. 똑 돌팔이 행세매치로 **요~ 갔다 조~ 갔다 돌팔이매치로 저거끼리 좀 찍히더라**.(영덕)

동해안 지역에서도 해녀를 ‘비바리, 잠녀’로 칭하는 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녀에 관한 명칭 중 먼저, (4가)의 ‘보지기’는 이 지역에서 제주도에 온 해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제주에서 ‘보제기, 보제기’는 바다에서 주로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은 어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 지역에서는 남성이 아닌 여성을 의미하고 있었고, ‘보제기>보지기’로의 음운 변화가 나타났다. 성의 변화와 음운 변화로 인해 ‘보지기’는 원래 지니고 있던 중립적인 의미에서 여성 편하의 의미로까지 변질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즉 제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보제기’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이 지역 사람들은 ‘보지기’를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한 명칭으로 인지해 여성이 주축이 된 해녀 직업을 하대해서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다.¹¹⁾ 해녀를 가리키는 말에는 이 외에도 (4나)의 ‘아주방’이 있다. 제주에서 ‘아주방, 아주망, 아지방’은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지역에서는 제주에서 온 해녀를 가리켜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제주어 ‘아주방’과 육지에서 사용하는 ‘아주머니’와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로 판단된다. 한편 (4다)의 내용 중에 ‘육당 사람’은 육지 해녀를 가리키는 말인데, 제주어에서 바다를 가리키는 ‘바당’에 대응되어 나타난 표현이다. 즉 육지를 육당으로, 바다를 바당으로 표현한 말에 해녀 대신 사람을 붙여 표현한 것이다.¹²⁾

한편 해녀는 능력과 기량에 따라 그 명칭이 세분화되기도 했는데 (4라)의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이 여기에 해당된다. (4라)와 같이 행위자 명칭이 이렇게 상.중.하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직업이 고도의 기술과 끊임없는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녀 공동체의 서열화를 보여준다.¹³⁾ 이러한 구분은 ‘상군, 중군 한 거는 {상바다}는 저저 노해녀가 익숙한 사람이 나가고 {중바다}는 조금 못하는 사람이 나가고 이제 배우는 사람은 그저 가까운 데 상부, 중부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영덕)’와 같이 이들이 활동하는 바다를 대상으로 구분한 ‘상바다, 중바다, 갯바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상군이 활동하는 공간이 상바다이고, 중군이 활동하는 바다가 중바다, 하군은 가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말이다. 제주에서도 해녀는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작업 기량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들 중 ‘하군’은 제주에서 ‘돌파리, 돌프레, 똥군’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가 (4라)의 ‘꼬찌바리’와 (4마)의 ‘돌팔이’이다.¹⁴⁾ ‘상군, 중군, 하군’을 다른 지역에서는

11) 제주어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의미로 해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한 ‘히바리(ヒバリ)’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보지기’는 동해안 외에도 남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제보자의 말을 통해 제주에서 온 말임을 알 수 있다.

예) **해녀는 육지끼지 왜**도 {보제기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해녀를 옛날에 {보제이라}는 말. 응, 보제이. 보제기는 보제기는 거 제주도부터 흘러 나온 말이지.(통영 육지도) <민족생활어 경남 조사> 참고.

12) ‘바당’은 문헌에 나타난 ‘바를 海’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를>바당’의 변화를 거쳤다. 이러한 ‘바당’은 제주어에서 폭넓게 나타난다.(바당-고기, 바당-강이, 바당-물)

13) 울릉도에서는 해녀 수가 적어 이러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예) 상군, {상군} 하지. 몰라. 어, 중군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예, 여긴 그런 거 없어. 여기는 상군 그것도 없어 여기는. 제주도는 상군 있고 뭐 하고.(울릉)

14) 제주어에서는 작업하는 기량이 서투른 해녀를 ‘하군’ 외에도 ‘각-좁네, 각-좁수, 돌-파리, 돌-프레, 똥-군, 불락-좁네, 불락-좁수, 죽은-좁네, 죽은-좁수, 하-좁네(下-), 하-좁수(下-), 핫-바리’로도 표현했는데 이들 중 ‘돌파리, 돌프레’를 찾아볼 수 있다.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육지도)’로 사용하고, 또 해녀를 ‘물바리’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바리’의 쓰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때의 ‘-바리’는 행위가 아닌 행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40a)의 ‘돌팔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떠돌아다니며 기술, 물건 따위를 팔며 사는 사람이나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하군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었다. 이는 많이 돌아 다니지만 기술이 좋지 못해 성과가 좋지 못한 돌팔이의 의미와 하군의 능력과 기량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제주와 동해안 모두 ‘돌파리, 돌프레’가 나타난 것은 떠돌아 다니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군의 모습이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같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4.2.2. 도구 명칭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채취 도구, 보관 도구, 착용 도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도구는 해녀가 어패류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채집 도구이다.¹⁵⁾

(5) 가. {테왁}. 테왁. 이걸 {테박}이라데.(영덕)

나. 으응. 전쟁이 연장을 가지고 전쟁이라 하는 거 아니냐. 통틀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뭐 연장 가온나 이라지만은 거는 전쟁이 전쟁이. **밭에 호미 호미를** {전쟁이} 가지고 뭐 하러 간다 이래사데.(영덕)

다. 돌갱이하고 {호맹이}, **제주서는 그거 보고 호맹이 보고** {돌갱이} 돌갱이라 하고, 돌갱이라 하고 여는 호맹이라 하 데.(울릉)

라. 망시리는 내나 이거를 이거를 망시리 아니냐. 응. **조리를** {망시리} 안 카나. 우리 요거 망시리라 안 했나. 야께. 응. 작은 망사리. {미역망사리} 또. {성계망사리}하고. 코가 크기가 다르잖아. 미역망사리는 물이 잘 빠지라고 물이 물기가 많으니까네 코를 크게 하고.(영덕)

마. 조락. 조락은 내나 **이 쪼매난 거 차고 이런 기** {조락이라} 안 하나.(영덕)

바. 구덕? 대지 사람들은 옛날에 대나무 가지고 요렇게 {구덕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거다가 아~ 짚어지고 뭐뭐 나가지고 짚어지고 결빵 해가지고 구덕까지 짚어지고 자물질 땡겼다.** 옛날에. 여 제주 사람들 침에 나와가지고 구덕 짚어지고 땡기데. 할마 할마 친정어마 와가지고 구덕 짚어지고 아 봐주고.(영덕)

사. 불 피워라 이리데 제주 사람들은 그래고 우리는 {봉당에다} **불 피워라** 그래.(영덕)

해녀들의 채집 도구에는 ‘테왁, 망사리, 조락, 호미, 빗창, 정계호미’가 있다. 물에 뜨기 위해 짚는 보조 도구인 테왁, 채취한 해산물을 담기 위한 망사리, 조락, 그리고 해산물을 채취할 때 쓰는 채취 도구인 호맹이, 정계호미, 빗창이 있다. 먼저, (5가)의 ‘테박, 테왁’은 ‘테왁’을 말하는 것으로 해녀들이 부력을 이용해 해염을 치거나 바다 위에 올라와 숨을 고르며 쉬는 보조 도구인데 밑에는 망사리와 조락, 추망사리를 연결하여 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한다. 동해안에서 테왁이 ‘테박’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원 재료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요즘 사용하는 스티로폼으로 만들기 전에는 이 테왁을 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테왁의 명칭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제주도의 ‘두렁박’과 부산의 ‘타른박, 두렁박’, 경주의 ‘꼬두박, 꼬들박’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명칭을 살펴보면 ‘테, 두렁’에 박을 매달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박테왁, 스티로폼테왁’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재료명과는 별개로 ‘테왁’과 유사한 음으로 인지한 ‘테박, 테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보관 도구인 테왁은 패류나 해조류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며, 이 크기는 망사리의 크기와 짜임에도 영향을 준다. 해녀들은 바다를 육지의 밭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바다밭이라 하여 바다에까지 농사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바다밭에서 해녀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채취 도구는 빗창과 호미이다. 이 중 호미는 바위 틈에 해산물을 꺼내거나 물 속에서 돌맹이를 뒤집고 물 밑을 헤집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호미는 (5나다)의 ‘전쟁이, 호맹이, 돌갱이’로 나타났다. 이 중 (5나)의 ‘전쟁이’와 유사한 형태를 제주어에서 볼 수 있었는데, 모자반이나 툇 또는 미역을 벨 때 쓰는 낫을 가리키는 ‘정계호미(종계호미)’라는 말이다. 즉 육지에서 사용하는 낫을 제주에서는 호미로 가리키고 있다. 제주 지역과 대상물에서 차이는 있지만 (5나)의 ‘전쟁이’는 ‘정계호미’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제주에서 왜 낫을 호미라고 하는지는

15) ‘까부리, 돌막이, 물적삼, 물안경’와 같은 착용 도구는 시간상의 이유로 다루지 못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주 지역에서 잘못 붙여진 이름을 다시 육지에서는 바로 잡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호미를 가리키는 제주어인 ‘굴갱이, 골갱이’는 ‘굶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주에서는 ‘굴각지, 굴개기, 굴갱, 굴개, 호맹이, 호맹이’ 형태를 사용하기도 했다. 제주에서 사용되는 ‘호맹이, 호맹이’와 (5다)의 ‘호맹이’는 ‘호맹이>호미>호미’의 발달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이남덕(1998:142)], (5다)의 ‘돌갱이’는 제주어 ‘굴갱이’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호미는 지형적 특성, 채집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길이가 달라 문어를 잡을 때는 쇠붙이 길이가 긴 것을, 조개류는 쇠붙이가 짧고 날카로운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¹⁶⁾

태왁에는 망사리가 부착되어 있고 해녀들은 그곳에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서 보관한다. (5라) ‘망사리, 망시리’는 제주도 사람들이 부르는 조리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망사리’는 크게 ‘헛물망사리’와 ‘미역망사리’로 나누어지는데, ‘헛물망사리’는 주로 전복 등의 패류를 담아서 코가 촘촘하고, ‘미역망사리’는 미역, 톳 등 해조류를 담는 용도로 쓰여 코가 크다. 즉 어획물의 종류에 따라 망사리의 코의 성글고 조임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망사리의 명칭도 ‘미역망사리, 성게망사리’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앞서 망사리의 다른 명칭으로 조리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망사리, 망시리’는 바구니가 커서 태왁에 달려있다면, ‘조리, 조락’은 바구니와 코가 작아서 허리에 차거나 땔뿔을 달아 어깨에 메어서 착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5마)의 ‘조락’은 작은 크기의 해산물을 담는 작은 조리라고 할 수 있다. (5라마)의 ‘망사리, 조락’은 제주도와 육지에서 의미와 형태 차이 없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해녀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해삼조리, 전복조리, 성게조리’, ‘새끼망사리, 작은망사리, 성게망사리, 헛물망사’로 나타나 크기 구분 없이, 또 조리와 망사리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큰조리, 조리망, 조리망태기’라는 말도 함께 나타났다. 다만 미역을 담는 말에는 조리가 아닌 망사리만 나타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망사리와 조리를 강릉과 경주에서는 ‘다래끼, 종다래끼’와 ‘꼴망태’로 말하기도 했다.¹⁷⁾ 이와 같은 도구 구분의 불명확함이 제주도와 육지의 차이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육지 해녀가 농촌에서 사용하는 ‘다래끼, 종다래끼, 꼴망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볼 때 농사 도구의 영향이 해녀 도구에까지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있다.¹⁸⁾ 이러한 영향이 육지 해녀들의 보관 도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한편 바구니지만 용도가 다른 또 다른 바구니로 (5바)의 ‘구덕’이 있다. 해녀들이 물질을 나갈 때 대나무로 만든 구덕에 아이를 태우는 도구로 예전에 제주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구덕은 채취한 해산물을 넣고 다니는 보관 도구이자 육아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덕’은 용도와 착용 방법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어 나타났는데, 먼저 그 용도에 따라 물질 도구와 채취한 해산물을 넣고 다니는 대바구니는 ‘구덕’으로, 물질하면서 아기를 태우는 대바구니는 ‘애기구덕’이라고 했다.¹⁹⁾ 또 착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질구덕, 출구덕’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질구덕’은 등에 지는 것을, ‘출구덕’은 허리에 차는 구덕으로 구분할 수 있다. (5사)의 ‘봉당’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쉬는 공간으로 겨울에는 이곳에서 불을 쬐어 언 몸을 녹이는 공간을 말한다. 주로 바닷가 바위 틈에 임시로 만든 공간으로 제주 지역에서도 ‘봉당’으로 나타났다. ‘봉당’과 비슷한 말로 제주어의 ‘불턱’도 찾아볼 수 있었다. (5)에서 살펴본 도구 명칭은 전반적으로 육지 해녀와 제주도 해녀들이 사용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었다.

16) 호미는 지역에 따라서는 ‘굴갱이’, ‘굴각지’, ‘굴강새’, ‘골갱이’, ‘쇄골갱이’라고도 한다. 육지의 호미가 넓적하다면 제주도의 골갱이는 얇고 가볍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골갱이는 밭에서 사용되는 골갱이보다 조금 더 길고 가늘어서 해초를 따거나 바위 틈에 붙어있는 전복이나 틈 속에 숨어있는 해삼, 성게 등을 쉽게 채취할 수 있다. 형태적으로는 골갱이 크기의 차로 구분되는 ‘골갱이’, ‘섬넓은 골갱이’, ‘육지골갱이’ 등이 있다.<발췌: 제주 박물관 소장 자료 전산화 구축 P21, 2007년>

17) 다음이 농촌 지역의 영향을 받은 예이다.

예) 종다래끼 있지. {종다래끼} 요거보다 적지. 조그맣고. 종다래끼라고.(강릉)

이거는 무슨 {꼴망태}. 뒤로.(경주)

18) 한편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찾아 볼 수 있어 제주와 육지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예) 큰 바구리를 {조락}. {조락} 여자들 산에 가서 나무 해서 여자들이 이고 다니고 바구리보다 커요.(추자도)

예) 조락조락하게 현 건 {오분작 조락}. 또 **호셀 크게 현 건 우미 망사리 ㄹ득으민** 담은 조락. **우미 담은 조락은 그냥 큰 조락**. 또 조락락한 또 무슨 거 현 건 신 담은 조락도 신곡. 조락도 여러 개. 오분작 조락. 또 우미 즈문 땔 우미 조락.(우도)

19) 제주에서는 아이와 구덕과 관련된 명칭으로 다음이 나타났다.

예) 구덕-삼승 <민> 아기구덕을 보호하는 삼신. [전역]

구덕-혼스 유아기 때 부모끼리 약속한 혼사(婚事). [전역]

해녀가 제주도에서 먼저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에서 사용된 도구 명칭을 육지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명칭보다는 큰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호미, 정게호미, 구덕(출처: 제주 해녀 박물관)

4.2.3. 채취물 명칭

해녀들의 주된 채취물은 아니지만 어류에서도 제주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먼저 (3가)의 어류의 예시를 (6)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6) 가. 그거네 생선. 제주도 생선. 옥돔, 옥돔. 우리는 우리 클 때 이거 보고 {생선, 생선} 했어. 우리 클 때 그랬어. 인자 옥돔이니 뭐니 하지. 옛날에는 생선, 생선 했어. 제주도는 이거 보고 생선이라 해. 제주도는 옥돔 보고. 어,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 이름이 생선이라 했어.(울릉)
- 나. 요서는 복어라 하데. {복쟁이 복쟁이} 이라더라. 어. 여기서는 복어, 복어 하더라고. 제주말로.(울릉)
- 다. 까치. 지치. {깍주루}.(울산)
- 라. 몰라 요새. 방어 나오나 요새. 사배기도 있고 방어도 있고 뭐. {부수리, 부수리} 하데. 부수리 새끼 아니더나 제주 말로. 방어 새끼 사배기, 사배기.(울릉)
- 마. 요 있어요. 요 울릉도 더 많이 나요. {망치}. 봄 되면 많이 나요. 예. 여 망치. 망치. 오월달 나면 새끼 나고.(울릉)

(6가)의 ‘생선’은 옥돔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우리가 아는 생선(生鮮)과는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옥돔은 한자어로 옥두어(玉頭魚)라고도 하는데 머리의 이마가 튀어나와 옥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생선’이라는 명칭은 제주도에서도 유래된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옥돔을 생선 중에 으뜸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즉 생선이라는 명칭은 어류를 통칭하는 명칭과 하위 어종인 옥돔을 가리키는 명칭 두 가지로 나타났다. 수많은 생선 중에 유독 옥돔만을 생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옥돔이 지니는 맛과 형태, 빛깔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옥돔만을 생선이라 부르고 다른 바닷고기는 고유 명칭을 붙여 부를 만큼 옥돔을 생선 중의 생선으로 여긴다고 한다. 옥돔 명칭은 제주도 지역에서도 달라 ‘오토미(대정), 솔내기, 솔라리, 솔라니(성산·우도), 오토미생성, 생성(한림), 바룻괴기(중문), 옥도미’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 명칭에서도 ‘생성’과 ‘바룻+괴기’의 합성어인 ‘바룻괴기’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6나)에서 ‘복쟁이’는 동해안 지역에서 ‘복, 복찌’ 등으로 불리는 ‘복’에 ‘-장이’가 결합한 형태로 ‘복> 복장이> 복쟁이’의 변화를 거쳤다. 복어는 제주도에서도 ‘복장이·복쟁이’로 나타나 차이가 없었다. (6다)의 ‘깍주루’는 쥐치를 말하는 것인데 제주에서는 ‘객주리’로 나타난다. ‘깍주루, 객주리’의 ‘객’은 ‘갯’, 즉 바다를 의미하고, ‘주리’는 쥐를 의미하는 ‘중이, 주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즉 육지에서 ‘쥐치’라는 말과 제주어에서 온 ‘깍주루, 객주리’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라)의 ‘부수리’는 방어와 유사한 어종으로, 제주도에서도 ‘부시리’로 나타나 동해안과 유사하였다. 그런데 동해안 어부들은 제주어와 동일한 ‘부시리’를 사용하고 있어 동해안 지역 해녀들의 발음 오류나 인식 오류가 아닌가 한다. 한편 ‘부수리, 부시리’는 제주어라기보다는 방어의 일본어인 ‘부리(ふり)’가 제주어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부시리’는 일어인 히라마사(ひらまさ)가 와전된 ‘히라스(ヒラス)’라는 명칭으로도 자주 불리는데, 이러한 ‘부시리, 히라스’는 제주와 동해안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이다. (6마)의 ‘망치’는 ‘망상어’로 제주와 동해안 지역 모두

동일한 형태와 의미로 나타났다.

어류보다는 패류와 해조류가 주 채취 대상인 해녀는 이들에서 제주어의 흔적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앞서 분류한 (3나)의 패류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의 (7)과 같다.

(7) 가. 상사리는 그거 저거 뭇고 사투리로는 구쟁기라 카거든. 구쟁기. 요새는 요새는 소라라고 이약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저거를 저거를 {구쟁기라} 하더라고. 구쟁기.(경주)

나. 고 답에는 인자 이 성게 성게 말로는 사투리로는 여는 {구살}. 응. 표준말으는 성겐데 사투리는 구살. 아니 안개이가 인제 그거 그거 안장구 그게 인자 말뚝성게 그거고. 껌은 성게. 그거 그거는 침 나는 거는. 껌은 성게 그거는 그냥 성게라고도 하고 할매들 옛날말. 옛날말 인자 {구시라고도} 하고.(경주)

{구생이}가 바라 그 운 성게. 성게를 구생이라 하잖아. 응. 구생이 대가리라 하데. 구생이 대가리. 그래 여는 그래.(영덕)
다. 응. 그렇고 말뚝성게는. 말. 말뚝성게는 {솜이라고도} 하고. 그냥 사투리로는. 솜이라고도 하고 안장. 안장구. 안장구 이거는 일본말이지 싶으다.(경주)

라. 이거 뭐가 이빨이 딱 붙었노. 하하하하. 이거 왜 이빨 붙었노. 이거 제주도 끝으면 {배차기}. 배차기 그런다. 이게. 거 안 그러더나. 거복이손이라고도 하고. 이거 뚝 이빨맨치로. 아까 거 가가 안 그러더나. 제주도로서 거복이손이라 칸다고. 어 부채손.(경주)

마. 고 답에 또 인제 헛물 망사. 인제 전복 망사리. {헛물 망사리는} 작으만치 두르막 작게 해가지고 거기다 작은 조리 달아가지고 뭇 같은 해수 같은 것도 뒤에 달아가 땡기고. 오늘 {흔물바리} 잡니다. 잡어했니다. 그래 그래 얘기해.(영덕)

자. 전복 전복 여는 종류가 없어. 생복. {생복이라고도} 하고. 옛날 할매들 생복이라고. 생복은 {전복} 할매들이 생복 생복하데.(경주)

바. 이거 우리 제주도 말로는 군벚이라 카거든. 응. 군보. {군보 카는데. 요거는 모르겠어. 이거 묵으면 맛있다. 이거 이거 제주도로서는 {군보시라} 카거든.(경주)

사. 저저 옛날에 할매들은 저저 보고 {거드락지}. 거드락지이라던데. 응. 저 안에 저저저 기골배이. 여는 여는 육지 말로 여는 기골배이 하는데 제주도는 거드락지. 거드락지이라고.(경주)

아.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잘 없데. 요렇게 안 생기고 오목하게 생겼어. 제주도 거의 가에 {오분자기는} 오목하고 좀 작다. 오분자기는 큰 기 별로 없어. 근데 제주도에 마이 내(울산)

(7가)의 ‘구쟁기’는 소라를 말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도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등으로 불려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제주에서는 ‘구쟁기’가 소라와 고둥을 모두 통칭하는 명칭으로 나타났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상사리, 구쟁기’를 소라로 인식해 일반적인 고둥과는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제주어에서도 고둥을 가리키는 말로 ‘보말’이 있다는 점을 보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나)의 ‘구생이, 구살, 구시’는 모두 성게를 가리키는 말로, 제주어에서는 ‘구살, 쿠살, 귀’로 나타났다. 한편 성게와 모양이 비슷하나 가시가 없는 말뚝성게를 제주에서는 ‘솜’이라고 하는데 어두 ‘ㆍ>ㅅ’의 변화로 동해안에서는 ‘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두의 ‘ㆍ’가 ‘ㅅ’로 나타나는 경우를 동해안 지역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7라) ‘배차기’는 거복손, 부채손을 말하는 것인데, 제주어에서는 ‘베체기’로 나타났다. (7마)의 ‘헛물망사리, 헛물바리’의 ‘헛물’은 동해안에서는 전복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났다. ‘헛물’이라는 말은 <제주어 사전>(2009)에서는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전복 등을 캐는 작업, 우뚝가사리.툇 따위의 특정 해조류를 일정 기간에 때 맞추어 캐는 경우와는 달리 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 있다’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7마)의 ‘헛물 망사’는 전복을 담는 조리를, ‘헛물바리’는 전복을 잡으러 가는 행위를 가리켜 특정 해산물인 전복만을 지칭하고 있었다. 즉 제주어에서 ‘헛물’이 대상과 행위의 의미가 모두 나타났다면, 동해안에서는 대상의 의미만 나타나 의미가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헛된’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제는 마치 귀한 물건을 다른 명칭으로 대신 불러 그 존재감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의미 축소와 의미 변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어휘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전복을 가리키는 말로 (7자)의 ‘생복’이 있는데, 살아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생태’라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복’의 형태는 남해안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7바)의

‘군벳, 군보, 군보시’는 주로 제주도의 돌에 붙어 사는 딱지조개로, 제주도에서도 ‘군벳’으로 나타났다. 게고동을 말하는 (7사)의 ‘거드락지’는 ‘기골배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거드락지’ 외에도 ‘게들레기, 게드레기, 거들레기, 거드래기’로도 나타났다. ‘거드락지’의 의미는 소라게이지만 제주어에서 소라를 가리키는 ‘구쟁기’와 게를 가리키는 ‘강이’만으로는 ‘거드락지’와의 형태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7아)의 ‘오분자기’는 동해안 지역보다는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개류로 제주와 동해안 모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분자기는 제보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조개보다 오목하고 작은 조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배영환(2016)에서는 이를 ‘오분+자기’의 복합어로 ‘오분’은 동북방언에서 확인되는 ‘오발-’[온 쏘]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된 형태로, ‘자기’는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자개’[貝]의 변화형으로 추정하면서 ‘오분자기’는 ‘전복’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전복은 성장함에 따라 커지지만 오분자기는 더 이상 크지 않는 작은 조개, 즉 딱조개라는 점을 들어 전복과는 다른 종의 조개임을 말하고 있어 전복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²⁰⁾ 이러한 ‘오분자기’는 제주에서는 ‘오분자귀, 오분재기, 오분자구, 오분작’ 등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제주어에서 ‘오분작’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분작+이’의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5. 맺음말

최근 각 지역 방언들이 표준어의 간섭에 의해서 지역 방언의 보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언어 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언어 접촉은 대부분 동일 언어권 안에서 방언 간의 접촉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언어 변화 연구는 언어 내적 요인을 밝히는 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언어 간의 접촉을 사회언어학의 측면에서 언어 외적 요인과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녀들의 언어 변화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리라 본다.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어를 배경을 중심으로 사람, 도구, 채집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주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육지 해녀의 언어에 제주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제주 해녀들의 육지로의 이주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1세대 해녀가 아닌 2세대 해녀, 육지 출신의 해녀들의 언어에서도 제주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말은 본래의 제주어에서 형태, 의미, 음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원래의 제주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녀들이 육지로의 이주한 시기가 오래 되었음에도 육지 해녀의 언어에 제주어가 남아있다는 점은 제주어가 이들 직업에서 특수화된 언어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지역의 언어라기보다는 특수 직업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지 해녀들은 해당 지역 공동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면서도 이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는 제주 방언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여러 다른 사회 공동체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즉 육지 해녀의 언어에서 제주어가 나타난 것은 중복되는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해녀 공동체의 사회 규칙과 더불어 의사소통 규칙을 습득해야 하는 필요와 요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육지 해녀들은 제주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제약점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어민과 주민들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제주어는 일본어보다 더 외래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는 흔히 어촌이 개방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언어적인 면에서는 폐쇄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 육지 해녀들의 말에서 제주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이들 언어가 해녀들의 말에만 머무르는 모습도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어부 중심의 어촌 집단 특수어와 같이 해녀들도 자신들 나름의 특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지 해녀가 제주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미와 명칭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도 했는데 이는 여성인 해녀가 언어 개신자로서, 언어 개신을 받아들여 해당 언어 사회에 확산하는 언어 변화의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적인 범주에 국한되지 않은 해녀는 어촌 문화이자 여성 문화이고, 해녀의 언어는 어촌 생활어이자 여성 직업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부들은 해녀들을 ‘보지기, 잠녀’ 등으로 이들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20) 배영환(2016)에서도 이러한 점을 언급해 작은 전복과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어촌 지역 내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관련된다. 즉 해녀들이 하는 일이 어촌계의 관장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불평등에 대한 현상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언어 외적, 또는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들 사회언어학적 변수들 각각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맺고 있는 관계의 연망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²¹⁾

그동안 육지 해녀에 대한 연구, 해녀들의 언어 접촉 양상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언어 외부 요인이 언어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언어 정책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육지 해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 언어 접촉 이론 및 방언 접촉 이론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21)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평등성과 언어인류학 또는 사회언어학에서의 언어의 불평등성은 ‘언어는 잠재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는 Hymes(1992)의 말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김지숙 2020 재인용)

참고 문헌

- 강대원(1973), 『해녀 연구(개정판)』, 한진문화사.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어어
- 김순이(2009), 『제주도의 잠수 용어에 관한 보고서』 4, 제주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 124-151.
- 김순자(2009), 『해녀, 어부, 민속주: 제주도의 민족 생활어』, 글누림.
- 김순자(2010), 『민족생활어 보고서』 1, 국립국어원.
- 김영돈(1971), 제주도 해녀의 출가, 『석주선교수회갑기념 민속학 논총』.
- 김영돈(1983), 『제주도 민요 연구』, 도서출판 조약돌.
- 김영돈(1990), 해녀 직업의 특수어회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21집, 성곡학술문화재단, 761-797.
- 김영돈(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 김영돈(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김영돈(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김지숙(2007), 『민족생활어 보고서 4』, 국립국어원.
- 김지숙(2009), 『어업 생활어와 장인의 말』, 글누림.
- 김지숙(2017), 민족생활어 어촌 생활어 성과와 활용 방안, 방언학 25, 61-94.
- 김지숙(2020), 울릉도 동해안 어촌 지역의 어패류명의 분화 양상과 의미 분석 연구- 어부와 해녀의 명명법을 중심으로 -, 어문학 147, 1-39.
- 문순덕(2012), 『제주여성 속담의 미학』, 민속원.
- 배영환(2016), 제주방언 ‘오분자기’의 어휘사, 國語文學 63, 39-69.
- 신우봉(2017), 해녀 도구어의 낱말발 연구, 한국언어문학 103, 71-94.
- 양희주(2015), 제주 해녀 어휘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덕(1998), 『한국어 어원 연구 3』, (한국문화총서 142).
- 장주근.이보형(1992),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1996), 『제주의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1999), 『한국의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2001), 『제주 여성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2004), 『2004년도 해양 수산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깨어나는 제주 여성의 역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어 사전(개정 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
- 좌혜경(2015), 『제주 해녀』, 대원사.
- 진성기(1981), 『남국의 민속』, 교학사.
- 한국이동통신제주지사(1995), 『제주의 민요』, 도서출판 탐라인.
- 홍기옥(2010), 『민족생활어 보고서 5』, 국립국어원.
- 사이트: <https://www.jeju.go.kr>
- 매일신보, 1916년 7월 28일자 기사.
- 부산 바다의 제주 할머니 해녀들[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34> www.donga.com 2019-10-11.

격식적 발화에서 전라남도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방언 변이 양상: 방송 토론 상황을 사례로

김영규(서울대)

1. 서론

현대국어의 제 방언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빠른 속도로 수렴하고 있다. 고등교육이 대중화 되고 인터넷 통신이 상용되면서 방언들 간의 수평적 수렴 및 표준어-방언 간 수직적 수렴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와의 전면적인 접촉 가운데에서도 어떤 방언특징들은 쉽게 표준화하는 반면, 어떤 특징들은 상대적으로 저항적일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격식적인 말씨와 일상적인 말씨,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간에 표준어 접촉이 이끄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변화들의 상황별·세대별·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 그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찾아본다면, 방언과 표준어 간 접촉의 과정 및 원인에 조금이나마 접근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전라남도 방언을 대상으로 하며, 발화 자료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후보자 토론 방송으로부터 취한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표준어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정민, 1981; 한성우, 2012; 국립국어원, 2015). 표준어와의 접촉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일 것이다. 선거 토론을 자료로 삼은 것 역시 표준어 수용 양상을 살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이다. 방송 토론은 격식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공공성이 높고 표준어 사용의 압력이 현저한 영역이다. 발화자의 입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음운론적 연구에 부수적인 도움이 된다.

2. 연구 방법

2.1. 언어변화(linguistic variable)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아래 다섯 가지 변형들이다. 대체로 전라남도 전역에서 관찰되며 중장년층에게서도 방언형을 들을 수 있는 것들로 선정했다.

i. (ㅣ): 이 방언의 /ㅣ/는 상대적으로 조음점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이승녕, 1960; 이승재, 1993; 정인호, 2020). 음성 층위의 전사에서 중부방언의 /ㅣ/는 [ʌ, ɜ]로, 남부방언의 /ㅣ/는 [a]로 구별되고는 한다. 서울방언에서도 장모음 /ㅣ:/에 대해서는 달힌 소리가 나지만, 이미 1970년대 젊은이들에게서 음장에 관계없이 [ʌ]가 우세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이현복, 1971; 1977). 한편, /ㅣ/ 음가의 방언차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희미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첫 음절의 경우만을 문제 삼는다. 곧, 첫음절에서 달힌 모음으로 나면 방언형, 상대적으로 열린 모음으로 나면 표준형으로 판단한다.

ii. (-ㅣ): 이 방언의 이중모음 목록에 /-ㅣ/가 결여해 있음이 또한 잘 알려져 있다. 19세기를 거치며 이 방언의 자음을 선행하지 않는 /-ㅣ/는 대개 /ㅡ/로 반사되었다(최전승, 1986). 이 글에서는 /-ㅣ/로 시작하는 어사가 합성어의 후행 요소로 참여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ㅣ/ 또는 /ㅣ/로 실현되면 표준형, /ㅡ/로 실현되면 방언형으로 판단한다.

iii. (변자음 밑 ㅈ): 이 방언에서는 /ㄴ, ㄹ/ 밑의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ㅈ/가 실현될 뿐 변자음 밑에는 /ㅈ/가 후속하지 않는 제약이 있다. 구개음화를 입지 않았다면 변자음 밑 /ㅈ/는 이 방언에서 /ㅈ/ 혹은 /ㅊ/로 대응된다. 따라서 변자음 초성 밑에 /ㅈ/가 실현되는 것을 표준형, /ㅈ/나 /ㅊ/가 실현되는 것을 방언형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변자음에는 /ㅎ/이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양순음과 연구개음만 다룬다.

iv. (장애음+ㅎ): 형태소경계를 개재한 ‘장애음+/ㅎ/’ 연쇄에서 격음화하지 않고 /ㅎ/이 약화·탈락한다는 사실이 이 방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도 표준어의 침투에 따른 변이가 관찰되는바, ‘장애음+/ㅎ/’ 연쇄가 격음으로 되면 표준형, /ㅎ/ 탈락을 보이면 방언형으로 분석한다. 다만 통시적으로 굳어진 파생어들, 곧 ‘-히-, -후-’ 등이 접미한 사·피동사들 및 어미 ‘-고, -을라고’가 줄어든 ‘-ㄱ 하-[인용], -을락 하-[의도]’ 형식은 분석에서 배제한다. 이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전연 변동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2자 한자어들도 배제된다. 이들은 개별 어사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음운 변향의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분석하려는 이 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¹⁾

v. (ㅈ-모음조화): 이 방언은 ‘-ㅈC’ 구조의 어간에 ‘-어’ 계열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기원적으로 ‘ㅎ-’를 포함하는 어사들은 ‘않애, 많애’와 같이 활용하기도 한다. 전자는 중부 방언으로부터 남하하는 개신형으로 이해되고, 후자는 화석형이라 하겠다. 따라서 모음 /ㅈ/를 갖는 폐음절어간이 모음어미에 결합할 때 ‘-아’ 계열이 오는 경우를 표준형, ‘-어’나 ‘-애’ 계열이 오는 경우를 방언형으로 판단한다.

(1) 언어변향

	표준형	방언형	예
i. (ㅈ)	개모음 [Λ, ʌ]	폐모음 [ə, ɐ]	‘전라남도’
ii. (-)	/-/, ㅈ/	/-/	‘의원’, ‘국회의원’
iii. (변자음 밑 ㅈ)	/ㅈ/	/ㅈ, ㅊ/	‘몇’, ‘경제’, ‘살펴’
iv. (장애음+ㅎ)	격음화	/ㅎ/ 약화·탈락	‘산업화, 생각합니다’
v. (ㅈ-모음조화)	‘-아’	‘-어’, ‘-애’	‘살아’, ‘받아’, ‘많아’

이 변향들의 표준적 실현율을 이들이 출현한 전체 빈도수 대비 표준형으로 실현된 빈도수의 백분율로써 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음+ㅎ) 변향의 표준적 실현율은 ‘100*(격음화로 실현된 사례수)/(사·피동사, ‘-ㄱ 하-, -을락 하-’ 및 2자 한자어를 제외한 장애음+/ㅎ/ 연쇄의 사례수)’로 정의된다.

2.2. 말뭉치

언어변향들의 표준적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자연발화를 확보해야 한다. 본고는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 토론 방송 중 전라남도²⁾ 선거구에 해당하는 분을 말뭉치 자료로 삼는다. 타 도에 접경하지 않은 지역으로 대도시 2개구, 중소도시 2개구, 농촌 2개구를 선정해 각 40분씩 총 240분의 발화를 분석한다.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 가운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음이 확인된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1942~1971년 사이에 태

1) 한자어를 포함해 형태론적 조건을 고려한 이 방언 ‘장애음+/ㅎ/’ 연쇄의 변이 연구로 강희숙(1994), 강보나(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 글에서는 이들을 아울러 ‘전라남도’라 지칭한다. ‘전라남도 방언’에 광주방언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어남 남성이며, 학력으로는 국졸자 1명, 고졸자 1명, 대졸자 18명이다.

(2) 표본 구성(괄호 안은 수도권 경력자 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1942~1950년생	1(1)	2(2)	2(1)	5(4)
1951~1960년생	3(2)	3(3)	3(2)	9(7)
1961~1971년생	3(1)	2(2)	1(0)	6(3)
계	7(4)	7(7)	6(3)	20(14)

표준어-방언 변이에 관련해 수도권에서의 생활 여부가 중대한 요인이 될 텐데, 그에 비추어 위 표본은 균형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후보자들의 경력 공개 내역에 근거해 수도권에서의 경력이 있는 표본수를 괄호 안에 밝혔다. 보다시피 중소도시 표본에서 다른 지역구에 비해 수도권 경력자의 비중이 높다. 이하의 분석에서 이 점을 감안하여 해석을 내릴 것이나, 이러한 불균형이 이 글의 논지를 크게 저해하지는 않는다.

2.3. 분석

위 언어변항들의 변이 양상을 설명할 사회언어학적 변인으로 발화 상황, 연령, 지역구를 상정한다. 크게 토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볼 때, 전반부는 기초연설 및 공약 발표로, 후반부는 후보자 주도 토론, 질의응답, 상대 후보자 검증 등으로 이루어진다. 전반부에서는 준비해 온 글을 읽거나 연습해 온 발화를 되뇌는 활동이 많다면, 후반부에는 준비된 발화뿐 아니라 즉흥적이고 때로는 감정이 격앙된 발화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부보다 후반부에서 발화에의 주의(attention to speech)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며, 이들 사이에서 발화 상황에 따른 변이(style-shifting)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구마다 전반부 20분, 후반부 20분씩을 수집했다.

연령 및 지역 조건은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각 세 등급으로 나눈다. 편의상 가장 윗세대에서부터 노년층, 장년층, 중년층이라 부르기로 한다.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를 대도시로, 시를 중소도시로, 군 단위를 농촌으로 간주한다.

일부 변항은 언어 내적 조건도 고려한다. (ㄱ) 변항은 선행자음에 따라 변화의 동기 및 과정이 상이했을 것으로 보이므로(정승철, 2004) 양순음의 경우와 연구개음의 경우를 구분하기로 한다. (장애음+ㅎ) 변항도 /ㅎ/에 앞서는 자음을 양순음, 중자음, 연구개음으로 나누어 본다. (모음조화) 변항은 물론 ‘ㅎ-’에 기원하는 것들과 기타의 것들을 나누어야 하며, 어간말음이 /ㄹ/이거나 /ㄹ/을 갖는 자음군일 때에 상대적으로 ‘-아’형을 선호한다는 보고를 참조해(배주채, 1992; 이진숙, 2015) 이 또한 반영한다. 곧, ‘ㅎ-’에 기원하는 것, 어간말 /ㄹ/을 갖는 것 그리고 기타의 세 구분을 둔다.

(3) 사회언어학적 변인

- ㄱ. 발화 상황: 토론 전반부(더 주의 깊은), 후반부(덜 주의 깊은)
- ㄴ. 지역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 ㄷ. 연령: 노년층(40년대생), 장년층(50년대생), 중년층(60년대생)
- ㄹ. 자음 분류: 양순음, 연구개음(‘ㄱ’ 변항에 대하여)
혹은 양순음, 중자음, 연구개음(‘장애음+ㅎ’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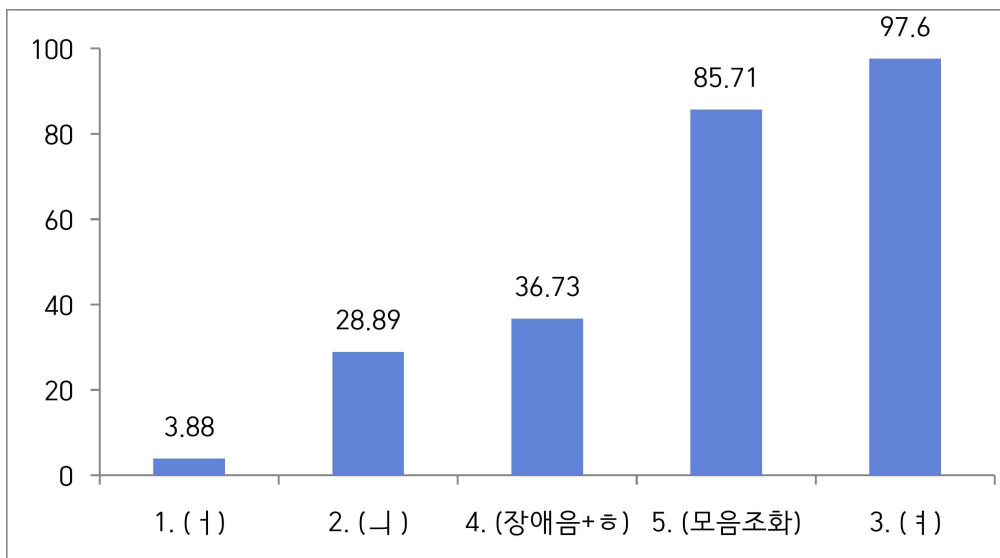
□. 어간 분류: /ㄹ/ 어간, ‘ㅎ-’ 기원 어간, 기타(‘모음조화’에 한하여)
 [참조] 수도권 경력 여부: 경력자, 비경력자

이상 변인들에 대해 Rbrul을 활용해 후보자 개인의 영향을 임의효과로 처리한 혼합모형 분석을 수행했다.³⁾

3. 분석 결과

다섯 가지 변항들은 표준적 실현 정도에 따라 늘어놓으면 아래와 같다.

(4) 변항별 표준적 실현율 [%]



iii. (ㅑ) 변항은 거의 완전하게 표준형으로만 실현된 반면, i. (ㅏ) 변항은 표준발음과 같이 열린 소리로 실현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외에 v. (모음조화) 변항의 표준적 실현율이 꽤 높았고, iv. (장애음+ㅎ) 및 ii. (ㅓ) 변항은 방언적 실현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요컨대, (ㅏ), (ㅓ), (장애음+ㅎ)와 (모음조화), (ㅑ) 사이에 가파른 경계가 그어진다.

위의 분포는 쉬이 수긍되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를테면, (ㅑ) 변항의 방언 변이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변이일뿐더러 젊은 층과 노년층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진행 중인 변화에 있다고 여겨진다. 반면, (ㅏ) 변항의 변이는 인식 아래의 현상으로 표준어와 음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음성 층위의 상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어 사용 상황에서 이들의 표준적 실현율이 극명한 격차를 보임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 바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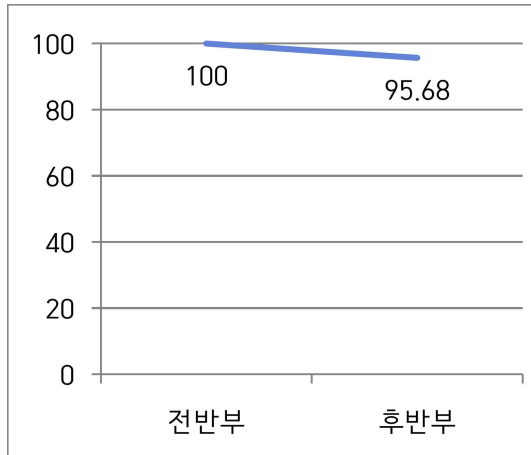
3) 회귀모형은 분석 대상이 되는 개개의 값들이 상호 독립일 것을 전제하지만, 한 제보자로부터 복수의 사례를 채집하는 경우에 그러한 전제에 어긋나게 된다. 이를 “nesting problem”이라 한다. 따라서 종래의 고정효과(fixed-effect)에 더불어 제보자마다의 편차를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고려한 혼합모형(mixed-effects model)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한다. Rbrul은 사회언어학에 적합한 혼합모형 분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Johnson, 2009; Gorman & Johnson, 2013).

4) 방언접촉에 의한 언어변화에 있어 언어특징의 “두드러짐(salience)”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것들이 제시된 바 있다(Trudgill, 1986:11). i) 낙인찍힌 변이형이 존재할 때, ii) 변이형 간의 차이가 표기에 드러날 때, iii) 진행 중인 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iv) 변이형 간 음성 거리가 멀 때, v) 음운 체계의 변화와 결부될 때 그 방언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서남방언의 (ㅑ)와 (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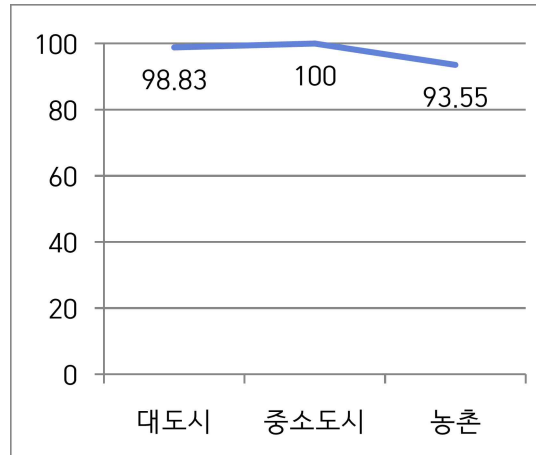
그러나 (장애음+ㅎ)와 (ㄴ)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방언특징으로 낙인찍혀 있는 변항들인데 표준적 실현율이 높지 않다. 이들에 비하면 (모음조화)의 변이는 사회적으로 크게 자각되는 현상이 아닌데도 표준적 실현이 우세하다. 이들에 대한 해명은 아래 상황별·지역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뒤 다음 장에서 모색해볼 것이다.

3.1.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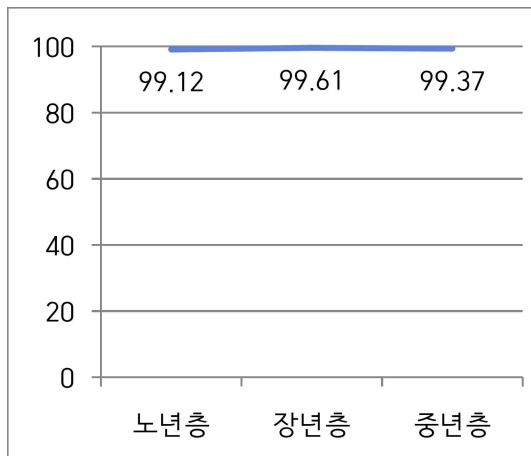
(5) 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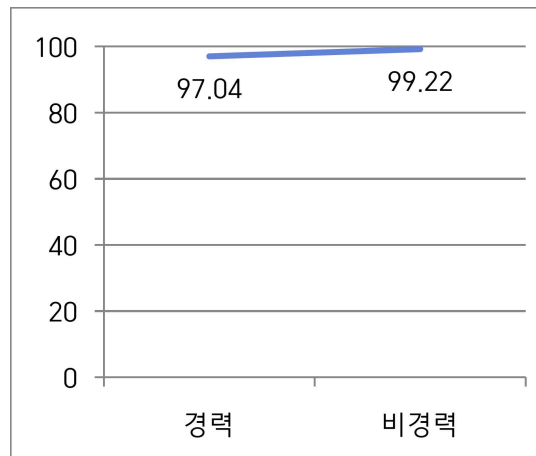
ㄴ. 지역



ㄷ. 연령



ㄹ. 수도권 경력 여부



(ㄷ) 변항은 발화에 보다 주의를 쏟게 되는 토론 전반부에서 완전하게 표준적인 실현만을 보였으며, 여타의 조건에서도 방언형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흔히 이 방언에 변자음 밑의 /j/계 이중모음 연쇄가 제약된다는 기술을 해 왔는데, 적어도 고학력 집단의 표준어 사용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겠다.

(ㄷ) 변항의 방언적 실현 예는 ‘몇, 명예, 명명백백’, 그리고 고유명사 첫머리의 ‘명(明)’에서 뿐이었다. 선행자음을 보자면 모두 양순음이며, 적용 단위는 형태소경계가 아니라 형태소 내부, 음절 위치로는 첫음절 또는 첫음절이 중첩된 둘째 음절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세대에서 음장의 대립이 공고하지는 않으나 모두 단음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이러한 조건은

의 상위는 극명하다. 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Kerswill & Williams(200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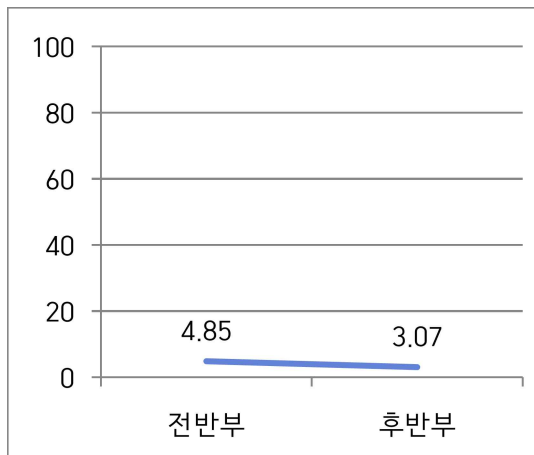
범방언적으로 /ㄷ/ > /ㄱ/의 변화가 가장 활발한 환경에 일치하는바(곽충구, 1982; 정승철, 2004), 표준형의 수용에서도 가장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ㄱ/ > /ㄴ/의 변화를 반영하는 어형은 전연 관찰되지 않았다. 즉, 위의 예들은 ‘땃, 땡’ 등으로만 실현되지 ‘땃, 땡’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ㄴ/형은 /ㄱ/형에 비해서도 비표준적인 형식으로 낙인찍혀 있기 때문인데, 장년층 이하에서는 일상적인 언어사용에서조차 /ㄴ/형을 관찰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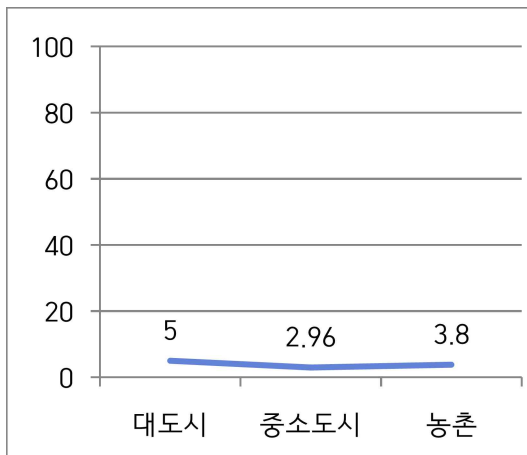
요컨대, (ㄷ) 변항은 모든 조건에서 일관되게 표준형만을 실현하며, 방언적인 실현이 있더라도 형태소 내부의 첫음절, 양순음 밑이라는 언어 내적으로 제한된 맥락에서만 가능하다. 방송 토론이라는 격식적 상황에서 /ㄴ/형은 전연 허용되지 않는다.

3.2.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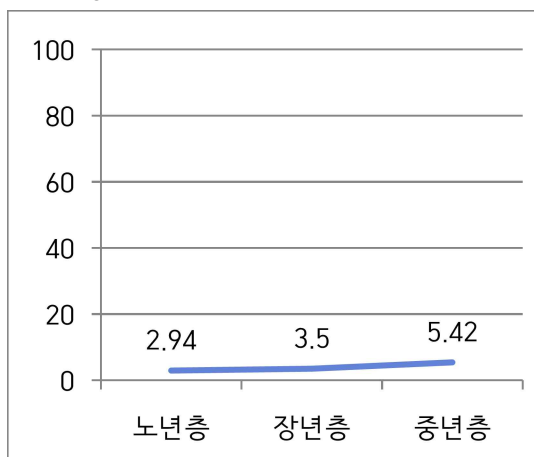
(6) 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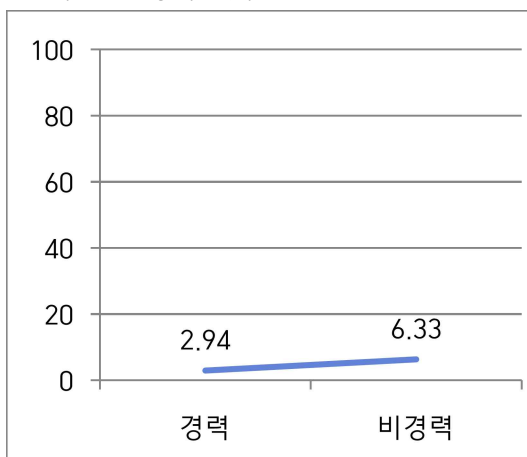
ㄴ. 지역



ㄷ. 연령



ㄹ. 수도권 경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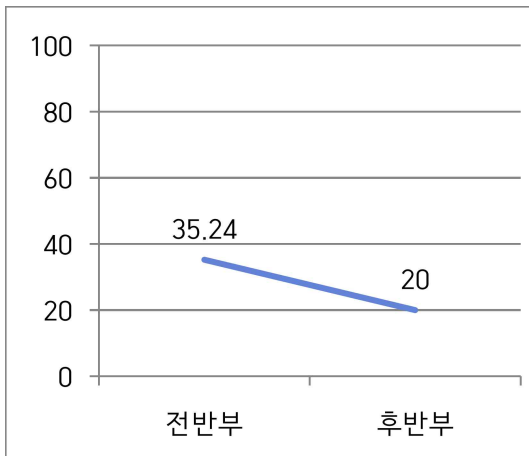
(ㄷ) 변항은 (ㄷ)와는 반대로 모든 조건에서 비표준적인 실현만을 보였다. 앞서 밝혔듯 (ㄷ)의 변이는 음성 층위의 것으로, (ㄷ)에 비해 사회적으로 의식되는 변이도 아니며 표준형 여부가 표기에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표준어의 압력이 현저한 토론 상황에서조차 발화어의 주의력이나 화자의 연령, 지역 조건에 무관하게 방언적 실현을 고수하는 것이다. (ㄷ) 변항을

이 방언의 지시자(indicator)로 삼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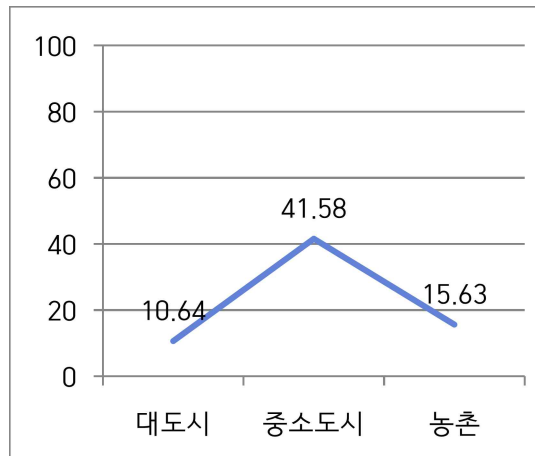
지금까지 사회언어학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표준적인 혹은 방언적인 실현만을 보이는 두 변형을 다루었다. 반면에 아래 살펴볼 세 변형은 사회언어학적 조건에 따라 유의한 변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특히 이들의 지역별 분포가 대체로 $\wedge$ 형 곡선을, 연령별 분포는 $\vee$ 형 곡선을 그린다는 점이 흥미롭다.

3.3.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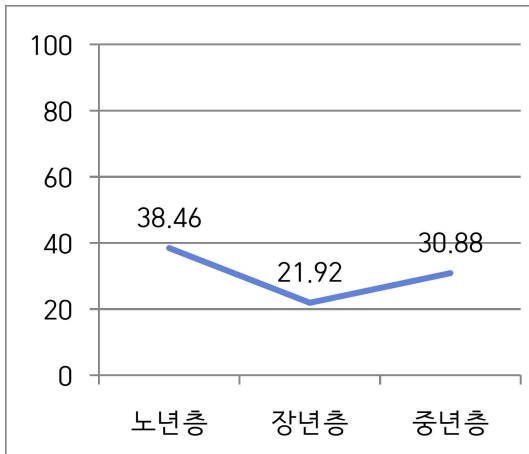
(7) 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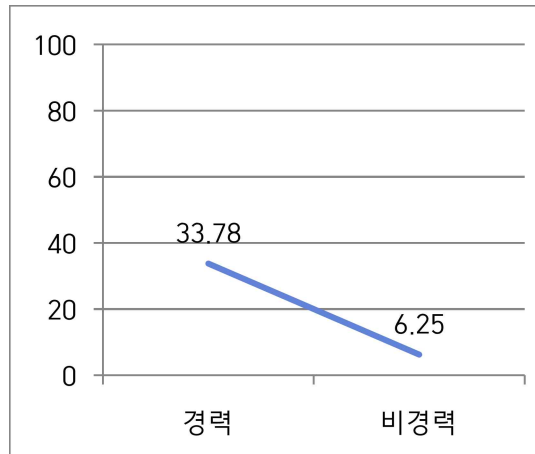
ㄴ. 지역



ㄷ. 연령



ㄹ. 수도권 경력 여부



어두 (ㄴ) 변형은 토론 전반부가 후반부에 비해, 수도권 경력자가 비경력자에 비해 표준적 실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반면, 지역별 분포는 $\wedge$ 형 곡선을, 연령별 분포는 $\vee$ 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설적인 기대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감에 따라,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감에 따라 단조적인 감소($\searrow$ 형) 또는 증가($\nearrow$ 형)를 보일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지역 요인만이 유의성을 보였다($p=.0196$).

(7ㄴ) 중소도시 선거구에서 대도시 선거구보다도 높은 표준적 실현율을 보인 것은 이른바 두 번째 높은 계층(the second highest status group)의 과잉교정으로 해석될 직하다.⁵⁾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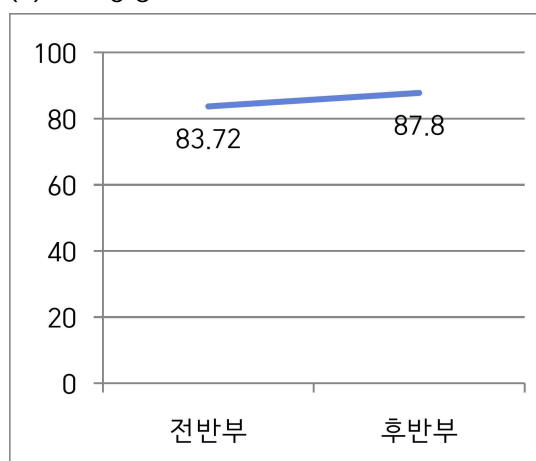
5) 앞서 중소도시 표본에 수도권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7ㄴ) 대도시-중소도시

치 Labov의 뉴욕 백화점 연구(1966: 1972)에서의 결과, 곧 고급 백화점보다 오히려 중·하급 백화점 점원들에게서 위세형의 실현이 높았던 사실과 평행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⁶⁾ 우리는 이 방언에서 (-)를 /—/로 실현하는 발음이 비표준형이라는 규범을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보다도 중소도시에서 비표준형을 회피하고 표준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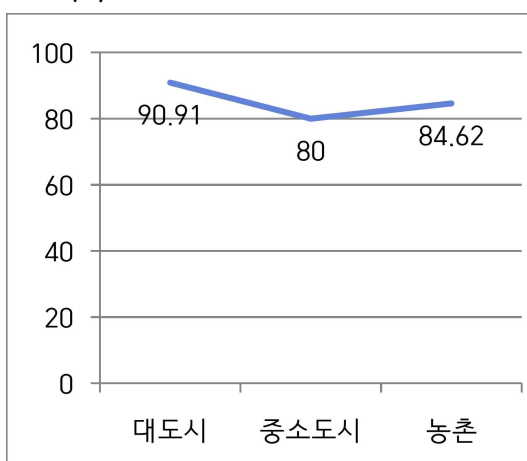
(7ㄷ) 연령별 분포가 그리는 V형 곡선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시사하는 바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모음조화) 변형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3.4. (모음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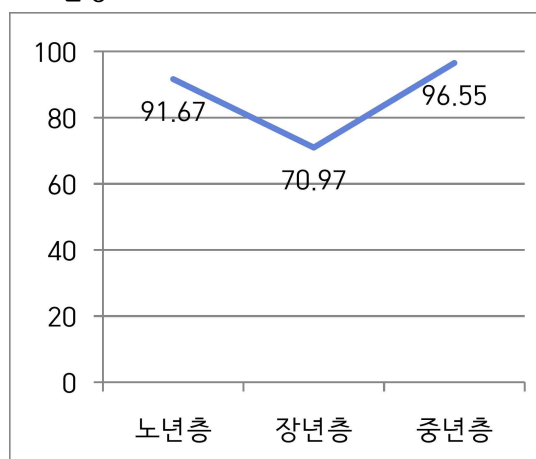
(8) 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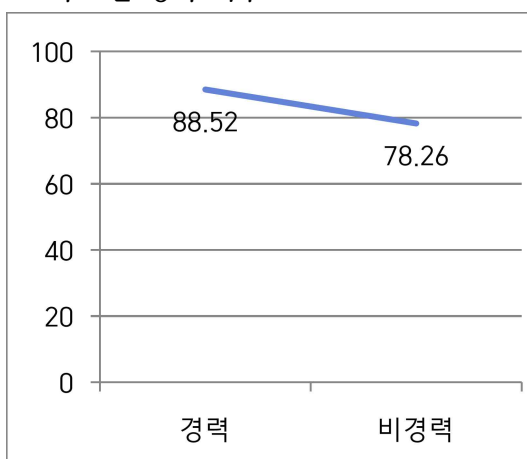
ㄴ. 지역



ㄷ. 연령



ㄹ. 수도권 경력 여부



간 격차가 (7ㄹ) 수도권 경력자-비경력자 간 격차보다도 크기 때문에, 수도권 경력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중소도시의 높은 표준적 실현율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 6) 진행 중인 변화에 나타나는 이른바 곡선형 패턴(curvilinear pattern)에 대해서는 Labov(2001) 5장의 Philadelphia 사례연구 및 14장의 다음 진술(p.460)이 참고된다. “Stable sociolinguistic variables combine a flat age distribution for adults with a monotonic social class stratification; changes in progress combine a monotonic distribution in adult age groups with a curvilinear pattern in the socioeconomic hierarchy”. 다만 (7ㄷ)의 연령별 변이가 단조증가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은, 후술하듯이, 이 자료의 특성상 규범형을 사용함으로써 권위와 무게감을 드러내려는 노년 정치인들의 정체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앞서 (-)와 마찬가지로 (모음조화) 변향도 연령별 분포가 V형 곡선을 그린다. 더욱이 여기서는 그 차이가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112$). 중년층에서 표준형이 우세한 사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만, 노년층에서 장년층보다 표준적 실현율이 높은 점은 논증의 필요를 느낀다.

이에 대해 두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표준어와의 접촉 강도이다. 노년 후보자들은 대개 중진 의원으로서 표준어 사용 상황에 장기간 빈번히 노출되었을 터이므로, 자연히 표준형에 익숙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8c) 서울 경력자와 비경력자 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 실제 중앙어 화자들의 변이형은 표준형 ‘-아’형이 아니라 오히려 ‘-어’형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주저하게 한다. 50대 이하 세대에서는 음소 층위의 변이에 대한 서울 거주 기간의 영향이 미약하다는 보고도 있다(이재섭, 2020).

또 다른 가설은 표준어 사용을 화자 정체성에 연결 짓는 것이다. 흔히 노년 출마자들은 중앙정치에서의 경륜을 내세우며 안정성과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반면, 장년층은 지역사회 현장 경력, 행동성, 실천력을 강조하는 양상을 본다. 따라서 장년층에 견주어 노년층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언어적 수단으로서 표준형을 선호하게 된다는 추론이다.⁷⁾ 이 지역에서 표준어 지향성이 큰 화자일수록 ‘-아’형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는 이 ‘-아’형이 드러난 위세(overt prestige)를 가짐을 시사한다(김규남, 1999).

한편, 유의성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이 변향의 지역별 분포는 단조감소하는 개형을 그려 앞서 (-) 변향의 ^형 패턴과는 다르다. 후술할 (장애음+ㅎ) 변향에서도 지역별 변이가 과잉 교정형을 그리는바, 일견 (모음조화)의 변이 패턴은 이들과 합치되지 않는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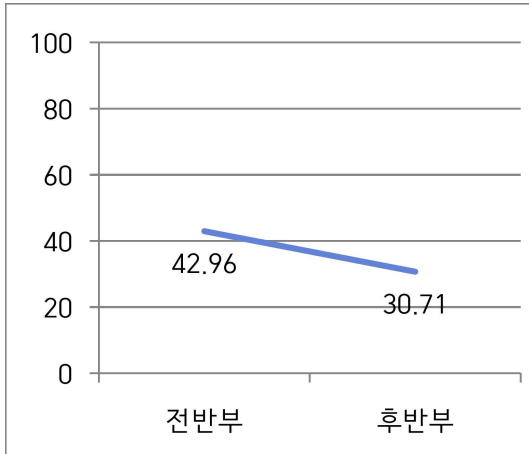
그러나 (모음조화) 변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다른 변향들과 어긋나는 패턴은 아니라고 본다. (모음조화)에서의 비표준적 실현이란 ‘받어’와 같이 양성어간에 음성어미가 결합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중앙어의 구어에 준하는 형식이다. 다시 말해, 규범적 표준형은 ‘-아’형이지만 실제 위세방언형은 ‘-어’형인 것이다. 따라서 중소도시 선거구 출마자들이 표준형 보다는 위세방언형을 좇았다고 보면, 표준적 실현율은 낮아져서 감소 곡선을 그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앞서 보인 과잉교정 패턴과 동궤에 놓이는 셈이 된다. ‘-아’형에 비추어 ‘-어’형이 숨은 위세(covert prestige)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어간 부류에 따른 차이도 유의했다($p=.0131$). 어간말의 /ㄹ/이 ‘-어’형을 저지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었는데(배주채, 1992; 이진숙, 2015), 우리의 표본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표준적 실현율을 보였다. ‘ㅎ-’에 기원하는 어간은 총 15회 등장한 가운데 방언적 실현은 단 3회로 ‘않어’ 2회와 ‘많애’ 1회뿐이었다. 이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 사용에서 모음조화에 화석화된 ‘ㅎ-’의 활용형은 강하게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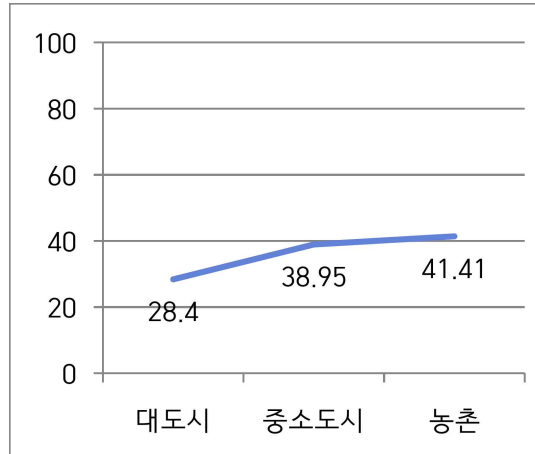
7) 이 가설은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발로써 언어변이를 능동적으로 조정한다는 이른바 화자 설계 이론(speaker design theory)에 닿아 있다(Coupland 2002; 2007; Schilling 2013 참조). 지금의 결과를 같은 화자들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발화할 때의 변이 양상과 대조해 봄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가설이 될 것이나 자료의 한계로 그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간접적인 근거로, 노년 출마자들 5명 중 3명이 당시에 이미 3선의 중진 인사들이었던 반면, 장년 출마자 9명 중에는 단 1명만이 중진 의원이었음을 들 수 있다.

3.5. (장애음+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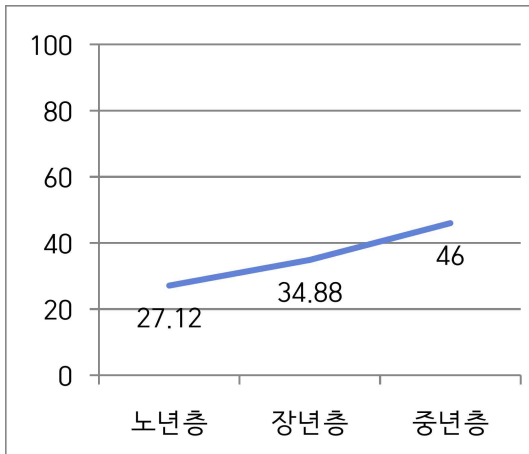
(9) 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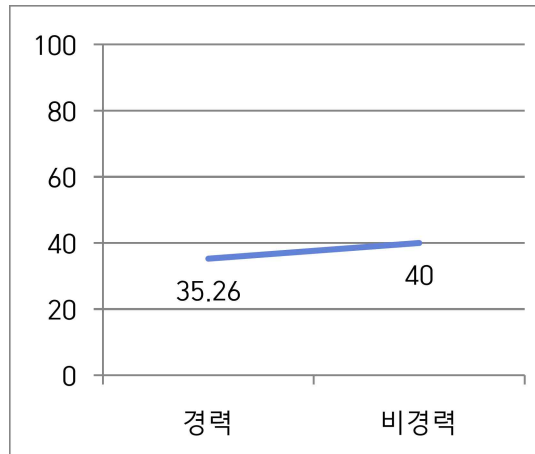
ㄴ. 지역



ㄷ. 연령



ㄹ. 수도권 경력 여부



(장애음+ㅎ) 변항에서는 상황만이 유의한 변인이었다($p=.011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표준적 실현율이 높아 미약하나마 과잉교정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보인다.⁸⁾ 연령 패턴은 단조증가하는 개형을 그려 앞서의 V형 패턴과는 다르다. 통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이 패턴이다.

(장애음+ㅎ)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앞서의 변항들에 비해 수도권 경력자와 비경력자 간 차이가 작고 오히려 비경력자에서 표준적 실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 역시 의식적인 교정의 결과로 생각된다. /ㅎ/ 탈락형이 이 방언의 특징으로 공공연히 회자되는 통념형(stereotype)이기에 되레 중앙어 노출 경험이 적은 화자들에게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4. 논의

4.1. 지시자(indicator), 표지(marker), 통념형(stereotype)

우리는 위 다섯 개 언어변항을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라 변이하는 것들과 그에 무관하게

8) 장흥 회진(會鎭)방언의 일상 말씨를 조사한 강희숙(1994:105)에서도 사회계층상 상류층보다 중간층에서 격음화의 실현율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일관된 실현만을 보이는 것들로 대별할 수 있다. 각기 (모음조화), (장애음+ㅎ), (ㄴ)와 (ㄷ), (ㄷ)가 해당한다. 다만, (모음조화) 변형에서 ‘-아’형과 ‘-어’형의 변이만이 생산적일 뿐 ‘-애’형의 출현은 모든 맥락에서 강하게 제약되므로 오히려 (ㄷ), (ㄷ)의 패턴에 함께 묶는 편이 좋겠다.

(ㄷ)는 모든 조건에서 거의 완전하게 표준형으로만 실현되었다. 이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 사용에서 ‘*변자음+/ㄷ/’의 음소연쇄제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모음조화)에서 ‘ㅎ-’에 기원하는 어간의 역사적 활용형(‘-애’형) 역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비록 일상적인 언어사용에서는 방언적 변이형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지만, 적어도 표준어 사용 상황에서 (ㄷ)와 (모음조화) ‘-애’형은 안정적으로 표준형에 동화되어 나타날 뿐이다.

반면, (ㄷ)는 일관되게 이 지역 방언형만을 실현했다. (ㄷ)의 실현은 의식 아래의 현상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자에도 구애받지 않아 (ㄷ)를 이 방언의 지시자(indicator)로 삼을 수 있다.

다른 세 변형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이하는 사회언어학적 표지(marker) 혹은 통념형(stereotype)에 해당한다. 특히나 (장애음+ㅎ)의 방언적 변이형(/ㅎ/ 탈락형)은 청년층에서조차 이 방언의 비표준적 특징으로 두드러지게 의식된다(강희숙, 2015). 다만 낙인찍힌 변이형이라고 해서 표준적 실현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4.2. 표준어-방언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패턴

연령별 변이에 있어 중년층이 그 윗세대인 장년층보다 표준적 실현을 선호한다는 점은 제법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모음조화)와 (ㄴ) 변형은 V형 곡선을, (장애음+ㅎ) 변형은 /형 곡선을 그리며 중년층에서는 표준적 실현율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2)에 보듯 이 집단 표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수도권 경력자의 비중이 작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확인해진다. 화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표준적인 언어사용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특히 1960년대생 이후 세대에서 방언 평준화의 경향이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오새내, 2006)에도 일치한다. 다만, 때로 이와 같은 연령 효과의 원인을 학력에서 찾기도 했는데, 우리의 결과는 학력이 통제된 집단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학력 외의 원인을 탐색할 필요를 제기한다.

한편, 노년층과 장년층의 대조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노년층이 장년층보다 표준적 실현율이 높음을 본다. 이는 표준어와의 접촉 강도 및 화자들의 정체성으로써 설명된다. 노년층 표본에는 중앙정치 경험을 갖춘 중진의 후보자들이 많은 만큼 장년층보다 표준어에 노출된 기간도 길고 접촉 빈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방언형을 선호하리라 예측됐던 노년층에서 오히려 장년층보다 표준적인 언어사용을 보이게 된 것이다. 곧, 표준어 접촉 강도의 효과가 연령 효과를 상쇄 혹은 압도한다고 보는 셈이다.

혹은 국회의원 선거 토론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이들이 설계하는 정체성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노년층 출마자들은 흔히 사회의 중진으로서 권위와 무게감을 드러내려는 반면, 장년층 출마자들은 현장성과 실천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상위가 언어사용에도 반영되어 표준어-방언 변이에 차이를 낳는다는 해석이다. 특히 (모음조화)는 오히려 중앙방언형이 규범적 표준형에서 멀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지역별 변이에서는 뚜렷한 패턴을 찾기는 어렵지만, 대략 ‘대도시≤중소도시’의 특징적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ㄴ)에서는 그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과잉교정에 따른 교차 효과(cross-over effect)로 해석될 수 있다. 표준어의 확산이 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 다시 농촌으로 번져나가며 계층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이 결과는 확산 단

계상 중간층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표준적 실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사회계층에 있어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 보이는 과잉교정 현상이 지리적 위계에도 투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음조화)는 오히려 중소도시에서 표준적 실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는 표준형(‘-아’형)과 위세방언형(‘-어’형)의 불일치라는 이 변항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지 위 경향을 반증하는 결과는 아니다. 중소도시에서 위세방언형에 해당하는 ‘-어’형을 쫓았다고 보면 결국 동계의 현상으로 해석된다. 비록 드러난 위세는 규범적 표준형인 ‘-아’형에 있지만, 중앙어 화자들의 변이형인 ‘-어’형에 오히려 숨은 위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⁹⁾

상황에 따른 차이는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장애음+ㅎ)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장애음+ㅎ)이 이 방언 화자들에게 뚜렷하게 의식되는 변항임을 다시금 시사한다. 상황에 따른 변이가 확연하지 않은 점은 방송 토론이라는 자료의 특성에 말미암은 것일 수 있다. 공공성과 격식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발화에의 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더라도 방언변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4.3. 표준어-방언 변이의 언어 내적 제약

언어 내적 제약 가운데에도 주목할 결과를 보인 것들이 있다. (ㄷ) 변항은 완전하게 표준형으로 실현되지만, 형태소 내부의 첫음절, 양순음이 선행하는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ㄱ/형을 드러낸다. /ㄷ/ > /ㄱ/의 변화가 가장 활발했던 환경이 곧 표준어의 압력으로부터 가장 저항적인 환경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¹⁰⁾

통시음운론과 공시음운론의 구분을 둘진대 표준적 실현율이 낮은 변항들은 공시론의 영역에, 높은 변항들은 통시론의 영역에 든다는 점은 어쩌면 자명하면서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방언형으로의 실현이 압도적이었던 (ㄷ)는 물론 이 방언의 공시적인 이음규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다. (ㄴ) 또한 이 방언 공시태의 음소연쇄제약 내지는 이중모음체계, (장애음+ㅎ)는 생산적인 형태음소규칙에 관여된 것이다. 반면에 (모음조화), 특히 방언적 실현을 거의 보이지 않은 ‘-애’형은 통시적 변화의 산물로서 굳어진 일종의 화석형이다. (ㄷ) 변항에 관련된 /ㄷ/ > /ㄱ/ > /ㄴ/의 현상 또한 역사적으로 완료된 변화로 보인다.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변이형들은 비교적 쉽게 표준형으로 대체되는 반면, 공시음운론의 제약 아래 있는 변이형들은 표준화에 저항적인 것이다.

한편, (모음조화)에서 어간말 /ㄹ/을 갖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아’형이 선호된다는 결과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어학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을지는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의 변화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장차 검토될 일이다.¹¹⁾

9) ‘-아’형과 ‘-어’형의 대립은 세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위상을 갖는 것 같다. 서남방언에서는 ‘-어’형이 숨은 위세를 가지고 초지역적으로 확산되는 듯 보이지만, 육진방언에서는 ‘-아’형의 입지가 공고한 가운데 되레 음성 환경에까지 ‘-아’형이 침투하고 있다고 한다(박미혜, 2019). 경상북도 동해안의 노년층에서는 민촌어와 반촌어의 대립이 있어 ‘-어’형이 드러난 위세를 갖는다(최명옥, 1992).

10) 양순음 아래에서의 /ㄷ/ > /ㄱ/ 변화와 기타 자음 밑에서의 /ㄷ/ > /ㄱ/ 변화의 동기를 상이하게 해석한 정승철(2004)의 가설에도 합치된다.

11) ‘-어’형으로의 변화에 적극적인 서울방언에서도 어간말 자음이 유성음일 때 ‘-아’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유필재, 2001:147). 이것이 혹 중세어에 유동적 상성 어간의 말자음이 모두 유성음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ㄹ/이었다는 사실(정연찬, 1963; 김성규, 1997 참조), 이들이 현대어에서도 변칙적인 음장 교체를 보인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2) 전라남도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방언 변이 양상

	표준적 실현을 높음	표준적 실현을 낮음
사회적 요인에 무관	iv. (ㅈ) v. (모음조화) ‘-애’형	i. (ㅈ)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이	v. (모음조화)	v. (장애음+ㅎ) ii. (ㅡ)

(ㅈ)와 (ㅡ), (장애음+ㅎ) 따위는 공시음운론의 제약을 받는 변향이기에 표준화에 상대적으로 저항적이었다. 반면, (ㅈ)와 (모음조화) ‘-애’형은 통시적으로 완료된 변화의 산물로서 쉽게 표준형으로 대체되었다. (장애음+ㅎ)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방언형이라고 해서 표준적 실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령별 표준적 실현율은 중년층에서 가장 높고, 장년층과 노년층은 비슷하되 때로 노년층에서 오히려 높아지는 패턴을 갖는다. 우리의 표본은 학력이 통제된 집단인 만큼 연령별 변이의 원인은 학력 이외의 요인으로부터 찾아져야 한다. 특히 노년층에서 표준적 실현율이 높은 원인으로, 권위 있는 모습을 좇는 노년 식자층의 화자 정체성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지리적 패턴은 크게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표준형이 선호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중소도시가 (모음조화)에서 ‘-어’형의 선호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엄밀하게는 표준형이 아니라 위세방언형이 선호된다고 해야겠다. 중소도시의 높은 표준적 실현율은 위세형을 향한 과잉교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언어 내적 제약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 것은 (ㅈ)의 방언적 실현 환경이었다. 이 변향은 완전하게 표준어에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소 내부의 첫음절이자 양순음이 선행하는 조건에서만은 소수의 사례나마 방언적 실현을 허용했다. 범방언적으로 /ㅈ/ > /ㄱ/의 변화가 가장 활발한 환경이 곧 /ㅈ/형으로의 표준화에 가장 저항적인 조건으로 작용함이다.

(모음조화)의 분석에 있어서는 이 변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곧, 규범적인 표준형 ‘-아’형과 중앙방언형 ‘-어’형의 불일치에 주목해야 한다. 드러난 위세는 ‘-아’형에, 숨은 위세는 ‘-어’형에 있다고 봄으로써 노년층의 권위적인 정체성과 드러난 위세형을, 중소도시의 과잉교정 행태와 숨은 위세형을 결부 지어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 딸려오는 과제들도 있다. 하나는 다른 방언과의 대조연구인데, 위의 패턴이 국어의 다른 방언에도 공통될지 혹은 방언마다 상이한 패턴을 보여줄지 하는 궁금증이다. 이를테면, 중부방언에 속하는 충주방언에서는 (ㅡ)의 표준화가 (ㅈ)의 표준화보다 먼저 일어나 이미 90년대 젊은이들에게서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박경래, 1993:125-130), 우리의 결과는 이와 상반된다. 서남방언에서는 (ㅈ)의 표준화는 거의 완료된 반면 (ㅡ)는 여전히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시험 삼아 경상남도 선거구를 대상으로 소규모의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ㅈ)의 방언적 실현이 양순음, 연구개음, 성문음 모두에서 허용되고 또 형태소 내부뿐 아니라 활용형에서도 /ㅣ/형이 관찰된다는 점, (모음조화)에서 ‘-어’형을 완고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 서남방언과는 흥미로운 대조점을 보여주었다. 표준어 사용 상황에서 화자의 모방언이 간접하

는 양상을 잘 드러낸다. 이들의 변이 패턴도, 특히 두 방언권의 방언태도의 차이에 관련하여, 대조해 봄 직하다.

또 하나는 음운론적 변항의 처리에 관련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생각합니다’의 경우에, [sɛŋgah(ˌh)amnida]와 같이 실현되는 때가 더러 있었다. 이것이 빠른 발화에서의 수의적인 자음탈락에 의한 것인지 혹은 축약 후 극단적인 약화를 겪은 것인지([g^(h)] > [ɣ] > [h]) 불분명하다. 또한, 위 분석에서는 청취 판단에 기대어 (ㅈ)의 실현 대부분이 닫힌 모음이라 판별했지만, 젊은 화자일수록 애매한 발음들이 많았다. /ㅈ/-/ㅉ/의 분기가 진행 중인 동남방언의 경우 및 서남방언에서도 /ㅈ/의 저설화가 관찰된다는 보고(심재홍, 2018:71-73) 등을 참조할 때, 이 방언 (ㅈ)의 실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강보나(2017), <전남 방언의 격음화 비실현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고려대).
- 강희숙(1994), <음운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남 장흥 방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전북대).
- 강희숙(2015),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의 언어적 불안정과 방언 전환(dialect shift)>, 《방언학》 21, pp. 93-115.
- 곽충구(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방언》 6, pp. 27-55.
-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김규남(1999), <전북 정읍시 청소년층의 언어태도와 변형 (-a)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34, pp. 23-47.
- 김성규(1997), <성조의 변화>, 국어사연구회 편, 《국어사연구》, 태학사, pp. 491-511.
- 박경래(1993),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박미혜(2019), <함북 육진방언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에 대하여>, 《어문연구》 47(4), pp. 68-87.
- 배주채(1992), <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pp. 373-398.
- 심재홍(2018), <전북 임실방언의 모음체계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오새내(2006),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이승녕(1960), <15세기의 “어” 음가에 대하여>, 《한글》 126, pp. 19-28.
- 이승재(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1), pp. 23-38.
- 이재섭(2020), <지역방언 화자의 중앙방언 습득 양상 연구>, 《사회언어학》 28(1), pp. 169-200.
- 이정민(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pp. 559-584.
- 이진숙(2015), <전남방언의 부사형어미 ‘-어/아X’의 교체양상과 언어지리학적 고찰>, 《국어학》 73, pp. 173-197.
- 이현복(1971), <현대 서울 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1), pp. 37-52.
- 이현복(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연구>, 《언어학》 2, pp. 167-184.
- 정승철(2004), <j계 상향이중모음의 변화: 형태소 내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9(1), pp. 43-58.
- 정연찬(1963), <15세기 국어의 활용 어간의 성조에 대하여>, 《논문집》 3, 충남대학교, pp. 3-45. [정연찬 1976:141-196 재록]
- 정연찬(1976), 《국어성조에 관한 연구》, 일조각.
- 정인호(2020), <전라도 사투리의 특징과 그 보존 방안>, 《인문학연구》 28, pp. 69-85.
- 최명옥(1992),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 부사형어미 ‘-아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3, pp. 139-163.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석사학위논문(전북대).
- 한성우(2012), <방언과 표준어 의식>, 《방언학》 16, pp. 383-410.
- Coupland, N.(2002), “Language, situation, and the relational self: theorizing

- dialect–style in sociolinguistics”, In P. Eckert & J. R. Rickford (eds.),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5–210.
- Coupland, N.(2007), *Style: Language Variation and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rman, K. & Johnson, D. E.(2013), “Quantitative analysis”, In R. Bayley, R. Cameron, & C. Luc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4–240.
- Johnson, D. E.(2009), “Getting off the GoldVarb standard: Introducing Rbrul for mixed–effects variable rule analysis”, *Language and Linguistic Compass* 3(1), pp. 359–383.
- Kerswill, P. & Williams, A.(2002), ““Salience” as an explanatory factor in language change: evidence from dialect levelling in urban England”, In M. C. Jones & E. Esch (eds.), *Language Change: The Interplay of Internal, External and Extra–Linguistic Factors*, Mouton de Gruyter, pp. 81–110.
- Labov, W.(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bov, W.(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bov, W.(2001),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Social Factors*, Blackwell.
- Schilling, N.(2013), “Investigating Stylistic Variation”, In J. K. Chambers & N. Schilling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nd, Wiley–Blackwell, pp. 327–349.
- Trudgill, P.(1986), *Dialects in Contact*, Blackwell.

【 온라인 발표 】

발표_7

『제주방언성경』의 대역 양상과 특성

-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

발표: 신우봉(제주대)·하영우(전주대)

발표_8

대화 환경에서의 일시적 언어 접촉에 따른 말 조정 양상에 대한 연구

- 경상방언 화자의 서울방언 접촉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 발화를 중심으로 -

발표: 이철희(경북대)·이재섭(경북대)

발표_9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 조사 시론:

20대와 50대 한국인 화자 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 최준호(서울대)

발표_10

제주 방언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발표: 배영환(제주대)·권미소(제주대)

발표_11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발표: 최명옥(서울대)

『제주방언성경』의 대역 양상과 특성 -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

신우봉(제주대)·하영우(전주대)

1. 서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이하 『제주방언성경』)의 대역 양상과 특성을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방언성경』의 출간 배경과 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지를 살펴본 뒤 ‘표준어 → 제주방언’의 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의 반영 양상과 그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19세기 초기 조선에 유입된 이래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성경은 19세기 말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이래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번역되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제작 배경의 다양성만큼이나 언어적 특성도 제각각이었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규정이 당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언어 대 언어 간 번역 과정 그 자체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된 한글 성경은 종교적 차원의 의의나 기록으로써도 유의하지만 음운 체계의 반영에서부터 대역 어휘 선택이나 통사 구조의 반영 등 당대의 언어적 특성과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번역류 언어 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의 번역이 언어 대 언어 조건하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제주방언성경』처럼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글 성경으로 재구성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주방언성경』은 성경의 신약 중 마가복음을 표준어에서 제주방언으로 다시 꾸린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한글성경은 다른 언어로 작성된 원본을 번역한 결과물인 데 비해 『제주방언성경』은 한국어 내의 방언 간 차이를 고려한 일종의 대역서이다. 즉, 언어 대 언어 간 차이가 아니라 동일 언어 내 방언 대 방언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방언성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어학적/방언학적 연구 가치를 갖는다. 먼저 표준어를 방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형태, 통사, 어휘 층위의 특성을 (1)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1) ㄱ. 『공동번역성경』: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ㄱ'. 『제주방언성경』: 예수께서는 비유로 으라가지를 ㄱ리치시멍 이영 말씀헸썸쑤다.
ㄴ. 『공동번역성경』: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ㄴ'. 『제주방언성경』: 그영헸고 이녁네를 그 지방에서 내몰지 말아 도랜 애걸헸썸쑤다.

(1)은 『공동 번역 성경』과 『제주방언성경』의 대역 양상에서 나타난 음운론적 특징과 어휘적 특성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1ㄱ')은 원문인 (1ㄱ)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되 제주방언의 음운 체계에 존재하는 /·/와 /ㄴ/를 반영하여 ‘여러 → 으라’와 ‘가르치시면서 → ㄱ리치시멍’으로 대역한 예이다. (1ㄴ')은 원문인 (1ㄴ)의 ‘자네’를 제주 지역의 어휘 체계에 맞추어 ‘이

넉'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처럼 『제주방언성경』은 '표준어 → 제주방언' 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체계의 반영에서 어휘 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언적 특성을 보여 준다.

한편 『제주방언성경』은 '표준어 → 제주방언' 대역 양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의 국어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1970~80년대 제주 지역어를 보여 주기도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성경은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의 민속학자 진성기 전 관장 1인에 의해 집필되었다.¹⁾ 진성기 관장은 1930년대에 목안 지역에서 출생한 제주 토박이 화자이다. 따라서 『제주방언성경』은 제주방언으로 대역된 자료이자 동시에 이 지역의 30년대생이 바라보는 1970~80년대의 제주방언을 담고 있기도 하다. 최근 표준어 수렴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각 방언권의 방언적 특성이 일원화의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방언성경』은 1980년대의 제주 지역어를 보여주는 자료로써도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제주방언성경』의 다양한 번역학적/방언학적 특성 중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의 반영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번역 혹은 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1차적 문제이자 가장 다빈도로 나타나는 특징이 표기 체계와 직결되는 음운 체계의 반영과 그에 따른 음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주방언성경』에 관한 서지 사항과 문헌적 특성을 먼저 정리한 후 이 문헌에 반영된 제주방언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의 특성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제주방언성경』의 서지 사항

『제주방언성경』은 마가복음을 제주방언으로 대역한 성경이자 이 지역의 민속학적/방언학적 특성을 담은 일종의 제주방언 자료이다. 이 성경은 '공동 번역 성경'의 마가복음을 모체로 하여 제주방언으로 대역되었으며, 제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 제작 전반을 담당하여 1981년 보이스사에서 출간되었다. 성경 제작 과정과 관련한 특징적인 점은 제작자, 대역자, 그리고 삽화 작가가 각기 종교적으로 다른 배경을 지녔다는 점이다. 『제주방언성경』의 기획과 집필 전반은 당시 제주향토문화연구소장이자 제주 복음교회의 목사인 전병호가 주관하였으나 마가복음의 제주방언 번역은 비신자인 이 지역의 민속학자 진성기 관장(전 제주민속박물관 관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제주방언성경』은 여타의 성경과 다르게 삽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삽화는 천주교 신자인 녹전(綠田) 강용택 선생의 작품이다. 이처럼 『제주방언성경』은 기독교 성서이지만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 천주교 신자가 합작했다는 점에서 종교사적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주방언성경』은 그 자체로 성경이지만 제주방언으로 대역되었기 때문에 일반 성서와는 다른 구성적 특징을 보인다. 『제주방언성경』은 제주방언으로 번역된 '마가복음 전문'은 물론 표기에 사용된 제주방언에 관한 색인과 제주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이었던 전병호 목사의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방언성경』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은 원문인 '공동 번역 성경'의 마가복음

1) 『제주방언성경』의 대역이 진성기 관장에 의해 단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1992년 제주민속연구소에서 출간된 『제주도 방언성경: 마가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성경: 마가복음』은 『제주방언성경』의 이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진성기 관장이다. 진성기 관장은 『제주도 방언성경: 마가복음』의 '옮김말'에서 대역자가 본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의 하위 방언권 중 목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일부 차이가 있기도 하다. 원문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크게 서간문(소제목) 생략과 절 구성 변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 번역 성경’의 1장 34절과 35절 사이에는 ‘전도여행(루가 4:42-44)’이라는 서간문이 제시되어 있으나 『제주방언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다. 서간문의 생략은 특정 경향성을 지닌다기보다는 각 장에 따라 생략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서간문 외에 절 구성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절의 변용은 (2ㄱ)처럼 절을 통합하여 재설정하거나 (2ㄴ)처럼 절을 임의로 분할하는 형식이 가장 많다.

(2) ㄱ. 절 통합

[공동]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13) 군중도 모두 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2장 13절>

[제주] (13) 예수께서 또시 물통에염으로 나가셨쑤다. 하근 사름들도 매딱 돌환 오난에 예수께서는 그 사름들을 ㄱ리치셨쑤다. <2장 13절>

ㄴ. 절 분할

[공동] (15)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7장 15절>

[제주] (15) 무싱거라도 백이서 몸안트로 들어 가는 건 사름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16) 더럽히는 건 도리어 사름안티서 나오는 것이여. <7장 15~16절>

『제주방언성경』에서 절을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서간문 뒤에 절 번호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또한 원문에 절 번호가 없는 경우 ‘(00) 절 없음’ 혹은 ‘절 없음’으로 표기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장마다 양식이 달라 어떤 장에는 ‘절 없음’ 표시가 제시되지 않기도 했다. 특정한 경향성이나 규칙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대역자가 원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절을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시도를 한 것은 절의 순서가 일정하지 않은 원문을 교정하기 위한 것 혹은 내용상 분할이 필요하다고 임의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방언성경』의 본문 뒤에는 색인과 후기가 제시되어 있다. 색인은 ‘가시어멍~훗슬 시난’까지 전체 397개가 제시되어 있다. 색인 목록은 단어 단위보다는 ‘ㄱ랏쑤다, 두린제부떠, ㄴ령, 올랜, 진진흔’처럼 어절 단위가 훨씬 많다. 물론 ‘가시어멍, 강쟁이, 도새기, 시상, 올매, 절박’ 등처럼 명사는 따로 단어 단위로 제시된 것도 많지만 ‘나광, 말촉광, 새예’와 같이 곡용 형이 그대로 나타난 유형도 존재한다.²⁾ ‘제주방언 : 표준어’의 구조를 지닌 색인은 구성적 측면에서도 (3)과 같이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3) ㄱ. 못존덜: 고난의, 못견덜

ㄴ. 능맬주시난 : 꾸짖으시다, 무시하니까니

바농질바치 : 바느질바치

ㄷ. 두린 : 어린, 미친

ㄹ. ㅎ난, ㅎ렌, ㅎ멍, ㅎ민, ㅎ션, ㅎ여정, ㅎ연, ㅎ염사, ㅎ염쑤다, ㅎ염쑤광, ㅎ염쑤괘, ㅎ염시, ㅎ염신고, ㅎ염썸, ㅎ우다만, ㅎ쟁, ㅎ댄, ㅎ댕ㅎ난, ㅎ댕ㅎ민, ㅎ키여, ㅎ티

2) 이 외에 색인 목록 중에는 절 단위로 ‘뱅크하는 사람: 소작농’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예외적인 유형으로 보인다.

『제주방언성경』의 색인은 ‘드르예청 : 들꿀’처럼 제주방언과 표준어형이 1:1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ㄱ)처럼 복수의 풀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3ㄱ)과 같은 유형은 ‘못즌덜’이 ‘못견덜’로 직관적인 대역이 가능하지만 원문이 ‘고난의’이기 때문에 복수로 구성한 것이다. 색인의 뜻풀이는 (3ㄱ)처럼 대부분 표준어형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3ㄴ)의 ‘무시하니까니(무시하--니까니), 바느질바치(바느질+-바치)’처럼 제주방언형이 그대로 나타난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3ㄷ)의 ‘두린’은 ‘어리다’, ‘미치다’로 풀이하였는데 마가복음의 원문에는 ‘어리다’만 사용되어 있다. 이는 색인의 풀이를 하는 데 있어 원문과 별개로 제주방언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술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3ㄹ)은 {ㅎ-}의 활용형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엇이난, 엇일꼬’처럼 색인 목록 중 일부 용언은 활용형을 2~3개 정도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ㅎ-}는 이례적으로 21개의 활용형을 제시하고 있다. {ㅎ-}에 한정하여 다양한 활용형을 제시한 것은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미의 기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용언과 달리 {ㅎ-}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형태적 분리성도 강하므로 후행하는 어미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방언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후기’에는 제주의 민속학적/방언적 특징과 함께 이 성경의 제작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후기’는 전병호 목사(당시 제주향토문화연구소장 겸 제주 복음교회 목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전병호 목사의 후기는 단순히 제주방언으로 대역된 성경의 필요성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의 언어와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후기의 내용은 순서대로 ‘제주방언의 특징’, ‘제주의 지리와 생활’, 그리고 ‘『제주방언성경』의 집필 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방언에 관한 내용은 먼저 표준어 중심의 언어관이 정립되면서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져가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이어 석주명 선생의 자료³⁾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제주방언의 언어학적 특징은 하위 방언권 분류에서부터 음운, 형태, 어휘적 특성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음운 측면과 어휘 측면이 두드러진다. 음운론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육지에 없는 음이 존재’라고 하여 타 방언권에서 소멸한 ‘ㆍ’ 등을 부각하고 있으며, /ㄱ/와 /ㄴ/가 비변별적 음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ㄱ과 ㄴ의 구별이 태무(殆無)’로 표현하기도 했다. 어휘적 측면은 고어의 존재와 몽골어 차용어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의 지리와 생활’ 부분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긍정적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서술한 점이 특징적이다. ‘제주의 지리와 생활’ 부분에서는 제주 지역의 지리적 척박성을 먼저 소개하면서 역사적으로 육지 국가에 의한 피지배 역사가 길었고,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국제 관계 속 제주의 모습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몽고 침략과 그에 따른 몽고어 관련 제주방언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억압과 피지배의 역사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무속 신앙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후기의 결론부는 ‘『제주방언성경』의 집필 배경’이다. 결론부의 내용은 제주방언의 보존과 연구의 필요성, 급진적 개발로 인한 정신문화의 변질로 시작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제주 지역 내의 선교와 기독교 문화 전파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

“본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서를 간행함에 있어 첫째로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하나님의 말씀

3) 석주명 선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 것은 명확하지만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제주방언의 특징을 잘 요약하여 제시했다는 점과 몽골어 차용어 등을 목록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석주명 선생의 제주방언 관련 전반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으로 보존하고 지켜나가자는 의도와 둘째로 제주의 기독교 복음 선교에 작은 보탬을 이루고저 함에 있다. (중략) 본 서에는 순수한 제주향토문화를 기독교화 하기 위한 의미로서 ... (후략)”
-『제주방언성경』 후기(143-144쪽)-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방언성경』은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위해 간행되었으나 그 자체로 제주 지역의 방언적 특성을 담은 방언 연구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를 기준으로 당시 표준어를 제주방언으로 1인이 대역한 자료라는 점에서 방언학적 가치를 크게 갖는다고 생각한다. ‘표준어 → 제주방언’의 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음운, 형태, 어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나, 지면의 한계상 먼저 표기에 반영된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제주방언성경』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

3.1. 음운 체계의 반영 양상과 특징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제주방언의 음운 체계 반영 양상은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모음 체계는 타 방언권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인 /ㅓ/, /ㅕ/ 등은 물론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이중모음 /ㅓㅓ/의 변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자음 체계는 ‘트다’(뜨다), ‘터나다’(떠나다)처럼 어두의 경음이 격음으로 대응되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데 모음 체계에 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본 절에서는 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제주방언성경』에 반영된 제주방언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방언의 모음 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단언 /ㅓ/이다. /ㅓ/는 타 방언권에서는 잔존하지 않는 제주방언만의 음소 체계적 특성이다. 『제주방언성경』에서 /ㅓ/는 총 2,321회 나타났다. 이 중 어두 위치의 /ㅓ/는 총 1,050회 나타났으며, ‘뜰, ㅓ음, ㅓ름, ㅓ손’ 같은 체언에서부터 용언인 ‘ㄷ투다, ㅓ리다, ㅓ다, ㅎ다’, 그리고 수식언인 ‘꺾게, ㅓ라리, ㅓ, ㅎ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휘가 반영되어 있다. 비어두 위치의 /ㅓ/ 역시 ‘다ㅓ, 말ㅓ툼, ㅓㅓ’ 같은 체언에서부터 ‘가난ㅎ다, 용ㅓㅎ다, 인ㅓ하다’ 같은 ‘-ㅎ-’ 파생형 용언, ‘ㅓㅓ’ 같은 수식언까지 전체 1,271회 나타났다. /ㅓ/는 비어두 위치에서 출현 빈도가 더 높았으나 어휘의 유형은 어두가 훨씬 높았다. 또한 /ㅓ/는 ‘ㅎ-’ 혹은 ‘-ㅎ-’ 파생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⁴⁾ 표기 역시 대체로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4)처럼 일부 예에서 /ㅓ/를 /ㅓ/로 표기한 사례들이 관찰된다.

(4) ㄱ. 악령의 발작으로 그 아이는 불 쪼곱에 튀어 들기도 하고 물 쪼곱에 빠지기도 하였쑤
다(9:22)

ㄴ. 아직도 쉬엄디야? 그만훈민 넉넉하다(14:41)

4) 『제주방언성경』에는 ‘ㅎ-’와 ‘-ㅎ-’ 파생형이 규칙적으로 적용된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그 사름 들은 막지 아니 ㅎ였쑤다(11:6)’에서는 ‘아니’와 ‘ㅎ-’를 파생관계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파먹는 구덕이도 죽지 아니ㅎ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다(9:48)’에서는 파생형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ㅎ-’와 ‘-ㅎ-’가 갖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방언성경』은 둘을 엄격히 구분한 것 같지는 않다.

- ㄷ. 예수께서 제자들광 हु디 호숫 7로 물러가셨을 때에(3:7)
- ㄹ. 그영 ㅎ연 빌라도는 하근 사름들을 만족시기렌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를 짓몰게훈 대
음 십자가형에 처 ㅎ랜 내여 주었쑤다.(15:15)
- ㅁ. 이영 희롱훈 후제 그 주주색 후루멜을 뱃기고 예수의 후루멜을 도로 입전 십자가에
못박으레 곳언 나갔쑤다(15:20)

(4ㄱ, ㄴ)은 ‘(-)ㅎ-’가 ‘(-)하-’로 표기된 사례로 전체 약 30회 정도가 나타난다. ‘(-)ㅎ-’의 ‘(-)하-’ 표기는 의도적 반영이라기보다는 원본에 이끌린 오타표기로 이해된다. (4ㄷ)의 ‘제자’ 역시 ‘제즈’를 오타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격 표기형인 ‘제즈’의 출현 빈도가 100회인 데 비해 ‘제자’형은 7회만 제한적으로 나타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 ㅎ /의 오타표기형은 대체로 ‘ ㅎ > ㅈ ’의 양상을 보이며 ‘ㅈ’형은 대개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4ㄹ)의 ‘십자가’는 (4ㄱ, ㄴ, ㄷ)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주방언성경』에서 {십자가}는 ‘십즈가’로 주로 나타나지만 출현 빈도가 10회로 4회의 출현 빈도를 보이는 ‘십자가’와 격차가 크지 않다. 또한 (4ㅁ)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15장 내에서도 바로 인접한 위치에서 다른 형식인 ‘십즈가’형이 출현한다. 이는 일반적인 ‘ ㅎ > ㅈ ’ 표기가 원문의 형식에 이끌려 오타표기된 것가 달리 {십자가}는 / ㅎ /의 반영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데서 나타나는 혼란으로 이해된다.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 ㅎ /는 음소로써 표기되기도 하였지만 / ㅎ /의 변화 양상이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 ㅎ /는 통시적으로 비어두 위치에서 /ㅡ/로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제주방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제주방언성경』 역시 비어두 위치의 / ㅎ /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 (5) ㄱ. 예수께서 또시 물통에염으로 나가셨쑤다. 하근 사름들도 매딱 둘란 오난에 예수께서는
그 사름들을 7리치셨쑤다(2:13)
- ㄴ. 예수께서 그 사름들의 생각을 알아 채시고 이츠록 말쑤 ㅎ졌쑤다. “어떻 ㅎ난 느넌 경
훈 생각을 품언 신디?(2:8)
- ㄷ. 그 영 ㅎ고 예수께서는 그 사름신디 하늘님의 말쑤을 전 ㅎ고 계셨쑤다.(2:2)
- ㄹ. 그 영 ㅎ여도 죽엇단 또시 살아난댄훈 말쑤이 미신평이지 몰란 서로 물어 보단 (9:10)

(5)는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 ㅎ /의 변화 관련 예를 제시한 것이다. (5ㄱ)은 비어두 위치의 ‘ ㅎ > ㅡ ’의 변화가 적용된 ‘사름 > 사름’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물론 같은 문장 내에서 ‘사름’이 나타나 ‘사름 > 사름 > 사름’의 변화를 모두 보이기는 하지만 ‘사름’의 출현 빈도가 535회로 ‘사람’(25회)에 비해 압도적 분포를 보인다. (5ㄴ, ㄷ, ㄹ) 역시 제주방언의 ‘ ㅎ > ㅡ ’의 변화가 적용된 예이다. (5ㄴ)의 ‘말쑤’은 『제주방언성경』에서 1회 나타나며 대부분 (5ㄷ)의 ‘말쑤’(112회)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름 > 사름’과 달리 ‘말쑤’는 (5ㄹ)처럼 ‘ ㅎ > ㅈ ’의 변화를 거친 ‘말쑤’형(3회)도 일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 ㅎ > ㅈ ’의 변화는 ‘말쑤’ 외에 ‘섬기는 사름이 다시된다(10장 서간문)’ 같은 예들도 존재하지만 ‘ ㅎ > ㅡ ’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 유형보다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 ㅎ > ㅈ ’ 유형은 / ㅎ /의 직접적 변화 결과인지 중간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료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이중모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방언의 이중모음 중 / ㅎ /와 함께 특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 ㅅ /이다. / ㅅ /는 반모음 /j/와 / ㅎ /가

결합한 이중모음 [je]로 어두 위치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지닌다(정승철 2000). /ㅚ/는 제주어 표기법의 제2장 자모에 /ㅚ/와 함께 명시되어 있는 음소이며, 음성적으로는 /ㅚ/, /ㅚ/, /ㅚ/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주어사전 2009 참조). 이중모음 /ㅚ/는 일반 문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래 (6)과 같이 『제주방언성경』에는 반영되어 있다.

- (6) ㄱ. {으시다} : 그영ㅎ연 유다는 예수를 냉겨 줄 기회만을 으산보명 시엿쑤다(14:11)
 ㄴ. {으라} : 그 사름들이 예수광ㅎ디온 사름인 걸 알망그네 으라 동니에서 매딱 돌려나완 (6:33)
 ㄷ. {올다} : 그영ㅎ난 그 사름은 귀가 올리고 새가 패와전 말을 제대로 궂게 되엿쑤다 (7:35)
 ㄹ. {올매} : 그 말쑈을 ㄱ로막앙 올매를 못지 못ㅎ는 사름들을 두영ㅎ는 말이우다(4:19)
 ㄹ. {으름}1 : 이제부터 능랑 영원히 으름을 올지 못ㅎ영 아무도 느안티 으름을 탕 먹지 못ㅎ거여(11:14)
 ㄴ. {으름}2 : 가지가 연ㅎ여지고 썩이 돛으민 으름이 ㅂ디여진 걸 알게 됩네.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ㅚ/의 전체 출현 빈도는 36회였으며, 적용된 단어는 {으시다}, {으라}, {올다}, {올매}, {으름}1, {으름}2로 총 6개였다. /ㅚ/가 적용된 단어 중 (6ㄱ)의 {으시다}(1회 출현)는 ‘엿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제주 지역의 단어 분포상 매우 특징적 쓰임으로 보인다. 『제주어사전』(2009)에 따르면 {으시다}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지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여스다}로 쓰이고 있어 {여스다}를 대표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방언성경』에서 굳이 {여스다}가 아닌 {으시다}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주시 한경면 출신인 대역자의 개인 방언의 영향 때문이다.⁵⁾

{으시다} 외에 /ㅚ/는 크게 {으라}와 ‘열다’의 의미와 관계된 {올다}, {올매}, {으름}1로 구분된다. {으라}는 (6ㄴ)을 포함하여 ‘여러’의 의미로 약 22회 나타나고 있다. ‘열다’의 의미와 관계된 (6ㄷ, ㄹ, ㄹ)은 전체 16회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으름}1은 (6ㄴ)의 {으름}2와 동음이의 관계를 갖는다. 『제주어사전』(2009)에 의하면 {으름}1과 {으름}2는 모두 {여름}1, {여름}2로도 사용되는데, 제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으름}2와 달리 {으름}1은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수산’ 지역에만 분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제한적 분포를 보이는 {으름}1이 『제주방언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으시다}와 동일하게 대역자의 개인 방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ㅚ’는 /ㅚ/와 동일하게 /ㅚ/와 유관하지만 현대국어 제주방언에서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ㅚ’는 /ㅚ/로 처리하고 있으나 출현 위치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다. 정승철(1995:93)에 따르면 어두음절의 ‘ㅚ’는 /ㅚ/로 실현되며, 비어두음절 ‘ㅚ’는 /ㅚ/(-)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ㅚ’의 변화는 『제주방언성경』에도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 (7) ㄱ. 빵이 엿댕 걱정들을 혼댕ㅎ난, 아직도 알지 못ㅎ고 깨돋지 못ㅎ몐시냐? 그영도 생각이 둔ㅎ냐?(8:17)
 ㄴ. 느네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ㅈ쳐ㅎ는 사름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ㅎ고 (10:42)
 ㄷ. 베드로광 야고보광 야고보의 동성 요한 말고는 아무도 ㅈ라 오지 못ㅎ게 ㅎ시고(5:37)

5) 『제주도 방언성경: 마가복음』(1992)에 따르면 진성기 관장의 출생지는 현재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속한다. 고산리는 한경면 내에서도 조수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ㄹ. 온 동니 사람들이 무똥에 모다들었쑤다(1:33)

(7)은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생각, 백성, 동싱, 동니’의 예를 차례로 제시한 것이다. (7)의 단어는 기원적으로 모음이 ‘-’로 시작하는 ‘싱각, 빅성, 동싱, 동니’이었으나 어두와 비어두 위치에 따라 각각 ‘- > ㅈ’(싱각 > 생각, 빅성 > 백성)와 ‘- > ㅊ’(동싱 > 동생, 동니 > 동니)의 변화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어두 위치에서의 ‘- > ㄴ’의 변화가 적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어두 위치의 ‘-’의 변화는 ‘- > ㅊ’가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이중모음 /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제주방언에서 /ㄴ-/는 /ㅊ/로 변화하지만 초성이 없는 비어두 위치에서는 /ㄴ-/로 실현된다(정승철 1995: 94). 『제주방언성경』은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 > ㅊ’의 변화가 적용된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 양상을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8) ㄱ. 그 사람들은 예수와 말씀을 트집잡앙 코를 씨우젠 바리사이파광 헤로데 당원 맺 사람을 예수께 보냈쑤다(12:13)

ㄱ'. 가시관을 엮은 머리에 썩은 대을 "유다인의 왕 만세!" 하연 왜울르멍(15:17)

ㄴ. 그영하난 지집아이는 재게 왕안티 돌아 완(6:25)

ㄴ'. 또 “땡뒤에 왜울루는 소리가 들림져, ‘느넌 주의 질을 닦으곡 그 사람의 질을 골르게 하랜” 썩진대로(1:3)

ㄴ'.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눈을 느보단 몬침 보내염시매(1:2)

(8)은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를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먼저 (8ㄱ, ㄱ')은 어휘형태소 중 어두 위치에 ‘-’가 나타나는 {씨우다}의 두 가지 형식이다. {씨우다}는 제주방언의 ‘- > ㅊ’ 변화가 적용되어 (8ㄱ)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8ㄴ)처럼 표준어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유형도 존재한다. 다만 어휘형태소 중 비어두 위치의 ‘-’는 (8ㄴ)과 같이 초성이 없는 경우에도 ‘아이’처럼 ‘- > ㅊ’가 적용되어 나타났으며, ‘-’가 유지되는 유형은 없었다. 그러나 어휘형태소와 달리 문법형태소인 관형격조사 {의}는 (8ㄴ')처럼 ‘-’가 유지된 형식이 (8ㄴ)의 ‘- > ㅊ’ 적용형과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8ㄴ)의 ‘-’는 초성이 없는 비어두위치에서 ‘-’가 유지되는 제주방언형이라기보다는 원문의 표기를 따라가는 형식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주방언성경』은 제주방언의 /j/계 이중모음 제약이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방언의 ‘j’계 이중모음은 형태소 내부에서 음절 두음이 ‘양순음’일 경우 음절수에 관계없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나타난다(정승철 1995:73). 이와 같은 이중모음의 제약은 (9)에서처럼 『제주방언성경』에도 적용되어 있다.

(9) ㄱ. 나는 분맹히 말하키여 느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앵 하영 느네안티 물 훈 적이라도 주는 사람은 꼭 이녁네 상을 받을 거여(9:41)

ㄴ. 배염을 심거나 독을 마셔도 아맹하 해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또 뽡즈안티 손을 대민 뽡이 나실 거여(16:18)

ㄴ. 그 고단을 지나게 되었는디 뽡소들은 그 사람을 국심언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영 가게 하엿쑤다(15:21)

‘j’계 이중모음의 제약은 (9ㄱ)의 ‘분명히 > 분명히’처럼 『제주방언성경』에도 적용되어 나타나 있다. 성경 내에 {분명히}는 전체 13회 나타나는데 이 중 ‘분명히’는 단 1회만 쓰여 이중모음 제약이 잘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제약이 발동되는 환경인 (9ㄴ)의 ‘병 > 뺑’은 예외 없이 모두 ‘ㅈ > ㅉ’로만 나타난다. 물론 (9ㄷ)처럼 ‘ㅈ > ㅉ’가 나타나지 않는 유형도 존재하지만 /j/계 이중모음 제약은 상대적으로 규칙적 적용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ㄴ’의 표기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전 시기 제주방언에서 단모음 ‘ㄴ’을 가졌던 것으로 재구되는 형태는 현대국어 제주방언에서 모두 이중모음으로 대응된다. 예를 들어 『제주어사전』에는 ‘쇠가죽(牛皮)’에 대응하는 현대국어 제주방언으로 ‘췌가죽’이 제시되어 있다. 제주방언에서는 ‘ㄴ’이 단모음의 아닌 이중모음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표기는 ‘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제주방언성경』은 일반적인 제주방언의 ‘ㄴ > ㄴ’이 아닌 ‘ㄴ’을 그대로 반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9) ㄱ. 도둑놈은 혼 췌, 일흔 놈은 열 췌

ㄴ.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 중풍병자안티 “는 췌 용스받았져” 헝연 말씀
헝췌췌다(2:5)

ㄷ. 예수의 말씀이 털어 지난 곳 쇠경은 눈을 트고 예수를 띄라 나췌췌다(10:52)

(9)는 『제주어사전』과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ㄴ’ 관련 표기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9ㄱ, ㄴ)은 각각 『제주어사전』과 『제주방언성경』에 나타난 {췌}의 표기를 제시한 것이다. (9ㄱ)의 『제주어사전』은 ‘ㄴ > ㄴ’을 반영하여 ‘췌’로 표기하고 있으나 (9ㄴ)의 『제주방언성경』은 표준어와 동일하게 ‘췌’로 표기하고 있다. (9ㄷ)의 ‘쇠경’ 제주 지역에서 ‘소경’을 ‘췌경’으로도 부르기 때문에 나타난 표현인데, ‘ㄴ > ㄴ’을 반영하지 않은 채 표준어형에 준하여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성경』의 모음 표기가 대체로 이 방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된 사례가 많고, 일부 예외적 표기로써 혼용되는 양상을 보인 데 비해 ‘ㄴ’은 예외 없이 일관되게 ‘ㄴ’로만 나타나 있다. 이는 『제주방언성경』 전반에 제주방언의 적극적인 반영을 보이는 것과는 대비가 되는 사례이다.

3.2. 음운 현상의 반영 양상과 특징

이 절에서는 『제주방언성경』의 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현상인 구개음화, 자음군단순화, 연구개음화, ‘ㅣ’ 모음 역행동화, 고모음화(모음상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구개음화

구개음화 현상은 경구개 이외의 조음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정승철(1995: 65)에 따르면 제주방언은 새로이 중앙어의 영향을 받은 일부 단어를 제외하면 대체로 ‘ㄷ’ 구개음화, ‘ㄱ’ 구개음화, ‘ㅎ’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였다.⁶⁾ 『제주방언성경』에서도 3가지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표기를

6) 조성문(2013)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 현상은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ㄷ, ㄱ, ㅎ 구개음화를 모두 보여 주고 있으나, 50대 미만 세대에서는 중앙방언과 같은 ㄷ 구개음화 현상만 보여주고 있었다.

확인할 수 있다.

국어의 ‘ㄷ’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나 경계에 상관없이 ti, tyV 구조에서 ‘ㄷ’이 ‘ㅈ’로 바뀌는 현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조음음성학적인 면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한성우 2005: 126). 『제주방언성경』에서 ‘ㄷ’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0) ㄱ. 그 날 즈낙이 되난 예수께서 제즈들안티 “호수 저 펜으로 넘어가게” ㅎ연 말씀ㅎ셨
쑤다.(4:35)
ㄴ. 좇아 오는 사름이 너미 한 그 사름들은 음식을 먹을 즈를조차 었쑤다.(6:31)
ㄷ. 그영ㅎ디 막끝뎡이여 헤로디아안티 죤은 기회가 왔쑤다.(6:21)

(10)에서 보듯이 ‘ㄷ’ 구개음화가 실현된 단어인 ‘제즈(테즈), 즈를(겨를), 죤-(동-)’은 ‘ㄷ’ 구개음화에 의해 형성된 구개음 아래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다. ‘ㄷ’ 구개음화와는 달리 ‘ㄱ, ㅎ’ 구개음화는 방언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제주방언성경』에서 이 현상이 반영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1) ㄱ. 그영ㅎ고 그 후제 질을 가단에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앓안 신걸 보완에 “날
ㅌ랑 오라” ㅎ연 불르쑤쑤다.(2:14)
ㄴ. 씨를 뿌리느디 어떤 건 질바닥에 털어진 생이들이완 조사먹고.(4:4)
ㄷ. 예수께서는 제즈 두 사름을 보내시멍, “성 안에 들어 가민 물동이에 물을 질영 가는
사름을 만날 거난 그 사름을 ㅌ랑 가라.
ㄹ. 마귀들을 하영 쫓아내고 한한ㅎ 뱅즈들신디 지름을 불란 뱅을 구완ㅎ여 주었쑤
다.(6:13)
ㅁ. 또 누게라 심센 사름의 집이 들어 강 그 살림을 털어 가쟁ㅎ민 그 사름은 몬저 그
심센 사름을 묶어 놓아사 ㅎ지 아니 흘것가?(3:27)
ㅂ. 누게라 내 어멍이멍, 내 성제고?(3:0)

(11ㄱ)에서는 ‘길’이 구개음화한 형태인 ‘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총 11번 중에 10번이 구개음화된 ‘질’로 나타난다. 그리고 (11ㄴ, ㄷ, ㄹ)에서는 ‘길바닥, 길다, 기름’의 형태는 모두 구개음화한 형태인 ‘질바닥, 질다, 지름’의 형태로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ㅁ, ㅂ)은 ‘ㅎ’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 예들이다. 『공동번역성경』에서 ‘힘’은 9번 출현하는데, 『제주방언성경』에서는 모두 ‘심’으로 대역되었으며, ‘형제’는 13번 중에 12번이 ‘성제’로 대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효험(1번), 흥년(1번)’이 각각 ‘소험, 송년’으로 나타난 예도 확인할 수 있다. 고동호(1991: 34)에서는 제주방언에서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은 어두에서만 실현된다고 하였는데, 『제주방언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어두 위치에서만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3.2.2. 자음군단순화

『제주방언성경』의 표기에서는 ‘ㄹ, ㄼ, ㄽ, ㄾ, ㄿ, ㅀ, ㅁ, ㅂ’의 자음군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자음군이 나타나는 경우를 체언과 용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체언에서는 자음군 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용언에서는 ‘ㄹ, ㄼ, ㄽ, ㄾ, ㄿ, ㅀ, ㅁ, ㅂ’의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번역성경』의 체언말 자음군이 『제주방언성경』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이들 자음군들이 모두 재구조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성경』에서 체언말 자음군들이 나타나는 어휘는 ‘닭, 흙’이었다. 이 어휘들은 『제주방언성경』에서 각각 ‘닥, 흑’으로 나타난다.

(12) ㄱ. 어떤 건 **흑이** 하지 아니한 돌밭디 털어졌쑤다. **흑이** 짚으지 아니한 순은 곳 나왔주만(4:5)

ㄴ. 예수께서 베드로안티 “내 말을 잘 들으라. 오늘 밤 **독이** 두 번 울기 전이는 시변이나 나를 모른당 흙 거여” 하셧쑤다.(14:30)

권미소(2019: 40)에 따르면, 제주방언 체언말 자음군 ‘ㄹ’을 가진 체언 ‘닭’과 ‘흙’이 조사 ‘-이, -을, -에, -으로, -도, -만’과 결합한 곡용형의 예에서 모두 ‘독, 흑/흑’의 형태를 가지고 재구조화되어 나타났다고 하였다. 『제주방언성경』에서 체언말 자음군 ‘ㄹ’을 가진 형태는 ‘독, 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형태 모두 재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용언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중에서 ‘ㄹ, ㄹ, ㄹ, ㄹ’은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13) ㄱ. 예수께서 또시 그 사름의 눈에 손을 대난 눈이 **붉어지연** 완전히 성해전 하근 걸 똑똑히 보게 되엿쑤다.(8:25)

ㄴ. 주께서 하시네 일이라 우리 안티는 놀랍게만 보인덴 **헛** 말을 **익어** 본 일이 었이나?(12:11)

ㄷ. 사름은 땅에 쓰러전 **썩게** 울엿쑤다.(14:72)

ㄹ. 그 사름들을 **굵경** 집으로 돌려 보낸당 **헛**민 질에서 자빠질 거우다.(8:3)

ㄴ. 그 재난이 문 지나민 해는 주물고 들은 빗을 **일러볼곡**.(13:24)

ㄷ. 금은 좋은거여. 그영~~헛~~여도 소금이 찬 맛을 **잃으민** 미싱걸로 또 그 소금을 차게 **홀**타?(9:50)

(13ㄱ, 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성경』에서 ‘밝-’은 2번 모두 ‘붉-’으로 대역되어 나타나며, ‘읽-’의 의미를 지니는 형태는 3번 모두 ‘익-’으로 나타난다. 즉, 용언에서의 ‘ㄹ’의 실현은 완전히 재구조화된 상태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1995: 186)에서도 제주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자음군 ‘ㄹ’은 어휘에 따라(‘값-(굵-), 흙-(굵-), 밝(붉-)’와 ‘읽-(익-)’ 재구조화의 여부가 다르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13ㄷ, ㄹ)은 각각 ‘ㄹ, ㄹ’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방언성경』의 표기에서 이 자음군들은 자음군단순화 혹은 재구조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3ㄴ, ㄷ)은 ‘ㄹ’ 자음군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잃-’는 총 4번 나타나는데, 3번은 ‘잃-’로 1번은 ‘일르-’로 대역되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일르-’의 경우 제주방언의 어간말자음 유추 변화 규칙(‘-’ 삽입 규칙)이 적용된 후에, 공명음 사이 ‘ㅎ’ 탈락 그리고 ‘ㄹ > ㄹㄹ’의 변화를 겪은 것(정승철 1995: 197-198)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용언 어간말 자음군 ‘ㅃ, ㄴㅅ, ㄴㅎ’의 실현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4) ㄱ. 예수께서 집이 돌아 오시난 군중이 또시 모다 들언 예수의 일행은 음식 먹을 주를 도 **엇엿쑤다**.(3:20)

ㄴ. 그영~~헛~~고 그 후제 질을 가단에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앗안** 신걸 보완에 “날 딱랑 오라” **헛**연 불르쑤다.(2:14)

ㄷ. ㄴ라 번 씨고량을 채우고 씨고리줄로 묶어 두었주만 그 사름은 ㄴ라번 씨고리줄을 그치고 씨고량도 부시와 부난 아무도 그 사름을 휘와잡지 못했쥬다.(5:4)

(14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성경』에서 용언의 어간말에 ‘ㄴ’을 가진 어간인 ‘없-’은 62번 나타나는데, 모두 ‘엇-’의 형태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난다. 권미소(2019: 41)에서는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엇-’의 다양한 어미와 결합한 형태를 확인한 결과 ‘어성, 어시난, 얻꼭, 얻쭈, 얻찌’와 같은 활용형을 보인다고 지적인 바가 있다. 즉, 제주방언에서는 ‘ㄴ’에서 어간말 자음 ‘ㄴ’을 탈락시키고 ‘ㅅ’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형태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14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ㄴ’ 자음군을 지니는 ‘앗-’는 『제주방언성경』에서 ‘앗-’로 대역되어 나타난다. 권미소(2019: 42)에 따르면 앞서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ㄴ’과는 달리 ‘앗-’가 ‘앗-’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간말자음군 ‘ㄴ’이 형성되기 이전의 모습인 ‘앗-’으로 남아 있는 경우로, 자음군단순화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4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성경』에서 ‘끓-’는 ‘그치-’로 대역되어 나타난다. 정승철(1995), 권미소(2019: 42)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 ‘ㄴ’은 ‘끓-, 앉-, 많-’가 각각 ‘끈-, 아녀-, 하-’와 같이 실현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주방언성경』에서도 표준어의 ‘끓-’을 ‘그치-8)’로 나타난다.

3.2.3. 연구개음화

『제주방언성경』에서는 조음위치동화 중에서 연구개음화가 반영된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은 비연구개음이 연구개음인 /ㄱ, ㅋ, ㆁ, ㅇ/ 등의 영향을 받아 연구개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제주방언성경』에서 연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5) ㄱ. 예수께서는 그 사름을 하근 사름들 스이에서 뚝로 불러내연 송가락을 그 사름의 귀 속에 놓앗단 춤을 불란 그 사름의 새에 대연.(7:33)
- ㄴ. 날이 붉으난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광 올법 흑즈들을 비롯하면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헌 끝에 예수를 결박하면 빌라도에게 곳영 간 냉기였쥬다.(15:1)
- ㄷ. 영하난 왕은 그 소녀안티 “느 소원을 말하여 보라. 무싱거든지 들어주마.(6:22)
- ㄹ. 그짓 그리스도광 그짓 예언자들이 나타난 어떻 하영이라도 뽑은 사름들을 씨기젠 ㄴ라 가지 기정광 이상헌 일들을 흘거여.(13:22)

(15ㄱ, ㄴ)은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연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예이며, (15ㄷ)은 ‘무슨/무신+거’의 결합에서 연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15ㄹ)은 공동격조사 ‘-광’의 결합에서 연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제주방언성경』에서 이 현상은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 비연구개음인 ‘ㄴ, ㄹ’ 등이 후행하는 연구개음 ‘ㄱ’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개음 ‘ㅇ’으로 나타난다.

3.2.4. ㄹ역행동화

ㄹ역행동화는 후행음절의 단모음 ㄹ 또는 반모음 j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모음에 j의 전설성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정승철(1995: 55)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ㄹ역행동화는 음운론적 또는

7) 김수영(2014: 12)에 따르면 ‘없-’은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방언에서(경남 남부 지역에서는 엄ㅅ-의 형태로 나타남) 어간말에 ‘ㄴ’을 남기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지적인 바가 있다.

8) 표준어의 ‘끓다’는 제주방언에서 ‘끈다, 그치다, 끄치다, 끈치다’로 실현된다.

비음운론적 제약조건이나 동화음, 피동화음의 성격 등에서 중앙어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 현상은 주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며, 피사동의 접미사 ‘-이-, -히-, -기-’와 ‘손제비(손잡이)’ 등에서처럼 명사파생접미사 ‘-이’를 제외한 접미사나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주방언성경』에서 Ⅰ역행동화 현상이 반영된 예는 다음과 같다.

(16) ㄱ. 그 때 시몬광훈디 간 사람들이 예술 좇안 **댕기단**.(1:36)

ㄴ. 그영ㅎ연 예수가 계신 바로 우리 지분을 **봣겨** 고양이 내고 중풍뱅즈를 요에 녹진 채 예수 앞이 돌아 느려 보냈쑤다.(4:58)

ㄷ. 또 어떤 건 가시자왈 쏘곰에 떨어졌쑤다. 가시냥들이 크난 숨이 **맥현** 올매를 못지 못ㅎ였쑤다.(4:7)

ㄹ. 그 사람들은 못심이 무디연 하근 사름안티 빵을 **멕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ㅎ였던 것이우다.(6:52)

(16ㄱ, ㄴ)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는 Ⅰ역행동화를 확인할 수 있다. (16ㄱ)에서는 ‘다니다가→댕기다가’로 Ⅰ역행동화 현상이 반영된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의 형태 12번 모두 ‘댕기-’로 나타난다. (16ㄴ)에서는 ‘봣겨→벳겨’로 Ⅰ역행동화 현상이 반영된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봣기-’의 형태 4번 중에서 2번 ‘벳기-’로 실현되어 Ⅰ역행동화 실현과 미실현형이 함께 쓰였다. (16ㄷ)에서는 ‘막-’와 피동 접미사 ‘-히-’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Ⅰ역행동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2번 모두 ‘맥히-’로 나타난다. (16ㄹ)에서는 ‘먹-’와 사동 접미사 ‘-이-’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Ⅰ역행동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4번 중에서 3번은 ‘멕이-’의 형태로 실현되어 Ⅰ역행동화 실현과 미실현형이 함께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2.5. 모음상승

단모음에서 관찰되는 음 변이는 동일한 서열 간의 변이와 동일한 계열 간의 변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전승 1981: 501). 동일한 계열 간의 변이 중 하나인 모음상승은 국어 모음 체계 안에서 중모음인 /ㅕ/, /ㅗ/, /ㅛ/가 각각 동일한 전후 위치의 고모음인 /ㅣ/, /ㅡ/, /ㅜ/로 각각 변화하는 현상으로, 개구도를 좁혀 조음 노력을 절감하려는 폐구조음 원칙에 의해 일어난다(김진우, 1971: 88). 현대 국어에서 모음상승은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동시에 통시적으로도 관찰이 가능한 음운 현상 중 하나이다. 『제주방언성경』에서는 3가지 모음상승 유형 중에서 /ㅕ/가 /ㅣ/로 변화하는 유형과 /ㅗ/가 /ㅡ/로 변화하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방언성경』에서 모음상승 현상이 반영된 예는 다음과 같다.

(17) ㄱ. ‘살인ㅎ지 말라 ‘간음ㅎ지 말라’ ‘도둑질ㅎ지 말라’ ‘**그짓** 증언ㅎ지 말라’ ‘놈을 썬기 지 말라’ ‘부미를 공경ㅎ랜’ 헛 계명들을 는 알암실거여.(10:19)

ㄴ. 그 때에는 못스운 재난이 닥쳐 올 거난, 이런 재난은 하늘님께서 **시샹**을 창조ㅎ신 때부터 지금까지 었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었일 거우다.(13:19)

ㄷ. **선싱님**, 모세가 우리안티 정해 준 법에는 ‘성이 즈네가 었이’ 아내를 두영 ‘죽으민 그 동싱이 이녁 형수광 절흔ㅎ영 즈식을 낭 성의 대를 잇어사 혼댕’ ㅎ였쑤다.(12:19)

ㄹ. 제즈들은 “누게가 손을 대었쑤강? 보시다시피 이영 하근 사름들이 스방**이서** 밀어 대

지 아니 헝염쑤광?” 헝연 반문헝엿쑤다.(5:31)

(17ㄱ)은 /ㄱ/가 /ㄴ/로 나타나는 모음상승의 유형으로 어두 위치의 어휘형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⁹⁾ 『제주방언성경』에서 ‘거짓’은 5번 출현하였는데 모두 ‘그짓’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17ㄴ, ㄷ, ㄹ)은 /ㄴ/가 /ㄷ/로 나타나는 모음상승의 유형으로 (17ㄴ)은 어두 위치의 어휘형태소에서 모음상승이 나타난 예이며, (17ㄷ)은 비어두 위치의 어휘형태소에서 모음상승이 나타난 예이다. 그리고 (17ㄹ)은 비어두 위치의 문법형태소에서 모음상승이 실현된 예이다. (17ㄴ, 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휘형태소에의 모음상승은 모든 형태에 실현되었지만(시상: 8번, 선성님: 24번), 문법형태소에서는 모음상승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혼용되어 나타났다(-에서: 42번, -이서: 22번). 어휘형태소보다 문법형태소에서 모음상승이 덜 이루어지는 것은 이 현상의 확산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곽충구(2003), 김아름(2008)에서는 /ㄴ/가 /ㄷ/로 나타난 모음상승이 남부방언으로부터 중부방언으로 확산되며, 이 확산은 어두 위치부터 이루어진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즉, /ㄴ/가 /ㄷ/로 나타난 모음상승은 어두 위치에서부터 비어두 위치로 확산하기 때문에 『제주방언성경』에서 비어두 위치의 문법형태소에서 모음상승의 실현 비율이 어휘형태소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생략)

9) 강희숙(2005: 19)에서 ‘/ㄱ/→/ㄴ/’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현상 중 하나로 연령이나 말의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이 유형의 모음상승은 언어 변이 현상으로서 서울말 또는 중부 방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화자들의 일상적 발화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 강희숙(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 전남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1-32.
- 고동호(1991).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33-49.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59-92.
- 권미소(2019). 제주 방언 어간말 자음군의 음운론, '지역어의 현황과 보존 방안' 학술대회 발표집. 37-52.
- 김수영(2014). 현대국어 어간말 자음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우(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어문연구*. 7. 어문연구학회. 87-94.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濟州語辭典』. 제주특별자치도.
- 조성문(2013).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구개음화 분석. *인문과학연구* 20. 동덕여자대학교. 133-144.
- 최전승(1981). 국어의 통시적 음성변화와 공시적 구조. *산청어문* 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499-523.
- 한성우(2005). 의주방언과 구개음화. *어문연구* 47. 어문연구학회. 121-146.

대화 환경에서의 일시적 언어 접촉에 따른 말 조정 양상에 대한 연구 -경상방언 화자의 서울방언 접촉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 발화를 중심으로-

이철희(경북대)·이재섭(경북대)

<목차>

1. 서론
2. 조사 방법 및 실험 설계
 - 2.1. 언어자료 조사: 그림 설명 과제
 - 2.2. 말 조정 평가: XAB 지각 유사성 실험
3. 말 조정의 양상 및 경향
 - 3.1. 사회적 변인에 따른 경향
 - 3.2. 언어 태도에 따른 경향
4. 결론

1. 서론

개별 화자는 대화 환경에서 다른 대화 참여자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언어 형식을 수정한다. Giles et al.(1973)에서는 개별 화자가 노출된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자신의 언어 형식을 수정하는 담화 행위를 ‘말 조정(language accommodation)’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다. 말 조정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효율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사회적 요인 및 언어 태도에 밀접하게 연관된 담화 행위로 파악된다. 특히 말 조정은 개별 화자가 모어와 차별되는 언어 환경에 유입하였을 때, 타 언어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승인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방언 화자가 서울방언 화자와의 대화 환경에서 수행하는 말 조정의 양상을 확인하며, 특히 경상방언과 서울방언에서 현저히 구분되는 음운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즉 경상방언 화자와 서울방언 화자의 대화 환경에서, 경상방언 화자의 음운이 서울방언에 대한 노출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언어 조사는 그림설명 과제(diapix task)로 설계하여, 완전한 자연 발화는 아니지만 제보자의 자발적(spontaneous) 발화를 도출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였다. 말 조정 수행 여부의 평가는 연구자들의 직관과 더불어, XAB 지각 유사성 실험(XAB perceptual similarity test)을 별도로 시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상방언 화자가 서울방언과의 일시적 접촉 환경에서 얼마나 말 조정을 수행하는지 밝히고, 그러한 조정 양상에 대한 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말 조정에 따른 음운적 변이 양상을 살피고 이를 사회적 위세(prestige)에서 비롯된 지역방언과 중앙방언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함으로써, 경상방언과 서울방언 사이에서 확인되는 음운 변이와의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시적 언어 접촉에 따른 말 조정의 양상은, 서울방언과의 접촉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상방언 화자의 점진적인 언어 변화의 방향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사 방법 및 실험 설계

2.1. 언어자료 조사: 그림 설명 과제

언어 조사는 각 제보자의 자발적인(spontaneous) 발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인 ‘그림설명 과제(diapix task)’를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그림설명 과제는 Kim et al.(2011)에서 제안된 언어 조사 방법으로, 담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양방향적 음운 변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림설명 과제를 통한 언어 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되었다.

- 1)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두 발화자에게 그림을 한 장씩 제공한다. 이 그림은 마치 틀린그림찾기처럼 몇몇 세부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한 쌍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 쌍은 아래와 같다.



<그림-1> 그림설명 과제에 사용된 그림 예시

- 2) 두 발화자에게 대화를 통해서 두 그림의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때 두 발화자는 서로의 그림을 직접 보거나 보여줄 수 없으며, 각자 자신의 그림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점을 발견하도록 한다.
- 3) 과제 해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두 발화자 간의 대화를 관찰하여 언어자료를 수집한다.

그림설명 과제는 언어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활동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발화에 대한 주의집중 정도(attention to speech)를 낮추어, 발화자의 자연 발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¹⁾ 또한 발화자 간의 관계와 담화 상황에서의 역할을 대등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1) Labov(1972)에서는 이른바 ‘관찰자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화에 대한 주의집중 정도(attention to speech)에 따른 언어 조사 환경을 차등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발화에 대한 주의집중 정도가 높을수록 규범적 말투(formal style)나 표준어(standard language)를 사용하고, 주의집중 정

각 발화자의 양방향적인(bi-directional) 말 조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방언 화자의 양방향적 말 조정이 아니라, 단일한 방언 화자의 일방향적 말 조정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Kim et al.(2011)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두 발화자 가운데 한 명을 의도적으로 접촉 환경을 조성하는 모델 화자(model talker)로 설정하여, 제보자(participant)의 발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울방언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즉 양방향적인 말 조정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도록 조사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경상방언 화자의 자연 발화가 일시적인 서울방언 접촉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말 조정의 양상을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델 화자는 서울방언을 사용하는 30대 여성 1명으로 선정하였다.²⁾

언어 조사의 대상인 제보자는 모두 대구에 거주하는 경상방언 화자로 총 20명의 언어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제보자 집단은 성별, 세대 및 언어 태도의 사회적 변인으로 구체화하였다. 제보자의 성별은 남녀 각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대는 고연령층(50대 화자, 평균 56세)과 저연령층(20대 화자, 평균 26세) 각 10명으로 구성하였다.³⁾ 언어 태도는 별도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수치화하였으며, 서울방언 및 경상방언에 대한 지향성 점수(서울방언 지향 평균 23.4/36점, 경상방언 지향 평균 20.8/36점)를 각각 부여하였다.

언어 태도 설문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방언과 경상방언에 대하여 동일한 설문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4점 척도를 부여하여,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수치화하였다. 따라서 응답이 ‘매우 그렇다’에 가까울수록, 즉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화자는 해당 방언에 대한 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응답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방언에 대한 지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2.2. 말 조정 평가: XAB 지각 유사성 실험

말 조정의 평가 및 분석에는 연구자들의 직관과 더불어, XAB 지각 유사성 실험(XAB perceptual similarity test)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XAB 지각 유사성 실험은 Goldinger(1998), Namy et al.(2002), Pardo(2006), Kim et al.(2011) 등에서 활용된 바 있는 평가 실험으로, 다수의 청취자 집단을 대상으로 언어적 변화 여부를 지각적으로 판단하

도가 낮을수록 비격식적 말투(casual style)나 일상어(vernacular language)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 경향에 따른 것이다. Kim et al.(2011)의 조사 방법은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두 발화자가 각 그림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과제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발화자가 자신의 언어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림설명 과제를 통하여 발화에 대한 주의집중 정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어 자연 발화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본래의 연구 계획에서는 이와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 모델 화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총 40명의 언어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언어조사 기간 중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조사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어 언어자료 구축이 미완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언어자료가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모델 화자의 성별의 단일하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로 남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추후 연구 계획에 따라 언어 조사를 보완하여 완결하도록 하며, 여기서는 조사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어의 실정에 적용한 일례를 소개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 3) 고연령층은 50대의 화자로, 저연령층은 20대의 화자로 표집하여 약 30년의 간격으로 세대 구분의 기준을 두고자 하였다. 단 저연령층은 예외적으로 30대 화자 1명(31세, 남성)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제보자 구성은 부록 #1을 참조.
- 4) 언어 태도 조사 설문지는 부록 #2를 참조. 이하 언어 태도에 대해서는 3.2.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도록 하는 방법이다. XAB 지각 유사성 실험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된다.

- 1) 언어자료를 가공하여 모델 화자의 음성 샘플 'X', 제보자의 음성 샘플 'A', 'B'를 추출한다. 이때 제보자의 음성 샘플 A는 모델 화자와의 대화를 통한 언어 노출(exposure)이 이루어지기 전의 언어를 반영하도록 하며, 음성 샘플 B는 언어 환경 노출이 이루어진 후의 언어를 반영하도록 하여 차이를 둔다. 세 가지 음성 샘플의 길이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도로 구성한다.
- 2) 청취자는 모델 화자의 음성 샘플 X와 제보자의 음성 샘플 A, B를 순차적으로 듣는다. 이때 청취자는 제보자의 음성 A, B가 모델 화자의 음성 X의 말투를 흉내내는(impersonate)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안내한다.
- 3) 청취자는 각 음성 샘플에 대하여 '음성 A와 B 가운데 음성 X와 더 유사한 것은 무엇인가'에 응답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이때 청취자의 유사성 판단이 언어외적 요인에 따라 유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각 음성 샘플에 대한 청취자의 지각 유사성 판단 결과를 수집한다.

XAB 지각 유사성 실험은 언어학적으로 비전문가인 다수의 해당 방언권 화자를 대상으로 지각적 유사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말 조정 여부의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특히 각 발화의 내용과 음운의 세부 사항이 일정하지 않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자연 발화의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Pardo, 2006). 만약 각 청취자가 언어 노출 이전의 음성 A보다 언어 노출 이후의 음성 B가 모델 화자의 음성에 더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면, 이는 모델 화자의 음성적 특징에 수렴(converge)하는 방향의 말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설명 과제 수행의 대화에서 서울방언을 발화하는 모델 화자의 음성 X, 서울방언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화 초반부 제보자의 음성 A, 서울방언 노출이 이루어진 대화 후반부 제보자의 음성 B를 추출하였다. 이후 각 음성을 XAB 순서 또는 XBA 순서로 각 10개씩 가공하여, 언어 자료 제보자의 수와 동일한 20개의 음성 샘플을 제작하였다. 지각 유사성 실험의 청취자는 모두 음성 자료 제보자와 동일하게 경상방언을 모어로 하는 화자 20명(20~30대, 평균 29세)을 선정하였다.

각 음성 샘플에 따른 청취자의 지각적 유사성 판단 결과는 백분율로 나타내어, 제보자의 말 조정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가시화할 수 있다. 지각 유사성 실험을 수행한 선행 연구인 Goldinger(1998), Pardo(2006), Kim et al.(2011) 등에서는 각각 조금씩 다른 성격의 음성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⁵⁾, 일관적으로 언어 노출의 결과 수렴의 말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언어 접촉 환경에서 제보자가 모델 화자의 음성적 특징을 모방하는(imitate), 즉 모델 화자의 언어적 특징에 수렴하는 방향의 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5) Goldinger(1998)는 자연 발화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였고, Pardo(2006)는 지도설명 과제(map task)를 수행하는 두 발화자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Kim et al.(2011)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그림 설명 과제를 수행하는 두 발화자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말 조정의 양상 및 경향

본 연구는 대화 환경에서의 일시적 언어 접촉의 수행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설명 과제를 통해 총 20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이후 그림설명 과제를 통한 언어 조사 결과는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부와 언어 접촉이 이루어진 후반부를 구분하여 2차 음성 자료로 가공하였다. 해당 2차 음성 자료는 XAB 지각 유사성 실험에 활용되어 총 20명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말 조정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XAB 지각 유사성 실험의 결과는 말 조정 양상의 분석에 일부 참고하는 한편 통계 분석의 자료로 다루었다.

세대	성별	제보자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		
			말 조정 수행 (명)	말 조정 미수행 (명)	백분율 (%)
고연령층	남성	OM1	18	2	90
		OM2	10	10	50
		OM3	17	3	85
		OM4	13	7	65
		OM5	13	7	65
	여성	OF1	19	1	95
		OF2	10	10	50
		OF3	15	5	75
		OF4	16	4	80
		OF5	14	6	70
저연령층	남성	YM1	14	6	70
		YM2	10	10	50
		YM3	10	10	50
		YM4	7	13	35
		YM5	17	3	85
	여성	YF1	7	13	35
		YF2	11	9	55
		YF3	12	8	60
		YF4	11	9	55
		YF5	9	11	45

<표 1>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

<표 1>은 각 제보자의 말조정 수행 여부에 대한 지각 유사성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OF1 제보자는 총 20명의 청취자 가운데 19명(95%)가 언어 노출 후의 음성인 B가 언어 노출 전의 음성인 A에 비해 더 모델 화자의 음성 X의 말투에 더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YF1 제보자는 총 20명의 청취자 가운데 7명(35%)가 언어 노출 후의 음성인 B가 언어 노출 전의 음성인 A에 비해 더 모델 화자의 음성 X의 말투에 더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3.1. 사회적 변인에 따른 경향

말 조정의 수행 여부를 반영하는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는 사회적 변인에 따른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대 및 성별에 따라 실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제보자 집단을 세대 및 성별로 제한하여 각 변인의 영향을 재확인하는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⁶⁾.

통계 분석에는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변인으로 각 제보자 집단을 구분하여 표본 평균 검정을 시행하였다. 표본 평균의 가설검정은 단일 표본과 두 표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고연령층’과 ‘저연령층’,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두 표본에 대한 통계식인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세대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양측)
고연령	10	14.50	3.100	.137	.015
저연령	10	10.80	3.048		

<표 2> 전체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표 2>는 전체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이다.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고연령층의 경우 약 14.5명의 청취자가 말 조정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고, 저연령층의 경우 약 10.8명의 청취자가 말 조정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의확률(양측)은 0.05보다 작아서 유의미하다[F=0.137, P=0.015]. 따라서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의 평균값은 고연령층[M=14.50, SD=3.100]과 저연령층[M=10.80, SD=3.048]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이는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의 말 조정 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다만 이러한 지각 유사성의 판단은 한 제보자의 서로 다른 음성을 비교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각 제보자들 간의 비교는 아니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말 조정의 지각 유사성의 판단이 높더라도,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서울방언에 더 가까운 언어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고연령층 제보자(OM1; 90%) 음성 샘플

- A. 또 야자수가 밑에(HLa) / 나무 한 그루가 있고(HLa) // ... 야자수 오른쪽에 (LHLLa) / 항, 한 그루 밖에 없는데요(LLLH+L%) //
- B. 통닭이 있고(LH%) // 통닭 오른쪽에 / 신발 파는 곳이 있고(LHa) / 어 통닭을 중심으로 / 왼쪽에 야채 / 당근 갈네요(HLL%) // 당근 파는 / 좌판이 있고(HL%) //

(2) 저연령층 제보자(YF4; 55%) 음성 샘플

- A. 여러가지 물건을 / 팔고 있는 / 것 같아요(HLLL%) // 과일도 있구(LHa) / 생선도 있고 꽃도 있고(HHLHa) / 신발도 있고(LHa) / 빵도 있고(LL:%) //
- B. 제 그림에도 / 오른쪽 편에 / 야자수 두 그루가 있구요(HHL:%) // 갈색깔 열매가(LLHa) / 왼쪽 편 야자수에는 세 개 / 오른쪽 야자수에는 / 두 개가 달려 있어요 //

6)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듯 제보자의 성별과 모델 화자의 성별의 관계에 따른 경향은 언어 조사의 미완으로 안하여 포함하지 못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남성 제보자의 말 조정 수행은 모두 이성 화자와의 대화 상황인 경우이며, 여성 제보자의 말 조정 수행은 모두 동성 화자와의 대화 상황이 된다.

(1)과 (2)는 각각 고연령층 남성 및 저연령층 여성 제보자의 음성 샘플로서 (A)는 언어 노출이 이루어지기 전의 전반부 음성, (B)는 언어 노출이 이루어진 후의 후반부 음성 일부이다. 이때 밑줄 표시가 된 부분은 음운구 및 억양구 경계에서 실현되는 경계성조 및 운율패턴을 기록한 것이다.⁷⁾ 일반적으로 서울방언은 음운구의 경계성조가 대체로 고조(H), 경상방언은 대체로 저조(L)로 나타난다는 점⁸⁾, 서울방언은 억양구의 경계성조가 문장형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상방언의 경우 모두 하강조로 실현된다는 점 등을 통해 말 조정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연령층의 (1)의 경우 (1A)에서는 모든 음운구 경계성조가 경상방언의 강세구 운율패턴에 따라 저조로 나타나는 반면, (1B)에서는 일부 경계성조가 고조로 실현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그런데 저연령층의 (2)의 경우를 살펴보면 언어 접촉 전 음성인 (2A)에서부터 이미 서울방언의 특징인 고조의 경계성조 및 억양구 끝음절의 장음화가 확인되며, (2A)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세대에 따른 성조 실현의 차이는 경계성조 뿐 아니라 어휘 성조형의 실현에서도 확인된다. 고연령층의 경우 (1A)의 ‘야자수가(LHLL)’, ‘밑에(HL)’, (1B)의 ‘당근(LH)’, ‘좌판이(LHL)’ 등 언어 접촉 전후와 무관하게 경상방언의 성조형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저연령층의 경우 (2A)의 ‘과일도(HHH)’, ‘생선도(HHH)’, ‘신발도(HHH)’, (2B)의 ‘야자수(HHH)’, ‘열매가(LLH)’ 등 언어 접촉 전후와 무관하게 어휘의 성조형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 확인된 말 조정 수행의 정도성은, 말 조정의 결과 실현되는 언어가 얼마나 서울방언에 많이 가까워졌는지가 아니라 언어 접촉 전후가 얼마나 지각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따라 측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말 조정 수행이 낮게 확인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경상방언권에서 저연령층의 언어가 서울방언에 대하여 다소 평준화(levelling)되어 있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⁹⁾

즉 본 연구에서의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서울방언에 더 가깝게 말 조정을 수행한다기보다, 일시적 언어접촉에 따른 말 조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대로 저연령층은 말조정에 대해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말 조정 이전부터 고연령층보다 서울방언에 다소 가까운 언어적 특징을 발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양측)
남성	10	12.90	3.665	.002	.762
여성	10	12.40	3.596		

<표 3> 전체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7) 어휘 성조형 및 경계성조의 고저 판단은 경상방언을 모국어로 하는 화자인 두 공동연구자의 직관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음성분석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8) 김기호(2000, 19)에서는 경상방언의 기본적인 운율패턴은 “서울말 운율패턴인 THLH와 달리 기본형으로 LHL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 9) 이때 본 연구에서는 성조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언어 자료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질적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방언 화자가 말 조정의 수행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를 표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3>은 전체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이다. 유의확률(양측)은 0.05보다 커서 유의미하지 않다[F=0.002, P=0.762]. 즉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의 평균값에서 남성[M=12.90, SD=3.665]과 여성[M=12.40, SD=3.59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만 세대 변인에 따른 분석에서는 매우 현저한 차이가 확인된 만큼, 전체 제보자를 사회적 변인에 따라 표집하여 세부적인 재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성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양측)
남성	5	14.20	3.271	.125	.779
여성	5	14.80	3.271		

<표 4> 고연령층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성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양측)
남성	5	11.60	3.912	2.938	.439
여성	5	10.00	2.000		

<표 5> 저연령층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표 4>와 <표 5>는 각각 고연령층과 저연령층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이다.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확률(양측)이 0.05보다 커서 유의미하지 않으며[F=0.125, P=0.779]/[F=2.938, P=0.439], 평균값에[M=14.20, SD=3.271]/[M=11.60, SD=3.912]과 여성[M=14.80, SD=3.271]/[M=10.00, SD=2.000]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값은 저연령층 남성 제보자 집단에 비해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여성 제보자 집단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집단 표집의 기준을 바꾸어 성별을 통해 제보자 집단을 먼저 표집해 보도록 한다.

세대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양측)
고연령층	5	14.20	3.271	.225	.287
저연령층	5	11.60	3.912		

<표 6> 남성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표 6>는 남성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이다. 유의확률(양측)은 0.05보다 커서 유의미하지 않다[F=0.225, P=0.287]. 즉 남성 집단에서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의 평균값은 고연령층[M=14.20, SD=3.271]과 저연령층[M=11.60, SD=3.912]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저연령층의 평준화 현상과 연관된 것일 수 있으나, 저연령층 남성 집단의 경우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저연령층 제보자(YM1: 70%) 음성 샘플

A. 어 / 이거 그림 해변가에 / 어 야자수 같은게 있고 // 어떤 물건을(LHLa) / 파는 거 같은 그림인데(HLLL%) // 속 이기서 왼쪽에서 / 더 오른쪽 구석까지 / 이케 삼각형(HHLA) / 그리듯이 좌판 놓여 있고여(HLL%) //

B. 어 / 저는 / 당근이랑(LHLLa) / 오이를(LHLA) / 파는 / 야채 좌판대가 있고 (LH%) // 그 옆에(LHa) / 닭고기를 파는 데(HL:) // 그리고 신발(LH%) //

(3)은 저연령층 남성 제보자의 음성 샘플이다. 밑줄 표시가 된 운율패턴을 살펴보면 언어 접촉 이전의 음성인 (3A)에서는 모든 음운구 경계성조가 경상방언의 강세구 운율 패턴에 따라 저조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언어 접촉 이후의 음성인 (3B)에서의 경계성조는 고조로 변화하거나 장음화하는 서울방언으로의 말 조정이 일부 확인된다. 또한 어휘 성조형의 실현에 있어서는 (3B)의 ‘당근이랑(LHLL)’, ‘오이를(LHL)’, ‘좌판대(LHL)’ 등 접촉 이후에도 경상방언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저연령층 남성 집단의 말 조정 양상은 고연령층 남성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고연령층 집단과 저연령층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저연령층 여성 집단에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양측)
고연령층	5	14.80	3.271	.392	.023
저연령층	5	10.00	2.000		

<표 7> 여성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표 7>은 여성 제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이다. 유의확률(양측)은 0.05보다 작아서 유의미하다[F=0.392, P=0.023]. 즉 XAB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의 평균값이 고연령층[M=14.80, SD=3.271]과 저연령층[M=10.00, SD=2.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저연령층 여성 집단은 말 조정 수행에 대한 지각 유사성 점수가 유난히 낮게 나타나며, 이는 앞서 언급한 저연령층의 평준화 현상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연령층 여성은 경상방언권에서 서울방언형을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언어 개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¹⁰⁾, 이에 따라 언어 접촉 이전의 발화에서부터 이미 서울방언에 가까운 언어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통계 분석 및 결과값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XAB 지각 유사성 실험의 결과는 세대 변향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단 세대 및 성별에 따라 제보자 집단을 세부화하여 살펴 본 결과 이러한 결과는 저연령층, 특히 저연령층 여성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연령층 여성 집단의 평균값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방언과의 일시적 접촉 이전부터 이미 서울방언에 가까운 발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저연령층 여성이 경상방언권 내에서 서울방언에 대한 언어 개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추측 가능하게 한다.

10) 홍미주(2011:236)에서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표준어 영향의 개신형 실현율이 증가하고, 여성일수록 개신형에 해당하는 변이형을 더 실현한다는 경향을 언급한 바 있다.

3.2. 언어 태도에 따른 경향

이익섭(1994/2014:275)에서는 언어에 대한 어떤 느낌이 어떤 개인의 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공동체의 언어 전반에 대해서도 일어난다고 하였다. 언어 태도란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갖게 되는 느낌이나 평가 등의 반응을 의미한다(방언연구회 2001:274). 김덕호(2014:63)에서는 ‘내적 사고 작용으로 형성된 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반응 및 행동’으로 언어 태도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언어 태도의 정의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언어 태도는 인지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익섭(1994/2014)과 방언연구회(2001)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느낌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때 느낌이란 화자 개인의 인지 과정에 깊이 연관된다. 둘째, 언어 태도는 구체적인 반응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김덕호(2014)에서는 언어 태도를 구체적인 반응이나 행동으로 확장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언어 태도를 통해 언어 행동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언어 태도는 고정관념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다. 어떤 언어에 대한 인지적 느낌은 보수적으로 고착화되며, 이는 언어가 갖는 사회적 위세(prestige)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 태도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언어에 대한 느낌을 ‘우월성’, ‘사회적 매력’, ‘소통성’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¹¹⁾, 총 9문항의 설문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한 설문 문항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4) 언어 태도 설문 문항 구성

- ㄱ. 우월성: 표준어이다, 지적으로 들린다, 많이 배운 사람처럼 들린다
- ㄴ. 사회적 매력: 세련되게 들린다, 정감있게 들린다, 따뜻하게 들린다, 믿음직스럽게 들린다
- ㄷ. 소통성: 또렷하게 들린다, 다른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언어 태도 설문은 그림설명 과제를 제보자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¹²⁾ 이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세대	성별	제보자	언어 태도 설문 결과							
			서울방언 지향성				경상방언 지향성			
			우월성 (12)	사회적 매력(16)	소통성 (8)	총합 (36)	우월성 (12)	사회적 매력(16)	소통성 (8)	총합 (36)
고연령층	남성	M1	8	8	6	22	6	11	5	22
		M2	9	9	5	23	7	11	6	24

11) 강현석(2010)에서는 언어 태도의 분석을 위해서 언어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여러 형용사를 제시하여 선택하는 방법의 언어 태도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설문 조사의 방법을 취하였으나 언어 태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조사의 방향성을 적용하여 설문 내용을 분류하였다.

12) 단 각 제보자가 그림설명 과제를 언어학적 연구의 실험로 여기지 않도록 그림설명 과제를 통한 언어 조사를 마친 후 언어 태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연령층	여성	M3	7	7	6	20	6	9	5	20
		M4	7	9	5	21	6	10	5	21
		M5	8	10	6	24	6	11	6	23
		F1	8	9	6	23	6	11	4	21
		F2	11	10	8	29	3	9	4	16
		F3	8	9	6	23	6	9	5	20
		F4	8	9	6	23	6	11	5	22
		F5	9	13	6	28	6	9	4	19
	남성	M1	7	6	6	19	7	12	4	23
		M2	4	10	7	21	6	8	4	18
		M3	7	8	7	22	6	11	6	23
		M4	8	10	6	24	5	8	5	18
		M5	8	10	6	24	5	8	5	18
		F1	5	9	7	21	3	9	7	19
		F2	9	12	7	28	7	11	7	25
		F3	8	10	6	24	6	9	5	20
		F4	8	11	7	26	6	10	5	21
		F5	8	8	6	22	6	12	5	23

<표 8> 전체 제보자 언어 태도 설문 결과

<표 8>은 각 제보자의 설문 응답에 따라 언어 태도 점수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하 논의는 각 제보자의 언어 태도 점수를 사회적 변인과 연관하여 살펴본 후, 그러한 언어 태도가 말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언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세대	서울방언 평균	경상방언 평균	차이 평균
고연령층	23.6	20.8	2.8
저연령층	23.1	20.8	2.3

<표 9> 세대에 따른 언어 태도 설문 전체 평균

<표 9>는 세대에 따른 언어 태도의 경향을 살펴보면 고연령층 제보자 10명의 서울방언 지향성 평균은 23.6, 경상방언 지향성 평균은 20.8이다. 저연령층 제보자 10명의 서울방언 지향성 평균은 23.1, 경상방언 지향성 평균은 20.8이다. 각 세대에서 경상방언에 대한 지향성은 동일하나, 서울방언에 대한 지향성은 저연령층에서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제보자 집단 모두 서울방언 지향성이 경상방언 지향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대에 따른 언어 태도의 경향을 언어 태도의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세대	우월성		사회적 매력		소통성	
	서울	경상	서울	경상	서울	경상
고연령층	8.3	5.8	9.3	10.1	6.0	4.9
저연령층	7.2	5.7	9.4	9.8	6.5	5.3

<표 10> 세대에 따른 우월성, 사회적 매력, 소통성 평균

고연령층 제보자의 서울방언 우월성 평균은 8.2, 사회적 매력은 9.3, 소통성은 6.0이다. 경상방언 우월성은 5.8, 사회적 매력은 10.1, 소통성은 4.9이다. 저연령층 제보자 10명의 서울방

언어 우월성은 7.2, 사회적 매력은 9.4, 소통성은 6.5이고, 경상방언 우월성은 5.7, 사회적 매력은 9.8, 소통성은 5.3이다. 앞서 경상방언에 대한 지향성이 전체값에서는 동일하게 나왔으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소통성에서 저연령층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방언이 저연령층에서는 지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서울방언 언어 태도 지향의 우월성에서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점수가 낮다. 이는 이미 저연령층이 경상방언과 서울방언을 인지하는 언어 차이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서울방언 평균	경상방언 평균	차이 평균
남성	22.0	21.0	1.0
여성	24.7	20.6	4.1

<표 11> 성별에 따른 언어 태도 설문 평균

<표 11>은 성별에 따른 언어 태도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세대에 따른 차이보다 더 뚜렷하다. 여성 제보자 10명의 서울방언 지향성 평균은 24.7, 경상방언 지향성 평균은 20.6이다. 남성 제보자 10명의 서울방언 지향성 평균은 22.0, 경상방언 지향성 평균은 21.0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서울방언 지향성이 다소 강하고 경상방언 지향성은 다소 낮다. 다만 두 제보자 집단 모두 서울방언 지향성이 경상방언 지향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우월성		사회적 매력		소통성	
	서울	경상	서울	경상	서울	경상
남성	7.3	6.0	8.7	9.9	6.0	5.1
여성	8.2	5.5	10.0	10.0	6.5	5.1

<표 12> 성별에 따른 우월성, 사회적 매력, 소통성 평균

성별에 따른 언어 태도의 경향을 보면 남성 제보자의 서울방언 우월성은 7.3, 사회적 매력은 8.7, 소통성은 6.0이다. 경상방언 우월성은 6.0, 사회적 매력은 9.9, 소통성은 5.1이다. 여성 제보자의 서울방언 우월성은 8.2, 사회적 매력은 10.0, 소통성은 6.5이고 경상방언 우월성은 5.5, 사회적 매력은 10.0, 소통성은 5.1이다. 두 집단 모두 모든 항목에서 서울방언 지향성이 더 높으며, 특히 사회적 매력 항목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큰 폭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여성이 서울방언에 대해 남성보다 우호적이고, 이를 수용하는 언어 변화에 대해 적극적일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성별	세대	서울방언 평균	경상방언 평균	차이 평균
여성	고연령층	25.2	19.6	5.6
	저연령층	24.2	21.6	2.6
	계	24.7	20.6	4.1
남성	고연령층	22.0	22.0	0
	저연령층	22.0	20.0	2.0
	계	22.0	21.0	1.0

<표 13> 성별과 세대에 따른 언어 태도 결과 평균

<표-13>은 성별 및 세대에 따른 언어 태도의 종합적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방언에 대한 지향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고연령층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남성 고연령층 및 저연령층이다. 경상방언에 대한 지향이 가장 높은 집단은 남성 고연령층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여성 고연령층이다. 즉 여성 고연령층 집단은 서울방언에 대한 지향이 가장 높고, 경상방언에 대한 지향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또한 남성 고연령층 집단은 서울방언에 대한 지향이 가장 낮고, 경상방언에 대한 지향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고연령층 집단의 지향성 차이는 5.6으로 가장 높으며, 남성 고연령층 집단의 지향성 차이는 0로 가장 낮다. 정도성의 차이는 있으나 남성 고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서울방언 지향성이 경상방언 지향성보다 기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 언어 태도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서울방언 지향성에 대해 고연령층 여성(25.2)과 고연령층 남성(22.0), 저연령층 여성(24.2)과 저연령층 남성(22.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서울방언 지향성이 더 높다. 언어 태도의 항목 중 특히 사회적 매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서울방언에 대해 우호적이고 언어 개신자로서 언어 변화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세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서울방언 지향이 높다. 이는 언어 태도의 항목 중 특히 우월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저연령층에서 두 방언 간의 차이가 고연령층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대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이던 말 조정의 수행 양상과는 달리, 언어 태도의 경우 성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 태도의 양상은 다른 사회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말 조정이라는 언어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언어 태도에 있어 공통적으로 높은 서울방언 지향성을 나타내는 여성 화자 집단이 상반된 말 조정 수행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고연령층 여성의 경우 XAB 지각 유사성 실험에서 서울방언으로 말 조정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남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다만 저연령층 여성은 남성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던 것이다.

고연령층 여성 화자는 높은 서울방언 지향성이라는 태도가 서울 방언과의 일시적 접촉 환경에서 더 높은 정도의 말 조정이라는 언어 행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연령층 여성 화자가 다른 화자 집단에 비해 높은 지각 유사성 실험 결과를 나타낸 점에서 확인된다. 반면 저연령층 여성 화자는 높은 서울방언 지향성이라는 태도가 방언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서울방언과의 접촉 이전의 언어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미 개신자로서 서울방언형을 받아들임으로서 지각 유사성 실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다. 언어 자료의 수집이 보완되어 양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면 언어 태도 분석 결과가 각 화자 집단의 말 조정이라는 언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결론 생략)

참고문헌

- 장병서·김계수(2013), 『사회과학 통계분석』, 한나래아카데미.
- 강유진(2016), 「Dialect Contact and Linguistic Accommodation— A Case Study of Standard Seoul Korean Speaker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언어과학연구』 79, 언어과학회, 1-19.
- 강현석(2010), 「충남 지역 화자들의 방언 구획, 방언 태도 및 인지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8:2, 한국사회언어학회, 249-286.
- 김기호(2000), 「억양 음운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 비교: ToBI 와 K-ToBI 를 중심으로」, 『언어학』 8:1, 대한언어학회, 1-24.
- 김덕호·강유진(2015), 「Perceptual Dialectology and Language Attitudes— A View from Gyeongsang Dialect Speakers」, 『언어과학연구』 75, 언어과학회, 1-22.
- 김덕호(2014), 「한국인의 방언 태도에 대한 추이 연구」, 『어문학』 126, 한국어문학회, 1-36.
- 김덕호(2017),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 1 :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5-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사전』, 태학사.
-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 안미애(2006), 「대구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접속구의 경계 성조 : 대화체와 낭독체의 비교」, 『음성과학』 13, 한국음성과학회, 107-126.
- 이병운(1998), 「중부방언, 경남방언, 전남방언의 억양에 대한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 8, 우리말학회 1-62.
- 이익섭(201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재섭(2020), 「지역방언 화자의 중앙방언 습득 양상 연구」, 사회언어학 28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69-200.
- 조준학 외(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언어접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연구」, 語學研究 17권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홍미주(2011), 「대구지역어의 음운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미주(2013),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방언학』 18호, 한국방언학회, 325-326.
- 홍미주(2019), 「‘자기’의 용법 확대와 언어변화 개신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27:3, 한국사회언어학회, 279-305.
- Giles, H. et al.(1973). Towards a theory of interpersonal accommodation through language: some Canadian data. *Language in Society* 1542, 177-192.
- Giles, H. and Coupland. N.(1991), *Contexts of Accommodation: Developments in Applied Socio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inger, Stephen. D. 1998. Echoes of echoes? An episodic theory of lexical access. *Psychological Review* 105. 251-279.
- Kim et al.(2011). Phonetic convergence in spontaneous conversations as a function of interlocutor language distance. *Laboratory Phonology*, 2, 125-156.

- Labov, W.(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Namy et al.(2002), Gender differences in vocal accommodation: The role of percep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1. 422- 432.
- Pardo, Jennifer S. 2006. On phonetic convergence during conversational interaction. Journal of Acoustic Society of America 119. 2382-2393.

부록 #1. 제보자 구성

1) 언어자료 조사 제보자(그림설명 과제 발화자)

제보자	성별	연령	세대	경상 지역 거주 기간	언어 태도	
					서울방언 지향성	경상방언 지향성
OF1	여성	55세	고연령층	55년	23/36	21/36
OF2	여성	54세	고연령층	54년	29/36	16/36
OF3	여성	51세	고연령층	51년	23/36	20/36
OF4	여성	54세	고연령층	54년	23/36	22/36
OF5	여성	53세	고연령층	27년	28/36	19/36
OM1	남성	55세	고연령층	55년	22/36	22/36
OM2	남성	57세	고연령층	57년	23/36	24/36
OM3	남성	56세	고연령층	50년	20/36	20/36
OM4	남성	58세	고연령층	58년	21/36	21/36
OM5	남성	54세	고연령층	50년	24/36	23/36
YF1	여성	28세	저연령층	28년	21/36	19/36
YF2	여성	26세	저연령층	26년	28/36	25/36
YF3	여성	27세	저연령층	27년	24/36	20/36
YF4	여성	25세	저연령층	25년	26/36	21/36
YF5	여성	21세	저연령층	21년	22/36	23/36
YM1	남성	23세	저연령층	23년	19/36	23/36
YM2	남성	29세	저연령층	29년	21/36	18/36
YM3	남성	31세	저연령층	11년	22/36	23/36
YM4	남성	28세	저연령층	26년	24/36	18/36
YM5	남성	26세	저연령층	26년	24/36	18/36

2) 말 조정 평가 참여자(XAB 지각 유사성 실험 청취자)

참여자	성별	연령	출생지역
PS1	남	33	경상북도
PS2	남	27	경상북도
PS3	남	27	경상북도
PS4	남	31	경상북도
PS5	남	26	경상북도
PS6	남	22	경상북도
PS7	남	33	경상북도
PS8	남	25	경상북도
PS9	남	28	경상북도
PS10	남	26	경상북도
PS11	남	37	경상북도
PS12	남	34	경상북도
PS13	남	33	경상북도
PS14	남	33	경상북도
PS15	남	31	경상북도
PS16	남	36	경상북도
PS17	남	36	경상북도
PS18	여	22	경상북도
PS19	남	26	경상북도
PS20	남	26	경상북도

부록 #2. 언어 태도 조사 설문

경상방언에 대한 인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세련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표준어이다	①	②	③	④
발음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정감있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지적으로 들린다 (=지성적으로 들린다)	①	②	③	④
다른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많이 배운 사람처럼 들린다	①	②	③	④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믿음직스럽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서울방언에 대한 인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세련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표준어이다	①	②	③	④
발음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정감있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지적으로 들린다 (=지성적으로 들린다)	①	②	③	④
다른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많이 배운 사람처럼 들린다	①	②	③	④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믿음직스럽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 조사 시론 - 20대와 50대 한국인 화자 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최준호(서울대)

<목차>

1. 들어가며
2. 방언 이미지 조사 방법에 관한 기초적 논의
 - 2.1. 선행 연구
 - 2.2. 설문지 설계
 - 2.3. 설문 조사 참여자
3. 20대 화자와 5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 조사
 - 3.1. 2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 조사
 - 3.2. 5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 조사
 - 3.3. 특정 방언의 선호 이유
4. 20대 화자와 5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조사
 - 4.1. 2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 4.2. 5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 4.3. 20대 화자와 5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비교
5. 나가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이 글은 20대와 50대 한국인 화자들이 한국의 방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를 조사하기 위한 시론의 성격으로 작성된다. 언어 태도¹⁾란, 우리가 언어에 대해 가지게 되는 어떠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정승철 2013: 261). 이러한 언어 태도는 한 개인의 말에 대하여 가질 수도 있으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반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언에 대해 가지는 언어 태도로, 흔히 서울 방언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경상도 방언은 투박하고 무뚝뚝하다고 느끼는 것(이익섭 1994/2010: 275) 등을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라고 부를 수 있다.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 조사는 사회언어학의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방언 이미지’²⁾ 조사와 관련된 논저를 참조하면서 한국인이 방언에 가지고 있는 언어 태도를 조사해

1)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를 가리키는 말로 이전에는 ‘언어 의식’ 또는 ‘방언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방언연구회 2001: 274). 앞의 글에서는 내적 사고 작용을 가리키는 ‘의식’보다는 구체적인 반응까지 포함하는 ‘태도’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익섭(1994/2000: 276)의 각주 1에서는 ‘언어 의식’ 또는 ‘방언 의식’ 등의 용어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인 듯하니, ‘언어 태도’란 용어가 좀 더 널리 쓰여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언어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나, ‘방언 이미지’라는 용어 또한 사용할 것이다.

보고자 한다.

한국인이 여러 방언에 가지는 언어 태도 중에서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물음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은 여러 방언 중에서 어떤 방언을 가장 선호하는가? 이러한 방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방언에 대한 선호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는가? 즉, 20대가 선호하는 방언과 50대가 선호하는 방언은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셋째, 한국인은 한국의 여러 방언에 대해 어떠한 방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방언 이미지는 세대에 따라서 변화하는가? 변화한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방언 이미지 조사 방법에 관한 기초적 논의

2.1. 선행 연구

특정한 방언에 대한 평가는 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Trudgill 2010: 8).³⁾ 따라서, 하나의 방언 혹은 변이형에 대해 화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는 사회언어학의 주요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런데 한국어 연구에서는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방언연구회 2001: 275).⁴⁾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약 40여 년 전부터 방언 이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서도 방언 이미지에 대한 조사는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도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방언 이미지의 조사 방법론을 고안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방언 이미지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소개한 학자는 井上史雄라고 생각된다. 특히, 井上史雄(1980L)에서는 일련의 선행 연구를 요약하면서, 16개의 평가 단어를 통해 방언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의미 미분 척도

2) '방언 이미지'라는 용어는 일본 사회언어학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일본어학계에서 '방언 이미지'라는 용어는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라는 용어와 지시하는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 두 용어 중에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라는 용어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길고, '방언 이미지'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때까지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와 '방언 이미지'라는 용어를 편의에 따라 함께 사용할 것이다.

3) Trudgill(2010)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억양에 대한 영국과 미국에서의 가치 평가는 서로 다르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농촌 지역의 억양은 유쾌하고(pleasant), 매력적이며(charming), 예스럽고(quaint), 유쾌하다(amusing)고 판단하고, 도시 지역의 억양은 추하고(ugly), 경솔하며(careless), 불친절하다(unpleasant)고 판단한다. 그런 반면, 미국에서는 농촌 지역의 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Trudgill(2010)은 이러한 차이는 농촌 생활이 두 나라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와 관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언어에 대한 태도가 언어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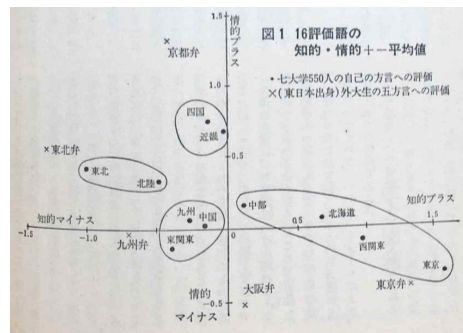
4) 표준어 및 방언 태도에 대한 연구 성과로 이정민(1981),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립국어원(2005, 2010, 2015)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화자 자신이 사용하는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방언들에 대한 언어 태도가 어떠한지는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semantic differential scale) 측정법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개의 평가 단어를 ‘知的’ 플러스, ‘知的’ 마이너스, ‘情的’ 플러스, ‘情的’ 마이너스로 다시 나누었다. 井上史雄(1980ㄴ)에서 방언 이미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16개의 평가 단어는 아래와 같다.

(1) 井上史雄(1980ㄴ)에서 방언 이미지 측정 평가 단어

- ‘知的’ 플러스: 도회적인(都會的), 근대적인(近代的), 표준어에 가까운(標準語に近い), 발음이 분명한(歯切れがよい), 정확한(正しい)
- ‘知的’ 마이너스: 냉엄한(きびしい), 호쾌한(豪快), 난폭한(亂暴)
- ‘情的’ 플러스: 대범한(大らか), 소박한(素朴), 부드러운(やわらかい)
- ‘情的’ 마이너스: 이전의 말을 사용하는(昔の言葉を使う), 수수한(地味), 무거운(重い), 사투리가 있는(なまりがある), 불명료한(不明瞭)

그리고 응답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x축을 ‘知的’, y축을 ‘情的’으로 하여 사분면에 방언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사진 1> 16개 평가 단어의 知的, 情的 +- 평균값

井上史雄(1980ㄴ)에서 방언 이미지를 ‘知的’과 ‘情的’의 두 축으로 나눈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언중은 표준어에 대해 ‘도시적이다, 세련되었다, 정확하다’ 등과 같이 知的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영악하다’라는 感情的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한편, 방언에 대해서는 ‘촌스럽다, 투박하다’ 등과 같이 知的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나, 역시 ‘솔직하다, 순박하다’ 등과 같이 感情的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井上史雄(1980ㄴ)에서와 같이 ‘知的’과 ‘感情的’⁶⁾의 두 축으로 나누어 방언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방언 이미지를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永瀬治郎(2015)은 방언 이미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서, 역시 의미 미분 척도 측정법을 사용하여 방언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井上史雄(1980ㄴ)의 조사 방법론을 받아들여, 27쌍의 평가 단어를 바탕으로 일본 전국의 9개의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언어

5) 의미 미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라는 측정법은 양쪽 끝에 정반대의(한쪽은 가장 좋은 쪽이고, 다른 한쪽은 가장 나쁜 쪽의) 의미가 되는, 주로 형용사로 표현되는 특징을 배치하고 그 사이를 적당한 수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게 하는 방식이다(이익섭 1994/2007: 283).

6) 井上史雄(1980ㄴ)에서는 ‘情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感情的’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感情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태도를 조사하려 하였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교토(京都), 나고야(名古屋), 도쿄(東京) [스기나미(杉並), 고마에(狹江)], 이바라키(茨城), 아오모리(青森) 6개 지역의 학생 209명, 보호자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각 방언을 대표하는 조사지역을 선정했으면서도 조사지역에 따라 방언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학생 209명 전체, 보호자 125명 전체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타 방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성별, 학력, 보호자의 연령대 등의 변수 또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아쉽다.

2.2. 설문지 설계

본고는 방언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⁷⁾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본고의 설문 조사 결과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량의 자료가 필요한 연구의 특성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기 전까지 세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수정하려고 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분에서는 방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조사하려 하였다.

(2) 제1부분의 질문

1. 귀하의 연령을 알려 주십시오. (한국 나이 기준)
2. 귀하의 성별을 알려 주십시오.
3. 귀하의 최종 학력을 알려 주십시오.
4. 귀하께서 15살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곳은 어디입니까?⁸⁾
5.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6.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7. 귀하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사용하셨던) 방언은 무엇입니까?
8. 귀하의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사용하셨던) 방언은 무엇입니까?
9. 귀하께서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했던 방언은 무엇입니까?

제2부분에서는 어떤 방언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려 하였다.

(3) 제2부분의 질문

1. 다음의 방언 (사투리) 중, 귀하께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표준어를 제외하고, TV나 영화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방언은 다음 중 어떤 방언입니까?
4. TV나 영화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배역(혹은 배우 이름)이 기억나신다면 적어 주십시오.

7) 본고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2019년 6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양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추후에 더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8) 이 문항은 방언을 모어로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다. 정승철(2018: 203)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어학계에서는 만 13세(대개는 중학생) 정도까지는 언어(또는 방언)를 외국어(또는 타 방언)가 아니라 모어로 습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할 당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접해 왔는지와 대중 매체의 영향이 방언의 호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제1부분과 제2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두 요인이 방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제3부분에서는 방언 이미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단어(平價單語)’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방언 이미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순서는 ‘표준어 - 제주 방언 - 경상 방언 - 강원 방언 - 전라 방언 - 충청 방언 - 연변 방언 - 경상도 방언을 쓰는 “남자”의 말 - 경상도 방언을 쓰는 “여자”의 말’의 순서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에게 이미지가 가장 명확할 것으로 추측되는 표준어와 그와 반대되는 제주 방언을 가장 먼저 배치해서 전체적인 틀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에는 인구수가 많은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을 교차하여 배열하였다.

한편, 경상도 방언을 쓰는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에 대한 언어 태도 또한 조사하려고 하였다. 이는 방언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방언 화자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언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익섭(1994/2007: 276)에서는 언어 태도가 좁게는 언어 자체에 대한 태도만을 가리키나, 언어 사용자에게 대한 태도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였다. ‘경상도 방언’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좁은 의미의 언어 태도라고 할 수 있고,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남성 혹은 여성의 말’에 대한 이미지는 넓은 의미의 언어 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둘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논의해 보려고 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까지는 행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방언 이미지 평가 단어는 井上史雄(1980), 永瀬治郎(2015)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井上史雄(1980)에서 제시한 ‘知的’, ‘感情的’이라는 두 축이 방언 이미지를 조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받아들여려고 하였다. 다만, 永瀬治郎(2015)에서 27쌍의 평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너무 많다는 판단하에 16쌍의 평가 단어를 사용하였다.

‘知的’, ‘感情的’ 축을 이루는 평가 단어들은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의 두 쌍을 제시하여서, 7단계 안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이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이기에 방언 이미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 2> 의미 미분 척도 측정법에 의한 방언 이미지 측정

한편, ‘知的’, ‘感情的’의 두 축 외에도 방언에 대한 고정 관념(stereo type)을 조사할 수 있는 평가 단어들을 설정하였다. 예컨대, 서울 방언은 애교가 있고, 경상도 방언은 무뚝뚝하고,

충청도 방언은 에둘러 말하고, 말의 속도가 느리다 등과 같은 방언에 대한 고정 관념이 존재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평가 단어들은 이러한 고정 관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고정 관념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 단어들도 쌍으로 제시되었으나, 다만, 어느 한쪽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점수화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평가 단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4) 방언 이미지 평가 단어 목록

- ㄱ. 知的: 촌스러운-도시적인, 비효율적인-효율적인, 발음이 불명확한-발음이 명확한, 이해하기 어려운-이해하기 쉬운, 투박한-세련된, 정중하지 않은-정중한
- ㄴ. 感情的: 싫은-좋은, 답답한-시원시원한, 영악한-순박한, 쌀쌀맞은-다정한, 거친-부드러운, 멧없는-멧있는
- ㄷ. 고정 관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속마음을 드러내는, 무뚝뚝한-애교가 있는, 에둘러 말하는-직설적인, 느린-빠른

2.3. 설문 조사 참여자

본 설문 조사에는 총 124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중 남자는 27명, 여자는 97명이다. 설문 조사 참여자의 모집은 주로 필자의 지인에게 설문 조사에 응답해 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설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정 성별, 특정 지역, 특정 연령에 편중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래의 <표 1>은 15세까지의 성장지에 따라, <표 2>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설문 조사 참여자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15세까지의 성장지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북한	연변	중국	일본	계
20대	남	9	6	2	2	1			2	1			23
	여	13	7	2	11	2			1	1	1		38
30대	남												
	여	1		1	2	2	1		10				17
40대	남			1	2								3
	여	5		1	2	2							10
50대	남	1											1
	여	9	5	5	5	3	1						28
60대	남												
	여	1	1	1		1							4
계		39	19	13	24	11	2		13	2	1		124

<표 2> 현재 거주 지역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북한	연변	중국	일본	계
20대	남	19	2	0	1	0						1	23
	여	27	9	0	1	0						1	38
30대	남	0	0	0	0	0							0
	여	12	4	0	1	0							17
40대	남	2			1								3

	여	5	3	1	1								10
50대	남		1										1
	여	8	11	1	2	5		1					28
60대	남												0
	여	3	1										4
계		76	31	2	7	5	0	1	0	0	0	2	124

그런데 너무 적은 인원의 응답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방언 이미지를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 집단의 방언 이미지를 드러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수가 적어도 스무 명보다는 많은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방언 이미지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표 3> 본고의 분석 대상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북한	연변	중국	일본	계
20대	남	9	6	2	2	1			2	1			23
	여	13	7	2	11	2			1	1	1		38
50대	남	1											1
	여	9	5	5	5	3	1						28
계		32	18	9	18	6	1	0	3	2	1	0	90

3. 20대 화자와 5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 조사

제3장에서는 특정 방언에 대해 세대별 선호도가 있는지, 선호도가 있다면 그러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설문지 제2부분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아래에서 설문지 제2부분의 질문과 선택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5) 설문지 제2부분의 질문

1. 다음의 방언(사투리) 중, 귀하께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표준어를 제외하고, TV나 영화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방언은 다음 중 어떤 방언입니까?
4. TV나 영화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배역(혹은 배우 이름)이 기억나신다면 적어 주십시오.

질문 1에 대한 선택지로는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하게 호감을 느낀다, 평상시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로 구성하였다. 표준어는 방언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표준어에 대한 선호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지에 포함하였다. 또한, 조사의 정밀함을 위해서는 ‘서울 방언’ 역시 선택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조사이기에 ‘표준어’와 혼동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서울 방언’은 선택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한국의 방언 구획은 중부방언(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영서 지역), 서남방언(전라북도, 전라남도), 서북방언(평안북도, 평안남도), 동남방언(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영동 지역), 동북방언(함경북도, 함경남도), 제주방언(제주도)으로 나눌 수 있다(정승철 2013:

157). 하지만 방언 이미지를 조사할 때는 위와 같은 방언 구획을 토대로 조사하기 보다는 지역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지역과 방언 구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강원도 영서 지역’과 ‘강원도 영동 지역’을 나누어서 방언 이미지를 가지기보다는 ‘강원도 방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3.1. 2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 조사

<표 4> 20대의 선호 방언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2	0	6	3	3	2	3	2	2	23
여	0	2	9	6	1	4	7	1	8	38
계	2	2	15	9	4	6	10	3	10	61
비율	3%	3%	25%	15%	7%	10%	16%	5%	16%	100%

20대 전체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방언을 조사해 본 결과, 경상 방언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아래에서 15세까지 거주한 지역에 따른 방언 호감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서울·경기 지역에서 15세까지 자란 20대의 방언 선호도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1	0	5	1	2	2	3	1	0	15
여	0	1	3	3	1	3	4	0	5	20
계	1	1	8	4	3	5	7	1	5	35
비율	3%	3%	23%	11%	9%	14%	20%	3%	14%	100%

서울·경기 지역에서 15세까지 거주한 20대 화자의 경우, 경기 방언이나 표준어에 호감을 느낀다고 하는 답변과 경상 방언에 호감을 느낀다고 하는 답변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특정 방언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에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다.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방언은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했던 방언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대 남성의 경우, 강원 방언(1명), 제주 방언(2명), 충청 방언(1명), 표준어(2명)에 호감을 느낀다고 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친근해서” 등의 답변을 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했던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과, “가장 호감을 느끼는 방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경상 방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상 방언에 가장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상 방언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20대 서울·경기 지역 남성 5명 중에,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했던 방언이 경상 방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이 경상 방언을 “솔직해 보인다”, “친근하고 시끄러운 느낌이 좋다”, “정기 느껴지는 말투”, “남자다워서”, “억양 또는 어휘”, “시크한 매력이 있다” 등의 이유로 좋아한다고 밝혔다.

20대 서울·경기 지역 여성의 응답 역시 남성의 응답과 비슷하다. 전라 방언에 호감을 가진

다고 응답한 3명 모두 전라 방언이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한 방언이라고 하였다. 한편, 제주 방언에 호감을 가지는 이유는 “가장 독특해서”라고 하였고, 충청 방언에 호감을 가지는 이유는 “많이 들어서 익숙함”, “느긋하고 정감가서” 등으로 답변하였다. 표준어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가장 유용한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익숙해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경상 방언의 경우, 친척들 대다수가 경상도 방언 화자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으나(1명),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로 인해”, “사투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억양이 경상도라서”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직접 경험했던 방언은 익숙함, 편안함 등의 感情的으로 ‘+’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지 않은 방언인 경상도 방언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자란 20대 남성 화자들이 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다른 방언에 비해 경상도 방언에 형성되어 있는 방언 이미지가 긍정적이기 때문일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표 6> 경상도에서 15세까지 자란 20대의 방언 선호도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1					1	2
여		1	5				2		3	11
계	0	1	5	1	0	0	2	0	4	13
비율	0%	8%	38%	8%	0%	0%	15%	0%	31%	100%

다음으로, 경상도에서 15세까지 자란 화자들은 가장 친숙한 방언으로 모두 다 경상 방언을 선택하였다. 경상도 남성에 대해서는 표본이 그리 많지 않아서 확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경상도 여성의 경우 본인의 방언에 호감을 가진다고 많이 응답하였다. 이들이 경상도 방언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비슷한 지역이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빠르고 같은 사용자끼리 소통이 간결해서”, “경상도 출신이라 가장 많이 접했으며 실제 사용하기도 하므로”, “많이 들어 와서” 등으로 답하였으며, 표준어에 호감을 가지는 이유로는 “억양이 부드러워서”, “편해서” 등의 답을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경상도 방언 화자들은 본인의 방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된 적이 있는데(국립국어원 2005, 2010, 2015), 이번 설문 조사의 결과 역시 그러한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표 7> 전라도에서 15세까지 자란 20대의 방언 선호도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1				1		2
여				2						2
계	0	0	0	3	0	0	0	1	0	4
비율	0%	0%	0%	75%	0%	0%	0%	25%	0%	100%

전라도에서 15세까지 자란 화자들은 표본이 그리 많지 않아서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본 연구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되려면,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 수, 지역별 응답자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편차가 무척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경상도에서 자란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방언에 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고 생각된다.

응답자 수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 지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15세까지 나고 자란 20대 화자들은 본인 방언에 대해 강한 호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국립국어원 2005, 2010, 2015). 흥미로운 점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15세까지 나고 자란 20대 화자들이 표준어나 경기 방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것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경상 방언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들은 경상 방언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익숙하게 들어온 방언이 아님에도, 또, 부모님이 경상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경상 방언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50대의 방언 선호도를 살펴본 이후에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한다.

3.2. 5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 조사

다음으로, 50대 화자의 선호 방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1에서 2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를 살펴보았으므로, 그 결과와 비교하면서 5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표 8> 50대 화자의 방언 선호도 조사

(*마지막 행의 음영은 20대 화자의 선호 방언 비율임)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1						1
여	5	1	6	5	1	1	2	2	5	28
계	5	1	6	6	1	1	2	2	5	29
비율	17%	3%	21%	21%	3%	3%	7%	7%	17%	100%
비율	3%	3%	25%	15%	7%	10%	16%	5%	16%	100%

50대 화자 역시 20대 화자와 마찬가지로 경상 방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라 방언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화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강원 방언에 대한 호감도가 20대 화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강원 방언에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5명 중에, 어렸을 때부터 강원 방언을 친숙하게 접했던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4명은 강원 방언에 호감을 가지는 이유로 “항상 들어도 웃을 수 있어서”, “맛갈나서”, “재밌게 들려서”, “정감이 가서” 등으로 답하였다.

<표 9> 서울·경기 지역에서 15세까지 자란 50대의 방언 선호도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1						1
여	2		3	2	1		2	1	3	14
계	2	0	3	3	1	0	2	1	3	15
비율	13%	0%	20%	20%	7%	0%	13%	7%	20%	100%
비율	3%	3%	23%	11%	9%	14%	20%	3%	14%	100%

15세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주했던 50대 화자들의 경우 특정 방언에 대해 선호도가 몰린다고보다는, 방언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라 방언에 가장 호감이 간다는 50대 남성 화자의 경우, 전라 방언이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50대 여성 화자들의 경우, 강원 방언의 1명, 경상 방언 2명, 전라 방언 1명은 방언을 선호하는 이유로 “익숙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용했던 말이어서” 등의 응답을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했던 방언이 아닌 방언에 호감을 가지는 경우, 경상 방언에 대해 “친근감이 느껴지며 여자는 때론 사랑스럽게 남자는 진중한 남자다움이 느껴질 때가 있다”, 전라 방언에 대해 “소설에서 많이 봤고 주위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들었다”, 제주 방언에 대해 “내용을 알 수 없고 많이 달라서”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표 10> 경상도에서 15세까지 자란 50대의 선호 방언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0
여	1	1	2	1						5
계	1	1	2	1	0	0	0	0	0	5
비율	20%	20%	40%	20%	0%	0%	0%	0%	0%	100%
비율	0%	8%	38%	8%	0%	0%	15%	0%	31%	100%

<표 11> 전라도에서 15세까지 자란 50대의 선호 방언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모두 다 비슷	별 생각 없음	계
남										0
여	2			2					1	5
계	2	0	0	2	0	0	0	0	1	5
비율	40%	0%	0%	40%	0%	0%	0%	0%	20%	100%
비율	0%	0%	0%	75%	0%	0%	0%	25%	0%	100%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15세까지 자란 50대 화자의 경우, 충분한 응답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방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이유로 답변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라도에서 15세까지 자란 50대 여성 화자의 경우, 전라 방언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이유로 “고향 방언이 정감이 많이 가고 편안합니다”, “친척들이 모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사투리를 들으면 고향에 온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짐.” 등의 대답을 하였다. 한편, 경상도에서 15세까지 자란 50대 여성 화자의 경우 경상 방언에 호감을 가지는 이유로, “귀에 익숙해서”, “자주 접해서”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전라 방언에 호감을 가지는 이유로는 “외가가 전라도라” 등의 답변을 하였다.

50대 화자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했던 방언, 부모님이 사용하던 방언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했던 방언이 강원 방언이 아님에도, 강원 방언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20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50대 화자들의 경우, 서울·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20대 남성 화자들이 경상 방언에 대해 긍정적인 방언 이미지를 가지고 있듯이, 강원 방언에 대해 긍정적인 방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3. 특정 방언의 선호 이유

본고에서는 특정 방언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익숙한 방언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요인 모두 특정 방언을 선호하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먼저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20대 응답자 61명 중,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접했던 방언과 선호하는 방언이 일치하는 응답자 수는 25명(41%)에 해당하며, 50대 응답자 29명 중에서는 11명(38%)에 해당한다. 다만, 이 비율은 세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50대 응답자들 또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보다 더 높은 연령의 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접해 왔던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요인, 즉 대중 매체 또한 방언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TV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방언 (20대)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방언 구분이 어려움	무응답	계
남		1	20	2						23
여		1	26	5		1		4	1	38
계	0	2	46	7	0	1	0	4	1	61
비율	0%	3%	75%	11%	0%	2%	0%	7%	2%	100%

<표 13> TV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방언 (50대)

	강원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제주 방언	충청 방언	표준어	방언 구분이 어려움	무응답	계
남				1						1
여	2	1	9	12		4				28
계	2	1	9	13	0	4	0	0	0	29
비율	7%	3%	31%	45%	0%	14%	0%	0%	0%	100%

TV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방언을 조사한 결과는 20대와 50대가 확연하게 나뉜다. 20대는 경상 방언을 많이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이지만, 50대는 전라 방언을 많이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상 방언을 많이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⁹⁾

정승철(2018: 197)에 따르면, TV 드라마 속에 이따금 등장하던 사투리 배역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2010년대에 TV 드라마 속에서 사용된 방언은 전국이 고루 분포한 가운데 경상도가 좀 많고 강원도가 극히 드물다고 하였다(정승철 2018: 198). TV 드라마에서 사용된 방언은 전국이 고루 분포하고 있고, 경상도가 조금 많을 뿐인데 20대 화자들이나 50대 화자들이 많이 접하였다고 대답한 결과는 이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아래는 20대 화자들이 TV나 영화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배역(혹은 배우 이름)으로 기억한다

9)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정승철 선생님께서 敎示해 주셨다.

고 응답한 것을 방언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6) TV나 영화에서 방언을 사용했다고 기억하는 배역 혹은 배우 이름 (20대)

강원도: 강혜정(웰컴투 동막골)

전라도: 영화 곡성, 김수미, 성동일[3](응답하라 시리즈), 영화 써니(심은경), 육성재

경상도: 강호동[2], 김성균(응답하라 1994), 김윤식[3], 성나정(응답하라 1994), 서인국(응답하라 1997), 송강호[2], 정우(응답하라 1994)[3], 영화 바람, 영화 해운대, 유오성, 응답하라 1994[2], 장동건, 정은지(응답하라 1997)[7], 조진웅, 최민식, 하정우(3), 황정민

충청도: 백종원, 황산벌

연변: 윤계상[2]

분명하지 않음: 광도원

([]안의 숫자는 중복 응답)

20대 화자들이 대중 매체에서 방언을 사용했던 것으로 떠올리는 배우 혹은 배역 중에는 경상도 방언으로 연기하는 배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44번의 응답 중에서 응답하라 시리즈와 관련된 응답이 18번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20대 화자들에게 응답하라 시리즈가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또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응답하라 1997의 주인공인 서인국, 정은지,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인 정우, 고아라가 모두 다 경상 방언을 사용했다는 점도 경상 방언에 대한 호감을 끌어 올리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중 매체 속에서 방언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실제로 그 방언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기여한다면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 매체 속에 등장하는 방언이 방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¹⁰⁾

한편, 50대의 경우 경상 방언보다도 전라 방언을 대중 매체에서 더 많이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7) TV나 영화에서 방언을 사용했다고 기억하는 배역 혹은 배우 이름 (50대)

전라도: 김수미[3], 백일섭

경상도: 강호동, 배정남[4], 정은지, 이만기, 이시연, 장동건, 홍진영, 황정민

충청도: 백종원, 황산벌, 윤문식, 최양락, 인교진

분명하지 않음: 남궁민, 김영옥, 주현

([]안의 숫자는 중복 응답)

50대 화자들이 TV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접한 방언으로 전라도 방언으로 선택했으면서도, 기억나는 방언을 사용하는 배역(혹은 배우 이름)으로는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배우나 배역을 많이 답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아마도 현재 대중 매체에 많이 사용되는 방언을 기억한 다기보다는, 이전 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

10) 이 조사가 시행된 이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흥행하였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남주 황용식(강하늘 분)은 강한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였다. 만일 보완 조사에서 충청도 방언의 호감도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중 매체에서의 방언 사용이 방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20대 화자와 5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조사

본고에서는 16쌍의 평가 단어를 바탕으로 한 의미 미분 척도 측정법을 통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방언 이미지를 조사해 보려고 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평가 단어 목록을 아래에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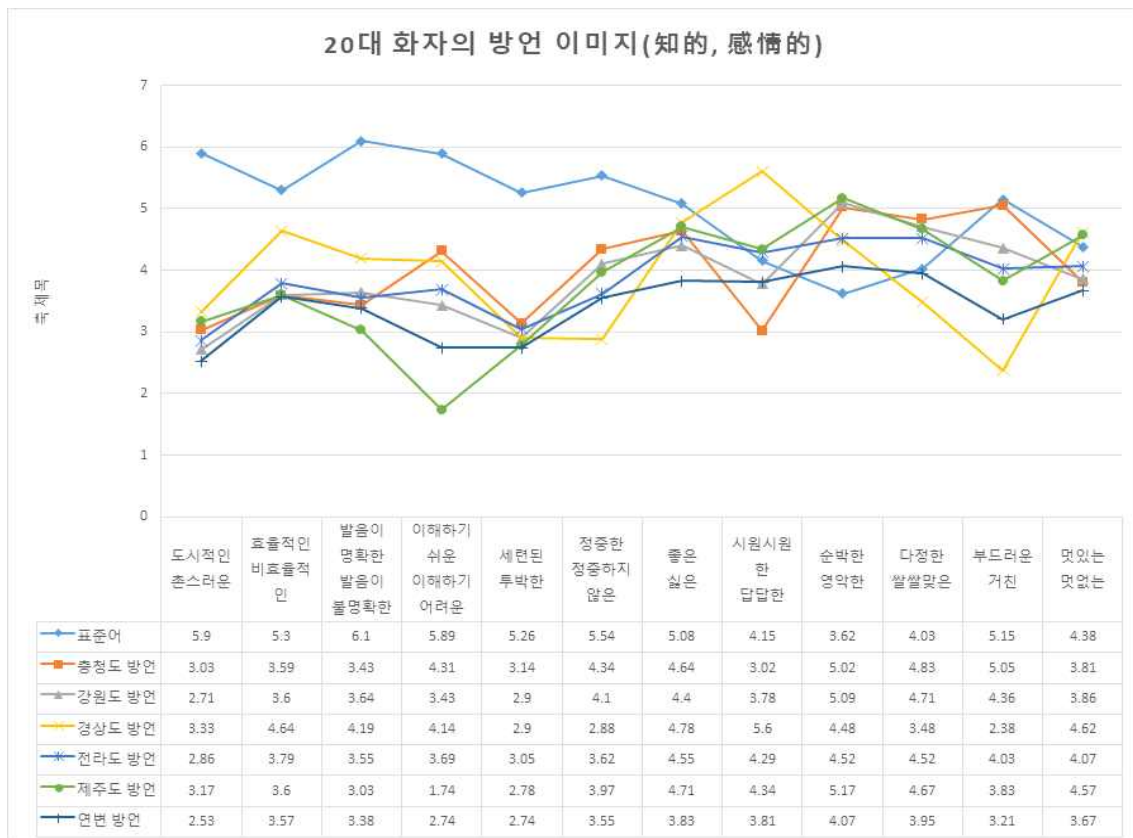
(8) 방언 이미지 평가 단어 목록

- ㄱ. 知的: 촌스러운-도시적인, 비효율적인-효율적인, 발음이 불명확한-발음이 명확한, 이해하기 어려운-이해하기 쉬운, 투박한-세련된, 정중하지 않은-정중한 (6개)
- ㄴ. 感情的: 싫은-좋은, 답답한-시원시원한, 영악한-순박한, 쌀쌀맞은-다정한, 거친-부드러운, 멧없는-멧있는 (6개)
- ㄷ. 고정 관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속마음을 드러내는, 무뚝뚝한-애교가 있는, 에둘러 말하는-직설적인, 느린-빠른 (4개)

본래 각 방언에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知的’ 축과 ‘感情的’ 축과 관련된 방언 이미지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4.1. 2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우선, 20대 화자가 각 방언에 대해 가지고 있는 ‘知的, 感情的’ 축과 관련된 이미지를 살펴본다.



먼저 ‘知的’인 축을 살펴보면, 표준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방언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화자들은 표준어에 대해 ‘도시적인’, ‘효율적인’, ‘발음이 명확한’, ‘이해하기 쉬운’, ‘세련된’, ‘정중한’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제주 방언의 경우 ‘발음이 불명확한’, ‘이해하기 어려운’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아마도 제주 방언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리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상 방언 역시 ‘知的’인 축에서 표준어에 이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나, ‘세련되기보다는 투박한’, ‘정중하기보다는 정중하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편, ‘感情的’인 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표준어에 대해서 20대 화자들은 ‘영악한’ ‘쌀쌀맞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영악한’은 모든 방언 중에 표준어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50대가 가지고 있는 표준어에 대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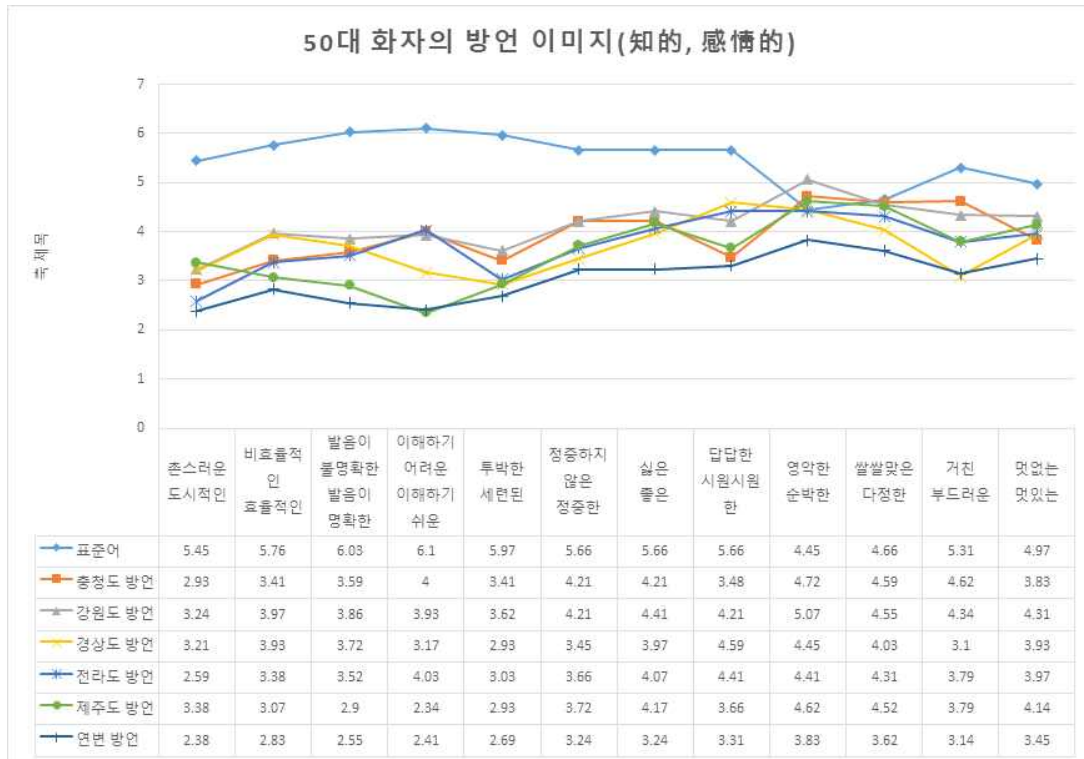
20대 화자들은 경상 방언에 대해 ‘좋은’, ‘시원시원한’, ‘멋있는’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멋있는’의 이미지는 모든 방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쌀쌀맞은’, ‘거친’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경상 방언은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경상 방언의 ‘쌀쌀맞은’, ‘거친’ 등의 평가가 정말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경상 방언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시크해서”, “남자다워서”라는 답변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들에게 ‘쌀쌀맞은’, ‘거친’ 등은 경상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知的인 축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은 제주 방언은 感情的으로는 ‘순박한’, ‘다정한’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충청 방언은 ‘답답한’, 경상 방언은 ‘시원시원한’, ‘거친’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방언에 대한 고정 관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변 방언의 경우, 제주 방언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感情的으로는 가장 ‘싫은’ 방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연변 방언, 그리고 조선족에 대해서 대중 매체에서 그리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역시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4.2. 5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50대 화자가 가지고 있는 방언 이미지는 20대 화자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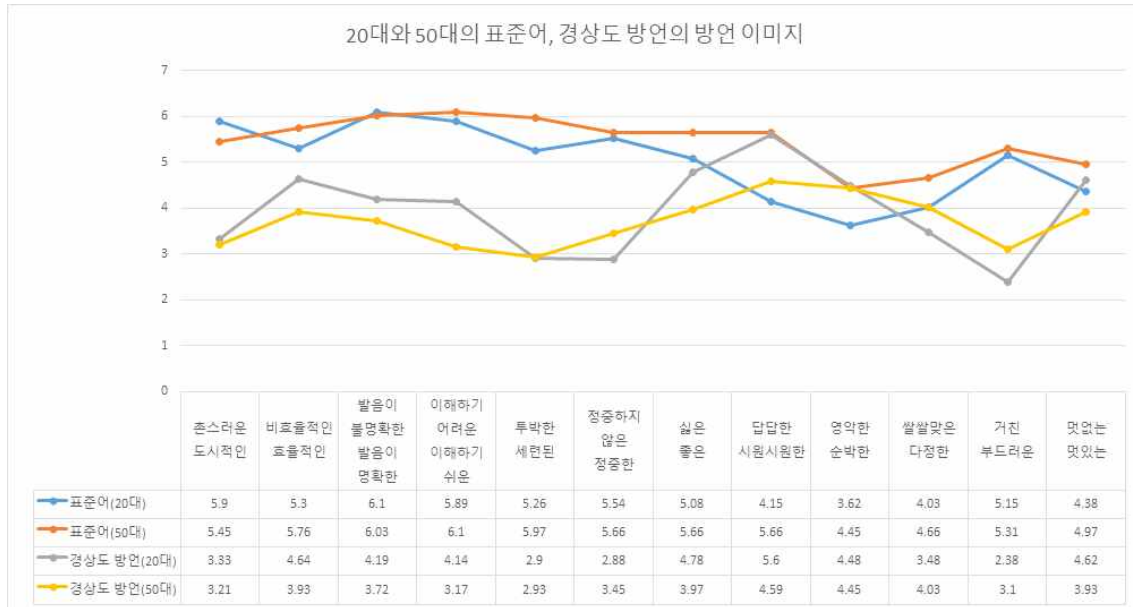


50대 화자의 경우, 표준어는 ‘知的’인 축에서도 ‘感情的’인 축에서도 대부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순박한’이라는 항목에서는 강원도 방언이나 충청도 방언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순박한’이라는 항목에서도 20대의 언어 이미지에서는 7위를 기록하였으나, 50대의 언어 이미지에서는 5위를 기록하였다.

20대 화자와 50대 화자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에서 ‘知的’인 이미지는 공유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感情的’인 이미지는 ‘다정한’, ‘부드러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는 여전히 언중들에게 ‘知的’인 축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나, ‘感情的’인 축에서는 더이상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표준어에 대한 ‘感情的’ 축의 이미지가 세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은 아래에서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 외에 50대 화자들의 방언 이미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변 방언’에 대한 이미지이다. 연변 방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20대의 또한 연변 방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50대의 경우처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이미지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3. 20대 화자와 5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비교



여기에서는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에 대한 20대와 50대 화자의 방언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언 이미지의 변화는 모든 방언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선 직관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을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感情的’ 축에서의 표준어에 대한 20대의 평가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세대에 따라 표준어의 이미지가 특히 ‘感情的’인 축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20대 화자들에게 표준어가 더는 ‘感情的’인 축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상도 방언에 대해서는 ‘知的’인 축에서의 평가는 20대와 50대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感情的’인 축에서의 평가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대는 경상도 방언을 ‘싫은(6위)’, ‘멋없는(5위)’로 평가하였으나 20대는 경상도 방언을 ‘좋은(2위)’, ‘멋있는(1위)’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상도 방언이 20대에게 ‘感情的’인 축에서 매우 호감이 가는 방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 매체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순히 대중 매체의 영향을 넘어서서 20대 화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드라마의 주역이 경상도 방언을 사용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준어가 ‘感情的’인 축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잃게 되는 하나의 이유로, 경상도 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들이 ‘感情的’인 축에서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방언들이 제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또 이렇게 방언이 가진 특성이 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시도되지 않았던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 방언 이미지 조사를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시도해 보려고 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20대가 경상도 방언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평상시에 막연하게 생각 하던 것이 실제 조사에도 나타난다는 점과 표준어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로 세대에 따라 변화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다만 이러한 조사 방법은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많이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균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 나이, 성별, 출신 지역, 거주 지역,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언, 본인이 방언을 사용한다고 느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방언 및 타지역의 방언에 대한 방언 이미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평가 단어’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각 방언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할 때 이러한 평가 단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거친-부드러운’, ‘쌀쌀맞은-다정한’ 등이 정말로 한쪽은 부정, 한쪽은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북한 방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조선족, 고려인, 재일 동포의 언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연변 방언의 경우 20대와 50대 전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결국 그 방언을 사용하는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남한 내부의 방언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는 것이, 외부 를 향한 배타성과 공격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언어 정책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 (I),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5), 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0), 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4),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5), 201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나카이 세이치 저, 고정도·이순형·이현정 역(2007), 『일본 사회언어학의 초대』, 한국문화사. [中井精一(2005), 『日本社会言語学のしくみ』, 研究社.]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이익섭(1994/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이정민(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 174, 559-584.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
井上史雄(1977ㄱ), 方言イメージの多変量解析-上-, 『言語生活』 311, 82-88.
井上史雄(1977ㄴ), 方言イメージの多変量解析-下-, 『言語生活』 312, 82-91.
井上史雄(1980ㄱ), 方言イメージの評価語, 『東京外国語大学論集』 30, 85-97.
井上史雄(1980ㄴ), 方言のイメージ, 『言語生活』 341, 48-56.
永瀬治郎(2015), 方言イメージの形成, 『専修国文』 96, 1-18.
Trudgill, P. (2000), Socio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Penguin Books.

제주 방언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배영환(제주대)·권미소(제주대)

1. 서론

이 글은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을 고찰하고 기술하여 제주방언 경음화 현상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으로 국어에서 가장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다. 경음화 현상 중 제주방언에는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ㄹ, ㄷ’ 뒤에 자음 어미가 결합될 때 어미의 두음을 경음화하여 발음하지 않는다(정승철, 2013:169)는 보고가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제주 지역과 경상도의 일부 지역, 함경북도에서는 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용언 어간에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용언 어간말 비음 뒤 환경을 포함한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을 세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은 활용과 곡용의 경음화에 한정한다. 활용과 곡용에서의 경음화는 공식적인 음운 정보가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형태소 경계에서의 경음화 현상은 체언과 용언에서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음운 현상이므로(배영환, 2017:350) 형태소 경계에서의 경음화를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비음 뒤의 경음화, 어간말 자음군 뒤의 경음화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어간말의 음운론적 환경과 어미 두음의 음운론적 환경을 정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어미 두음의 음운론적 환경은 어간의 기본형 또는 기저형을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 단계이므로, 용언 어간의 경우는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체언 어간의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김봉국, 2006:50-51). 따라서 이 글에서는 2장과 3장에 걸쳐 경음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즉,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미 목록에 대해서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형태론적 내부에서 일어나는 평파열음화 뒤 경음화, 비음 뒤 경음화, 어간말 자음군 뒤 경음화로 나누어 살핀 후, 4장에서는 경음화에 대한 원인과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방언의 자음 조사와 자음 어미, 경음화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총 15명의 제보자를 선정하여 현지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는 대정읍의 4개 마을의 7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6월 21일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 남원읍 5개 마을의 8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21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¹⁾. 조사한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고,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발행한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대정읍 편)』²⁾,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한 『2017 제주어구술 자료집 7(남원읍 남원리편)』³⁾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이 글의 2장과 3장의 예로 실었음을 밝힌다.

1) 음성 자료를 확보한 제보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2. 제주방언의 자음 조사 및 자음 어미 목록

2.1. 제주방언의 자음 조사⁴⁾

조사는 항상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쓰이므로 앞말의 말음에 따라 조사의 두음이 교체되는 일 이 있다. 그래서 조사의 형태음운론적 교체는 두음에만 나타난다. 현대 국어의 자음 조사 가운데 두음이 평음인 조사 ‘-대로, -도, -들, -밖에, -보다, -부터, -조차’와 특수 다형 조사 ‘-과’의 한 기저형 ‘-과’는 장애음 뒤에서 두음이 경음화된다.

제주방언의 자음 조사는 ‘-광’, ‘-ㄱ라’, ‘-ㄱ치/-ㄱ찌’, ‘-더레’, ‘-도’, ‘-디’, ‘-디서’, ‘-베

번호	이름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비고
1	허○○	남	1931년생	대정읍 상모1리	
2	이○○	여	1933년생	대정읍 상모1리	허○○의 아내
3	양○○	여	1925년생	대정읍 상모1리	
4	강○○	여	1935년생	대정읍 가파리	가파리에서 3대가 거주함.
5	박○○	남	1936년생	대정읍 가파리	
6	김○○	남	1935년생	대정읍 신평리	신평리에서 3대가 거주함.
7	이○○	여	1934년생	대정읍 인성리	
8	오○○	여	1935년생	남원읍 위미2리	위미2리에서 3대가 거주함.
9	김○○	여	1936년생	남원읍 위미2리	
10	고○○	여	1931년생	남원읍 신례리	
11	김○○	여	1939년생	남원읍 의귀리	
12	현○○	여	1937년생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에서 3대가 거주함.
13	김○	여	1927년생	남원읍 의귀리	
14	김○○	남	1934년생	남원읍 수망리	
15	고○○	남	1931년생	남원읍 남원리	

제보자는 1940년대 이전(80세 이상)에 출생하신 분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2~3대 이상 조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학의 고령자는 만나기가 어려워 가급적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김봉국(2005)을 참고하여 먼저 제주방언의 조사, 어미 등을 정리하고자 제보자와 자유 대화를 통해 제주방언의 곡용형, 활용형을 확인하였고, 이후 준비한 질문지를 통해 제주방언의 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질문지는 조사항목란, 질문문란, 방언형 기록란으로 구성하였으며, 제보자의 음성적 특징을 방언형 기록란에 적어가며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을 기술하였다.

-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대정읍 편)』은 필자가 외부조사원으로 참여해 서귀포시 대정읍의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정읍 지역에 현재 남아 있는 생활 도구를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항목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어업, 축산으로 나누어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보자는 대정읍 조사 마을 출신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도구 조사의 인연으로 만난 제보자 중 2020년 기준 만 80세 이상, 그 마을 토박이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구술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한 『2017 제주어구술자료집』은 방언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술 발화 조사’에 의한 자료이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만난 제보자 중 2명이 『2017 제주어구술자료집 7(남원읍 남원리 편)』의 제보자였기에 이 자료를 보충 자료로 사용하였다.
- 제주방언의 조사는 이기갑(2003), 김보향(2017)에 한국어 방언권별 조사 목록이 제시된 것과 표준국어 문법에 맞추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음 조사가 경음으로 교체되는 양상에 주목하므로 두음이 자음인 조사 목록만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두음이 자음인 조사라는 용어는 이하 자음 조사라고 부를 것이다.

끼’, ‘-보다/-보담’, ‘-부떠/-부뜸’, ‘-신디’가 있다.⁵⁾

- (1) ㄱ. 저 **떡광**[떡팡] 떡 사이를 갈르지 못하니까.
 ㄴ. 저 **짤 것꺾라**[견꺾라] 출레엔 허곡.
 ㄷ. **조팍꺾치**[조팍꺾치] 그치룩 심들이질 아녀주.
 ㄹ. 사진 **윽더레**[웁더레] 지방을 톡 부껴근에 가정 오더라고.
 ㄴ. **바나나도**[바나나도] 올리곡 **수박도**[수박도] 사단 올리곡.
 ㄷ. 이놈으 거 **숯디**[숯띠] 낱 솜으멍 실을 빼는 거라이.
 ㄸ. 솥 아겡갓다근에 **숯디서**[숯띠서] 불 솜으멍 밥허영.
 ㄹ. 전화도 **이착베끼**[이착베끼] 못 들은다.
 ㄺ. 우리 **홀목보담**[홀목뽕담] 술진 거.
 ㄻ. **일곱부떠**[일곱뿌터] 습을 안 써.
 ㄼ. 이 **사름신디**[사름신디] 씨집와지카부덴.

(1)은 제보자의 음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방언의 자음 조사가 쓰인 예문이다. (1ㄱ)의 공동격 조사 ‘-광’은 음운론적 환경과 관계없이 ‘-광’의 형태 하나만으로 실현되는데 이 ‘-광’은 ‘-과’에 ‘ㅇ’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승철(1998:960)은 이 ‘-광’이 또 다른 공동격 조사 ‘-(이)영’보다 주어를 강하게 견인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여격 조사 ‘-꺾라’는 (1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고’의 뜻으로 후행 동사가 ‘말하다’ 류인 점에서는 ‘-더러’와 같으며, 유정물뿐 아니라 무정물 명사에도 쓰일 수 있는 점에서는 중앙어의 ‘-보고’와 일치하는 조사이다(이기갑, 2003:63). (1ㄷ)의 ‘꺾치’는 중앙어의 보조사 ‘-같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보자에 따라 ‘꺾찌’로도 실현되는 보조사이다. (1ㄷ)에서는 체언 말음 ‘ㅅ’과 결합하여 [꺾치]가 실현되었다. (1ㄹ)의 방향격 조사 ‘-더레’는 선행 명사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연결되는 조사이다. 중앙어의 방향격 조사 ‘-로, -에’에 대응하며 제보자의 발화 중 체언 말음에 따라 ‘윽더레[웁더레]’, ‘에엌더레[에엌더레]’와 같은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ㄴ)의 보조사 ‘-도’는 서남·동남 방언 등에서 실현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도’로 실현된다. 체언 말음에 따라 달리 발음이 달라짐을 (1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처소격 조사 ‘-디’⁶⁾는 중앙어의 ‘-에’에 대응하는 흥미로운 조사 중 하나인데 선행 명사의 말음이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ㅌ’ 발음을 가졌던 일부 체언 ‘곶(곶), 뭇(뭇), 뱃(뱃), 솥(솥), 배곶(배곶), ‘즈곶(=곶)’ 등에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진다(김보향, 2017:14). 또 (1ㄸ)에서처럼 ‘-디’에 ‘서’가 첨가된 형태인 ‘-디서’는 중앙어 ‘-에서’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이 ‘-디서’ 역시 처격의 ‘-디’가 가능한 체언에 나타난다.

제주방언의 조사 ‘-베끼’는 한정격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로 국어의 보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5) 조사는 음운론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저형의 개수에 따라 단형조사, 다형조사로 분류하는 것이 그것인데 조사의 기저형은 표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 형태로만 표기되는 조사가 단형조사, 둘 이상의 형태로 표기되는 조사가 다형조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형조사와 다형조사는 다시 두음의 성격에 따라 세분된다(배주채, 2003/2009:134).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의 단형조사, 다형조사 중 두음이 자음인 조사에 한정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6) 정승철(2013:175)은 처격조사 ‘-디’가 원래 선행 어간의 발음이었는데 선행 어간의 발음이 재분석되어 후행 조사의 초성으로 된 것으로 보고(뱃+ -이→뱃디) 제주방언의 처격조사는 기원적으로 ‘-에’계와 ‘-이’계 둘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제주방언이 기원적으로 다른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실제 ‘그 뱃데 가서 돌 일르고’, ‘소를 이제 뱃데다 논다.’의 발화에서 ‘뱃+에’, ‘뱃+에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 (1ㄷ)의 예문 외에도 ‘자리젓베끼[자리전베끼]’, ‘요것베끼[요건베끼]’와 같은 형태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조사 ‘-부터’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끝소리에 ‘ㄹ’이 첨가되어 쓰이는 ‘-부텀’과 된소리 ‘-부떠’로 실현되는데 (1ㄷ)은 ‘-부떠’로 실현되는 예를 든 것이다. (1ㄷ)의 예로 확인할 수 있는 제주방언의 여격 조사 ‘-신디’는 중양어의 조사 ‘-에/-에게, -한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한 예 외에도 ‘나신디’, ‘할망신디’, ‘어른신디’처럼 쓰인다.

앞서 언급한 제주방언에서 자음 조사, 즉 두음이 경음화될 수 있는 환경의 조사를 표준어형과 함께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제주방언형	표준어형
여격 조사	-신디, -ㄱ라	-에게, -한테, -더러
처격 조사	-디, -디서	-에, -에서
방향격 조사	-더레	-로, -에
공동격 조사	-광	-와/과
비교격 조사	-보다/-보담	-보다
보조사	-도	-도
	-ㄱ치/ㄱ찌	-같이
	-부떠/-부뜸	-부터
	-베끼	-밖에

2.2. 제주방언의 자음 어미

체언과 달리 용언 어간은 언제나 활용형으로만 확인된다. 용언 활용형에 나타나는 어미는 음운론적으로 크게 두음이 자음인 자음 어미, 두음이 모음 ‘ㅏ, ㅑ’인 모음 어미, 두음이 ‘ㅡ’인 면서 어간 말음에 따라 ‘ㅡ’가 안 나타나기도 하는 매개 모음 어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제주방언의 경음화 양상을 확인할 때 활용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하 자음 어미)에 대해서만 정리하고자 한다. 자음 어미 중에서도 선어말 어미(예를 들면, ‘-앗-, -엇-, -옛-, -랏-, -안-, -언-, -연-, -란-’ 등)가 반드시 쓰여야 하는 어미들은 제외하고 편의상 자음 어미를 연결어미, 종결어미, 인용어미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결어미, 종결어미, 인용어미 중 제주방언에서 두음이 장애음인 어미이며 어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어미에는 ‘-곡, -단/-당, -젠/-쟁, -덴, -겐, -주’ 등이 있다.

(2) ㄱ. 이건 **헛** 일이 **년** **입곡**[입꼭], 이건 삼스 **년** **입곡**[입꼭] 경.

ㄴ. 아버지가 오 **년** **잇단**[일단] 돌아가시냐.

ㄷ. 화장시키멍 **헛디** **앗당**[알땅] 놔 부난.

ㄹ. 이거 뭇렌 불르는 거, **확** **곤젠**[곤젠] 허난 못 굴으켜.

ㅁ. 제스 때나 무신거 **먹쟁**[먹쟁] 허민.

ㅂ. 애긴 아프민 기자 우선 할망에 비는 거베끼 약이 **엇덴**[엣덴].

ㅅ. 그 각시가 **모습덴**[모습덴] 지허고 같이 **눅젠**[눅젠] 헛.

ㅇ. 게난 나룩찍이 요런 거 **헛** 게 **엇주게**[엣주게].

(2)은 제보자의 음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방언의 자음 어미가 쓰인 예문이다. (2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미 -곡(~고)은 표준어 연결 어미의 ‘-고’에 대응한다. 두 가지 이상의 행위나 상태, 사실을 연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어미로 ‘-곡’은 어간에 직접 결합되며 어떠한 선어말어미의 개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2ㄴ, 2ㄷ)은 연결 어미 ‘-단, -당’의 예문이다. ‘아버지가 오 년 있다가 돌아가셨나.’, ‘화장을 하면서 같이 가져다가 놔 버리니까’처럼 중양어 ‘-다가’에 해당하는 제주방언의 연결어미임을 알 수 있다. (2ㄹ, 2ㅁ)에서 ‘-젠’과 ‘-쟁’이 쓰인 문장은 ‘확 말하려고 하니 못 말하겠다.’ ‘제사 때나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처럼 표준어로 대역할 수 있어 중양어의 ‘-으려고’에 대응하는 연결어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⁸⁾ (2ㄴ~2ㄸ)은 인용어미의 ‘-덴, -겐’이 쓰인 예문인데 ‘-덴’은 평서문의 인용, ‘-겐’은 청유문의 인용의 형태를 보인 것이다.⁹⁾

한편 종결어미 중 어간과 직접적인 결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음 어미에는 ‘다섯 시면 날이 붉주(게)’에서처럼 중양어 ‘-지’에 대응하는 평대의 ‘-주’가 있고, ‘오늘은 날이 뚝다’와 같은 문장에서 단순히 보고 느낀 사실을 서술하는 어미인 하대의 ‘-다’, ‘가인 누게 아덜고?’, ‘가인 철수 아덜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문의 ‘-고’, ‘-가’도 있다. 또, 청유문의 종결어미로 ‘막게’, ‘막자’(정승철, 2013:184)에서처럼 ‘-게’, ‘-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제주방언에서 경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 어미를 표준어형과 함께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제주방언형	표준어형
연결어미	-곡	-고
	-단, -당	-다가
	-젠, -쟁	-으려고
종결어미	-주	-지
	-고?, -가?	-니?
	-게, -자	-자
인용어미	-덴	-다고
	-겐	-자고

7) 제주방언에서는 연결 어미 ‘-고’나 ‘-곡’보다는 ‘-양/영’이 더욱 자주 쓰인다. 예를 들면 ‘손을 잡고 가자’의 의미로 ‘손 심곡(심고) 글라.’보다는 ‘손 심영 글라.’가 더욱 자연스럽지만 자음 뒤 경음화 현상을 살피기 위해 제보자로 하여금 자음 어미의 활용형을 얻고자 다양한 질문을 통해 ‘-곡’의 쓰임을 확인하였다.

8) 정승철(2013:179)은 제주방언의 ‘-단’과 ‘-당’, ‘-젠’과 ‘-쟁’이 ‘-Xㄴ’계와 ‘-Xㅇ’계의 특이한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어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체로 ‘-Xㄴ’계는 뒤에 오는 용언이 나타내는 사건이 과거의 일일 경우에, ‘-Xㅇ’계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쓰이는데 이 둘은 서로가 나타날 위치에도 쓰여 다소간의 혼란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Xㄴ’계와 ‘-Xㅇ’계의 대립에서 ‘-Xㅇ’계가 그 분포를 확장해 감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고 하였다.

9) 한편 제주방언에서 연결어미 ‘-젠’과 동일한 표기형인 인용어미 ‘-겐’이 있는데 이 인용어미 ‘-겐’은 어간에 붙은 선어말 어미 ‘-암-, -엄-, -앗-, -염-, -람-’ 또는 ‘-앗-, -엇-, -옛-, -랏-’ 따위에 이어지는 어미여서 경음의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3.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

3.1. 평파열음 뒤 경음화

평파열음 뒤 경음화는 국어의 경음화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평파열음의 뒤에 오는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평파열음 ‘ㅂ’, ‘ㄷ’, ‘ㄱ’ 뒤의 평음 ‘ㅂ’, ‘ㄷ’, ‘ㄱ’, ‘ㅈ’, ‘ㅅ’이 경음으로 바뀌는 이 현상은 곡용과 활용에서 모두 일어난다. 평파열음 뒤 경음화 현상은 음운론적 조건만 충족되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제주방언에서도 마찬가지다. 2장에서 살펴본 자음 조사와 자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경음화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3) ㄱ. 밥+-도→[밥도] 밥+-베끼→[밥빼끼], [바빼끼] | (밥, 食) |
| ㄴ. 읊+-도→[읍도] 읊+-더레→[읍떠레] | (엿, 側) |
| ㄷ. 밭+-도→[밭도], [바도] 밭+-디→[밭띠] 밭+-더레→[밭떠레] | (밭, 田) |
| ㄹ. 낮+-도→[날도] 낮+-보담→[날뽀담] | (낮, 午) |
| ㅁ. 끝/끗+-도→[곶도], [끄도] | (끝, 末) |
| ㅂ. 독 ¹⁰⁾ +-도→[독도] 독+-베끼[독빼끼] | (닭, 鷄) |
| 흑 ¹¹⁾ +-도→[흑도] 흑+ㄱ치[흑꺄치] | (흙, 土) |
| | |
| (4) ㄱ. 입+-곡→[입꼭] 입+-젠[입쩐] 입+-지→[입찌] | (입-, 着) |
| ㄴ. 곧+-곡→[곤꼭] 곧+-단→[곤판] 곧+-젠[곤쩐] | (말하-, 曰) |
| ㄷ. 싯+-곡→[싯꼭], 싯+-당→[싯땅] 싯+-젠→[싯쩐] | (있-, 有) |
| ㄹ. 앓+-곡→[알꼭],[아꼭] 앓+-젠[알쩐], [아쩐] | (앉-, 坐) |
| 촛+-곡→[촛꼭] 촛+-당[촛땅] 촛+-젠→[촛쩐] | (찾-, 探) |
| ㅁ. 익 ¹²⁾ +-곡→[익꼭] 익+-주[익쭈] | (읽-, 讀) |
| 족+-곡→[족꼭] 족+-덴[족뎡] 족+-지→[족찌] | (작-, 小) |

(3)는 곡용에서의 경음화, (4)는 활용에서 일어나는 평파열음 뒤 경음화의 예이다. (3ㄱ)과 (3ㄴ)은 평파열음 아래에서 평음 자음 조사가 경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3ㄴ), (3ㄷ), (3ㄹ), (3ㅁ)은 음절구조제약에 따라 먼저 평파열음이 아닌 ‘ㅍ’, ‘ㅅ’, ‘ㅈ’, ‘ㅊ’ 등이 ‘ㅂ’, ‘ㄷ’으로 평파열음화가 적용된 후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3ㅁ)의 경우에는 곡용 어간의 복수기저형에서도 경음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예로 ‘ㅊ’, ‘ㅅ’이 ‘ㄷ’으로 평파열음화된 후 경음으로 바뀌었다.

한편, (4ㄱ), (4ㄴ), (4ㅁ)이 평파열음인 ‘ㅂ’, ‘ㄷ’, ‘ㄱ’ 어간 아래에서 자음 어미가 경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4ㄷ), (4ㄹ)은 ‘싯-’의 ‘ㅅ’ 말음과 ‘앓-’과 ‘촛-’의 ‘ㅈ’ 말음 뒤에 자음 어미가 뒤따를 때는 경음화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음절말 평파열음화의 과정을 먼저 겪고 나서 경음화가 일어났다고 기술할 수 있다.

곡용, 용언에서의 평파열음 뒤 경음화는 다른 방언의 평파열음 뒤 경음화와 동일하게 음성적

10) 제주방언에서 ‘독’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를 경험한 단어이다.

11) 제주방언에서 ‘흑’은 ‘흑’, ‘헝’으로도 실현되며 ‘독’과 마찬가지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를 경험한 단어이다.

12) 제주방언에서 ‘읽-’은 선행하는 자음 ‘ㄹ’을 완전히 탈락시키고 ‘ㄱ’만 남은 형태인 ‘익-’으로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현상은 평음화나 치조폐쇄음화의 음성적인 동기인 미파화와 동시에 성문이 폐쇄되고 이로 인해 인후강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후속음이 경음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음화 전에 음성적으로는 미파화, 음운론적으로는 평음화 혹은 치조폐쇄음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명이 된다(유필재, 2001:165). 곡용, 용언 뒤에서의 경음화는 음절구조상의 제약으로 일어나는 순수한 대치 현상이다.

3.2. 비음 뒤의 경음화

비음 뒤의 경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 뒤에 놓인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모든 비음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용언의 어간 마지막에 놓인 비음 뒤에서만 일어난다(이진호, 2012:364).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음절연결제약과 관계가 없으며 체언의 경우에는 비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의 (5)와 (6)에서 체언, 용언 어간의 비음 뒤 경음화의 양상을 살펴보자.

- (5) ㄱ. 신+-도→[신도]¹³⁾ 신+-광→[신광] (신-, 履)
 눈+-도→[눈도] 눈+-광→[눈광] (눈-, 目)
 ㄴ. 밤+-도→[밤도] 밤+ㅈ치→[밤ㅈ치] (밤-, 夜)
 눔+-신디→[눔신디] 눸+보단→[눔보단] (남-, 他)

- (6) ㄱ. 신+-곡→[신곡] 신+-젠[신젠] (신-, 履)
 신+-고→[신고], [신포]
 안+-곡→[안곡] 안+-지→[안지], [안찌] (안-, 抱)
 ㄴ. 곱+-곡→[곱:곡] 곱+-젠→[곱젠] (감-, 浴)
 담+-곡→[담:곡], [담꼭] 담+-주→[담주] (담-, 込)
 둡+-곡→ [둡:곡] 둡+-젠→[둡젠]
 삼+-곡[삼곡], [삼국] 삼+-지→[삼지] (삼-, 履)
 습+-곡→[습곡] 습+-젠→[습젠] cf) 슻망 (때-, 炊)
 심+-지→[심지] 심+-주→[심주] (잡-, 把)

(5)에서처럼 제주방언의 다양한 자음 조사와 체언의 말음 ‘ㄴ, ㄹ’이 결합할 경우 비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방언과도 동일한 현상이다. 비음 뒤의 경음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6)의 경우이다. (6ㄱ)은 용언의 어간 받침으로 ‘ㄴ’의 예를, (6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으로 ‘ㄹ’의 예를 제시하였다. 주지하듯이 용언 어간말이라는 조건만 만족된다면, 용언의 어간말 자음 ‘ㄴ, ㄹ’ 뒤의 경음화는 평파열음화 뒤 경음화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이다. 그러나 (6)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주방언은 용언의 어간 마지막에 놓인 비음 뒤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와 일어나

13) 참고로 제보자의 발화를 전사해 보면 ‘신도’의 형태가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체언 ‘신편’의 의미인 ‘신’에 조사 ‘-도’가 연결된 형태이고, 두 번째는 용언 ‘신편’ 뒤에 ‘-도’가 결합한 형태로 [신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발음 역시 경음화된 [신편]이 아닌 [신편]로, ‘신편도 않는다’의 의미인 ‘신편 아녀’가 확인된다. 자음 어미 ‘-지’의 생략은 제주방언에서는 매우 흔한 것이다. 다만, ‘입도[입또](입지도)’, ‘먹도[먹찌도](먹지도)’, ‘싱겁도[싱겁또](싱겁지도)’의 형태에서와 같이 발화되는데 경음화를 입지 않은 [신편]은 매우 흥미롭다.

는 형태가 공존하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그때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자음 어미는 주로 제주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음 어미 ‘-곡, -젠, -주’이며 일부 자음 어미 ‘-지’에서도 실현된다.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은 제주방언에서만 아니라 함북 육진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곽충구(1994:202-203)는 함북 육진방언 용언의 어간말 자음이 /m, n, r/인 ‘삼-, 신-, 안-, 살-, 알-’ 등의 용언 어간에 ‘-고, -기’와 같은 어미가 통합되었을 때 어미의 첫 자음이 경음화하지 않고 오히려 유성음으로 실현되었다고 하며 체언 어간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에서도 어간말 자음이 /n, m, r/일 때에는 후속어미의 두음이 장애음일지라도 경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동남 방언의 동부 지역에서 이러한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이진호, 2009:143)는 보고도 있다.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와 그렇지 않은 현상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3.3. 어간말 자음군의 경음화

자음군 뒤의 경음화는 자음군 뒤에 위치하는 ‘ㅂ’, ‘ㄷ’, ‘ㄱ’, ‘ㅈ’, ‘ㅅ’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자음군 뒤의 경음화 현상은 활용에서만 나타나며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이 있다¹⁴⁾.

- | | |
|--|---------|
| (7) ㄱ. ㅎ+-+곡→[혹꼭] ㅎ+-지→[흑찌] | (굽-, 籠) |
| ㄴ. ㅎ ⁻¹⁵⁾ +-+곡→[슴꼭/쌈꼭] ㅎ+-지→[슴찌/쌈찌] | (삶-, 烹) |
| ㄷㅌ+-+곡→[담꼭], [답꼭] ㄷㅌ+-주→[담쥬] | (담-, 似) |
| 꺠+-+곡→[꺠꼭], [꺠꼭] 꺠+-당→[꺠땅] | (꺠-, 餓) |
| ㄸ. ㅃ+-+곡→[뵓꼭] ㅃ+-지→[뵓찌] cf) ㅃ르곡/ㅃ르꼭, ㅃ르지 | (뵓-, 踏) |

(7)에서 보는 것처럼 자음군 ‘ㄹ’, ‘ㄷ’, ‘꺠’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될 때에는 자음군 중 앞 자음을 탈락시켜 발음한다. 제주방언에서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말음으로 실현되는 자음군은 ‘ㄹ’, ‘ㄷ’, ‘꺠’밖에 없다. 이때 규칙의 적용 순은 경음화가 먼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7ㄴ)의 어간말 자음군 ‘ㄷ’의 경음화이다.¹⁷⁾ 정승철(2013:169)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 ‘ㄴ, ㄷ, ㄷ’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될 때 뒤에 오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화하여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용언 어간말 ‘ㄴ, ㄷ’과 달리 어간말 자음군 ‘ㄷ’을 가진 ‘ㅎ’과 ‘담-’,

14)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말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때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하여 음절말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때 탈락하는 자음은 특정한 지역에서 선호되는 음소 연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제주방언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의 음절말 자음군은 ‘ㄹ’, ‘ㄷ’, ‘꺠’이 있다.

15) 용언 어간 ‘ㅎ’은 어두 경음화된 ‘ㅎ’의 형태로 더 많이 나타났다.

16) 경음화는 비음 뒤에서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그 비음이 용언의 어간말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은 지니므로 평과열음 뒤에서 적용되는 경음화와는 다른 규칙이라고 해도 후행 자음을 경음으로 바꾼다는 공통의 기능을 하므로 모든 경음화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일찍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방식이다(이진호, 2008:180-181).

17) 이 내용은 앞의 2.2. 비음 뒤 경음화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2.2.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경음화의 양상을 설명하였기에 여기 어간말 자음군의 경음화 현상에서 묶어 제시하였다.

‘ㄱ’의 용언 어간에 자음 어미가 연결되었을 때 경음화가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ㄹ’에서 ‘ㄱ’은 뒤따르는 자음 어미를 경음화시킨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ㄱ’은 앞서 용언 어간말 비음인 ‘ㄹ’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후행하는 자음 어미를 경음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다른 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에서는 ‘ㄴ, ㄹ’과 ‘ㄹ’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4. 제주방언 경음화 현상의 원인과 해석

앞서 3장에서 제주방언의 경음화 양상을 평파열음화 뒤 경음화, 비음 뒤 경음화, 어간말 자음군 뒤 경음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 평파열음 뒤 경음화와 체언의 비음 뒤 경음화, 어간말 자음군 뒤 경음화는 중앙어의 경음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미 언급하였으나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무척 특이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므로 이제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음운론적 동기가 없어서 문법론적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음운 과정이다.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음성학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음운 규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시각을 달리 해서 그 현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언 어간말 ‘ㄴ, ㄹ’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용언 어간과 연결되는 자음 어미의 특이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3.2의 (6)에서 제시한 용언 어간을 보면 ‘, ’ 발음이 실현되는 ‘숨-’, ‘곰-’, ‘뚝-’에서는 여지 없이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보리낭으로도 불 숨주기.’와 같은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을 때다’의 뜻을 가진 ‘숨-’은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되었다. ‘목욕을 하다’라는 의미의 어간 ‘곰-’ 역시 과거에는 ‘옛날엔 내에 강 목 곰곡 헛주.’이라는 문장이 실현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라는 문장이 더욱 자연스러우며 ‘목욕탕에 가서 목 곰아(감아).’는 연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곰-’이 ‘머리를 감다’의 의미를 가질 때와 ‘눈을 감다’와 같은 관계에 놓일 때에는 [감곡]의 발음이 아닌 [감꼭]으로 경음화된 발음이 실현되었다. 동일 어간, 어미의 형태인데도 경음화 실현 양상이 다른 것은 음운 현상에 사회언어학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경음화의 적용 유무가 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 연결되는 자음 어미는 어떠한가? 조사 결과 ‘-곡’, ‘-젠’, ‘-주’ 등과 같은 제주방언에서 쓰이는 자음 어미 앞에서 역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예로 ‘-고’와 ‘-곡’의 경우를 들어 보자. 용언 어간 ‘신-’에 자음 어미 ‘-고’와 ‘-곡’이 결합된 두 가지의 형태 모두를 한 제보자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때 ‘신발을 신고’의 경우는 경음화된 [신포]와 같이 발화되었고, ‘신 신곡’은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신포]로 발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⁸⁾. ‘-젠’과 ‘-주’ 또한 그렇다.

앞서 말한 용언 어간의 ‘곰-’, ‘신곡’의 ‘-곡’의 예를 통해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음운, 어휘, 문법이 중앙어와 다를 때, 즉 표준어화가 되지 않은 형

18) 강○○(1935년생, 대정읍 가파리)

태일 때, 제주방언이 옛 어형을 간직하고 있을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용언 어간과 연결 어미가 지닌 보수성 때문인 것이라고 추측된다. 즉, 보수성을 띠고 있는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그 음운 현상 역시도 보수성을 간직하고 그 발음이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용언 어간말 비음 뒤 자음 어미가 모든 제보자의 발화에서 평음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승철(2013:169) 역시 젊은층이나 일부 노년층 화자들은 다른 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ㄴ, ㄹ, ㄷ’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경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한 그 지역 토박이인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용언 어간말 비음 뒤 자음 어미에서 일부 경음이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제주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는 진행 중인 변화¹⁹⁾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경음화가 실현되는 방향성을 띠면서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실현되는 이 현상은 이미 변화를 겪은 형태와 아직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며, 이 변화에 내재된 음운 과정은 수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용언 어간의 말음 비음 ‘ㄴ, ㄹ(ㄷ)’ 뒤에서의 경음화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상 근대 국어 이전 시기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국어 시기에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가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경음화 현상은 전파의 중심지에서 사방으로 확산되었고, 그것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전파되지는 못해, 결과적으로 경음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경음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일부 잔재 지역이 존재하게 되었고(정승철, 2013:211) 그 잔재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제주 지역이었던 것이다.

오종갑(1999)에 따르면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 규칙은 남한의 서쪽 지역에서 발생하여 영남지역으로 전파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강원도를 통해 그 세력이 경북의 북부지역으로 남하, 또 한편으로는 전라도와의 접경지역을 통해 그 세력이 동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경남의 동부 및 남부의 해안·도서 지역은 경음화의 세력이 가장 약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경남의 동부 및 남부의 해안·도서 지역이 유성음화의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며, 경남의 서북부 및 경북의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그 보수성은 약화된다고 보았다(오종갑, 1999:103-104). 이것은 함북 육진 지역과 제주지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세 지역 즉, 경남과 육진, 제주 지역에서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개신형인 경음화를 입지 않고 보수형을 유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제주지역 내에서도 경음화는 중앙어의 영향으로 경음화 세력이 우세해져 용언 어간말 비음 뒤 자음 어미를 경음화시키는데 단 일부 용언 어간말 비음에서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인 것이다. 결국 제주방언에서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현상은 개신형의 전파 및 확산에 따라 경음화 현상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보수형을 밀어내는 형상이라

19) 진행 중인 변화라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기제가 해당 공시태에서 분명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경우이고, 변화의 기제가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은 그러한 변화의 기제가 완료된 통시적 결과물이 아니라 여전히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공시적인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진행 중인 변화의 경우 변화가 완료된 결과물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기제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럴 경우 변화의 기제는 특정 공시태에서 여전히 공시적으로 작동하는 음운 과정이다. 이러한 진행 중인 변화가 공시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속성상 이미 변화를 겪은 것과 아직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이 공존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변화에 내재된 음운 과정은 수의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신승용, 2006:143).

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7L)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변화가 어간말 자음군 ‘ㄹ’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며 이것은 단어의 사용 빈도가 다른 용언 어간말 비음보다 높은 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양상을 추측해 본다면 제주 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는 ‘ㄹ’을 가진 용언의 어간에서부터 표준어형과 일치하는 용언의 어간 ‘신-’, ‘안-’으로, 마지막에는 용언 어간이 보수성 띤 ‘곰-’, ‘뚬-’, ‘삼-’, ‘숨-’의 순서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주방언 화자들에게서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는 개신형과 보수형이 수의 변이형으로 병존하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이 글은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을 평파열음 뒤 경음화, 비음 뒤 경음화, 어간말 자음군 뒤 경음화로 분류하고 각각의 곡용과 활용의 양상을 살펴 제주방언의 경음화 현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다.

논의를 위해 대정읍 지역과 남원읍 지역에 거주하는 그 지역 토박이 화자 15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경음화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인 자음 조사 및 자음 어미의 목록을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평파열음 뒤 경음화, 비음 뒤 경음화, 어간말 자음군 뒤 경음화 현상의 예를 제시하였다.

제주방언에서 평파열음 뒤 경음화와 체언의 비음 뒤 경음화, 어간말 자음군 뒤 경음화는 중앙어의 경음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용언 어간과 연결되는 자음 어미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원인을 진행 중인 변화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찾으려 하였다. 실제 조사된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현상의 예를 통해 제주방언에서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현상은 경음화가 실현되는 개신형과 실현되지 않는 보수형이 공존하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참고 문헌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 김광웅(1984), 「제주도 남부어의 경음화에 대한 연구」,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99-129.
- 김보향(2017), 「제주방언 문법 형태의 세대별 변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101, 한국언어문학회, 7-35.
- 김봉국(2005), 「음운 조사 질문지」, 『방언학』 4, 한국방언학회, 140-169.
- 김봉국(2006), 「개별 방언의 자료 정리와 음운 연구」, 『방언학』 4, 한국방언학회, 41-58.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영환(2017), 「중국인 학습자의 경음화 습득 양상 연구」, 『어문론집』 72, 중앙어문학회, 345-374.
- 배주채(2015), 『한국어 음운론의 기초』, 삼경문화사.
- 배주채(2003/2019), 『(개정판)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신승용(2006), 「수의적 음운 현상의 종류와 그 특성」,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137-161.
- 신승용(2013), 『국어 음운론』, 역락.
- 신승용·안미애(2012),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인문학』 22, 동아인문학회, 119-140.
- 제주학연구센터(2017), 『제주
- 오종갑(1999), 「경음화와 영남방언」, 『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79-106.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진호(2009), 「현대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123-150.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7),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7.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9),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Ⅶ(대정읍편)』.
- 홍성해(1987), 「제주지역어의 자음음운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최명옥(서울대)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음운 접촉에 대한 것이다. 짝을 이루는 두 방언 중에서 동남방언을 앞에 두는 것은 동남방언이 접촉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발해가 멸망하기까지 서북방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북방언이 한국어를 구성하는 대방언이 된 것은 조선 초 세종이 4군과 6진을 설치한 뒤라고 할 수 있다(<지도 4> 참조).

논의의 대상이 되는 두 방언 중 동남방언은 성조방언이고 서북방언은 음장방언이다. 더욱이 두 방언은 한반도의 대각선 양 끝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두 방언간의 접촉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방언을 대비할 때, 접촉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언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그 두 방언의 접촉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무성조·무음장 지역이 서북방언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과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에서 어간말 자음소(유음소 포함)군 //ㄹ//와 //ㄷ//가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모두 /ㄹ/로 실현되는 것이 그 두 방언의 접촉에 의한 결과임을 지리방언론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2에서는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3에서는 음운의 접촉에 대해서 논의하되, 3.1에서는 ‘운소’에 대해서, 3.2에서는 어간말 ‘자음소군 단순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4에서는 2와 3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기로 한다.

2.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여기서 논의 대상이 되는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신라시대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의 영토 확장과 그에 따른 주민 이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시대별로 나누어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2.1. 신라시대

여기서 말하는 ‘신라시대’는 신라의 건국에서 신라가 고려에 합병(合併)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있었던 신라의 영토 확장과 주민의 이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의 평야지대에서 출발한 사로국은 4세기 후반(내물왕 때)에 중앙집권 국가로 개편되어 진한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낙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6세기 초에는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660년에 당 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하고 668년에 고구려를 정복했다. 그런데 고구려를 점령한 당나라가 신라 땅까지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신라는 당 나라가 점령한 고구려 땅에서 결집한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했다. 그러자 669년 고구려 보장왕의 아들 아승이 4천여 호의 백성을 이끌고 신라로 왔고 고연무와 그가 이끌던 고구려 항전 부대, 검모잡과 그가 모은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군으로 편입되었다. 신라는 또 일부 고구려 유민 집단을 금마저(지금의 <익산>)로 이주시켜 자치국을 형성하게 했다.¹⁾ 신라는 8년 만에 걸쳐 통일된 영토 내의 당 군(唐軍)을 격퇴시킴으로써 676년에 명실상부하게

1) 이에 대해서는 송호정 외 4명(2012: 52)를 참조하기 바람..

삼국을 통일했다.

676년 이후 만주 중·동부와 한반도 북부지역에 강제 이주된 고구려인과 말갈족 집단이 동부 만주 묵단강 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세웠다. 그리하여 발해가 건국하여 망하기까지(698-926) 약 230년 간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이 신라와 발해의 국경선이 되었다(<지도 1> 참조).

이보다 앞서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확장된 영토에 사민정책(徙民政策)으로 신라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그 한 예로, 한강 유역을 점령한 진흥왕은 충주에 ‘국원소경(國原小京)’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주에 있는 귀족의 자제들과 6부에서 세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과 우륵과 같은 예술인들을 이주시켜 국원소경을 채운 사실을 들 수 있다.³⁾ 이러한 사민정책은 정복지에서 원주민들의 결속을 저지하고 그들과 융화(融和)함으로써 국민을 단합시키려는 목적을 수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신라는 영토 확장 과정에 백제나 고구려와 맞부딪히는 최전선에는 최강부대를 배치하였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주둔군과 그에 소속된 민간인⁴⁾ 그리고 이주민을 정착시킨 곳은 발해와의 국경지역이다. 어떤 경우든지 군사적 긴장이 가장 고조된 국경지대에는 그 나라 최강의 수비대가 주둔하게 된다. 발해와의 국경지대에 주둔하는 수비대는 작전수행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라의 최정예병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부조직이나 중요한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장병은 <경주>로부터 직접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782년에 선덕왕이 직접 한산주(漢山州)에 순행하여 대곡성(지금의 평산平山)을 승격시켜 패강진(溟江鎭)을 설치하고 개척농민을 투입하기 위해 민가(民家)를 옮긴 사실을 들 수 있다. 패강진은 통일신라시대에 설치된 군진(軍鎭)의 하나로 지금의 황해도 평산(平山) 지방에 본영(本營)을 두고 예성강 이북에서 대동강 이남에 걸치는 넓은 지역을 관할했다(<지도 2> 참조).

이 진은 신라 서북지방의 군사상 요지인 동시에 북방개척의 중심지였다. <지도 2>에서 보듯이, 패강진은 7개 군과 7개 현을 관할하였던 만큼 소속된 군인이나 민간인의 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방면을 관할하였던 다른 진의 군인이나 민간인의 수도 많았을 것이므로 그들을 모두 합하면 국경지역에는 주둔군과 그에 소속된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신라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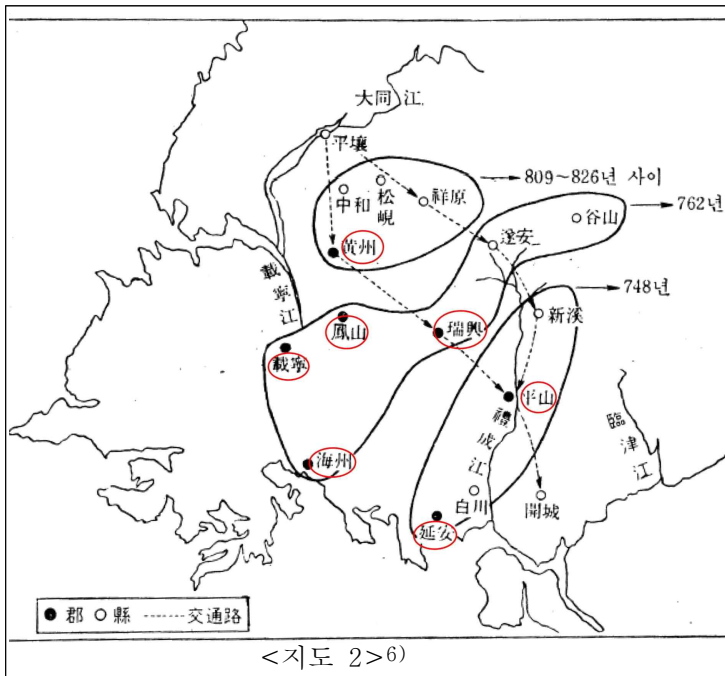
2) 송호정 외(2012: 57)의 지도 중 부분을 스캔한 것임.

3) 이 사실은 《삼국사기》<신라본기> ‘진흥왕 19년’의 기록과 1989-1991년에 실시된 누암리 고분군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4) 대개 전장(戰場)에서는 전투병 한 사람에게 소속 민간인 3명이 배정된다고 한다.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라 말기에 사회가 혼란하게 되자 견훤과 궁예가 각각 후백제(900년)와 후고구려(901년)를 세움으로써 신라는 삼분되었다. 그 결과 발해와의 국경지대에 주둔한 주둔군과 민간인들은 중앙정부(<경주>)의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도리 없이 그곳에 남아 스스로 삶을 모색해야 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만하여도, 임진강 이북지역에서 패강진이 속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후진지대였다. 그런 지역에서 호족들과 왕건 아래서 군사적 공로가 컸던 인물들이 나왔다(이기동 1976: 17, 20)는 사실은 그들이 패강진의 군관(軍官)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 문제는 패강진 출신의 호족들과 그 외의 주둔군과 민간인들이 국경선 일대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충분을 형성하였으리라는 점이다.



2.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인구 이동은 다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935년 신라의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 넘기고 백관을 거느리고 <개경(=지금의 개성)>으로 갔다. 그때 백성들도 따라 나섰는데, 향나무로 꾸민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리에 뻗었다고 한다.⁷⁾ 이때 <개경>으로 간 신라 귀족들이 다시 <경주>로 돌아갔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손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에 ‘신라’를 의미하는 ‘계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신라의 <경주>에서 이주한 이주민의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계림촌’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 경순왕과 함께 간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기백(1991: 146)에는 경순왕으로부터 신라를 넘겨받은 왕건은 신라 왕실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신라 귀족들을 극진히 우대하여 고려의 관료들 속에는 신라계통 인물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5) 패강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동(1976)을 참조하기 바람.

6) 이기동(1976: 8)에서 스캔한 것임.

7) 신서위 편집부 편(1991)의 《북역 고려사》 1(p. 108)을 참조하기 바람.

그 점에서 하삼도에 유리하고 있던 평안도 민호란 신라가 고구려를 정복했을 때 하삼도로 이주시킨 민호라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하삼도에서 유리하던 평안도 사람들은 하삼도의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삼도 말을 모어(母語)로 하고 있었다고 하겠다.¹⁰⁾

북방으로 옮겨간 하삼도의 사람들은 발달한 농법을 북방 지역에 전파하고 개간 사업을 주도했으며 성종 때에는 하삼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원주민보다 부유해져서 빈부 격차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개간이 진척되었다는 것이다(송호정 외 4명, 2012: 102-103). 하삼도 사람들이 발달된 농법을 북방 지역에 전파하고 개간 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은 하삼도 사람들이 북방 주민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하삼도 사람들이 북방 주민들보다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언어상으로는 우위를 점했을 것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삼국통일 후 초기의 서북방언 지역의 인구는 신라가 점령했을 당시(668년)의 고구려 원주민, 신라의 <경주>에서 파견한 장병과 거기에 소속된 민간인, 669년 대동강 이북에서 신라로 들어온 고구려 부흥군과 그곳의 유민들, 그리고 신라에서 이주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668년에서 신라 영토 내의 당군을 격퇴시킨 676년까지 8년간, 이 기간이면 옛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말을 완전히 습득했을 것이다.

900년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그 결과 발해와의 국경지역에 배치된 신라의 주둔군과 그에 소속된 민간인들은 신라의 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곳에 남게 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후고구려의 건국까지 약 230년간 발해와의 국경 이남의 옛 고구려 사람들은 완전히 신라말을 습득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방언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지금의 서북방언은 고려 말기와 조선 초에 평안도가 완전히 수복된 뒤에 형성된 방언이지만, 서북방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신라와 발해와의 국경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어라 할 것이다.¹¹⁾ 그 뒤 고려 초에 <평양> 수리를 위해 이주된 하삼도(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경기도 사람들, 4군이 설치된 곳으로 이주된 하삼도에 있던 평안도 사람들, 그밖에 범죄인과 이주 자원자 등의 말들이 서북방언에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크게는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접촉이 가능하고 좁게는 성조방언의 하위방언과 음장방언의 하위방언의 접촉이 가능하다.¹²⁾ 이 글은 이 점을 전제로 하고 작성된다.

3.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여기서는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그 대상은 ‘운소’와 ‘어간말 자음소군 단순화’가 된다.

3.1. 운소

현대 한국어의 ‘운소’ 분포는 이기문 외(1991: 1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되는 ‘말(言)’의 운소를 조사하여 처음으로 지도로 나타낸 것인데,¹³⁾ 그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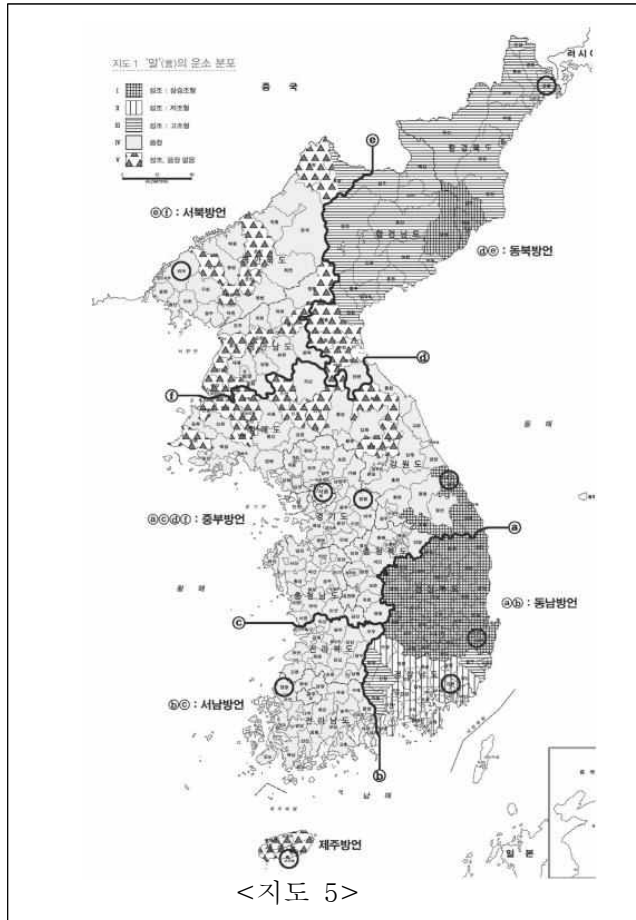
10) 삼국통일 후 신라가 당나라를 통일된 영토에서 몰아낼 때, 고구려 유민을 <금마저(金馬渚)>(지금의 <익산>)으로 이주시켰다고 하는데(송호정 외 4명, 2012: 52) 이때 이주한 사람들이 4군 지역으로 이주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주된 주민들은 서남방언 화자라고 하겠다.

11) 이 지역어는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으로 구성되었는데, 성조방언은 <경주> 중심의 성조방언이고 음장방언은 옛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말을 습득하여 형성된 방언이다.

12) 고려 건국 이후에 서북방언에 추가된 다른 방언들도 이러한 부류의 어느 하나에 속할 것이다.

13) 이 <‘말(言)’의 운소 분포도>는 1993년에 출판된 《한국언어지도》(대한민국 학술원 주관, 성지문화사)에도 수록되어 있다.

를 방언구획과 결부시켜 보이면 <지도 5>와 같다.



<지도 5>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로 표시된 무성조·무음장이다.¹⁴⁾ 이 분포도가 작성되기 전에는 남한에서 제주도가 유일한 무성조·무음장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찍이 이기문 교수는 강의 중에 제주방언이 무성조·무음장 방언이 된 것은 ‘성조’와 ‘음장’의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¹⁵⁾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 필자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무성조·무음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제주방언의 ‘무성조·무음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고대에 탐라국으로 독립된 나라였다. 탐라국은 498년(백제 동성왕 20)에 백제와 교역을 하게 되고 662년(신라 문무왕 2)에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탐라군이 되어 고려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 통치함으로써 한반도에 예속되었다. 1211년(희종 7)에 제주로 개칭되고 부사와 판관이 다스렸다. 1273년에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기도 했다. 1864년(고종 1)에 전라도 관찰사가 관할하게 되고 1915년에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1946년에 도(道)로 승격되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222-23》). 그러니까 탐라국은 160여년을 백제와 교역을 하고 662년부터 918년(고려 건국)까지 250여년을 신라의 속국으로서 신라의 지배를 받았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896-97).

14) ▲가 함남 <영흥, 고원, 문천, 덕원>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방언구획상으로 동북방언에서 제외된다(동아문화연구소(서울대) 편, 1973: 198). 따라서 이들 지역은 서북방언과는 전이 지대를 형성하므로 이 논의에서 서북방언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15) 강의 연도나 강좌명은 분명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조건과 지리적 조건을 종합하면, 제주방언은 백제와의 교역 시기에 음장방언이 되었고 신라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동남방언인 성조방언과 접촉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남방언과의 접촉 기간이 오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는 다음 (1)~(4)의 예에서 보듯이, 문 속에 의문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의문법 종결어미가 달라지는 언어현상이 있다는 것이다(최명옥 2015: 175-177).

- (1) a. 이거 느네 물~~가~~?<이거 너희 말이니?>
b. 이거 누~~게~~네 물~~고~~?<이것 누구네 말이니?>
- (2) a. 아가, 어디레 감디?<아가, 어디 가니?>
b. 아가, 집에 감디아?<아가, 집에 가니?>
- (3) a. 이거 자네 물~~인~~가?<이것이 자네 말인가?>
b. 이거 누~~게~~네 물~~인~~고?<이것이 누구네 말인가?>
- (4) a. 그 사름 지레 크~~던~~가?<그 사람 키 크던가?>
b. 그 사름 지레 언~~매~~나 크~~던~~고?<그 사람 키 얼마나 크던가?>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동남방언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최명옥 1980: 73-80, 2015: 147-154). 그런데 제주방언이 그러한 언어현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방언이 오랫동안 동남방언과 접촉하여 간섭을 받았다고 할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제주방언이 ‘무성조·무음장’을 가지게 된 것은 ‘음장’방언인 제주방언에 ‘성조’방언인 동남방언이 들어옴으로써 일어난 접촉과 간섭의 결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접촉한다고 하여 그들 방언이 모두 ‘무성조·무음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발표된 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어에서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인접하는 경우, 그 두 방언의 접촉 결과는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로 나타난다. 하나는 접촉되는 지역의 ‘음장’이 운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성조’가 운소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경남 <하동>과 인접한 전남 <광양>지역어가 그 예가 된다(후쿠이 福井 玲, 1998: 276).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장방언에서 ‘음장’은 그대로 운소의 기능을 가지되 성조방언의 간섭으로 ‘성조’가 음장방언에서 음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지역의 화자의 말을 성조방언 화자가 들을 때에는 ‘성조’가 운소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그 지역 화자들의 말에서 운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음장’이며 ‘성조’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것이다. 경북 <상주, 금릉>과 인접한 충북 <영동>의 <황간>지역어가 그 예가 된다(이병근 1969: 45, 47).

이상의 예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제주방언의 경우, ‘무성조·무음장’ 방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조방언이 음장방언 속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남방언이 가진 (1)~(4)의 언어현상을 제주방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동남방언 화자 집단의 사회·문화적 지위가 제주방언 화자 집단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인접한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둘 중 어느 방언도 ‘무성조·무음장’ 방언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필자는 ‘무성조·무음장’ 방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성조방언이 음장방언에 포함되거나 음장방언이 성조방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함되는 방언 화자 집단이 포함하는 방언 화자 집

16) 필자가 ‘성조’를 ‘음장’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한국어의 경우에, 성조방언이 인접한 음장방언의 간섭으로 ‘음장방언’이 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단보다, 수적으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도 5>에서 ‘무성조·무음장’ 지역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그 지역어가 ‘무성조·무음장’을 가질 수 있는 첫째 조건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서북방언이 음장방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무성조·무음장’ 지역도 원래는 음장방언이어야 하며 ‘무성조·무음장’ 지역에 성조방언이 포함되었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설로 알려져 있는 것은 16세기 중기 이전의 중부방언은 성조방언이었다는 것이다(이기문 1961: 119-23).

그렇다면 앞의 서술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즉 ‘무성조·무음장’ 지역과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어가 성조방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조방언 속에 ‘무성조·무음장’ 지역이 발생하려면, 그 지역에 음장방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접촉하여 그 지역어가 지금과 같은 ‘무성조·무음장’ 지역어로 된 뒤에 서북방언은 16세기 중기 이후에 음장방언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16세기 중기 이전에 서북방언이 성조방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동남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전체가 성조방언이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성조·무음장’ 지역에 포함될 음장방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무성조·무음장’ 지역은 발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무성조·무음장’ 지역의 발생은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접촉이 아닌 다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최명옥(2019)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16세기 이전의 중부방언-이것은 중부방언만이 아니라 현재의 음장방언을 모두 포함한다-이 성조방언이었다고 하는 정설은 15세기와 16세기 한국어 문헌어가 보여주는 성조의 변화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 최명옥(2019)는 15세기 한국어 문헌어의 성조는 당시의 중부방언의 성조가 아니라 당시의 함경도방언 즉 동북방언의 ‘고조(=거성)’와 ‘저조(=평성)’에 경북방언의 ‘상승조(=상성)’를 추가한 성조라는 것을 밝혔다. 그것은 15세기 한국어 문헌어가 보여주는 성조 중 ‘고조(=거성)’와 ‘저조(=평성)’가 현대 동북방언의 성조인 ‘고조’와 ‘저조’와 일치하고 ‘상승조(=상성)’가 현대 경북방언의 ‘상승조’와 일치한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5) ㄱ. 경북방언: /고조(H)/, /저조(L)/, /상승조(R)/

말 ^H	이 ^L	만 ^R	다 ^F	말 ^H	이 ^H	만 ^R	다 ^F	말 ^R	이 ^H	만 ^R	다 ^F
말(馬)				말(斗)				말(謫)			

말 ^L	부 ^H	터 ^L	말 ^H	부 ^H	터 ^L	말 ^R	부 ^H	터 ^L
말(馬)			말(斗)			말(謫)		

ㄴ. 경남방언: /고조(H)/, /저조(L)/

●				●	●				●		
	●	●	●			●	●		●		●
말 ^H	이 ^L	말 ^L	디 ^L	말 ^H	이 ^H	말 ^L	디 ^L	말 ^L	이 ^H	말 ^L	디 ^L
말(馬)				말(斗)				말(語)			

	●		●				●	
●		●		●	●		●	●
말 ^L	부 ^H	터 ^L	말 ^H	부 ^H	터 ^L	말 ^L	부 ^H	터 ^L
말(馬)			말(斗)			말(語)		

ㄷ. 동북방언: /고조(H)/, /저조(L)/

		●			●				●				●	
말 ^L	이 ^L	많 ^H	다 ^L	말 ^H	이 ^L	많 ^H	다 ^L	말 ^H	이 ^L	많 ^H	다 ^L			
말(馬)				말(斗)				말(語)						

	●		●			●								
말 ^L	부 ^H	터 ^L	말 ^H	부 ^L	터 ^L	말 ^H	부 ^L	터 ^L						
말(馬)			말(斗)			말(語)								

위의 (5)에서 확인되는 현대 한국어의 성조방언들의 성조와 15세기 한국어 문헌어의 성조를 대조하면 15세기 문헌어의 ‘평성(=저조)’와 ‘거성(=고조)’이 현재 동북방언의 그것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5)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동남방언 중 경북방언의 성조는 ‘저조, 고조, 상승조’의 셋이고 경남방언과 동북방언의 성조는 ‘저조, 고조’의 둘이다. 그 중에서 동북방언의 ‘저조’는 경남·북방언의 가변적 ‘고조’에 해당한다. 동북방언의 ‘고조’는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 고조가 경남·북방언의 ‘고조’와 동일하며 그 외의 동부방언의 ‘고조’는 경북방언의 ‘상승조’에 해당하고 경남방언의 ‘저조’에 해당한다. (6)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15세기 문헌어	동북방언	경북방언	경남방언
물(馬) [L]	말 [L]	말 [±H]	말 [±H]
목(項) [L]	목 [L]	목 [±H]	목 [±H]
글(文) [H]	글 [H]	글 [H]	글 [H]
날(日) [H]	날 [H]	날 [H]	날 [H]
눈(雪) [R]	눈 [H]	눈 [R]	눈 [L]
말(語) [R]	말 [H]	말 [R]	말 [L]

(6)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북방언의 ‘저조’와 ‘고조’는 15세기 문헌어의 그것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은, (7)에서 보듯이, 문 속에 의문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의문법 종결어미가 달라지는 언어현상이다.¹⁷⁾

(7)ㄱ. ① 뉘 이 나흘 기리 살 사람고?〈두초6: 2ㄱ〉

② 이 썩리 너희 중가?〈월석8: 94ㄴ〉

ㄴ. ① 비구(比丘) | 어드러셔 오뇨?〈석19: 30ㄴ〉

② 공덕(功德)이 하녀 저그녀?〈석19: 4ㄱ〉

ㄷ. ① 뉘 圓通 아닌고?능엄4: 100ㄱ〉

② 諸天스 光明인가 히읏 光明인가?〈월석10: 7ㄴ〉

이 언어현상은 제주방언과 같이 방언접촉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동남방언에 한정된다. 15세기 문헌어의 성조와 문 속에 의문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달라지는 의

17) 최명옥(2019: 31)의 (14)의 일부임.

문법 종결어미의 존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15세기 한국어 문헌어는 당시의 서울 중심의 중부방언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방언으로 구성된 표준어라는 점이다. 둘째, 첫째를 고려할 때, 15세기 한국어 문헌어의 성조 중 ‘저조’와 ‘고조’는 세종이 가진 동북방언의 성조이고 ‘상승조’는 경북방언의 성조라는 점이다. 15세기 한국어 문헌어-정확히 말하면 《훈민정음(예의例義)》-에 동북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상성’(=상승조)을 설정한 것은 동북방언의 ‘고조’와 그에 해당하는 경남방언의 ‘저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¹⁸⁾ 셋째, 15세기 문헌어의 성조(‘저조’와 ‘고조’)와 현재 동북방언의 성조가 약 600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동남방언도 15세기에는 현재와 동일한 성조를 가진 성조방언이었으며 현재의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을 제외한 방언들은 15세기에도 현재와 동일한 음장방언이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음장방언이 15세기에도 음장방언이라는 것은 고구려어와 백제어가 음장언어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비로소 <지도 5>의 ‘무성조·무음장’ 지역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기 전에 고구려어와 백제어는 음장언어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그들 언어는 신라어의 방언이 되었다. 그 결과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어는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으로 구성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초기에 ‘무성조·무음장’ 지역어는 음장방언이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발해와의 국경 지대에는 신라의 최정예병들과 그에 소속된 민간인과 신라에서 그곳으로 이주시킨 민간인들이 있었다.¹⁹⁾

그들은 발해가 멸망하기까지 약 2세기 동안 그곳에 거주하였고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자 발해와의 국경지대에 있던 신라의 주둔군과 민간인들은 <경주>로부터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곳에 남게 되었다. 2.1의 마지막에 서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왔던 고구려인들보다 수는 적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 서술한 ‘무성조·무음장’ 지역어(또는 방언)가 형성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도 5>의 ‘무성조·무음장’ 지역은 원래 고구려어의 음장방언(<음장언어>)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신라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성조방언(<성조언어>)이 포함된 곳이다. 그런데 성조방언 화자 집단이 음장방언 화자 집단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두 방언의 오랜 접촉 과정에서 ‘성조’와 ‘음장’이 중화되어 ‘무성조·무음장’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지도 5>의 ‘무성조·무음장’ 지역은 음장방언에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조방언이 포함된 후 두 방언이 접촉한 결과로 형성된 지역이다.

3.2. 어간말 자음소(‘ㄹ’ 포함)군 단순화²⁰⁾

여기서 말하는 자음소군 단순화는 어간말 자음소군 //ㄴ//이나 //ㄹ//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두 모음소 사이에 3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 어간말 자음소 중의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았-더라//→/안더라/→/안떠라/’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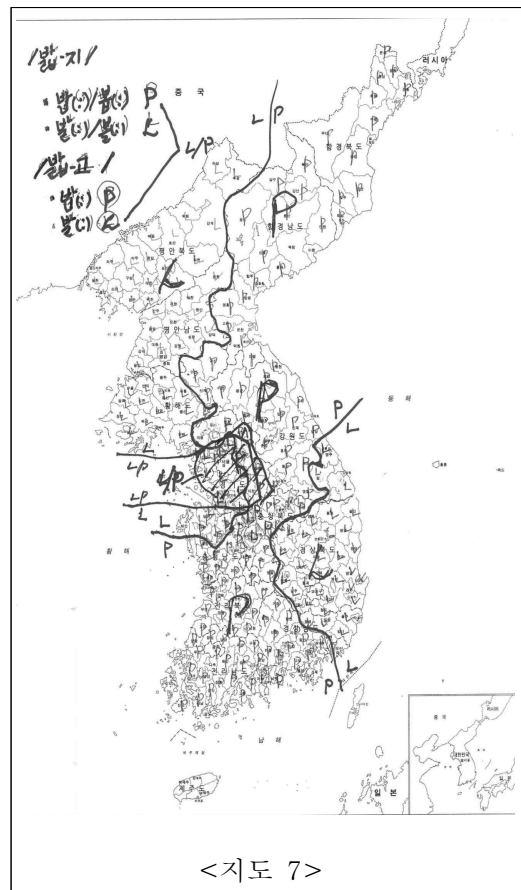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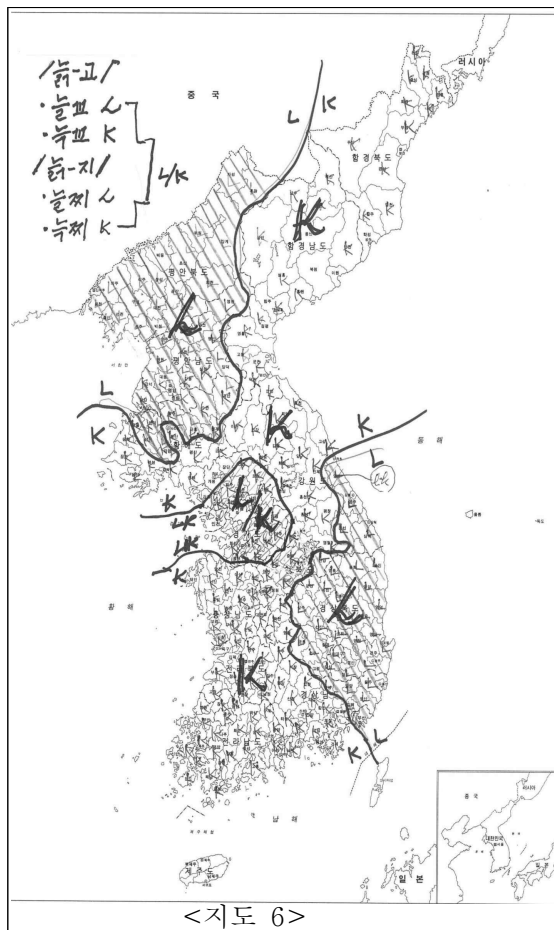
18) 동북방언에 없는 ‘상승조’를 15세기 문헌어의 성조에 포함시킨 것은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을 조정하기 위한 다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 의도란 음장방언 화자들에게 ‘저조’와 ‘고조’는 모두 ‘단음’(短音)으로 인식되고 ‘상승조’는 ‘장음’(長音)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문헌어에 표시된 성조는 그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19) 그 예로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뒤 충주에 ‘국원소경(國原小京)’을 설치하고 민간인을 이주시킨 것이나 패강진의 기록,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북진정책으로 점령한 지역에 장병과 함께 민간인들을 이주시킨 사실을 들 수 있다.

20) 자음소군 단순화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최명옥(2001)을 참조하기 바람.

수 있다. 그런데 어간말 자음소군 //ㄹ//나 //ㄷ//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지역어나 방언에 따라 //ㄹ//가 탈락하기도 하고 //ㄱ//나 //ㄴ//가 탈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통합하는 어미초의 자음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ㄹ//가 탈락하기도 하고 //ㄱ//나 //ㄴ//가 탈락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늑-고//와 //늑-지// (老)의 경우, 서남경남지역어를 제외한 동남방언에서는, /늑꼬/와 /늑찌/에서 보듯이, //ㄱ//가 탈락하고, 서남경남지역어를 포함한 서남방언에서는, /늑꼬/와 /늑찌/에서 보듯이, //ㄹ//가 탈락한다. 이와는 달리, 대체로 중부방언에서는, /늑꼬/와 /늑찌/에서 보듯이, 어미초의 자음소가 //ㄱ//이면 //ㄱ//가 탈락하고 어미초의 자음소가 //ㄷ,ㅅ,ㄴ,ㅈ//이면 //ㄹ//가 탈락한다.²¹⁾ 이러한 현상의 분포도를 보이면 <지도 6>과 같다.



<지도 6>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사실은 어간 //늑-// (老)에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어간말의 //ㄱ//가 탈락하는 현상은 서북방언에도 있으며 //ㄹ//가 탈락하는 현상은 동북방언에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대각선 양 끝 방언에 그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실현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신라가 고구려를 정복한 뒤 그곳에 거주하던 옛 고구려 주민들이 신라말을 배울 때 그러한 음운현상도 배웠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에 정복된 백제 주민도 처음에 신라말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을 텐데 그 지역인 서남방언에서는 그 경우에 어간말 //ㄹ//가 탈락된다.

21) 이에 대해서는 최명옥(2001: 121-22, 124-25)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제시된 설명은 합당하지 않다.

다시 <지도 6>을 보기로 하자. <지도 6>에서 어간말 //ㄹ//가 탈락되는 지역 즉, //ㄱ//가 실현되는 K 지역은 전남방언 지역이 제일 넓고 차차 북상(北上)하다가 경기도 지역에 이르면 어미초의 자음소가 //ㄱ//이면 //ㄱ//가 탈락하고 어미초의 자음소가 //ㄷ, ㅌ, ㄴ, ㅈ//이면 //ㄹ//가 탈락하는 일종의 전이지역이 된다. 그리고 K 지역은 그 전이지역을 사이에 두고 충북지역과 황해도 남부지역을 거쳐서 동북(東北)으로 올라가면 다시 넓어진다. 그러다가 함경남도 <원산>만을 끼고 잠시 좁아졌다가 동북방언 지역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K 지역은 서남방언에서 대각선으로 동북방언까지 연속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어간말 //ㄱ//가 탈락되는 지역 즉, //ㄹ//가 실현되는 L 지역은, K 지역인 서남경남 지역을 제외하면,²²⁾ 동남방언 지역에서 서북방언 지역으로 진행하다가 K 지역인 충북 지역에서 차단되고 다시 경기 지역에서 전이지역으로 된다. 그리고 다시 황해도 남부지역에서 K 지역으로 차단되었다가 서북방언 지역에서 L 지역으로 바뀐다.

어간말 자음소군이 //ㄹ//인 경우에도, <지도 7>에서 보듯이,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ㄹ//가 탈락하고 //ㄴ//가 실현되는 지역과 //ㄷ//가 탈락하고 //ㄹ//가 실현되는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의 분포는 <지도 7>에서 //ㄱ//가 실현되는 지역과 //ㄹ//가 실현되는 지역의 분포와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ㄱ//나 //ㄷ//가 실현되는 지역은 중간에 차단되는 지역이 없이 연속적인데 반하여 //ㄹ//가 실현되는 지역은 중간에 차단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지리방언론의 관점에서는 원래 L 지역이 연속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K나 P 지역이 중간을 뚫고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동남방언 지역만이 L 지역이었고 나머지는 K나 P 지역이었는데,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인 L 지역의 화자들 즉, 동남방언 화자들이 서북방언 지역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후에 두 방언의 접촉과 간섭이 진행되어 그 지역이 L 지역으로 되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삼국 중에서 신라어만이 성조언어이고 고구려어와 백제어는 음장언어라는 점에서 두 번째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백제 지역어였던 서남방언과 고구려 지역어였던 충북지역어와 황해도 남부지역어가 동일하게, //ㄱ//와 //ㄷ//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어를 포함하는 음장방언은, 신라어인 성조방언과는 달리, 어간말 자음소군 //ㄹ//과 //ㄹ//에서 //ㄹ//를 탈락시키는 음운과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음운과정은 이미 통일 신라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서북방언이, 동남방언과 동일하게 어간말 자음소군 //ㄹ//과 //ㄹ//에서 //ㄱ//와 //ㄷ//를 탈락시키게 된 것은 음장방언 속에 성조방언인 동남방언이 포함된 다음 오랫동안 두 방언이 접촉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어간말 자음소군 단순화에서 음장방언이 성조방언의 음운과정을 가지게 된 것은 포함된 성조방언 화자 집단이 음장방언 화자 집단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22) 다만 서남경남방언은 성조방언인데도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ㄹ//가 탈락된다. 그것은 서남경남방언이 전남방언과 접촉하여 전남방언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서남경남방언이 전남방언과 동일하게 15세기 문헌어 //ㅍ리(蠅), 폴(臂), 뽕-(踏), 뽕-(淸)// 등에 대하여 //포리, 폴, 뽕-, 뽕-//의 대응을 보인다가나 표준어의 이유표시 연결어미 //－으니까//에 대하여 //－응께(네)//의 대응을 보이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최명옥(1992: 68-70)를 참조하기 바람.

4. 결론

이기문 외(1991: 128)에 게재된 전국 운소지도에 산재되어 있는 무성조·무음장 지역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대각선의 양 끝에 있는 음장방언인 서북방언과 성조방언인 동북방언이 왜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어간말 자음소군 //ㄹ//과 //ㄷ// 중 //ㄹ//을 실현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서북방언 속에 동남방언이 포함된 다음에 일어난 접촉과 간섭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하여 왔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에서는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까지에 영토확장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서북방언은 약 2세기 동안 발해와의 국경지대에 배치된 신라의 주둔군과 그에 소속된 신라 민간인들의 말과 점령지와 그 인근에 거주하거나 국경을 넘어온 고구려 사람들의 말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거기에 고려와 조선시대에 영토확장과 그에 따른 사민정책으로 하삼도(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사람들이 서북면으로 이주되면서 그들의 말이 서북방언에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평안도에 서북방언이 형성되기 전에 발해와의 국경지대에는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접촉과 간섭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1에서는 제주방언이 무성조·무음장 방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장방언인 제주방언에 성조방언인 동남방언이 포함되어 두 방언이 접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 성조방언 화자 집단이 음장방언 화자 집단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조’와 ‘음장’이 중화됨으로써 무성조·무음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접하고 있는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접촉을 연구한 결과는 음장방언이 성조방언으로 되거나 음장방언은 그대로 있되 성조가 음성적으로 추가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이 접촉하여 무성조·무음장 방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가설로 제기되었다. 하나는 성조방언과 음장방언 중 어느 한 방언이 다른 방언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포함되는 방언의 화자 집단이 포함하는 방언의 화자 집단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북방언 지역에 무성조·무음장 방언이 집중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것은 제주방언이 무성조·무음장 방언이 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곳이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접촉 지역이었으며 성조방언 화자 집단이 음장방언 화자 집단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에 ‘성조’와 ‘음장’이 중화된 결과 서북방언 지역에 무성조·무음장 지역(또는 방언)이 집중적으로 산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2에서는 //ㄹ//과 //ㄷ//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에서 //ㄹ//을 실현하는 것도 성조방언인 동남방언과 음장방언인 서북방언의 접촉과 간섭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 접촉과 간섭도 3.1에서 운소의 접촉과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지도 6>과 <지도 7>에서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말 자음소군 중에서 //ㄱ//나 //ㄷ//가 실현되는 지역이 성조방언인 동남방언(서남경남방언 제외)을 제외하면, 서남방언 지역에서 옛 고구려 지역이었던 충북지역과 황해도 남부지역을 거쳐서 동북방언 지역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장방언인 서북방언도 어간말 //ㄹ//과 //ㄷ// 중에서 //ㄱ//나 //ㄷ//를 실현하던 방언이었음을 말해준다. 그 방언에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조방언인 동남방언이 들어가서 접촉하는 동안에 서북방언도 자음소군 중에서 /ㄹ/를 실현하게 되었고 보았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13), 전국지역어 조사보고서.
- 김영배(1997), 증보 평안방언연구, 서울: 태학사.
- 송호정 외 4명(2012), 아틀라스 한국사, 서울: (주)사계절출판사.
- 신서원 편집부 편(1991), 《북역 고려사》 1~11(박시형·홍희유 역(1962), 《고려사》, 사회과학원.)
- 이기갑 외 4명(1997), 전남방언사전, 전라남도.
- 이기백(1991), 《(新修版)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 이익섭 외 4명(2008), 한국언어지도, 경기 과주: 태학사.
- 이병근(1969), “황간지역어의 음운”, 논문집(인문·사회) 1, 서울대 교양과정부. 27-54.
- 이흥직(1975), 완벽 국사대사전, 서울: 백만사.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민족문화총서4, 대구: 영남대출판부.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대구: 영남대출판부.
- 최명옥(1992), “경상남북도간의 방언분화 연구”, 애산학보 13. 53-103.
- 최명옥(2001), “현대 한국어의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대조방언학적 연구”, 세계 속의 조선어 (한국어)대비연구(중국: 로녕민족출판사). 110-132.
- 최명옥(2005), “국어방언학의 체계”, 방언학 1. 35-72.
- 최명옥(2015), 한국어의 방언, 석학인문강좌 58, 서울: 세창출판사.
- 최명옥(2017), “<경주>지역어: 신라어로부터 현대 한국어까지”, 강석근 편, 경주말의 보존과 활용 2. 15-43.
- 최명옥(2019), “중세 이전의 한국어는 성조언어였는가?”, 국어학 90. 3-4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95), 한국방언자료집 1-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 한영순(1967), 조선어 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대화(2007), 황해도방언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후쿠이(福井 玲)(1998), “전남 광양시 방언의 액센트 체계와 그 지리적 분포에 대하여”, 국어학 31. 271-293.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Manual
for Ethical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류동춘 · 정원섭 · 이승희 · 김영훈 · 김영심

한국인문학총연합회
The Humanities Associ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4. 출판 윤리

4.1. 저자를 위한 논문 작성과 투고 지침

(1) 저자의 기본 책무

- 저자는 자신이 쓴 논문의 내용, 수행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저자는 자신의 연구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또한 저작권 등 관련 법규를 따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저자는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자는 다른 곳에 발표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되,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을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정해진 시간 이전에는 학술지에 투고한 내용을 다른 매체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소속 기관이나 연구 지원 기관에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 저자는 편집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저자는 논문이 투고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면 이를 편집인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 저자는 편집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 규정, 방법, 소프트웨어, 연구노트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자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에도 편집인 혹은 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오류나 그 밖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편집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논문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저자는 필요한 경우,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 과정을 밝혀야 한다.
- 저자는 인문사회분야에서도 통계, 실험, 면접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충실히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논문의 근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 또는 편집인이 관련 근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의 이해 관계, 연구 수행 과정,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항을 연구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밝힘으로써 편집인 및 독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연구 성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3) 연구 성과의 정직성

- 저자는 한 편으로 실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분할하

여 출판하여서는 안 된다.

4.2. 편집인과 논문 심사자를 위한 지침

(1) 편집인의 기본 책무

- 편집인은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출판되는 학술지의 수준과 출판 윤리를 담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 투고 규정

(투고자에 대해 연구윤리 준수 여부 자기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방법 및 절차

(4) 편집위원 역할 및 명단 (편집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지 여부)

(5) 심사위원의 책무: 심사의 기밀 준수 의무 및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 보호 의무

(필요한 경우 심사 위원에 대해 위의 두 가지 의무 준수에 대한 준수 서약을 받을 수도 있다.)

(6)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의 공개 여부 및 시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할 수 있지만, 영구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침은 사전에 밝혀야 한다.)

(7) 심사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 판정 기준

(8)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소원 절차

(9)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절차

- 편집인은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편집위원의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편집인은 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모든 2차적 요구를 배제하여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학술지 내에서 영업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편집 및 심사 과정과 분리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이 논문 게재 여부나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자들이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편집인이 부당한 편집 행위를 했든지, 편집인의 결정이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반하는 것이 판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학술지 발행 기관에서 학술지 내용을 문제 삼아 편집인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 편집인은 공정한 심사 제도를 확립·운영해야 한다.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인의 책임이다.

-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때부터 학술지가 발행된 이후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혹은 윤리적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술지 발행 이후에도 논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정·설명·철회·사과문을 즉시 게재함으로써 학술지의 출판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
- 편집인은 연구윤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그 절차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편집이나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심사자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
- 편집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가 있을 경우, 연구자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

위원을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책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2) 심사자의 기본 책무

-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심사를 수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즉시 논문을 반송하고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심사자는 심사 규정과 기한을 준수하여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학문 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원고의 내용이나 심사 과정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반드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심사 결과에 대해 피심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한국어언문학]

심사절차 및 심사규정

- 1)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술활동이 뛰어난 자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심사 의견서 및 심사기준표 양식을 보낸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와 심사 기준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평가란에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택일하고, 심사 의견을 상술하여 심사기준표에 평점을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 5) 심사가 끝나면 게재가능은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불가는 0점을 부여하고, 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평균점수가 3점이면 게재
 - ② 2점 이상 3점 미만이면 수정 후 게재
 - ③ 1점 이상 2점 미만이면 수정 후 다른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사 위촉, 단 ‘재심사 위촉’ 여부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의함
 - ④ 평균점수가 1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
- 6) 논문의 게재 여부와 게재 논문의 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투고된 논문을 심사 시,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사적인 친분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를 통해 저자에게 전달한다.

[중국현대문학]

제6조 (논문심사)

논문 각 편당 3인 혹은 5인의 논문심사위원을 둔다.

심사 대상 논문은 중국 현대문학과 문화, 현대한중비교문학, 그리고 관련분야 등에 관한 연구논문 및 번역논문으로서 타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만약 타 학회지나 학위논문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사실이 차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소급해서 게재를 무효로 하고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타 전공 논문이라 하더라도 중국현대문학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논문심사 요지 및 평가 내용은 본 학회에서 규정한 투고 논문 심사평가서에 기록한다.

심사 내용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게재의 적합성 판정이다. 각 심사위원들은 해당 논문이 당호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 심사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적합'을 판정하여야 해당논문은 당호에 게재될 자격을 얻게 된다. 두 번째 부분은 항목별 평가이다. 심사항

목은 ‘문제의식은 독창적인가?’, ‘연구방법은 참신한가?’, ‘형식은 적합한가?’, ‘내용은 충분한가’, ‘분량은 적절한가?’, ‘논지는 일관적/합리적인가?’, ‘근거 제시는 충실한가?’, ‘학문적/실용적 가치는 있는가? 등 여덟 개로 나뉜다. 심사위원은 각 항목마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혹은 ‘미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심사위원 세 명이 평가한 항목 합계 24개 가운데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이 10개 이상이면 당호 게재가 보류된다. 세 번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심사위원 및 수정 요망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다.

논문심사위원들로부터 각 해당 논문을 심사한 결과를 모두 보고 받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관한 최종 판정을 한 후,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송부할 논문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의 성명과 직함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송한다. 게재 부적합이나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수정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필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수정하고 그 수정한 내역을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필자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필자의 신상을 상호 노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편집시한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직접적인 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필자가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고의 게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